

한중인문학연구

79

한중인문학회

한중인문학연구 제79집 목차

■ 기획 논문

기획 주제-한중 언어·역사의 교섭과 길항

소뢰 · 김도영 · 청학서에 나타난 만주문자 피휘(避諱)의 한글 전사	1
포 연 · 한국어 부사 ‘다’와 중국어 부사 ‘都’의 의미 확장 양상 대조 연구	27
孫 霽 · 译介与阐述：韩国学者丁来东的‘鲁迅论’	47

■ 일반 논문

전패영 · 중국 대학 내 한국어 번역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61
마영리 · 현대 한국어 ‘X+상(上)’, ‘X+하(下)’ 구성의 의미와 문법	91
정혜영 · 曹家瑜 · 식민주의와 인종의 경계	119
오 명 · 1980년대 북한 소설 중의 중국지원군 서사 연구	147
崔 婷 · 淸州古印刷博物館 소장 『唐宋八家詩選』 詩作選定에 대한 일고찰	171
김홍매 · 崔昭 『荊庵文略』의 글쓰기 양상	199
金哲俊 · 赵光范 · 中国学界朝鲜语研究现状与展望	223
吳玉娇 · 韩梅 · 社会进化论视角下韩国开化期报纸『独立新闻』中的清、日形象比较	247

청학서에 나타난 만주문자 피휘(避諱)의 한글 전사

소뢰* · 김도영**

국문요약

피휘(避諱)는 유교 특색이 담겨 있는 문화 현상이다. 청나라를 통치했었던 만주족은 기존의 피휘 제도를 잘 계승했을 뿐 아니라, 그 범위를 한자에서 만주 문자까지 확대하였다. 청나라 피휘 규정에 따르면, 12명의 황제 중 康熙帝의 휘자 玄燁 두 글자, 雍正帝의 휘자 胤禛 두 글자, 乾隆帝의 휘자 弘曆 두 글자, 嘉慶帝의 휘자 永琰 첫 번째 글자, 道光帝의 휘자 旻寧 두 글자, 咸豐帝의 휘자 奕詝 두 번째 글자, 同治帝의 휘자 載淳 두 번째 글자, 光緒帝의 휘자 載湉 두 번째 글자 및 孔子의 휘자 丘 등 총 13자의 만문 표기는 반드시 피휘해야 한다. 조선 청학서 『漢清文鑿』의 한글 전사 부분에는 玄燁, 胤禛, 弘曆 6자의 만문 피휘가 나타나는데, “한 여 연 전 흥 레가 바로 그 예시다. 본고에서는 만문 피휘와 이의 한글 전사를 정리하여 분류 및 분석하였다.

주제어 만자 접촉, 만문 피휘, 청학서, 한글 전사, 한청문감

〈목차〉

1. 서론
2. 만주 문자의 피휘
3. 조선의 만문 피휘
4. 결론

* 제1저자: 중국 북경어언대학교 국제중문교육실천및연구기지 조교수

** 교신저자: 중국 북경어언대학교 외국어학부 번역학과 박사과정

1. 서론

이른바 피휘(避諱)는 군주 혹은 덕행이 뛰어난 사람, 연장자, 지위가 높은 사람, 자신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등 존경을 표현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과 같은 글자의 사용을 기피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주대(周代)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이러한 예속은 진한(秦漢) 시대에 형성되었으며, 당송(唐宋) 시대에 들어선 후에는 크게 성행하였고, 청나라 말기까지 2천 년간 그 명맥을 유지하였다. 피휘는 유교 사상적 특징이 잘 드러나는 문화 현상으로, 중국을 넘어 한국·일본·베트남 등 여러 유교 문화권 국가에도 널리 퍼져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거란족, 탕구트족, 여진족, 몽골족 등 오랜 시간 한족(漢族)과 교류한 여러 북방 유목 민족에서도 피휘 제도를 사용한 역사적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羅盛吉(2014:17)은 몽골족이 중원을 통치하기 전에 피휘 관념을 이미 지니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확실한 것은 만주족이 중원에 입성한 후 실시한 청대(清代) 피휘 제도는 한족(漢族)의 피휘 제도를 계승한 것이라는 점이다.

청대에는 한문과 만문(滿文)이 공용어였기 때문에 표음 문자인 만문에도 글자의 형태나 음을 변경하여 황제의 휘자(諱字)를 피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羅盛吉(2014), 李易航(2019), 春花(2022) 등을 만문 관련 선행 연구자로 뽑을 수 있는데, 羅盛吉(2014)은 청대의 여러 시기에 나타난 문헌과 비문의 만문 피휘를 포괄적으로 연구하였고, 李易航(2019)은 민간에서 간행한 『初學滿文指蒙詞』과 공식 간행물인 『欽定清漢對音字式』에 나타난 만문 피휘의 차이를 고찰하였으며, 春花(2022)는 청대 한문과 만문의 피휘를 함께 정리한 후 만문 피휘의 유형을 요약하였다.

청학서를 정리하던 중, 만문의 한글 전사 부분에서 원문의 피휘 형태를 그대로 따른 자형이 많이 나타난 점을 필자가 발견하였다. 국내에서는 성백인(1984)이 『漢清文鑑』 등의 청학서에서 만문 ‘ii’와 ‘운미 ㅅ에 점 첨가’ 등의 특이한 철자와 이에 대응하는 한글 전사를 발견했으나, 이러한 철자 방식의 목적을 설명하지 못하였다. 또한 岸田文隆(1994:53)는 한글 ‘레’가 전사한 만문 ‘iii’는 피휘일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지만, 이를 제외한 다른 한글 전사에 대한 연구와 발굴

을 진행하지 않았고, 만문 피휘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한국 학계에서 이어 가지도 않았다. 그리하여 본고는 만문 피휘의 한글 전사 방법을 고찰하고 이를 밝혀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다.

2. 만주 문자의 피휘

1) 청나라의 피휘

서주(西周) 시대 중국에는 황제의 이름을 피휘하는 제도가 이미 존재하였고, 송대(宋代)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제도가 더욱 성행하였다. 청대에는 청태조와 청태종이 만주어 이름을 썼으며, 원대(元代)의 제도를 본받아 한 글자만을 피휘하는 방식이 아닌, 황제 이름 전체를 피휘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청의 3대 황제 順治 시기에는 청태조와 청태종이 사용했던 황제 이름 전체를 피휘하는 풍습을 그대로 답습했을 뿐 아니라, 특정 부족을 부르던 명칭인 胡, 虜, 夷, 狄, 戎, 蠻 등의 글자도 피휘하였다. 順治 원년(1644)에 夷자를 피휘하기 위해 四夷館을 四譯館으로 개칭한 것이 이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예시다. 康熙帝는 즉위 후 일정 범위 내에서 황제의 이름을 피휘하는 제도를 실시하였고, 雍正 원년(1723)에 이르러 청나라에서는 황제의 한자 이름을 피휘하는 것 외에도 만주어 이름을 피휘하는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청대 초기 康熙帝와 雍正帝 집권기 때 만주어로 편찬한 『四書』와 『五經』에는 만주어 피휘가 나타나지 않았다. 황제 이름의 만문 피휘는 雍正10년(1732)에 간행된 『欽定大清會典』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乾隆13년(1748)에 이르러서 피휘 제도는 또 다시 강조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기록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我朝凡遇列祖廟諱，清漢字樣概行敬避，此亦臣子尊崇敬謹之道。但漢字較多，避寫尚易。清字無幾，如同漢字一體避寫，難得本音之字。不得不另用音聲相似者，以至去本音太遠，不能成文。且古有二名不偏諱之義，嗣後繕寫清字，如遇人名，以及二字相連者，仍行避寫外，若獨遇一字，仍用原字，不必避寫。(『大清高宗純皇帝實錄』卷312)

[국문번역] 우리나라에서는 만문이든 한문이든 상관없이 항상 조상의 이름을 피휘하는데, 이는 신자(臣子)로서 조상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허나 글자 수가 많은 한문을 피휘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지만, 글자 수가 많지 않은 만문을 피휘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작업이 아니다. 만문 피휘 시 그 글자와 동일한 본음을 지니고 있는 다른 글자를 찾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음이 유사한 글자로 이를 대체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발음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 글의 맥락이 통하지 않게 된다. 옛말에 이르기를 ‘두 글자 이름 중 한 글자가 단독으로 쓰일 때에는 피휘하지 않는다(二名不偏諱)’고 하였다. 이러한 예속으로 인해 후세 사람들은 두 글자가 연결되어 있는 만문의 인명을 필사할 때에는 글자 전체를 피휘하고, 그 중 어느 한 글자만을 필사할 때에는 원래 글자로 기재하며 피휘하지 않게 되었다.¹⁾

앞서 언급했듯이 만문 피휘에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첫째, 만주어로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의 완전한 형태를 피휘하며, 이름 내 각각 음절은 피휘하지 않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順治帝 만문 휘자 ‘fulin(福臨)’은 피휘하고, ‘fu’나 ‘lin’ 각 음절은 피휘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 한자로 이름을 지을 때, 그 한자음의 독립된 음절은 피휘하고, 다른 단어와 조합된 음절은 피휘하지 않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雍正帝 만문 휘자 in jen(胤禛)의 in과 jen 두 음절이 각각 독립적인 어절이기 때문에 피휘하고, en jen(現成)이라는 단어에서 jen 또한 독립적인 어절이기 때문에 역시나 피휘하지만, jendu(暗地)라는 단어 내 jen은 독립적 어절이 아니기 때문에 피휘하지 않는 것이다.

청말기까지 피휘 제도는 여전히 시행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마지막 황제로 유명한 宣統帝의 한자 이름인 溥儀를 피휘하기 위해 20세기 초의 정치인 唐紹儀는 한때 唐紹怡로 자신의 이름을 바꾸었고, 강소성의 지역인 儀征縣은 揚子縣이라는 다른 명칭으로 불렸다. 뿐만 아니라 관저의 두 번째 문을 뜻하는 단어인 儀門을 당시 사람들은 宜門으로 고쳐 썼다. 春花(2022:24)는 溥儀의 만문 휘자 뒷글자인 i를 ii로 피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와 관련된 고서적 문헌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규범적인 만문 피휘 용법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 이렇게 청대의 만문 피휘 제도는 약 200년의 역사를 유지하였다.

1) 본고 필자의 번역.

2) 만문 피휘의 용례

(1) 淸 太祖 · 太宗 · 世祖

乾隆37년(1772) 武英殿에서 출간한 『欽定淸漢對音字式』은 황제 만문 휘자의 피휘 방법을 명료하게 규범화한 서적이다. 光緒16년(1890) 판본까지 합산하면, 이 책은 총 8 명의 황제, 즉 청초 3명과 청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황제들의 만문 피휘법을 규정하였다.

청 초기 3명의 황제 즉 태조 nurhaci(努爾哈赤), 태종 hūng taiji(皇太極), 세조 順治帝 fulin(福臨)의 이름은 한문이 아닌 만문 어휘로 지어졌다. 그러므로 이들의 한자 이름이 아닌, 만문 이름에서 규범화되지 않은 피휘 형식이 나타났다.

첫째, 覆黃(노란 바탕색으로 칠하기): 『滿洲實錄』에서 태조의 만문 이름 nurhaci를 노란 바탕색으로 칠하였지만, 한문 부분은 전혀 칠하지 않았다.

둘째, 變音(음 바꾸기): 『滿洲實錄』에서 태종의 만문 이름 hūng taiji를 hong taiji로 피휘한 것 등이 그 예시다.

셋째, 禁用(사용 금지하기): 후세의 사람 이름, 심지어 사전에서도 nurhaci, fulin 등의 황제 만문 휘자가 전혀 나타나지 않은 점을 통해 당시에 이러한 만문 휘자의 사용을 금지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2) 淸 聖祖 康熙帝

康熙帝의 휘자 玄燁의 만문 hiowan yei는 siowan ye로 피휘해야 한다. 명·청 중국어의 매우 중요한 음성 변화 중 하나는 바로 尖團合流, 즉 첨음(尖音)과 단음(團音)의 융합 현상이다. 『圓音正考』(1743)의 서문에는 “試取三十六字母審之, 隸‘見溪群曉匣’五母者屬團, 隸‘精清從心邪’五母者屬尖”라는 기록이 있는데, 즉 [tsi][tshɨ][si]는 첨음이고 [ki][khi][xi]는 단음이라는 의미다. 명말 청초에 단음이 [tci][tci][thɨ]로 읽히는 구개음화 현상이 먼저 나타났고, 청대에는 첨음도 구개음화되기 시작했다. 중화민국 시기에 들어선 후에는 『國音常用字匯』(1932) 등과 같은 공식 자료에서 첨음과 단음을 융합시킨 [tc][tchɨ][c]를

독자적인 음운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청대의 발음 규범에 따르면 玄의 발음은 단음 [xyan]²⁾이며 이의 만문 철자는 hiowan[xyan]이었다. 그러나 청대 초기에 단음의 구개음화 현상이 나타나 민간에서는 흔히 [cyan]으로 읽었다. 만문에서 침음 siowan으로 단음 hiowan을 피휘한 것을 근거로 18세기에 이미 침음의 구개음화 현상이 존재했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고, 침음의 구개음화와 단음의 구개음화가 융합되는 경향 또한 이미 나타났었다는 것을 알 수도 있다. 이로써 피휘 과정에서 두 개의 음이 서로 대체되는 원인을 규명할 수 있게 되었다.

燁은 명·청대에 이미 중고음 [iæp]에서 입성(入聲)이 없는 [ie]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만주어에는 [e]음이 없고 [e]를 기록할 수 있는 자모 또한 없기 때문에 만문에서는 보통 [ie]운(韻)을 ye[jə] 또는 yei[jə]로 기록하였다. 강희제가 yei로 휘자를 택하자 [ie]의 또 다른 철자인 ye가 자연스레 피휘 방식이 되었다.

(3) 清世宗 雍正帝

雍正帝의 휘자 胤禛의 만문 ^oin jen³⁾은 yen jeng으로 피휘해야 한다. 명·청 중국어에서 胤은 운부(韻部) [in]에 속하며, 그의 만문 철자는 영성모(零聲母) 음절 ^oin이었다. 그러나 王力(2014:397)에 의하면 명·청 시기에 東鐘과 庚青 두 개의 운, 眞과 文의 두 개의 운이 각각 합쳐졌기 때문에 [in, un, yn, iŋ, uŋ, yŋ]이 실제로 [iən, uən, yən, iəŋ, uəŋ, yəŋ]로 읽히는 현상, 즉 운복(韻腹)이 [ə]로 구성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현대 북경방언에 있는 [ə]음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대에 [in]을 [iən]로 읽고 만문 ^oin[in]을 yen[jən]으로 대체한 것은 발음의 유사성 뿐만 아니라 당시 북경말의 구어적인 면모가 반영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만문 jen 대신 jeng, 즉 [-ŋ] 대신 [-ŋ]을 사용한 현상은 만주어가 중국어를 빌려 쓰면서 나타난 음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초기 만주어의 중국어 차용의 한 가지 특징은 [-ŋ]를 [-n]으로 고쳐 쓴다는 것인데, 그 결과 많은 한자어에서

2) 각 시대의 중국 한자음 음가는 王力(2014)에 의하여 재구한 것이다.

3) ‘^o’는 영성모의 표기다.

[-ŋ]와 [-n]이 뒤섞이는 현상이 나타났다. 즉 이로 인해 만주어 jen[tʃən]을 피휘할 때 jeng[tʃəŋ]으로 쓰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또 『御制增訂清文鑒』과 『鈔本初學滿文指蒙詞』에서는 jen을 피휘할 때 점이 찍힌 jen으로 표기했는데, 이는 글자의 음을 전혀 변화시키지 않고, 글자에 한 획을 더한, 즉 글자를 변형시킨 피휘 방법이다.

(4) 清 高宗 乾隆帝

乾隆帝의 휘자 弘曆의 만문 hung li는 hūng lii로 피휘해야 한다. 만주어 a[a], e[ə], i[i], o[ɔ], u[u], ū[ʊ] 6개 단모음 중 u와 ū의 발음은 상당히 비슷하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烏拉熙春(1990:57)은 ū를 u의 변이음으로 간주하였다. 만문에서 한문 [u]운의 발음을 표기할 때 u 뿐만 아니라 ū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자음 [ku][kʰu][xu]를 각각 만문 gu[ku] ku[kʰu] hū[χʊ]로 표기할 수 있다. 乾隆帝 휘자 첫 글자의 만문 발음은 hung[huŋ] 또는 hūng[χʊŋ]으로 표기할 수 있는데, 일상 생활에서 자주 쓰던 hūng을 사용하지 못하여 곤란함을 겪을 백성들을 생각했던 乾隆帝는 자신의 휘자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소 잘 쓰지 않는 hung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였다.

만문 자모표 십이자두(十二字頭)의 제2자두는 -i계 이중모음, 즉 ai, ei, ii, oi, ui, ui 등 6개의 이중모음이다. 이 중 ii는 i를 두 번 읽거나 장음으로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조합된 글자일 뿐이다. 乾隆帝 휘자의 둘째 글자 曆[li] 본래의 만문 철자인 li가 피휘할 때 lii로 바뀌는 것은 ii를 활용한 것이다.

(5) 清 仁宗 嘉慶帝

嘉慶帝의 휘자 永琰의 첫 글자인 만문 yung은 yong으로 피휘해야 한다. 포음문자를 찰구운(撮口韻) [y]계 모음으로 발음 표기하는 것은 중국어 학계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논쟁이다. 예를 들어 당대의 중국어 로마자 표기인 漢語拼音方案에서는 雍[yŋ]을 yong으로 표기하는데, 王力(1979)는 ong의 표기를 반대하며, iung이나 üng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장했다. 허나 찰구자의

모음을 io-나 iu-로 발음하는 것과 상관없이, 중국인들은 이를 모두 같은 소리로 받아들이며, 의미의 차이를 인지할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만문에서 [yŋ]의 발음을 표기할 때 영성모 글자는 yung으로, 성모가 있는 글자는 -iong로 적는데, o와 u 어떤 것을 적든 관계없이, 이는 단순히 쓰는 방법의 차이일 뿐이다. 그러나 猷蠢(어리석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만문 yong을 황제의 이름에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yŋ]의 규범에 맞는 철자인 yung이 황제의 휘자가 되었고, yong이 피휘 시 사용되는 글자가 되었다.

또한 『鈔本初學滿文指蒙誥』에는 嘉慶帝의 휘자 둘째 글자 琰의 만문 yan을 yan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기재하고 있으며, 安燮成(1993:1146)의 사례에도 같은 내용이 있으나, 이러한 용례가 나타난 고서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문 피휘의 용례에 이를 넣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다.

(6) 淸 宣宗 · 文宗 · 穆宗 · 德宗

道光帝의 휘자 旻寧의 만문 min ning은 min niyeng으로 피휘해야 한다. min의 n에 점을 찍은 자형은 옹정제의 휘자 jen의 피휘 방식과 동일하다. ning을 niyeng으로 피휘하는 것은 옹정제의 휘자 in을 yen으로 피휘하는 방식과 같다. 즉 중국어 [iŋ]을 [iəŋ]으로 읽고, 이를 따라 만문도 -iyeng로 표기하는 것이다.

咸豐帝의 휘자 奕訢의 만문 둘째 글자인 ju는 ju로 피휘해야 한다. 이는 건륭제 휘자 hung의 피휘 방식, 즉 발음이 비슷한 모음으로 교체하는 방식이다. 첫 글자 奕의 만문 ^oi는 피휘하지 않는다.

同治帝의 휘자 載淳의 만문 둘째 글자인 šun은 šuwen으로 피휘해야 한다. 이는 雍正帝 휘자 in의 피휘 방식, 즉 중국어 [un]을 [uən]으로 읽고 만문도 따라서 -uwen으로 표기하는 방식이다. 첫 글자 載의 만문 dzai는 피휘하지 않는다.

光緒帝의 휘자 載湉의 만문 둘째 글자인 tiyan은 tiyan으로 피휘해야 한다. 이는 雍正帝 휘자 jen의 피휘 방식, 즉 -n에 점을 더하는 방식과 같다. 첫 글자

載의 만문 dzai는 피휘하지 않는다.

(7) 다른 피휘법

황제의 휘자 외에도, 『欽定清漢對音字式』에서는 孔子의 휘자인 丘의 만문 kio[kʰiu]를 kiyeo[kʰjəu]로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御製增訂清文鑒』 등 공식 간행된 고적에는 이러한 피휘의 용례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으로 모두 열세 글자의 피휘 방법을 알아보았다.

이 외에도, 安雙成(1993:1146)은 『清代帝諱表』에서 康熙帝 휘자 ye(i)를 yen으로, 嘉慶帝 휘자 yung을 yūng으로, 道光帝 휘자 min을 miyen으로, 咸豐帝 휘자 i를 ii로 대체하는 또 다른 피휘 방법을 제시하였지만, 이 네 예시 모두 사료적 증거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규범적인 만문 피휘 용법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3) 만문 피휘자의 종류

王彥坤(1997:3-4)은 한문의 피휘 방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①作某: 휘자를 모(某)자로 표기하기
- ②標諱: 휘자를 휘(諱)자로 표기하기
- ③省闕: 휘자를 생략하거나 비워 두기
- ④代字: 휘자를 소리나 뜻이 비슷한 글자로 대체하기
- ⑤改稱: 휘자를 이음동의어로 대체하기
- ⑥缺筆: 휘자를 한두 획 생략해서 적기
- ⑦變體: 휘자를 변형하여 적기
- ⑧更讀: 휘자를 다른 발음으로 읽기
- ⑨曲說: 휘자를 완곡하게 풀어서 설명하기
- ⑩填諱: 휘자를 타인에게 대신 써 달라고 부탁하기

그러나 표음문자인 만문의 변형 기능이 표의문자인 한자만큼 풍부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만주어 피휘 자형에 대해 春花(2022:29)는 近音代替法(근사음으로 대체하기)과 增音·減音法(음을 더하기 또는 음을 생략하기)의 두

가지로 정리하였다. 전자는 hiowan 대신 siowan을 사용하는 등 비슷한 발음의 자모나 음절을 사용하는 것을 가리키고, 후자는 in jen 대신 ing jeng 등과 같이 원래의 음절에 자모를 더하거나 빼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실제 사용 중 받음 뿐만 아니라 자형 상의 변화 또한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고는 이를 變音避諱法과 變形避諱法 두 가지로 나누었고, 變音避諱法을 또 다시 近音避諱法, 增音避諱法, 減音避諱法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變形避諱法은 글자의 소리에 어떠한 변화를 주지 않고 글자에 획을 더해 자형을 변화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유형에는 운미 n에 점을 추가하여 만든 n 사용하기, 즉 jen, min, tiyan으로 jen, min, tiyan을 대체하는 세 가지 예시가 있다.

變音避諱法은 다른 발음의 음절을 사용하여 피휘하는 것을 말한다. 먼저 近音避諱法은 발음이 유사한 글자로 대체하는 피휘 방법인데, siowan, ing, jeng, hūng, jong, jū로 hiowan, in, jen, hung, yung, ju을 대체하는 6 가지의 예가 있다. 그 다음은 增音避諱法으로, 원래 글자에 자모나 음절을 추가하는 방법이다. lii, yen, niyeng, šuwen, kiyeo로 li, in, ning, šun, kio을 대체하는 5 가지 예시가 있다. 마지막으로 減音避諱法으로, 원래 글자에 있는 자모나 음절을 의도적으로 빼는 방법이다. ye로 yei를 피휘하는 하나의 예시가 존재한다.

하지만 본고는 두 가지 피휘 방법 모두 자형에 변화를 주었을 뿐이지 발음에는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어 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첨음 siowan으로 단음 hiowan을 피휘한 것은 사실 당시 첨음과 단음이 융합되고 있는 소리 변화 현상을 잘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첨음이나 단음으로 쓰든 관계없이, 첨음으로 읽는 것에 익숙한 화자는 첨음으로 읽고, 단음으로 읽는 것에 익숙한 화자는 단음으로 읽는 상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3. 조선의 만문 피휘

1) 청학서의 만문 피휘

최초로 조선이 청나라로부터 피휘의 사용을 요구받은 때는 강희18년(1679)이

다. 숙종4년(1678) 司憲府執義였던 金海一은 謝恩使書狀官의 신분으로 청나라를 방문했다. 그가 사신으로 북경을 다녀와서 기록한 『연행일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康熙十八年正月)十六日, 使首譯言及歲幣呈文於禮部正郎, 則答以事係重大, 俺不可受待, 數日宴時, 呈於尚書, 可也. 仍私問曰: 爾國奏聞文字中不諱玄字何也? 蓋皇帝姓名趙玄燁也. (『檀溪先生文集』 卷3:34)

[국문번역] 康熙18년 정월 16일, 우두머리 역관을 사신으로 보내 세폐에 관한 정문을 예부 정랑에게 올리면 되는 지 아뢰었는데, “아주 중요한 일이니 이를 내가 처리할 수는 없소.”라는 답변을 들었다. 며칠 후 식사 자리에서 상서에게 정문을 올리자 그는 이를 받아들였다. 허나 상서는 따로 개인적으로 “당신들 나라의 공문에서는 왜 玄 자를 피휘하지 않는 것이오? 황제 폐하의 존함이 趙玄燁이란 말이오!”라는 질문을 하였다.⁴⁾

尊周思明的 사상이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 있던 조선에는 중국 북방 이민족을 경멸하는 분위기가 만연하였고, 이로 인해 조선 왕조는 청나라 황제 이름의 피휘를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숙종 때 아래와 같은 기록이 있다.

(庚寅)領議政崔錫鼎, 以吏曹判書李寅燁差冬至使, 而名犯彼國, [寅燁之燁字, 與胡皇名玄燁之燁字同, 故云.] 事當改名, 而卿宰改名未安, 請改使任, 上允之. (『肅宗實錄』 卷四十四, 1706.08.05.)

[국문번역] 영의정 최석정이 이조 판서 이인엽을 동지사로 차출하였는데, 이름이 피국을 범하므로, [이인엽의 엽 자가 호황의 이름인 현엽(玄燁)의 엽 자와 같기 때문이다.] 마땅히 이름을 고쳐야 하겠으나, 경제가 이름을 고치는 것은 미안하다 하여 사신의 직임을 개차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⁵⁾

원래 李寅燁이 청나라에 파견되려 했으나 이름 중 燁이 청나라 황제의 휘자를 범했기 때문에 반드시 개명해야 했다. 그러나 숙종과 이인엽 모두 사람을 바

4) 본고 필자의 번역.

5)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 '숙종실록 44권'번역을 참고하였다.

뛰 사신으로 보낼지언정 절대 이름을 바꾸려 하지 않았다. 속종실록에 나타난 胡皇이란 말을 통해 당시 조선 조정이 청나라가 제시한 요구 사항을 등한시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嘉慶帝 집권기에 이르러서는 조선을 향한 청나라 황제의 이름 피휘 요구가 규범화되고 엄격해졌다. 순조 3년, 조선은 청나라의 禮部咨文을 받았다.

(北京禮部以諱名代寫咨文出送)聖祖仁皇帝聖諱: 上一字, 爲『書經』“德升聞”句內首一字, 應以“元”字恭代; 下一字, 左從火, 右從華, 應以“煜”字恭代. 世宗憲皇帝聖諱: 上一字, 爲『詩經』“永錫祚”句內第四字, 應以“允”字恭代; 下一字, 左從示右從眞, 應以“禎”字恭代. 高宗純皇帝聖諱: 上一字, 爲『易經』“含宏光大”句內第二字, 應以“宏”字恭代; 下一字, 爲『書經』“歷象日月星辰”句內首一字, 應以“歷”字恭代. 皇上御名: 上一字, 爲『易經』“有孚顒若”句內第三字, 應將頁字偏旁, 缺寫一撇一點; 下一字, 爲『書經』“宏璧琬琰在東序”句內第四字, 應將右旁第二火字改寫又字. 至聖諱, 加有偏旁之字, 無論音義是否相諧, 俱敬缺一筆, 相應知照. (『純祖實錄』卷五, 1803.11.29.)

[국문번역] (북경의 예부에서 휘명은 대신 쓰라는 자문을 내보냈는데, 거기에 이르기를,) "성조 인황제 휘자의 위 한 글자는 『서경』의, ‘현덕이 승문하였다.[玄德升聞]’는 귀절 가운데 첫 번째 글자를 응당 원(元) 자로 대신하고, 아래 한 글자인 불화[火] 변에 빛날화[華]를 가한 자는 응당 옥(煜) 자로 대신할 것이며, 세종 현황제 휘자의 위 한 글자는 『시경』의, ‘영원히 복을 후손에 내리시네.[永錫祚胤]’라는 귀절 가운데 네 번째 글자는 응당 윤(允) 자로 대신하고, 아래 한 글자인 보일시[示] 변에 참진[眞]을 가한 자는 응당 정(禎) 자로 대신할 것이며, 고종 순황제 휘자의 위 한 글자는 『역경』의, ‘크고 밝고 성대함을 함유하였네.[含弘光大]’라는 귀절 가운데 두 번째 글자는 응당 굉(宏) 자로 대신하고, 아래 한 글자는 『서경』의, ‘해와 달과 별들의 운행을 관찰하였다.[曆象日月星辰]’라는 귀절 가운데 첫 번째 글자는 응당 력(歷) 자로 대신할 것이며, 황상의 어명 위 한 글자는 『역경』의, ‘믿음이 있어서 그 모습이 공순하다.[有孚顒若]’라는 귀절 가운데 세 번째 글자는 오른쪽 혈(頁) 자의 왼쪽의 빠친 획과 오른쪽의 점을 삭제하고[顒], 아래 한 글자는 『서경』의, ‘큰 구슬과 아름다운 옥(玉)을 서쪽 행랑에 두었다.[宏璧琬琰在西序]’라는 귀절 가운데 네 번째 글자인 엄(琰) 자의 오른쪽 두 번째 화 자를 우(又) 자[琰]로 고쳐서 쓸 것입니다. 그리고 성휘에 이르러서는 부수에 있는 글자를 더하여 소리와 뜻이 옳은지 그른지 서로 화합되는지를 논할 것이 없이 모두 존경하여 한 글자를 떼워 쓰는 것이 마땅하므로 이에 알립니다.”하였다.⁶⁾

조선을 향한 청나라의 이런 요구는 대체로 한자에 그쳤고, 만문 피휘에 대한 요구는 일체 없었다. 당시 조선 정부와 민간에서는 청학서를 펴냈는데, 청학서에서는 만문 피휘가 나타났다. 조선에서 공식적으로 간행한 청학서는 최소 18종이며, 현재까지 전해지는 서적은 『小兒論』(1639), 『八歲兒』(1639), 『三譯總解』(1774), 『淸語老乞大』(1765), 『同文類解』(1748), 『漢淸文鑒』(1779?) 6종뿐이다. 내용적 특징에 따라 분류를 한다면, 앞의 네 종류는 독서류이고 뒤의 두 종류는 사전류이다. 또한 만문 피휘의 사용 여부에 따라서 구분한다면, 첫 번째, 만문 피휘가 전혀 나타나지 않은 서적인 『小兒論』, 『八歲兒』, 『三譯總解』, 『同文類解』 4종, 두 번째, 만문 피휘가 나타났지만 한글 전사에는 나타나지 않은 서적인 『淸語老乞大』 1종, 세 번째, 만문과 한글 전사 모두 피휘가 나타난 서적인 『漢淸文鑒』 1종,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분류의 대표적인 예시로 『三譯總解』를 들 수 있는데, 이 책은 만문으로 쓰여진 『三國演義』를 원본으로 발췌 및 번역한 책이다. 책에는 지명 新野를 만문 sin yei(三譯 3:5b)로 적었고, 지명 山陰을 만문 san^oin(三譯 6:1a)라 표기하였다. 즉 책에서는 만문 in을 yen으로 피휘하지 않고 글자 그대로 기재했다. 또한 사람 이름 李儒를 만문으로 표기할 때, li를 lii로 고치지 않고 li žu(三譯 1:10b)로 표기하였다. 또 劉備의 자 玄德을 만문으로 표기할 때, hiowande(三譯 2:20a)을 siowan으로 고치지 않고 글자 그대로 표기했다.(羅盛吉 2014:22) 만문으로 쓰인 『三國演義』에서 만문 피휘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三譯總解』의 만문 및 한글 전사에서도 피휘 방법이 나타나지 않았다.

두 번째 분류의 예시에는 회화 교재인 『淸語老乞大』가 있다. 이 책에는 성씨 李가 만문 lii로 표기되어 있는데(淸老 1:22b), 이는 피휘의 표기 방식이다. 그러나 한글 전사에는 여전히 ‘리’로 표기되어 있으며, 자형 상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내용적 특징에 따라 만한 대음 고서 또한 다르게 쓰여졌는데, 독서류 서적에는 만문으로 쓰인 원문도 함께 기재되어 있지만 사전류 역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독서류 책의 한글 전사는 만문에 대한 발음 표기의 기능만을 지니지

6) 앞의 홈페이지 ‘순조실록 5권’번역 참고.

만, 사전류 책의 한글 전사는 만문 자형을 재현하는 기능도 함께 담당하기 때문에 만문 발음의 전사에만 집중한 전자와 달리 후자는 만문 형태의 전사에 더 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자에 속하는 『淸語老乞大』는 피휘로 인해 만문의 자형에 변화가 나타났더라도 이를 한글로 전사할 때에는 변화를 나타내지 않고 원래의 소리만 표기하였다. 이를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이러한 표기가 만주어 *ii*와 *i*의 발음이 일치하다는 것을, 즉 *ii*가 장음 또는 이중모음이 아닌 *i*와 동일한 발음이라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세 번째 분류의 예시에는 『御製增訂淸文鑒』을 저본으로 만든 사전 『漢淸文鑒』이 있다. 이 책에는 만문 원문이 전혀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한글 전사 중 번역자가 만문 자형을 똑같이 그대로 한글로 표기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들였다. 이 책은 『御製增訂淸文鑒』의 다양한 피휘 방법을 똑같이 그대로 재현하고 있으며, 심지어 원문에서 실수로 누락했던 피휘 방법까지 모두 한글로 전사하였다. 책에 나오는 만문 피휘는 총 6자로, 본고의 '3)만문 피휘의 한글 전사'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도록 하겠다.

2) 청학서의 한글 전사

청학서 내 만문의 한글 전사에 사용된 문자는 총 2 종류 7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하나는 '고유 문자'로, 근대 국어에 나타나는 자모, 즉 한글 철자법에 맞는 문자를 일컫는 말이며, 다른 하나는 '특수 문자'로, 근대 국어 음운 체계 이외의 옛 자모나 부호, 한글 철자법에 어긋나는 병서나 철자를 가리킨다.

청학서에 나타난 '고유 문자'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동일 소리 고유 문자

만주어와 한글의 발음이 같거나 비슷한 경우에 사용하는 문자 부호로, 한글의 기본 자모와 기본 맞춤법으로 만든 문자를 일컫는다. 수량이 가장 많은 문자 부호이자 만문을 한글로 전사할 때 사용되는 빈도 또한 가장 높은 문자다. 전사

될 때 사용된 문자 유형의 50-70%를 ‘동일 소리 고유 문자’가 차지하고 있다.

(2) 유사 소리 고유 문자

만주어와 한글의 발음이 비슷하지만 일정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문자 부호다. 즉 한글이 모든 만주어 발음을 똑같이 완벽하게 재현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전사할 때 가장 유사한 한글 자모나 음절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유사 소리 고유 문자’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하나의 문자 부호를 통해 만주어 2 개 이상의 발음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포’로 만주어의 p와 f 모두 전사를 할 수 있는데, 만주어 p를 전사한 문자 부호는 ‘동일 소리 고유 문자’, f를 전사한 문자 부호는 ‘유사 소리 고유 문자’에 속한다.

청학서에 나타난 ‘특수 문자’는 다시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3) 형태 변화 특수 문자

한글의 맞춤법 형식을 변형시켜 만든 특수 문자로, 기본 자모와 맞춤법에 맞는 기존의 문자 부호만으로 특정 만주어를 전사하기 어려울 때 사용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맞춤법은 여러 개의 모음 자모가 겹쳐지는 방식, 즉 복모음 조합 방식을 가리키는데, 기존의 한글 맞춤법을 변형시켜 나타난 가, 조, 두, 고 등이 ‘형태 변화 특수 문자’의 대표적인 예시다.

(4) 복고 자모 특수 문자

복고 자모는 훈민정음 창제 초기에 있었던 옛 글자들을 일컫는 말이다. 이러한 옛 글자들 중 일부는 과거 한국어에 실제로 존재했었던 발음이고, 일부는 중국 한자음을 전문적으로 기록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자모다. 譯學書에서는 특정 외국어 발음을 기록하기 위해 이런 자모를 다시 부활시켰다. 복고 자모 특수 문자의 예로는 ㅃ, ㅅ, ㅉ 등이 있고, 각각 만문 f, ž, ioi를 전사할 때 사용되었다.

(5) 두 글자 혼합 특수 문자

번역자가 한글 한 자만으로 하나의 만주어 음절을 정확하게 재현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을 때 두 글자를 혼합하여 만들어낸 특수 문자다. 이는 민간에서 간행한 『五方元音』, 『方言類釋』, 『千字文』 3 책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만문 poo를 전사할 때 ‘포’가 아니라 ‘포오’라고 표기하거나, miyan을 ‘만’이 아니라 ‘미얀’이라고 표기하는 것들 모두 이의 예시다.

(6) 신(新) 자모 특수 문자

신 자모 특수 문자는 한글로 전사할 때 필요에 따라 새로 만들어 낸 문자를 일컫는 말로, 한자음 開口韻과 습口韻 음절의 영성모를 표기하기 위해 『五方元音』에서 사용한 ‘◇’가 그 예시다.

(7) 도형 첨가 특수 문자

발음을 구별하거나 만문의 자형을 보다 정밀하게 모방하기 위해 글자 주위에 특정한 도형을 붙여 만든 특수 문자를 일컫는 말이다. 글자 주위에 추가되는 도형에는 원, 점, 그리고 체크 표시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 (7a)원 첨가 특수 문자(加圈字)에는 ˚구 ⊕ 등이, (7b)점 첨가 특수 문자(加點字)에는 ˙산, ˙전 등이, (7c)체크 표시 첨가 특수 문자(加撇字)에는 ㄹ[✓] 1개가 있다.

정리하자면, 청학서 만문 피휘의 한글 전사에 나타난 문자 유형은 (1) (2) (3) (4) (7) 총 5가지다.

3) 만문 피휘의 한글 전사

『漢清文鑒』에는 康熙帝, 雍正帝, 乾隆帝 세 황제의 만문 피휘와 한글 전사가 수록되어 있다.

(1) 淸 聖祖 康熙帝

康熙帝 휘자의 첫 글자 hiowan(玄)은 ‘환’으로, 이의 피휘자 siowan은 ‘싼’으로 전사된다. 과거 훈민정음 창제 초기 중국어 撮口韻을 표기하기 위해 ㅈ, ㅉ 등의 자모가 만들어졌는데, 『洪武正韻譯訓』, 『老乞大諺解』 등의 漢學書에서 員[yan]의 발음을 ‘원’으로 표기한 것이 이의 예시이다. 그러나 한학서가 아닌 책에서도 ㅈ, ㅉ 등 이와 비슷한 자모의 용례가 나타났는데, 청학서 『三譯總解』에서 玄[xyan]의 발음을 ‘환’으로 표기한 것, 『同文類解』에서 銷[kyan]의 발음을 ‘관’으로 표기한 것, 『漢淸文鑒』의 한글 전사에 사용된 ‘싼’ 등이 그 예시이다. 이들 모두 같은 유형의 문자로, (4) ‘복고 자모 특수 문자’에 속한다. 『御製增訂淸文鑒』의 만문 원문은 피휘해야 할 거의 모든 곳에 피휘 자형을 사용하였고, 『漢淸文鑒』은 이에 맞춰 한글로 잘 전사하였다. 그러나 銷[hyan]의 만문 원문이 hiowan(增淸 25:19)으로 기재되어 강희제의 이름을 피휘하지 않았고, 이의 한글 전사 또한 ‘환’(漢淸 11:38)으로 기록되는 특이한 예시가 발견되었는데, 본고는 이를 『御製增訂淸文鑒』에 나타난 오류를 번역자가 그대로 옮긴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 외에도 『御製增訂淸文鑒』에서는 강희제의 휘자를 피하기 위해 玄孫이라는 단어를 元孫으로 고쳤고, 만문 또한 한문의 발음 표기를 따라 yuwan sun (增淸 10:23)으로 기재하였지만 『漢淸文鑒』에서는 이를 따르지 않고 玄孫으로 다시 고친 후 만문 또한 한문의 실제적 발음에 따라 hiowan sun(漢淸 5:39)으로 표기한, 아주 특수한 예시가 발견되었다. 이렇게 번역자가 청나라의 한자 피휘 요구를 무시한 행위는 만주족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던 당시 조선인들의 의식으로 인해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한글 전사에 사용된 ‘싼’은 (7) ‘도형 첨가 특수 문자’에 속한다. 현존하는 모든 청학서의 한글 전사에 나타난 (7a) ‘원 첨가 특수 문자’의 기능은 ‘글자 음의 구별’과 ‘글자 뜻의 구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글자의 음을 구별하는 기능은 또 ①만문 u와 ū의 발음 구별, ②-y와 -i의 발음 구별, ③si-와 š-의 발음 구별, ④we 운두 근원의 구별 4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글자의 뜻을 구

별하는 기능은 다시 ⑤k류의 자형 구별, ⑥io와 iyo의 자형 구별, ⑦i의 두 가지 자형 구별 3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쉬’의 기능은 (7a)–③에 속한다. 근대국어의 치음은 곧 치경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만문의 치음에는 치경음과 후치경음의 두 종류가 있고, 또 후치경음은 권설음과 구개음 두 가지의 변이음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漢淸文鑿』과 『同文類解』에서는 만문 치경음 s[s], dz[ts], ts'[tsʰ]를 ‘스스츠’로 전사하고 있고, 후치경음이나 권설음 변이음 š[ʃ/s], j[tʃ/tsʰ], c[tʃʰ/tʃʰ]을 ‘시지치’로 전사하고 있으며, 구개음 변이음 si-[ci], ji-[tci], ci-[tciʰ](sio-[cy], jio-[tcey], cio-[tciʰy]도 포함)을 ‘시지치’ 및 1-계 상성이중모음의 원 첨가 특수 문자로 전사하고 있다. 원 첨가 특수 문자는 si-와 š-를 구별하기 위한 것으로, 『漢淸文鑿』에 나타난 siowan[syan]의 한글 전사 ‘쉬’를 통해 šuwan[ʃuan]의 한글 전사 ‘쉬’과의 차이점을 알 수 있다.

康熙帝 휘자의 둘째 글자인 yei(燁) 본래의 한글 전사법은 ‘예’이며, 이의 피휘자 ye의 한글 전사법은 ‘여’이다. 한글 예[jəj]와 여[jə], 만주어 yei[jəi], yel[jə]의 발음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 두 유형의 한글 전사는 모두 (1) ‘동일 소리 고유 문자’에 속한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는데, 바로 ‘예’는 근대 국어에서 삼중 모음에 속한다는 것이다.

(2) 淸世宗 雍正帝

雍正帝 휘자의 첫 글자인 °in(胤) 본래의 한글 전사법은 ‘인’이며, 이의 피휘자 yen의 한글 전사법은 ‘연’이다. 한글 인[in]과 연[jən], 만주어 °in[in]과 yen[jən]의 발음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 두 유형의 한글 전사 또한 모두 (1) ‘동일 소리 고유 문자’에 속한다.

옹정제 휘자의 둘째 글자인 jen(禛) 본래의 한글 전사법은 ‘전’이며, 이의 피휘자 jen의 한글 전사법은 ‘전’이다. 『漢淸文鑿』을 제외한 5부의 청학서에서 독립적인 만문 어절 jen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 민간에서 간행한 만한 대음판 『千字文』에만 ‘眞[tʃən]’이 ‘전’으로 전사된 예가 나타났다. 『漢淸文鑿』의 모든 ‘전’은 점

첨가 특수 문자, 즉 모두 (7) ‘도형 첨가 특수 문자’에 속한다. 점 첨가 특수 문자는 『漢清文鑒』만의 독자적인 문자 형태로, 『漢清文鑒』 범례 제18조에는 “문헌에 있는 ‘한, 산, 잔, 관, 전, 안, 은’ 7자의 만문 원문에 모두 작은 점이 있으므로 이를 따른다”라는 규정이 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 한글 점 첨가는 『御製增訂清文鑒』의 만문 운미-n의 점 첨가를 본뜬 형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실제 사용 사례에서는 ‘안’와 ‘언’에도 작은 점이 있는데, 기능에 따라 이 9가지 점 첨가 문자를 ①글자의 음 분별, ②글자의 뜻 분별, ③피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전’은 (7b)–③에 속한다.

(3) 清 高宗 乾隆帝

乾隆帝 휘자의 첫 글자인 hung(弘) 본래의 한글 전사법은 “홍”이며, 이의 피휘자 hūng의 한글 전사법은 ‘홍’이다. 만문 ū[u]와 u[u]의 발음은 상당히 유사하며, ū와 결합할 수 있는 자음의 90%가 후음 g, k, h이다. 모음조화에 따르면 만주어 후음에는 양성모음 a, o, ū와 함께 읽을 때 [q], [qʰ], [χ]가 되는 변이음 그룹, 음성모음 e, u 또는 중성모음 i와 함께 읽을 때 [k], [kʰ], [x]가 되는 변이음 그룹, 총 두 그룹이 있다. 『清文啓蒙』에는 gū[qʰ], kū[qʰʷ], hū[χ]와 gu[ku], ku[kʰu], hu[xu]의 漢字對音이 모두 ‘孤[ku], 枯[kʰu], 呼[xu]’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두 그룹의 발음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즉 중국어 뿐만 아니라 한국어에서도 ū와 u의 차이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전부 ㅊ로 전사한 것이다. 원이 없는 ‘쿠, 후, 구’와 gū, kū, hū를, 원 첨가 문자인 ‘구, ˆ쿠, ˆ후’와 gu, ku, hu를 각각 대응시켜 표기하는 것이 사전류 청학서 『漢清文鑒』과 『同文類解』의 전사 규칙이며, 이러한 규범에 따르면 피휘자 hūng의 한글 전사는 ‘홍’ 하나 밖에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즉 비록 청학서에 hung의 실제 용례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전사 규칙을 통해 hung을 “홍”으로 전사해야 한다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홍’은 유형 (2) ‘유사 소리 고유 문자’에 속하고 “홍”은 유형 (7a) ‘원 첨가 특수 문자’ 중의 ① ‘만문 u와 ū의 발음 구별’에 속한다.

乾隆帝 휘자의 둘째 글자인 li(曆) 본래의 한글 전사법은 ‘리’이며, 이의 피휘자 lii의 한글 전사법은 ‘례’이다. 한글의 맞춤법에 따르면 ㄴ, ㄱ와 같은 동일한 모음의 자모는 절대 병서할 수 없다. 그러므로 ‘례’와 같이 만문 lii의 자형을 모조한 전사법은 유형 (3) ‘형태 변화 특수 문자’에 속한다.

4. 결론

조선시대 청학서에 나타난 만주 문자 피휘의 한글 전사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표 1〉 만문 피휘의 옹례

廟號(年號)	漢文諱(上字)	滿文諱(上字)	避諱字(上字)	漢文諱(下字)	滿文諱(下字)	避諱字(下字)
聖祖(康熙)	玄[hyan]	ᡵ hiowan	ᡵ siowan	燁[iei]	ᡵ yei	ᡵ ye
世宗(雍正)	胤[in]	ᡵ °in	ᡵ ing ᡵ yen	禛[tʂən]	ᡵ jen	ᡵ jeng ᡵ jen
高宗(乾隆)	弘[xuŋ]	ᡵ hung	ᡵ hūng	曆[li]	ᡵ li	ᡵ lii
仁宗(嘉慶)	顒[yŋ]	ᡵ yung	ᡵ yong	琰[ian]	ᡵ yan	不避
宣宗(道光)	旻[min]	ᡵ min	ᡵ miŋ	寧[niŋ]	ᡵ ning	ᡵ niyeng
文宗(咸豐)	奕[i]	ᡵ °i	不避	諱[tʂu]	ᡵ ju	ᡵ jū
穆宗(同治)	載[tsai]	ᡵ dzai	不避	淳[ʂun]	ᡵ šun	ᡵ šuwen
德宗(光緒)	載[tsai]	ᡵ dzai	不避	湣[thian]	ᡵ tiyan	ᡵ tiyan
孔聖	丘[k'iu]	ᡵ kio	ᡵ kiyeo			

첫 번째, 규범적인 만문 피휘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1〉참조)

- (1)康熙帝 휘자 玄燁의 만문 hiowan yei는 siowan ye로 피휘한다.
- (2)雍正帝 휘자 胤禛의 만문 °in jen은 yen/°ing jeng/jen으로 피휘한다.
- (3)乾隆帝 휘자 弘曆의 만문 hung li는 hūng lii로 피휘한다.

- (4)嘉慶帝 휘자 永琰의 첫 글자인 만문 yung은 yong으로 피휘한다.
- (5)道光帝 휘자 旻寧의 만문 min ning은 min niyeng으로 피휘한다.
- (6)咸豐帝 휘자 奕訢의 만문 둘째 글자인 ju는 jū로 피휘한다.
- (7)同治帝 휘자 載淳의 만문 둘째 글자인 šun은 šuwen으로 피휘한다.
- (8)光緒帝 휘자 載湉의 만문 둘째 글자인 tian은 tian으로 피휘한다.
- (9)孔子 휘자 丘의 만문 kio를 kiyeo로 피휘한다.

嘉慶帝 휘자 둘째 글자 yan, 咸豐帝 휘자 첫 글자 °i, 同治帝와 光緒帝 휘자 첫 글자 dzai 등은 피휘하지 않는다.

〈표 2〉 만문 피휘의 한글 전사

避 漢 字 音	滿文綴字		한글轉寫	
	諱字	避諱字	避諱違背	避諱遵守
[hyan]	 hiowan	 siowan	환[玄] (三 2:20a) 환[銅] (鑒 11:38a) 환[玄] (鑒 5:39a)	°환[愍] (鑒 1:38a)
[jæi]	 yei	 ye	예[野] (三 3:5b)	여[野] (鑒 1:34b)
[in]	 in	 yen	인[陰] (三 6:1a) 인[殷] (同 2:31b)	연[陰] (鑒 1:2b)
[tʂən]	 jen	 jen		전[軫] (鑒 1:7a)
[xuŋ]	 hung*	 hūng		홍[鼻] (鑒 1:10b)
[li]	 li	 lii	리[李] (三 1:10b) 리[李] (乞 1:22b)	래[黎] (鑒 1:1b)

※ 三=《三譯總解》 乞=《清文老乞大》 同=《同文類解》 鑒=《漢清文鑒》

두 번째, 『漢清文鑒』에 나타난 만문 피휘와 그의 한글 전사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2〉참조)

(1)康熙帝 만문 휘자 hiowan yei와 이의 한글 전사 ‘환 예’가 원형 그대로 기재되지 않고, 피휘된 형태인 siowan ye와 이의 한글 전사 “°환 여”로 기재되었다.

다만, 피휘를 반드시 해야 하는 만문 hiowan과 이의 한글 전사 ‘환’이 두 차례나 나타났는데, 이 중 하나는 원작에 기재된 오류를 번역자가 그대로 옮긴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청나라 피휘를 인정하지 않던 당시 조선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번역자가 자의적으로 수정한 것이다.

(2)雍正帝 만문 휘자 °in jen과 이의 한글 전사 ‘인 전’이 원형 그대로 기재되지 않고 피휘된 형태인 yen jen과 이의 한글 전사 ‘연 전’로 기재되었다.

(3)乾隆帝 만문 휘자 hung li와 이의 한글 전사 ‘홍 리’이 원형 그대로 기재되지 않고 피휘된 형태인 hūng li와 이의 한글 전사 ‘홍 리’로 기재되었다.

세 번째, 청학서에 나타난 만문 피휘의 의의를 알 수 있다.

현존하는 6종의 청학서 중에서 『小兒論』 『八歲兒』 『三譯總解』 『同文類解』의 네 책에는 만문 피휘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清語老乞大』의 만문 부분에는 피휘가 나타났지만, 한글 전사 부분에는 나타나지 않았고, 『漢清文鑒』의 만문과 한글 전사 부분 모두에는 규범적인 피휘가 나타났다. 그러나 『漢清文鑒』에 만문 피휘의 한글 전사가 나타난 것은 청나라 피휘를 중시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만문의 자형을 잘 재현하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 있다.

네 번째, 만문 피휘의 한글 전사 유형을 분석할 수 있다.

청학서에 한글로 전사된 문자의 유형은 일곱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만문 피휘의 한글 전사가 그 중 다섯 유형을 차지하고 있는데, 즉 (1) 동일 소리 고유 문자, (2) 유사 소리 고유 문자, (3) 형태 변화 특수 문자, (4) 복고 자모 특수 문자, (7) 도형 첨가 특수 문자 등 다섯 가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표음문자로서 한글의 가소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나아가 언어 접촉 연구 중 문자 접촉 분야에 더 풍부한 예시와 변이 유형을 가져다줄 수 있다.

다섯 번째, 한글 특수 부호에 대한 타당한 해석을 제공할 수 있다.

청학서에 나타난 ‘ㄴ’계 점 첨가 특수 문자와 ‘ㄹ’와 같은 겹글자의 의미는 오랫동안 학계에서 풀지 못했던 난제였다. 피휘의 한글 전사 연구를 통해 한글 전사에서 변이 형태가 나타나는 원인을 또 하나의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여섯 번째, 만문 피휘에 대한 조선인들의 견해를 추측할 수 있다.

『淸語老乞大』와 『漢淸文鑿』의 만문, 그리고 『漢淸文鑿』의 한글 전사법에 모두 만문 피휘가 나타났지만, 그렇다고 하여 대다수의 조선인들이 만문의 피휘를 중시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조선 정부가 청나라 황제의 한자 피휘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통해 조선인들이 청나라의 피휘를 중시하지 않았고, 심지어 멸시하기 까지 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당시 조선인들은 한자만을 진정한 문자라고 여기며 만문이나 한글은 표음 부호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였고, 이로 인해 만문이나 한글의 피휘에도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다.

◆ 참고문헌

1. 자료

- 『檀溪先生文集』
- 『同文類解』
- 『御制增訂淸文鑿』
- 『三譯總解』
- 『小兒論』
- 『肅宗實錄』
- 『純祖實錄』
- 『淸語老乞大』
- 『初學滿文指蒙詞』
- 『漢淸文鑿』
- 『欽定淸漢對音字式』

2. 단행본

- 安雙成, 『滿漢大辭典』, 沈陽: 遼寧民族出版社, 1993.
- 王力, 『漢語語音史』, 北京: 中華書局, 초판 1985, 재판 2014.
- 王彥坤, 『歷代避諱字彙典』,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97.

3. 논문

- 성백인, 「譯學書에 나타난 訓民正音 使用」, 『韓國文化』 제5집,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84, pp.21-63.
- 소희, 김룡근, 「韓滿對照〈五方母音〉의文字對譯研究」, 『한중인문학연구』 제75집, 한중

인문학회, 2022, pp.195-216.

岸田文隆, 「漢語抄의 出處」, 『알타이학보』 제4집, 한국알타이학회, 1994, pp.49-56.

羅盛吉, 「清朝滿文避諱漫議」, 『滿語研究』第2期, 2014, pp.17-23.

李易航, 「清代滿文避諱制度淺談」, 『黑河學刊』第2期, 2019, pp.94-95.

邵磊·王敵非, 「《清語老乞大》滿文的朝鮮文轉寫研究」, 『滿族研究』第2期, 2022, pp.89-95.

烏拉熙春, 「滿語母音的演變」, 『民族語文』第4期, 1990, pp.57-65.

王力, 「現代漢語語音分析中的幾箇問題」, 『中國語文』第4期, 1979, pp.281-287.

春花, 「清代皇帝御名避諱制及滿漢文避諱字譜」, 『滿語研究』第2期, 2022, pp.23-34.

4. 인터넷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 '숙종실록 44권'

https://sillok.history.go.kr/id/wsa_13208005_001

'순조실록 5권'

https://sillok.history.go.kr/id/www_10311029_003

논문접수일	2023년 04월 30일
심사완료일	2023년 05월 31일
게재확정일	2023년 06월 08일

Abstract

Research on the Manch-to-Korean Transliteration of
Manchu Name Taboo in the Cheonghak-seo

Shao, Lei · Kim, Doyoung

The name taboo rules for the emperors of the Qing Dynasty exists in both Chinese and Manchu characters. There are 12 emperors, 8 of which had a taboo for their Manchu names, namely Kangxi, Yongzheng, Qianlong, Jiaqing, Daoguang, Xianfeng, Tongzhi, Guangxu. So does Confucius. In the Manch-to-Korean dictionary "*Han-cheong-mun-gam*" in the Joseon Dynasty, there is also Korean transliteration for the Manchu name taboo, such as '*sjuan, ye, yen, jyen, hung, lli*'. This study will classify and analyze Manchu name taboos and their Korean translations.

Keyword script contact, Manchu name taboo, cheonghak-seo, Hangeul transliteration, *Han-cheong-mun-gam*

한국어 부사 ‘다’와 중국어 부사 ‘都’의 의미 확장 양상 대조 연구

포 연*

국문요약

본고에서는 대조언어학적 관점에서 한국어 부사 ‘다’와 중국어 부사 ‘都’의 의미 확장 양상을 다루었다. 부사 ‘다’와 ‘都’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용법이 있다. 하나는 전칭양화부사로서 복수성을 갖추는 사람/사물/사건들을 총괄하고 ‘남거나 빠짐없이 모두’라는 객관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어조부사로서 화자의 주관적 태도/평가/감정 등을 드러내는, 즉 주관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부사 ‘다’와 ‘都’의 의미 확장 및 대응 양상은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전칭양화부사로 쓰이는 경우 부사 ‘다’는 대체로 ‘都’와 대응된다. 둘째, 정도성 강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데에는, 부사 ‘다’도 ‘都’와 대응 양상을 보인다. 셋째, ‘의외성이나 반기대’의 양태적 의미를 실현할 때에는, 한국어는 부사 ‘다’를 흔히 사용하지만, 중국어는 부사 ‘都’에 비해 부사 ‘还’이 더 자주 쓰인다. 넷째, 한국어 부사 ‘다’는 ‘실현할 수 없게 된 사태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반어적으로 나타내는’ 반어법 용법으로도 쓰이기는 하나, 중국어 부사 ‘都’가 이런 용법으로 쓰이지는 않는다.

부사 ‘다’와 ‘都’는 모두 객관적 의미에서 주관적 의미로, 덜 추상적 의미에서 더 추상적 의미로 의미 확장이 일어난다. 이 과정에서 부사 ‘다’와 ‘都’의 의미가 점차 허화(虛化)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와 같은 의미 허화의 과정에서 주관화가 한 몫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전칭양화부사, 어조부사, 정도성 강조, 의외성, 반기대, 반어법, 주관화, 문법화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목차〉

1. 머리말
2. 부사 ‘다’의 의미 확장 양상 및 ‘都’와의 비교
 - 1) 전칭양화부사(범위부사/총괄부사)
 - 2) 어조부사
3. 맺음말

1. 머리말

외국어의 어떤 어휘/표현을 습득할 때 학습자 모국어의 비슷한 어휘/표현과 대응/대조하면서 살피는 것이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 부사 ‘다’의 의미/용법을 잘 이해하고 습득하려면 중국어의 유사한 부사 ‘都’를 같이 다룰 필요가 있다.

본고는 한국어 부사 ‘다’의 의미 확장 양상을 살펴보면서, ‘다’의 여러 의미/용법이 대응 중국어 부사 ‘都’가 갖고 있는지, 그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에 목적이 있다.¹⁾ 한편 언어유형론적으로 조사된 ‘all’라는 의미를 가진 어원어의 의미 확장(혹은 문법화) 경로에 비추어 볼 때, 부사 ‘다’와 ‘都’의 의미 확장도 범언어적 경향성을 보이는지 고찰할 것이다. 본고에서 제시된 한국어 부사 ‘다’에 관한 용례들은 주로 〈李敏 준구어 말뭉치〉 혹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통해 수집한 것이다.²⁾

- 1) ‘다’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부사로는 ‘모두’ 등이 있고, ‘都’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부사로는 ‘쑤’ 등이 있는데(물론 ‘다’와 ‘모두’, ‘都’와 ‘쑤’은 그 쓰임에 있어 차이도 보임), ‘모두’, ‘쑤’에 비해 ‘다’와 ‘都’의 쓰임이 더 많고 대조하기에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부사 ‘다’와 ‘都’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한편, 익명의 심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총괄/범위부사로 쓰일 때 한국어 부사 ‘다’와 대응하는 중국어 부사로는 ‘都’ 외에 ‘쑤’도 있다. ‘쑤’에 비해 ‘都’의 의미/용법이 훨씬 더 많고(예컨대 어조부사의 용법은 ‘都’만 가진다는 등) 의미/용법의 다양성 그리고 ‘다’와의 대응 양상을 살피는 데 ‘쑤’보다 ‘都’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부사 ‘都’만 다루기로 한다.
- 2) 〈李敏 준구어 말뭉치〉는 대규모 한국 드라마 말뭉치이며, 총 7454회에 해당하는 드라마 및 영화 대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규모는 약 24,260,020어절이다. 드라마 및 영화 대본

한국어 부사 ‘다’는 흔히 ‘전칭양화부사’, ‘전칭양화사’ 혹은 ‘양화사’로 불려왔다. 한국어 부사 ‘다’의 의미/용법에 관한 선행연구는 구일민(2007), 김현주·정연주(2011), 장경현(2018) 등을 들 수 있다. 구일민(2007)은 부사 ‘다’의 전칭/총칭 양화사로서의 용법 외에 과장법의 기제로서의 화용론적 해석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김현주·정연주(2011)에서는 현대국어 ‘다’는 전칭 양화사의 용법, 정도 부사의 용법, 그리고 선행 명사구에 ‘의외성’의 의미를 더해주는 용법을 가진다고 논의하였으며, 정도부사나 의외성의 ‘다’는 모두 전칭 양화의 ‘다’로부터 발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장경현(2018)은 부사 ‘다’의 용법을 양화 용법과 비양화 용법으로 나누어 그 세부적인 특성을 논하였다. 그리고 비양화 용법의 ‘다’는 양화 용법에서 확장되어, 화자의 주관적 인식, 감정, 태도를 표현하는 기능을 가지므로, 양태부사로 기술하는 것이 적절함을 밝혔다. 이처럼 부사 ‘다’의 의미/용법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크게 양화(전칭 양화) 용법과 비양화 용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전자와 후자는 각각 객관적 의미나 주관적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부사 ‘다’의 의미/용법에 대한 사전 기술과 일부 용례는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표1〉 부사 ‘다’에 대한 〈표준국어대사전〉의 의미 기술 및 용례

①	남거나 빠짐없이 모두. 예: 올 사람은 다 왔다.
②	행동이나 상태의 정도가 한도(限度)에 이르렀음을 나타내는 말. 예: 신이 다 닳았다.
③	일이 뜻밖의 지경(地境)에 미침을 나타내는 말. 가벼운 놀람, 감탄, 비꼼 따위의 뜻을 나타낸다. 예: 원, 별사람 다 보겠군.
④	실현할 수 없게 된 앞말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반어적으로 나타내는 말. 예: 숙제를 하자면 잠은 다 잤다.

은 구어 자료로서 언어의 실제 사용 양상을 보여줄 수 있다. 또한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온 일부 예문도 참조했는데, 사전은 규범적이고 권위적인 자료로서의 성격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자세히 후술하겠지만, 본고에서는 ‘다’와 ‘都’의 의미/용법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고자 한다.

하나는 기본 의미로 쓰이는 경우이고(①), 다른 하나는 여러 가지 파생 의미로 쓰이는 경우이다(②③④). 전자는 주로 객관적 의미를 나타내고, 후자는 화자의 태도, 평가, 감정이 노출되는 주관적 의미를 나타내곤 한다. 전자의 부류를 ‘전칭양화부사(범위부사/총괄부사)’ 용법으로 부르고, 후자의 부류를 ‘어조부사’ 용법으로 부르기로 한다. ‘다’의 의미에 관한 기존 논의에서는 2분법적 분류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다’의 의미에 대한 2분법적 분류법은 중국어학계에서의 부사 ‘都’의 의미 분류법을 참고한 것이다. 2분법은 세부적인 용법들의 공통점을 조명하고 효율적인 기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중국어 부사 ‘都’는 ‘범위부사(范围副词)’(朱德熙 1982, 马真 1983, 赵元任 2002, 张谊生 2003/2005 등) 혹은 ‘총괄부사(总括副词)’(吕叔湘 1994, 杨荣祥 2005 등)로 불려왔다. ‘都’의 범위/총괄부사로서의 기본 의미/용법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다. 그런데 기본 의미/용법 외에 확장 의미/용법으로 몇 가지가 더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통설이 없는 상황이다. ‘都’의 의미/용법과 관련해서는 朱德熙(1982)에서 범위부사 용법만 인정하³⁾지만, 吕叔湘(1994)에서는 총괄부사로서의 용법, ‘심지어(甚至)’라는 의미, ‘이미/벌써(已经)’라는 의미(‘都……了’)와 같은 형식으로 쓰이는 경우와 같은 3가지 의미/용법이 있다고 논의하고 있다. 또한,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都’의 의미/용법을 다시 유형화하는 데 매우 비슷한 견해를 보이는 세 편의 논의가 있다.⁴⁾ 바로 王红(1999), 赵元任(2002), 张谊生(2005)이다. 王红(1999)에서는 ‘都’는 사람/사물의 각 구성단위 사이의 동일성을 총괄하는 범위부사로서의 의미/용법(기본 용법)과, 화자가 어떤 사태의 정도가 극히 심함을 주관적으로 판단/평가하는 어조부사(语气副词)로서의 의미/용법(파생 용법), 즉 두 가지의 의미/용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 논의에서 지적한 ‘都’의 시간부사로서의 용법은 어조부사 용법에 소속시킬

3) 朱德熙, 『语法讲义』, 北京: 商务印书馆, 1982, pp.192-201.

4) 吕叔湘, 『现代汉语八百词』, 沈阳: 辽宁教育出版社, 1994, pp.105-106.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赵元任(2002)에서는 범위부사 용법 외에 ‘평가를 나타내는 부사’로서의 용법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⁵⁾ 한편, 张谊生(2005)에서는 ‘都’는 객관성을 가지는 범위부사와 주관성을 가지는 어조부사(语气副词)라는 두 가지 용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범위부사(전칭양화)의 의미 기능, 초점 강조(强调焦点)의 어조부사(행위의 정도나 결과의 못마땅함 등을 나타냄), 시상(时体)적 의미까지 나타내는 어조부사 등처럼 그 의미/용법을 더 세부적으로 나눌 수도 있으나, 크게는 범위부사와 어조부사 두 가지 의미/용법이 있다고 보고 있다. 즉, 王红(1999), 赵元任(2002), 张谊生(2005)에서는 ‘都’의 의미/용법으로 크게 범위부사와 어조부사 2 가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로써 한국어 부사 ‘다’와 중국어 부사 ‘都’의 의미 항목을 볼 때 크게 ‘전칭양화부사(범위/총괄부사)’와 ‘어조부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2장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2. 부사 ‘다’의 의미 확장 양상 및 ‘都’와의 비교⁶⁾

이 장에서는 한국어 부사 ‘다’의 의미 확장 양상을 살펴보면서 중국어 부사 ‘都’의 상황과 비교 분석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다. 크게 ‘전칭양화부사(범위부사/총괄부사)’와 ‘어조부사’ 두 부류로 나뉘어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5) 赵元任, 『中国话的文法(增订版)』, 香港: 香港中文大学出版社, 2002, pp.388-389.

6) 이 글에서 사용한 한중/중한 번역 혹은 대응표현은 여러 중국인 친구/동학들과 토론한 후에 결정/채택한 것으로, 객관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고 생각된다. 또한, 하나의 표현이 여러 표현으로 번역할 수 있을 경우도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중국인 친구/동학들과 토론한 결과에 의하면 이 부분은 크게 문제되지 않고 최종적인 한 가지 표현/번역을 정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다. 한중/중한 번역/대응표현의 객관성/정확성/권위성을 확보하려면 한중/중한 병렬말뭉치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현재로서 이런 병렬말뭉치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꼼꼼히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좀 아쉽다고 생각된다.

1) 전칭양화부사(범위부사/총괄부사)

이 절에서는 부사 ‘다’가 전칭양화부사로 쓰이는 경우를 중국어 범위/총괄부사 ‘都’와 대조하면서 살펴보자. 이때 ‘다’와 ‘都’는 ‘남거나 빠짐없이 모두’ 혹은 ‘전부(全部)’라는 의미로 해석된다.⁷⁾

- (1) 가. 애들은 다 학교에 갔다.
 가. 孩子们都去学校了。
 나. 과자랑 과일은 내가 다 먹었어.
 나. 点心和水果我都吃了。
- (2) 가. 내가 사과 하나를 다 먹었다.
 가. 我把一个苹果都吃了。
 나. 그 책은 내가 다 읽었다.
 나. 那本书我都看完了。⁸⁾

7) 부사 ‘다’와 ‘都’가 전칭양화의 의미로 쓰일 때 대체로 대응되지만, 용법이 완전히 같지는 않다. ‘都’는 앞에 출현하는 사람이나 사물을 양화할 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의문대명사에 나타난 사람이나 사물도 양화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 ‘다’는 단지 앞에 출현한 사람이나 사물만을 양화할 수 있고 뒤에 나오는 의문대명사에 나타난 사람이나 사물을 양화할 수 없다. 예컨대 ‘你都去哪儿了?’처럼 ‘都’가 후행하는 의문사 ‘哪儿’를 양화할 수 있는 반면 ‘다’를 사용하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너 다 어디 가봤어?). 이런 경우에는 ‘다’보다 의문사의 중첩 형식을 사용한 ‘너 어디 어디 가봤어?’와 같이 표현이 더 일반적이고 자연스럽다.

8) (2)에서 ‘다’와 대응하는 표현으로 ‘쫌’도 가능해 보인다. 익명의 심사위원님께서 여기서 ‘都’ 대신 ‘쫌’이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하셨다. ‘都’는 ‘여러 가지 같은 종류의 물건이 모두’라는 의미를 나타내지만 ‘쫌’은 어떤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거나 여러 가지 같은 종류의 물건이 모두’라는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낸다고 논하셨다. 여기서 ‘다’는 ‘어떤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다’는 의미로 쓰이므로, ‘都’ 대신 ‘쫌’이 써야 한다고 하셨다. 필자도 이에 어느 정도 동감하긴 하는데, 여기서 ‘쫌’과 ‘都’가 모두 쓰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여러 중국인 친구들에게 물어본 결과 ‘都’도 이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의 의미가 부각될 때 ‘都’가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을 것 같다. 예컨대 ‘사과(남김없이) 하나를 다 먹었다’라는 의미를 표현할 때 ‘都’도 쓰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다른 한 분의 심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那本书我都看完了’ 같은 경우에는, 만약 악센트가 ‘那’에 놓인다면 ‘전칭양화(복수)’의 의미가 아니라 ‘~조차도/까지도(连……都)’정도의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맥락이나 악센트 등이 의미 해석에 관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1가, 나)에서 ‘다’는 각각 복수성(複數性)을 가지는 사람이나 사물 전체에 대한 전칭양화(혹은 총괄)를 나타내는데, (1가)에서는 행위의 주체 즉 주어에 대한 전칭양화를, (1나)에서는 행위의 대상 즉 목적어에 대한 전칭양화를 나타낸다. (1가, 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국어 대응 부사 ‘都’도 ‘다’와 같은 의미/용법으로 쓰이고 있다. 한편, (2)에서는 단수(單數)처럼 보이는 사물(‘사과 하나’, ‘그 책’)을 전칭양화/총괄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쉽다. 그런데 이 경우 겉으로는 하나의 덩어리로 보이는 사물은 인간의 인식 속에서는 이 하나의 덩어리/전체를 더 작은 단위들로 쪼갤 수 있고 결국 복수의 의미는 달라지지 않는다(王紅 1999 등). 예컨대, ‘사과 하나를 먹는 사건’에 있어서 대상은 하나이지만 더 작은 것으로 쪼갤 수 있다. 왜냐하면 사과 하나를 다 먹는 데에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고, 한 입으로 다 먹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과가 다 소진될 때까지 한 입 한 입 계속 먹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한 사과를 먹는 사건’은 실제로 더 작은 단위의 여러 하위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는 ‘복수’의 의미는 여전히 성립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복수의 개체라기보다는 복수의 사건이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 책을 읽는 사건’도 비슷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예컨대 ‘한 권의 책을 읽는’ 큰 사건 전체는 ‘한 페이지씩 읽는’ 작은 하위 사건들로 구성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중국어 ‘都’의 경우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이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기본 의미/용법으로 쓰이는 ‘다’와 ‘都’는 복수성(複數性)을 갖추는 사람/사물/사건(들) 전체를 총괄하는 의미를 나타낸다.⁹⁾

또한, 아래와 같이 ‘선택’의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사 ‘-(이)나/든지’와 부사 ‘다’가 나란히 쓰여 ‘자유 선택(free choice)’ 혹은 ‘任指’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3가, 가)와 (3나, 나)는 각각 명사와 공기하는 경우 그리고 비한정사와 공기하는 경우이다. 이때 ‘다’는 (3가)에서 생략할 수 없으나 (3나)에서 생략해도

9) 일부 논의에서는 (2나)의 ‘다’는 ‘완료’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보았는데, 이런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완료’라는 의미는 ‘다’가 아니라 ‘-었-’에 의해 실현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다’는 여전히 전칭양화사로서 ‘그 책을 읽는 사건(과정) 전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통사나 의미에 아무 영향이 없다. 통사적으로 正文이 되려면 ‘都’는 어느 경우에도 생략 불가능하다(‘无论’, ‘还是’는 생략 가능하고 통사적으로 수의적임), 요컨대, ‘都’가 비한정사를 총괄하는 경우 ‘비한정사+都’의 어순으로 나타나 ‘자유 선택(free choice)’의 의미를 나타낸다.

- (3) 가. 한식이나/이든(지) 일식이나/이든(지) 나는 다 좋아.
 가. (无论)韩餐(还是)日料我都喜欢。
 나. 누구/어디/무엇-(이)나/(이)든(지) (다) 좋다.
 나. (无论)谁/哪里/什么都可以。

이와 관련해서 중국어 부사 ‘都’가 비한정사뿐만 아니라 의문사를 총괄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의문사’가 ‘都’에 후행하는 것으로 즉 ‘都+의문사+VP?’와 같은 의문문을 구성한다. 이와 비교하면, 대응 한국어 문장에 ‘다’가 나타나면 다소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다. 이때 부사 ‘다’보다는 의문사의 중첩형이 나타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듯하다. 일반적으로 한국어의 의문사 중첩형은 자리채우미로 쓰이거나 복수의 의미를 나타낸다(박진호 2007, 2008, 2010). 한국어 의문사 중첩형에 의해서는 전칭양화의 의미라기보다 복수의 의미가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생각된다.

- (4) 가. 都谁来了?
 가. ?*다 누가 왔어요?
 가". 누구누구 왔어요?
 나. 你都去过哪儿?
 나. ?너 다 어디 가 봤어?
 나". 너 어디어디 가 봤어?
 다. 这学期都听什么课?
 다. (?)이번 학기 다 무슨 수업 들어요?
 다". 이번 학기 무슨무슨 수업 들어요?

2) 어조부사

이 절에서는 ‘다’와 ‘都’가 어조부사로 쓰이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자. 세부적으로는 ‘정도성 강조’, ‘의외성/반기대’, ‘반어법’이라는 3 가지 하위 유형으로 나눠 살펴볼 것이다.

우선, 부사 ‘다’가 ‘행동이나 상태의 정도가 한도에 이르렀음’, 즉 ‘사태의 정도성 강조’이라는 확장 의미/용법으로 쓰이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자. 중국어 부사 ‘都’도 유사한 용법이 있음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가. 그는 감정이 격해져서 목소리가 다 떨렸다.

가. 他激动得声音都发抖了。

나. 울어서 눈두덩이 다 부었다.

나. 哭得上眼皮都肿了。

다. 울어서 목이 다 쉬었다.

다. 哭得嗓子都哑了。

라. 그렇게 세게 (문을) 닫다가는 문짝(이) 다 부서지겠다.

라. 那么用力地关(门), 门都要坏了。

(5)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선행 ‘-어서/-다가는’절은 사태에 대한 기술이고, 부사 ‘다’가 포함된 후행절은 그 사태가 아주 극한 정도에 이르렀음, 즉 사태의 정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경우 ‘다’와 ‘都’는 모두 화자가 주관적으로 ‘해당 사태가 극단적인 상황/경지에 이르르게 되었음’ 혹은 ‘사태의 정도성이 지극함’이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용법으로 쓰인다. 이때 ‘다’와 ‘都’의 작용역(scope)은 수식 받은 후행 서술어(용언)에만 걸치는 것이 아니라 후행절 전체에 걸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는 각각 ‘목소리가 떨렸다’, ‘눈두덩이 부었다’, ‘목이 쉬었다’, ‘문짝이 부서지겠다’ 전체를 수식하는 것이다. ‘都’의 사정도 비슷한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특히 ‘甚至(심지어)’ 즉 ‘정도성 강조’의 의미로 쓰이는 이때의 ‘都’는 경성(轻声)으로 읽는다(吕叔湘 1994: 106). 다음과 같은 보조사 ‘-까지’가 포함된 문장으로 환언될 수 있다는 현상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 (6) 가. 그는 감정이 격해져서 [목소리가 떨리기]-까지 했다.
 나. 울어서 [눈두덩이 붓기]-까지 했어.
 다. 울어서 [목이 쉬기]-까지 했어.
 라. 그렇게 세계 (문을) 단다가는 [문짝(이) 부서지기]-까지 하겠다.

또한 넓게 보면 ‘사태의 정도성 강조’라는 의미/용법으로 볼 만한 2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아래와 같은 경우이다.

- (7) 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다 왔어.
 가. *都到了。¹⁰⁾
 가". *都快到了。 / 都快到了。
 나. 이제 곧 기말고사니까 이번 학기도 다 끝났다.
 나. **马上就期末考试了, (所以)这个学期也都结束了。¹¹⁾
 나". 马上就期末考试了, (所以)这个学期也快/就快结束了。
 다. 사람이 다 죽게 되었다.
 다. *人都死了。
 다". 人都快死了。
 라. 다 이긴 경기였는데 방심하다가 막판에 역전을 당했다.
 라. **比赛都赢了, 结果因为疏忽大意, 最后被反超了比分。
 라". 比赛都快赢了, 结果因为疏忽大意, 最后被反超了比分。

이 경우 ‘다 ~ -었다’라는 표현으로 실제로/객관적으로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일을 화자가 주관적으로 이미 실현된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 비추어 볼 때 ‘과장법’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때의 ‘다’는 해당 사태에 대한 화자의 객관적 기술이라기보다는 화자의 주관적 진술/평가로 이해된다. 여기서 ‘-었-’은 ‘예정상’ 표지로 ‘해당 사태가 미래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와 같이 ‘확정적’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말하자면, ‘도착하다’, ‘(학기가) 끝나

10) 여기서 ‘*’로 표시한 것은 이 문장 자체가 비문임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한국어 문장의 대역어로 적절하지 않음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하 같음.

11) 여기서 ‘**’로 표시한 것은 이 문장 자체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비문임을 의미한다. 이하 같음.

다, ‘(사람이) 죽게 되다’, ‘경기에서 이기다’라는 상황/결과에 ‘곧 이르게 됨’을 나타내기 위해 ‘다’를 사용하고 있다. 이 경우 대개 ‘다 ~ -었다’는 ‘都……了’와 대응되지 않고 ‘都快……了’와 대응된다. 일반적으로 ‘都’는 흔히 ‘都……了’의 꼴로 실현(已然) 사태만 나타낼 수 있다. 만약 미실현(未然) 사태가 곧 일어난다는 의미를 나타내려면 ‘都’ 대신 ‘都快’ 혹은 ‘就快’를 사용해야 한다.¹²⁾

‘정도성 강조’라는 의미로 볼 만한 또 다른 경우는 아래와 같다. 이때의 ‘정도성(혹은 정도량)’은 화자가 기대/예상한 정도, 즉 ‘심리적 참조량’이나 ‘화자 마음 속의 주관적 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에 화자의 기대/예상에 어긋나는, 즉 반기대의 양태적 의미가 흔히 실현된다.

- (8) 가. (벌써) 12시 다 됐는데, 안 자고 뭐해? !
 가. 都(已经)十二点了, 还不睡? !
 나. (벌써) 서른 다 됐는데, 결혼은 왜 안 한대?!
 나. 都(已经)三十岁了, 还不结婚? !¹³⁾
- (9) 가. 아니, 다 큰 녀석들이 왜 특하면 이렇게 머리 잡고 싸워?!
 가. 都这么大的人了, 为什么动不动就扯头发打架呀?!
 나. 아이구, 다 늙어 갔구 이불을 빨다가 허리 나가고 싶어?
 나. 哎哟, 都这么大年纪了, 你想洗着洗着被子闪到腰吗? !

(8~9)에서 기본적으로 부사 ‘다/都’는 초점 강조의 기능을 하는데, (8)에서는 체언 성분인 ‘12시/十二点’과 ‘서른(살)/三十岁’에, (9)에서는 용언 성분인 ‘크다’와 ‘늙다’에 초점을 두고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8)에서 ‘다/都’는 나란히 나타나는 수량표현에 화자의 주관적 관점/태도/감정을 투사함으로써 ‘주관 대량(主观大量)’ 표지로 기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8가,가)에서 ‘12시/十二点’이라는 실제량(실제 시점)이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참조 시점, 즉 자야 할 시점)보다 많거나 늦었음을 나타내며, (8나,나)에서 ‘서

12) 다만 ‘*都快到了’라는 형태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예외이다. 이 경우 초점 강조의 기능을 하는 ‘就’를 사용하여 ‘就快到了’로 표현하면 그만이다.

13) 이 용례들에서 괄호 친 부분은 수의적인 성분임을 표시한다.

른(살)/三十岁'라는 실제량(실제 연령)이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참조 연령, 즉 결혼해야 할 연령)보다 많거나 늦었음을 나타낸다. (8가,가)와 (8나,나)에서 화자의 기대/예상이 관여되는데, 즉 '12시 전까지 자야 한다.'와 '서른 살 전까지 결혼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등과 같은 화자의 기대/예상이 전제된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화자의 예상이나 기대에 어긋나기 때문에, 화자가 '다'나 '都'를 사용해서 해당 사태가 못마땅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정적 태도/평가를 드러내며, 담화맥락에 따라 화자의 불만, 비꼼, 비난 등과 같은 부정적 태도/감정이 노출된다.

(9)에서는 역시 어떤 연령과 어떤 사태를 관련시켜서 화자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인데, '다 큰', '다 늙은' 등과 같이 표현될 때 역시 화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정도성 강조'의 의미가 부각된다는 것이다. 또한, 화자의 기대/예상에 어긋나는, 즉 의외(반기대)의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9가,나)에서는 각각 '다 큰 녀석들이 머리 잡고 싸울 일이 일어날 확률이 낮고 그런 사태가 바람직하지 않음'과 '다 늙은 사람이 이불을 빨지 말아야 함'과 같은 화자의 기대/예상에 어긋나는 사태를 경험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화자가 못마땅하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국어 부사 '都'도 비슷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9가,나).

부사 '다'가 '의외성이나 반기대'의 의미를 나타내는 또 다른 경우가 있다. 이때 '일이 뜻밖의 지경에 미침을 나타내며 화자의 가벼운 놀람, 감탄, 비꼼 따위의 뜻'을 나타낸다. 화자는 어떤 사태의 실현 확률이 극히 낮다고 생각/예상했는데 그 사태가 실제로 일어났을 경우에는 화자가 '다'를 사용하여 해당 사태 발생에 대한 놀라움 등을 드러낸다.

(10) 네가 책을 다 읽고, 웬일이야!

(10)에서와 같이 부사 '다'는 상대방('너')에게 일어날 만한 여러 가지 사태들 가운데 해당 사태가 실현 확률이 극히 낮고 화자의 기대/예상에 어긋나는 사태임을 나타낸다. 상대방('너')에게 일어날 만한 여러 사태들을 하나의 대안집합으

로 상정할 수 있는데, ‘책을 읽다’라는 사태는 화자가 상정한 대안집합 밖에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을 것이다.

(11) 네가 {밥을 먹다, 놀러 다니다, 집안일을 도와주다, ... }책을 읽다

‘의외성’이나 ‘반기대’의 의미를 나타내는 한국어 부사 ‘다’는 중국어의 ‘竟然会/居然会’(‘의외/반기대’의 의미를 가진 부사 ‘竟然/居然’와 사태의 실현 확률을 나타내는 인식양태 조동사 ‘会’의 결합형)와 대응 관계를 가진다. 아래 용례에서 이미 []로 표시한 듯이 이때 ‘竟然会/居然会’의 작용역은 ‘看书’라는 사태에 걸쳐 있다.

(12) 你竟然会/居然会[看书]?!

이 경우 중국어의 ‘都’와 대응할 수도 있는데, ‘竟然会/居然会’와 비교할 때의 의성, 반기대’의미의 관여 대상이 조금 차이가 있다. (13)에서 확인할 수 있다.

(13) [你]都会看书?!

(13)과 같이 ‘都’가 쓰일 때 ‘看书(책을 읽다)’라는 사태의 성립 확률이 낮다는 화자의 주관적 판단이 관여된다기보다는, 그 사태의 주체가 ‘你(너)’일 확률이 낮다는 화자의 판단이 관여된다. 사태의 주체에 대한 의외/반기대를 나타내고자 할 때는 중국어 ‘连……都……’구성으로 환언할 수 있는데, ‘连你都会看书(너조차도 책을 읽다니)’와 같이 실현된다. 이 때 대안집합을 이루는 여러 원소들은 사태가 아니라 사태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이를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14) {张三, 李四, 小红, 小明, ……}你会看书

즉 ‘看书(책을 읽다)’와 같은 사태가 여러 주체들(张三, 李四, 小红, 小明

……)에게 일어날 만한 확률로 따져볼 때, ‘你(너)’에게 성립될 확률이 극히 낮으므로 화자가 예상/기대했던 주체들의 집합에 포함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로부터 ‘의외성, 반기대’의 의미가 실현된다.

부사 ‘다’가 ‘의외성’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고빈도로 출현하는 구문 형식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별(別) ~ 다 ….’ 구문이고 다른 하나는 ‘이런/저런 ~ 다 …?’ 구문이다. 대응 중국어 표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해 보자.

우선 ‘별 ~ 다 ….’ 구문의 경우를 살펴보겠다. 그 용례는 아래와 같다.

(15) 가. 살다 보니 별 일을 다 보겠다.

가. 人活久了(真是)什么(样的)事都能见到。

나. 듣자 듣자 하니 별 소리를 다 하네.

나. (真是)什么(样的)话都能听到。

다. 별 우스운 사람도 다 봤다. (칼리나 2011: 74)

다. (真是)什么奇怪的人都有。

라. 별 기기묘묘한 장난이 다 있었다. (칼리나 2011: 74)

라. (真是)什么奇奇怪怪的玩笑都有。

(15가,나)는 관형사 ‘별’은 명사를 수식하여 부사 ‘다’와 호응관계를 이룬다. ‘별’은 원래 ‘별난’, ‘보통과 다른 이상한/특이한’의 뜻을 가지는데, ‘별’이 ‘다’와 함께 쓰이는 ‘별 ~ 다’ 구문은 극대의 양과 질, 즉 ‘더 이상 이상한/특이한 N이 없다’ 정도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칼리나 2011: 73). 또한, (15다,라)는 ‘별 ~ 다 ….’ 구문에서 ‘별’과 피수식어 사이에 형용사의 관형사형을 삽입시키는 경우이다. 칼리나(2011: 74-5)의 논의에 의하면 이때 ‘별’이 수식하는 명사 앞에 오는 관형어는 한정되어 있는데 대개는 ‘이상한, 싱거운, 해괴한, 흉측한, 우스운, 기기묘묘한’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 형용사의 관형사형들인데, 이 경우 ‘별 ~ 다 ….’ 구문은 영탄의 의미를 수반하게 된다. 이때의 ‘다’는 뜻밖의 일 에 대한 놀람, 비꼼, 감탄의 의미로 쓰인다. ‘별 ~ 다 ….’ 구문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은 ‘(真是)什么(样的)……都……!’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

또 하나의 경우는 ‘이런/저런 ~ 다 …?’ 구문인데, 그 용례는 아래와 같다.

(16) 가. 그런 일이 다 있었어?

가. (竟然/居然)还有那种事? / *(竟然/居然)都有那种事?

나. 뭐 저런 못된 여자가 다 있어?

나. (竟然/居然)还有那种坏女人? / *(竟然/居然)都有那种坏女人?

이때의 ‘다’도 뜻밖의 일에 대한 놀람, 비꼼, 감탄의 의미로 쓰인다. ‘이런/저런 ~ 다 …?’ 구문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은 ‘(竟然/居然)还……这种/那种 ……?’ 정도이다. ‘의외/반기대’의 의미를 나타내는 데 부사 ‘都’가 쓰이는 대신 부사 ‘还’가 쓰이는 것이다.

이 외에, ‘이런/저런 ~ 다 …?’ 구문이나 ‘별 ~ 다 ….’ 구문이 관습적으로 인사말/빈말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17가, 나)는 각각 관습적으로 쓰이는 감사 표현과 겸손/겸양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럴 때는 역시 부사 ‘都’가 쓰이지 않고 부사 ‘还’가 쓰인다.

(17) 가. 아유, 뭘 이런 걸 다 사 오셨어요.

가. 哎呦, 还买了这些东西干嘛。 / *都买了这些东西干嘛。

나. 별 말씀 다 하시네요.

나. 您怎么还这么说。(您太客气了。)

끝으로 부사 ‘다’의 ‘반어법’ 용법, 즉 ‘실현할 수 없게 된 앞말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반어적으로 나타내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자. 그 용례는 아래와 같다.

(18) 가. 이 소리 너무 크면은 다 재운 아기도 다시 깰다고. 그럼 그날 잠은 다 잔 거야.

가. 如果这个声音太大, 已经哄睡着了的宝宝会被吵醒的。那么那天你就睡不成觉了。

나. 비가 오니 내일 야유회는 다 갔네.

나. 下雨了, 看来明天郊游去不成了。

다. 빚쟁이가 도망갔으니 돈은 이제 다 받았군.

다. 欠钱的人逃跑了, 看来钱是收不成了/看来钱是要不回来了。

라. 날씨가 이렇게 가무니 올해 농사는 다 지었군.

라'. 天气这么干旱, 今年收成是好不了(liǎo)了。

(18)과 같은 ‘다 -{았}-’ 구문에 대해서는 임철성(1990)에서 다룬 바 있다. 이 논의에 따르면, 이 구문은 몇 가지 통사·의미적 특성을 보인다. 첫째, 반드시 미래 상황의 서술에만 쓰인다. 둘째, 반드시 부정의 의미로만 쓰인다. 셋째, 반드시 과거시제 어미 ‘-았-’만을 택한다. 넷째, ‘-았-’과 결합하는 어말 동사는 반드시 동작동사이다. 다섯째, ‘다’와 ‘-았-’의 통사적 결합의 공고성이다. 이처럼 ‘다 -{았}-’ 구문은 거의 하나의 관용표현처럼 쓰인다는 것이다. 또한, 미래 부정을 나타내는 이 구문은 청자나 문장의 주어가 이 형식의 긍정향이 나타내는 내용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예컨대, (18가, 나, 다, 라)는 각각 ‘잠을 자기’, ‘야유회 가기’, ‘돈을 받기’, ‘올해 농사가 잘 되기’ 등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음을 함축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어 부사 ‘都’는 이런 반어법적인 용법을 가지지 않는다. 중국어에서 유사한 의미 효과를 표현하려면 항상 부정소 ‘不’이 결합된 ‘不成’, ‘不了(liǎo)’ 등 표현이 문면에 나타나야 한다.

3. 맺음말

본고에서는 ‘다’와 ‘都’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용법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하나는 전칭양화부사로서 객관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다른 하나는 어조부사로서 주관적 의미를 나타낸다.

부사 ‘다’와 ‘都’의 의미 대응/확장 양상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전칭 양화부사로 쓰일 때, ‘다’는 대체로 ‘都’와 대응된다. 둘째, 정도성 강조의 의미를 나타낼 때, 부사 ‘다’도 ‘都’와 대응 양상을 보인다. 셋째, ‘의외 혹은 반기대’의 양태적 의미를 실현할 때, 한국어에서 부사 ‘다’를 흔히 사용하지만, 중국어에서는 부사 ‘都’에 비해 부사 ‘还’이 더 자주 쓰인다. 넷째, 한국어 부사 ‘다’는 ‘실현할 수 없게 된 사태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반어적으로 나타내는’ 반어법 용법으로도 쓰이지만, 중국어 부사 ‘都’는 이런 용법이 없다.

한국어 부사 ‘다’와 중국어 부사 ‘都’는 모두 객관적 의미에서 주관적 의미로,

덜 추상적 의미에서 더 추상적 의미로 의미 확장이 일어난다. 이 과정에서 부사 ‘다’와 ‘都’의 의미가 점차 허화(虛化)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와 같은 의미 허화의 과정에서 주관화가 한 몫을 하였다.

한편 언어유형론적으로 ‘all’라는 의미를 지니는 어원어로부터 ‘복수(plural) 표지’나 ‘최고급(superlative) 표지’로 문법화 하는 보편적인 발달 경로가 확인된다.¹⁴⁾ 부사 ‘다’와 ‘都’는 기본 의미로 쓰일 때 ‘복수성’을 지니는 사람/사물/사건을 전칭양화/총괄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때 ‘복수’의 의미는 실현된다. 한편, ‘다’와 ‘都’가 ‘사태의 정도성이 극함’을 강조하는 어조부사로 쓰이는 경우 최고급 표지와 유사한 의미 특성을 공유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all’을 뜻하는 어원어의 문법화와 의미 확장 경로에 비추어 볼 때, 부사 ‘다’와 ‘都’의 의미 확장도 범언어적 경향성에 어느 정도 부합하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대조언어학적 관점에서 한국어 부사 ‘다’와 대응 중국어 부사 ‘都’의 의미/용법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 부사 ‘다’의 의미/용법을 습득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1.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네이버 국어사전

2. 단행본

박진호, 「單義(monosemy)와 多義(polysemy)-문법화와 유형론의 관점에서」, 『국어의 미론의 새로운 인식과 전개 2: 국어의미론의 심화(윤평현 선생 정년퇴임 기념논총)』, 역락, 2016, pp.189-217.
이성하, 『문법화의 이해』, 한국문화사, 2016, pp.161-165.

14) Heine, B., Bernd, H., & Kuteva, T., *World lexicon of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p.463.

- 吕叔湘, 『现代汉语八百词』, 沈阳: 辽宁教育出版社, 1994, pp.105-106.
 杨荣祥, 『近代汉语副词研究』, 北京: 商务印书馆, 2005, pp.314-405.
 赵元任, 『中国话的文法(增订版)』, 香港: 香港中文大学出版社, 2002, pp.388-389.
 朱德熙, 『语法讲义』, 北京: 商务印书馆, 1982, pp.192-201.
 Heine, B., Bernd, H., & Kuteva, T., *World lexicon of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p.463.

3. 논문

- 구일민, 「양화사 ‘다’의 의미와 과장법 기제로서의 화용론적 해석 가능성」, 『한국어어미학』 제23집, 한국어어미학회, 2007, pp.1-22.
 김현주·정연주, 「양화사 ‘다’의 형성과 의미 확장」, 『Journal of Korean Culture』 제16집,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11, pp.263-290.
 박진호, 「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 대명사의 체계의 특징」, 『국어학』 제50집, 국어학회, 2007, pp.115-147.
 _____, 「자리채우미」, 『Kling』 제2집, 고려대 언어학과, 2008, pp.1-6.
 _____, 「자리채우미에 대한 보론」, 『2010년 국어학회 여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국어학회, 2010, pp.1-13.
 양혜승, 「한국어의 주관량 표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pp.1-37.
 임칠성, 「미래 부정의 ‘다-{있}-’ 연구」, 『국어국문학』 제103집, 1990, pp.277-292.
 장경현, 「부사 ‘다’의 의미와 기능」, 『언어사실과 관점』 제45집, 2018, pp.61-84.
 채옥자, 「한국어 주관적 수량 표현에 대하여」, 『한국어 의미학』 제46집, 2014, pp.351-377.
 칼리나, 「현대 한국어 한자어 ‘別’의 의미와 문법」,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pp.74-75.
 奥莉娅, 「现代汉语范围副词研究」, 上海师范大学博士学位论文, 2014, pp.77-89.
 查永山, 「现代汉语“都/也”反预期功能形成的过程及机制研究」, 江苏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2014, pp.13-44.
 陈宝勤, 「副词“都”的产生与发展」, 『辽宁大学学报』第2期, 1998, pp.80-83.
 陈小荷, 「主观量问题初探——兼谈副词“就”, “才”, “都”」, 『世界汉语教学』 第4期, 1994, pp.18-24.
 李善熙, 「汉语“主观量”的表达研究」, 中国社会科学院研究生院博士学位论文, 2003, pp.121-198.
 刘丹青, 「语法化中的更新、强化与叠加」, 『语言研究』第2期, 2001, pp.71-81.
 马真, 「关于“都/全”所总结的对象的位置」, 『汉语学习』第1期, 1983, pp.27-34.
 沈家焯, 「语言的“主观性”和“主观化”」, 『外语教学与研究』第33卷 第4期, 2001, pp.268-275.

- 唐 敏, 「副词“还”的“反预期”语用功能及“反预期”的义源追溯」, 『江苏大学学报』第4期, 2009, pp.69-73.
- 王 红, 「副词“都”的语法意义试析」, 『汉语学习』第6期, 1999, pp.55-60.
- 武 果, 「副词“还”的主观性用法」, 『世界汉语教学』第9期, 2009, pp.322-332.
- 武振玉, 「副词“都”的产生和发展」, 『社会科学战线』第5期, 2001, pp.269-271.
- 张谊生, 「论与汉语副词相关的虚化机制—兼论现代汉语副词的性质、分类与范围」, 『中国语文』第1期, 2000, pp.3-15.
- , 「范围副词“都”的选择限制」, 『中国语文』第5期, 2005, pp.392-398.
- , 「副词“都”的语法化与主观化—兼论“都”的表达功用和内部分类」, 『徐州师范大学学报』第31卷 第1期, 2003, pp.56-62.

4. 인터넷 자료

〈李敏 준구어 말뭉치〉

北京语言大学语料库(BCC语料库) <http://bcc.blcu.edu.cn/>

논문접수일	2023년 05월 10일
심사완료일	2023년 05월 25일
게재확정일	2023년 06월 10일

Abstract

A Study on the Semantic Expansion of Korean Adverb “da(다)”
and Chinese Adverb “dou(都)” from a Comparative Linguistic Perspective

Bao, Juan

This paper studies the semantic expansion of the Korean adverb “da(다)” and the Chinese adverb “dou(都)” from a comparative linguistic perspective. The adverbs “da(다)” and “dou(都)” have two basic usages. One is as a universal quantifier that includes plural people/things/events, indicating the objective meaning of “all”. The other is as a modal adverb that expresses the speaker's subjective (usually negative) attitude/evaluation/emotions, representing subjective meaning.

The semantic extension and corresponding mechanisms of the adverbs “da(다)” and “dou(都)” can be categorized into four types. Firstly, when functioning as a universal quantifier, the adverbs “da(다)” and “dou(都)” exhibit a basic correspondence. Secondly, when expressing emphasis on degree, a corresponding relationship also exists between the adverb “da(다)” and “dou(都)”. Thirdly, when conveying the modal meaning of “mirative or counter-expectation”, the Korean adverb “da(다)” is frequently employed in this usage, whereas in Chinese the adverb “hai(还)” is more commonly utilized in comparison to “dou(都)”. Fourthly, the Korean adverb “da(다)” can be employed in an antiphrasis usage to convey that an unattainable state appears to have been achieved, yet the Chinese adverb “dou(都)” lacks this usage.

In general, both adverbs “da(다)” and “dou(都)” have undergone a semantic expansion from objective meaning to subjective meaning and from less abstract meaning to more abstract meaning. During this process, the meanings of the adverbs “da(다)” and “dou(都)” tend to gradually become virtual, and subjectivisation plays a certain role.

Keyword universal quantifier, modal adverb, emphasis on degree, mirative, counter-expectation, antiphrasis, subjectivisation, grammaticalization

译介与阐述：韩国学者丁来东的‘鲁迅论’*

孙霁**

국문요약

지난 20세기 초부터 루쉰의 문학 작품들은 이미 한국에 번역되어 수용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한국에서는 루쉰 문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루쉰학파’도 형성되어, 루쉰 문학은 한국의 학자와 지식인들이 중국을 상상하고 동아시아 문명을 이해하는 상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한국에서의 ‘루쉰학’에 대한 발전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본 논문은 초기 루쉰 문학의 번역과 연구에 힘썼던 한국 학자인 정래동을 사례로 삼고, 수용의 측면에서 그가 주도했던 루쉰 문학 번역 활동들을 정리하고 재해석하고자 한다. 또한 관련 사료와 문헌들을 통해 정래동과 루쉰 문학 간의 공명을 재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래동의 ‘루쉰론(魯迅論)’을 분석하고자 한다.

주제어 루쉰, 정래동, 번역, 수용, 해석

〈目象〉

1. 引言
2. 译介契机：丁来东的中国体验
3. 思想阐述：丁来东的鲁迅论
4. 结论

* 本文为浙江外国语学院博达科研提升专项计划青年基金重点项目“韩国日据时期的鲁迅文学译介与中国想象”(2022QNZD2)研究成果。

** 浙江外国语学院 朝鲜语专业 讲师

1.引言

2018年初夏,韩国Greenbee出版社出版发行了由韩国鲁迅全集翻译委员会统筹翻译的韩语版『鲁迅全集』20卷,至此韩国汉学界也实现了自主翻译『鲁迅全集』的突破。据悉此项翻译活动前后历时11年之久,共有12位韩国知名汉学家以鲁迅全集翻译委员会的身份主导这项活动,作为鲁迅全集翻译委员会一员的韩国国立江源大学李宝暻教授在接受访谈时称:“能够经我们这辈的手翻译鲁迅全集并传递给下一代,这一信念成为支撑我们完成此项翻译工作的巨大动力。”¹⁾足见韩国学术界乃至群众对于鲁迅文学的重视。韩国的鲁迅文学译介史最早可以追溯到上世纪20年代末,1927年由韩国学者柳基石²⁾翻译的『狂人日记』不仅是韩国译介鲁迅文学的开端,同时也创造了外国人翻译鲁迅文学作品的最早记录。在此之后韩国近现代汉学界在论及鲁迅文学的接受问题时,逐渐形成了以柳基石、丁来东、金光洲等为代表的无政府主义倾向,和以金台俊、李明善为代表的社会主义思想倾向的两大思想流派。³⁾时至今日,更是衍生出试图将‘鲁迅学’由‘东亚视野’推向‘世界场域’的韩国‘鲁迅学派’。⁴⁾为了更好地理解韩国‘鲁迅学’的产生与发展,本文以早期从事鲁迅文学译介与研究的汉学家丁来东为出发点,尝试从译介学的角度对丁来东的鲁迅文学译介活动进行梳理与评述,重构译者丁来东与鲁迅文学作品之间的联系,并由此来讨论其所阐述的‘鲁迅论’。

1) 한국일보 11년간 1만3144쪽 작업 ‘루쉰 전집 20권’ 한국어로 첫 완간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5170414542770>

2) 柳基石 (1905-1980), 曾用笔名柳絮、柳树人。译文刊载于当时韩国京城出版社出版的『东光』杂志,署名青园。

3) 洪昔杓,『近代东亚的鲁迅『野草』批评——丁来东的『鲁迅和他的作品』及其学术贡献』,『学术月刊』第3期,2018, p.23.

4) 张乃禹,『韩国‘鲁迅学’研究新动向』,『中国社会科学报』2021.8.5.

2. 译介契机：丁来东的中国体验

被韩国称为‘第一代中国现代文学研究专家’的丁来东（1903—1985）出生于韩国全罗南道谷城郡邑内里。自幼便在书堂熟读中国古典蒙学‘三百千’的缘故，令丁来东具备了较高的汉学素养。1917年，年仅15岁的丁来东东渡日本，开始他的求学之旅。在东京期间，他曾先后就读于明治学院中学部、大成中学校，但在1923年关东大地震东京变成一片废墟后，日本人为了泄愤开始肆意屠杀韩国人，亲眼目睹了这一切的丁来东毅然选择放弃学业回到韩国。但出于对知识的渴望，次年8月在家人的支持下，丁来东独自一人来到北京，继续他的学业。

在北京的9年留学生活，对丁来东日后思想观的形成、鲁迅乃至中国现代文学译介活动的展开都产生了重要的影响。1924年丁来东途经奉天来到北京，次年9月插班进入当时民国大学预科二年级，经过一年努力的丁来东于1926年正式考入民国大学英文系。但他却对英文丝毫不感兴趣，把精力全部集中在研究中国白话文文学作品上。为了提高自己的中文水平，以便更好地研读中国现代白话文小说，他曾先后求教于向培良、郭桐轩等人。1930年从民国大学毕业后的丁来东选择继续留在北京研究中国文学，直至1932年5月携妻子一同返回韩国。

值得一提的是，通过整理丁来东的年谱可以看出，他在留居北京期间便已经开始翻译发表鲁迅文学作品，其中『伤逝』连载在『中外日报』⁵⁾1930年3月27日至4月10日刊上，『过客』虽然刊登在『三千里』1932年9月刊上，但距离丁来东回国后仅有4个月的时间，而『野草』又是鲁迅众多文学作品中相对难于理解的一部，近现代韩国除了『过客』这一篇以外，再无『野草』中的

5) 『中外日报』是由韩国著名舆论家、小说家李相协（1893—1957）于1926年11月15日创办的日刊报纸，与当时的『朝鲜日报』、『东亚日报』并称为韩国日据时期‘三大民间报纸’。在当时新闻行业竞争激烈的情况下，『中外日报』报社自身经营不善，在1931年6月19日停止发刊。『中外日报』停刊后，在其原有设施和人员的基础上，又相继更名为『中央日报』、『朝鲜中央日报』进行发刊，直至1937年11月5日受到来自日本殖民当局朝鲜总督府的检阅压力，被迫停刊。

作品被翻译过。就连丁来东自己也称『野草』较难翻译，“句子过于难涩，过于简略，省略部分过多，欲理解作家的真实”。⁶⁾想必这篇『过客』的主要翻译工作也是丁来东回国前在北京就已经开始着手进行了。此外，丁来东在翻译鲁迅文学作品的同时，还发表了多篇关于鲁迅文学作品的评论文章，从而形成了他所要阐述的‘鲁迅论’，其中，连载在『朝鲜日报』1931年1月4日至1月30日前后长达20刊的「中国短篇小说家：鲁迅和他的作品」构成了丁来东‘鲁迅论’的基本框架。另外，同样连载在『朝鲜日报』上的「中国现文坛概况」、
「读『阿Q正传』有感」，以及发表在『东亚日报』上的「中国文人印象记(三)：孤独与讽刺的象征——如今左倾的鲁迅先生」也从不同的角度阐述了丁来东本人对鲁迅文学的认识，进一步完善了他的‘鲁迅论’。

〈表1〉 丁来东译介鲁迅文学作品年谱

序号	中文题目	韩文题目	发表刊物	发表时间	备注
1	中国现文坛概观	중국현문단개관	朝鲜日报	1929.7.26	文学评论
2	伤逝	애인의 죽음 - 취연생(渭生)의 수기	中外日报	1930.3.27-4.10	翻译
3	读『阿Q正传』有感	『아Q정전』을 읽고	朝鲜日报	1930.4.9-4.12	文学评论
4	中国短篇小说家：鲁迅和他的作品	中国短篇小说家： 鲁迅과 그의 작품	朝鲜日报	1931.1.4-1.30	文学评论
5	过客	과객	三千里	1932.9	翻译
6	中国文人印象记(三)：孤独与讽刺的象征——如今左倾的鲁迅先生	中国文人印象记(三)： 孤独과 讽刺의 象征인 지금은 左倾한 鲁迅氏	东亚日报	1935.5.3	文学评论

那么是什么样的契机触发了丁来东要译介鲁迅文学作品呢？同时在选择翻译鲁迅文学作品时丁来东的取舍标准又和同时代其他译介鲁迅文学作品的韩国学者存在着怎样的不同呢？实际上，和同时代韩国其他的鲁迅文学作品译者一个最明显的不同是，丁来东虽然在北京有过9年的生活经历，却未曾在

6) 丁来东, 「鲁迅和他的作品」, 『丁来东全集』(I), 首尔: 金刚出版社, 1971, p.338. (转引自洪昔杓(2018), 同上, p.24.)

私下拜访过鲁迅。丁来东虽然没有与鲁迅发生过直接接触，但是透过鲁迅『日记』和丁来东的记述，可以推测出在丁来东和鲁迅之间曾有过间接的文学与思想层面的交流。热衷于宣传无政府主义的丁来东，对自称“个人的无治主义者”⁷⁾的鲁迅有着异常的向往，并由此开始接触鲁迅的文学作品，与鲁迅思想主张产生共鸣，进而在脑海中渐渐出现了一种想要将其译介到韩国的想法。

另一方面，丁来东在研习中国现代白话文文学作品的过程中，由于起初自身中文水平有限，时常利用自己精通日语的优势，通过接触日本文坛译介中国现代白话文文学的倾向，进一步扩充自己对中国现代白话文文学的认知。但就是在这样的过程中，丁来东渐渐发现“日本文坛关于中国现代白话文文学的译介文中，有诸多偏颇之处，又不乏夸大其词之处”⁸⁾，为此，他本人决心“力求无差别地译介中国现代白话文文学作品，传达中国文坛文学批评的本意”⁹⁾。事实上，当时韩半岛正处于日本殖民统治之中，日本殖民当局高压的文化殖民政策，迫使韩国知识阶层放弃本民族语言借用日语开展文学活动，而韩国民众更是只能接触到日文读本。日文译本对中国现代白话文文学作品的偏见，会严重影响到韩国民众对中国的想象与认知。从这一点上来看，丁来东选择译介中国现代白话文文学作品，特别是被视为中国现代白话文文学大师的鲁迅作品，一方面是为了给韩国民众建立起一个‘无差别、公正’的中国认知，另一方面，用韩文进行译介的行为本身也是对日本殖民统治的一种革命性的反抗。而在翻译实践的过程中，也验证了丁来东的想法，即中国现代白话文文学作品日文译文中存在大量的误译现象，一个明显的事例就是他在翻译丁西林的戏剧『一只马蜂』后记中写道：“笔者（丁来东）在翻译时，对照日文译本，并将日文译本中的误译之处以表格记录下来。可不曾想，不过二十页的日文译本中，竟有五十余处误译。在出现误译的地方中，有的四、五行甚至是一个人的全部对话和文本整体格格不入，完全在讲另一件事。”¹⁰⁾

7) 鲁迅，『鲁迅全集』（第十一卷），北京：人民文学出版社，2005，p.493.

8) 丁来东（1971），同上，p.2.

9) 丁来东（1971），同上，p.2.

在鲁迅众多的文学作品中，丁来东为何要选择翻译『伤逝』和『过客』这两篇作品呢？从史料来看，『伤逝』和『过客』两篇译作分别发表于1930年和1932年，在此之前鲁迅短篇小说的代表作『狂人日记』和『阿Q正传』已经分别由柳基石和梁建植翻译，并于1927年和1930年相继出版。如上文所述，丁来东、柳基石、梁建植三人同为北京留学派，在京期间无论是私下交流，又或是学术研究，三人之间都存在着很多的交集。如果要翻译鲁迅文学作品，相信他们事先私下也都会互相了解，在作品选择上有所侧重与区分，这是其一。另外，简单地从两篇作品所要传达的内容来看，『伤逝』是一部以爱情为主题，讲述青年男女在启蒙之后因无法面对现实窘境时产生的悲剧。而『过客』则是一篇出自『野草』中的诗剧，文中通过塑造老翁和过客两个人物形象，以‘孤军作战’的精神去反抗绝望。这两部作品的相似之处在于都是在讲述启蒙和文学革命之后，知识分子的生存状态。而这又恰巧与当时丁来东在北京的生活体验十分吻合。丁来东逐渐建立起对中国现代文学的认识，要从20年代中期算起，但20年代中期以后，中国现代文学正上演着一场重大的变革。中国第一次国内战争的失败，让中国知识分子开始重新思考文学革命的意义，面对复杂的阶级斗争局势，他们不再满足文学的现状，急切地要求文学做出改变为革命斗争而服务。此时世界范围内的无产阶级文学运动方兴未艾，这给他们带来极大的触动，一场主张革命文学的论争也随之到来。而鲁迅这样一位曾经被中国知识青年所尊敬的导师，却被无名地卷入到了这场革命文学论争的漩涡之中。不仅遭到同辈作家的责难，甚至那些曾经受过鲁迅鼓励的青年知识分子也将矛头对准了他，‘死去了的阿Q时代’鲁迅的文学竟成为没落的代名词。但作为‘战士’的鲁迅又岂会没落，他就如同‘过客’般以‘孤军作战’的姿态去驳斥那些质疑。当时身在北京的丁来东亲眼目睹了中国现代文学这场论争的经过，于是有了上文中提到过他所记录的鲁迅为驳斥质疑在京激情演讲的一幕。丁来东选择翻译这两篇作品，既是对当时中国革命文学论争和鲁迅处境的一种映射，同时也体现出他本人对鲁迅文学作品的作品态度，以及个人

10) 丁西林，『一只马蜂』，丁来东译，『东光』第37号，1932，p.105.

文学思想观的认知，这一点在后来丁来东所发表有关其自身‘鲁迅论’的阐述性文字中也可以得到认证。

3. 思想阐述：丁来东的‘鲁迅论’

『中国短篇小说家：鲁迅和他的作品』是丁来东阐述其‘鲁迅论’的核心文章，该文章于1931年1月4日至1月30日连载在『朝鲜日报』上。文章共由8个章节构成，依次为：（一）序言、（二）鲁迅自传、（三）『呐喊』、（四）『彷徨』、（五）『彷徨』与『呐喊』、（六）『野草』、（七）鲁迅的语言、（八）结论。¹¹⁾正如丁来东在文章中所写：“已经对鲁迅大半生的全部作品做了介绍”¹²⁾一样，通过这篇文章丁来东不仅对大部分鲁迅文学作品的故事梗概、创作意图做了详细的介绍，并在字里行间吐露了他本人对于鲁迅文学作品及思想的认知。

丁来东在讨论鲁迅作品时，首先注意到的是作家生活体验与作品创作之间的关系。他在第二节鲁迅自传和第三节『呐喊』的‘自序’介绍中，反复强调鲁迅的生活体验，并试图以此来印证鲁迅作品中的回忆性、现实批判性、农村题材频繁登场等要素。但从另一方面来看，也为他要通过鲁迅不同时期作品来讨论鲁迅思想是否发生转变埋下了伏笔。而这也是丁来东利用自己对鲁迅文学的见解来回应发生在中国20年代末期革命文学论争这一事件的表现。正如上文所述，丁来东在北京期间亲身经历了那一场思想火花四溅的革命文学论争。当他看到中国知识分子为了中国未来而争执不休时，不仅被论争的氛围所感染，想要加入其中，同时更想将处在这次论争漩涡之中的鲁迅的文学和思想介绍到韩国，为当时身在日本殖民统治下的韩国民众点亮前进的灯塔。

丁来东将鲁迅定义为‘新文化运动的实践者’¹³⁾，并指出鲁迅的功绩在于

11) 章节汉译题目参见丁来东，『鲁迅和他的作品』，朴宰雨编，『韩国鲁迅研究精选集（第二辑）』，金英明译，北京：中央编译出版社，2016，pp.249-287.

12) 丁来东（1971），同上，p.283.

“成功挑战并战胜了传统的封建思想，唤起了新兴中国的自我反省和自我认识”¹⁴⁾。事实上，这一点也是处在日本殖民统治下的韩国民众迫切需要的。而回答鲁迅思想是否发生转变，到底还是不是那个‘新文化运动的实践者’，在笔者看来，这正是丁来东写作这篇文章的主要目的。在文章第三节『呐喊』中，丁来东用了大量的篇幅来介绍『阿Q正传』的故事梗概，但当时『阿Q正传』韩文译本已经在这篇文章发表前的一年由梁建植翻译并发表。以鲁迅文学作品在当时的影响力来说，韩国民众势必已经对『阿Q正传』有所耳闻，然而丁来东却不惜在寸土寸金的报纸版面上再次介绍『阿Q正传』的故事梗概，只能说明丁来东认为的“『阿Q正传』在文坛上引起的波澜及其影响，是不可估量的。”¹⁵⁾而『阿Q正传』中传达的对中国人在列强面前百战百败原因的思考，以及中国国民性的阐释，也是当时韩国要面对的问题，甚至韩国的境遇远不及中国。这是丁来东再次介绍『阿Q正传』故事梗概的现实意义，但从思想层面来看，他要尝试做的还是讨论‘阿Q时代’是不是已经结束了。

关于‘阿Q时代’是不是已经结束了的讨论，最早出自革命文学论争中1928年钱杏村所写用来责难鲁迅的『死去了的阿Q时代』一文。钱杏村在『死去了的阿Q时代』的『附记』中写明该篇评论完全根据的鲁迅的『呐喊』、『彷徨』和『野草』三本书而作¹⁶⁾，而我们不难发现丁来东的『鲁迅和他的作品』也刚好是以『呐喊』、『彷徨』和『野草』三部作品集为中心阐述他所认知的‘鲁迅论’。在这里很明显，丁来东是有意要回答‘阿Q时代’是否已经结束的质疑的。同样，在以介绍『阿Q正传』故事梗概并进行述评这一节的结尾处，丁来东写道：“如同最近的新晋评论家钱杏村所说，‘鲁迅的作品，特别是『阿Q正传』不能离开其时代性’。”这是丁来东在这篇文章中首次点明要对钱杏村关于鲁迅文学的评价进行回应，随后他写道：“鲁迅并不是有远大的思想，只不过

13) 丁来东 (1971), 同上, p.249.

14) 丁来东 (1971), 同上, p.250.

15) 丁来东 (1971), 同上, p.267.

16) 钱杏村, 『死去了的阿Q时代』, 孙郁编, 『被褻读的鲁迅』, 贵阳: 贵州人民出版社, 2009, p.42.

是刻画了辛亥革命时代的社会面貌，从大面上讲，这种观察是正确的，无论是哪个时期的作家和作品都离不开时代性，不同的只是那个时代性在艺术作品中所体现的浓厚度。”可以看出，丁来东并不认同钱杏村所说的鲁迅的时代局限性。他虽然也认为鲁迅的作品不能离开其时代性，但这种时代性不是一种局限，而是作家生活体验和作品创作之间发生关系的必然结果。鲁迅的文学作品刻画了辛亥革命时代的社会面貌，这是毋庸置疑的，因为鲁迅有过那个时代的体验，他看到过那个时代的问题，但这并不意味着鲁迅的思想就停滞在了某个时代。这也印证了在整篇文章开头两段章节中，丁来东为何要反复强调鲁迅的生活体验。

阶级性是钱杏村质疑鲁迅文学的另一个焦点。在他看来，鲁迅文学作品是“在灯下对坐的怀旧谭中，回味那里冲突以后的和解的重生一般的乐趣”，而将其称为“自由主义文学的范例”，实际上是“无意义的类似消遣的依附于资产阶级的滥废的文学”¹⁷⁾。鲁迅文学作品中没能适应时代的变化，及时对无产阶级做出正确的回应。作品中反复出现的农村题材，是鲁迅怀旧情绪在作祟，而其笔下的农民形象更不能代表在文学革命启蒙后新农民，就更不要说为中国的未来去思考了。就此，丁来东以鲁迅的《故乡》为例，虽没有直接点明钱杏村，却也以“阶级文学家们的代称，驳斥了他的观点。丁来东认为鲁迅的文学作品之所可以被看作是回忆性的文章，又对农村萧条、人心变恶的现象描述得淋漓尽致，其原因在于鲁迅文学创作的写实性，“鲁迅在实事求是地书写过程中自然而然地与当时的现实背景相一致的结果”¹⁸⁾。而对于回答鲁迅有没有对中国未来进行思考时，丁来东则认为鲁迅不是指出“中国应该走向哪里”的作家，只不过是指出“中国或中国人是这样”的作家¹⁹⁾。就像鲁迅在《故乡》中的最后几行所写的那样，“希望是本无所谓有，无所谓无的。这正如地上的路；其实地上本没有路，走的人多了，也便成了路。”²⁰⁾鲁迅能够得到这样的结论

17) 钱杏村 (2009)，同上，pp.36-37.

18) 丁来东 (1971)，同上，p.271.

19) 丁来东 (1971)，同上，p.271.

20) 鲁迅，《鲁迅全集》（第一卷），北京：人民文学出版社，2005，p.510.

得益于他能够站在客观的角度观察人类，而绝非个人主义。可以看出，丁来东将鲁迅的文学与思想归结为一种客观的写实性，虽然在文章中丁来东称之为‘自然主义’²¹⁾，但笔者认为这就是我们所说的现实主义。

在接下来的几个章节中，丁来东继续通过比较鲁迅的『呐喊』、『彷徨』和《野草》三部作品集，来回答鲁迅的文学和思想到底是否发生的转变。从文章故事内容上来看，丁来东认为鲁迅的文学作品无法避免地产生一些变化，却又被读者看成没有变化。他认为鲁迅文学发生了变化，是因为时代变了，鲁迅本人自然有了新的生活体验，反应在文学作品也就发生了变化，『彷徨』较比『呐喊』没那么的深刻了，『野草』中徒增了许多‘苦恼’。但这些变化却被读者看成了没有变化，是因为读者已经习惯了鲁迅的语言，在一些故事构成要素上已经是司空见惯了，很难发现细节上的改变。

总之，在丁来东看来，鲁迅是‘新文化运动的实践者’，他的文学与思想是建立在现实主义基础之上的，因此生活体验对于鲁迅的文学创作有着至关重要的作用。时代变了，鲁迅的生活体验也会发生改变，自然也会影响到他的文学作品中，发生微妙的变化。但是，无论如何变，鲁迅的文学与思想的基础不会改变，也就是丁来东所说‘自然主义’，即现实主义。

4. 结论

作为中国现代白话文文学之父的鲁迅，有着多重的身分。他是青年知识分子的人生导师，是‘新文化运动的实践者’，更是影响韩国现代文学发展的重要人物。他在中韩现当代文学交流史上占据着重要地位。在韩国被称为‘第一代中国现代文学研究专家’的丁来东凭借着自身的中国体验，将鲁迅文学和思想译介到韩国，并对其进行重新阐述，形成自己的关于鲁迅文学认识的‘鲁迅论’。丁来东译介鲁迅文学活动能够得以进行，离不开他在北京十余年的中国体验。这段中国经历，不仅让丁来东熟练掌握了中文，对中国现代白话文文学

21) 丁来东在文章中称鲁迅文学写实性为‘自然主义’，笔者认为这是丁来东对‘自然主义’的误解，实际上就是现实主义。

产生了浓厚的兴趣，从而激发了其翻译鲁迅文学的欲望，同时他也经历了上世纪20年代末中国现代文学的重大变革期，即从文学革命到革命文学的转变。看到中国知识分子为了中国未来而争论不休的样子，加重了丁来东对其故乡韩国当时殖民现状的困惑。他将希望寄托在文学思想之上，唯有国民觉醒方可实现解放。鲁迅文学的译介是丁来东思考韩国未来的一种映射，另一方面也是他对中国现代文学变革的一种认知。作为一名无政府主义者的丁来东，他更倾向于纯文学，即将文学与阶级分离开进行讨论。因此，在他要阐述的‘鲁迅论’中，对鲁迅文学思想是否发生转变做出了回答。在他看来，作家的生活体验与作品之间存在着密切的关联，鲁迅文学中的回忆性、批判性与鲁迅的生活体验息息相关。即便时代变了，鲁迅生活体验随之改变后，作品也会发生些许变化，但作为鲁迅文学创作基础的写实性，即现实主义不会发生变化。也因此，鲁迅是一位指出‘中国或中国人是这样’的作家，而不是一位指出‘中国应该走向哪里’的作家。而事实上，当时的韩国正需要的就是像鲁迅这样一位能指出‘韩国或韩国人是这样’的作家。

◆ 参考文献

1. 资料

- 丁来东, 『丁来东全集』(I), 首尔: 金刚出版社, 1971.
- _____, 「中国文人印象记(三): 孤独与讽刺的象征——如今左倾的鲁迅先生」, 『东亚日报』1935.5.3.
- 丁西林, 「一只马蜂」, 丁来东译, 『东光』第37号, 1932, p.105.
- 鲁迅, 『鲁迅全集』(第一卷), 北京: 人民文学出版社, 2005.
- _____, 『鲁迅全集』(第三卷), 北京: 人民文学出版社, 2005.
- _____, 『鲁迅全集』(第十一卷), 北京: 人民文学出版社, 2005.
- _____, 『鲁迅全集』(第十五卷), 北京: 人民文学出版社, 2005.

2. 单行本

- 朴宰雨编, 『韩国鲁迅研究精选集(第二辑)』, 北京: 中央编译出版社, 2016.
- 孙郁编, 『被亵渎的鲁迅』, 贵阳: 贵州人民出版社, 2009.

3. 论文

洪昔杓, 「近代东亚의鲁迅『野草』批评——丁来东의『鲁迅和他的作品』及其学术贡献」, 『学术月刊』第3期, 2018, pp.23-32.

4. 网络资料

한국일보 11년간 1만3144쪽 작업 ‘루쉰 전집 20권’ 한국어로 첫 완간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5170414542770>.

논문 접수 일	2023년 04월 17일
심사 완료 일	2023년 05월 28일
게재 확정 일	2023년 06월 14일

Abstract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the Korean Scholar Jung Raedong's Study of Lu Xun's literature-

Sun, Ji

Lu Xun's literary works have been translated into the Korea since the late 1920s. Nowadays, a school of scholars specializing in Lu Xun's literature has formed in Korea, and Lu Xun's literature has become a symbol for Korean scholars and people to imagine China and think about East Asian civilization. In order to better understand the development context of Lu Xun's research in Korea, this paper takes Jung Raedong, an early Korean sinologist who translates and studies Lu Xun's literature, as an example. To organize and expound the literary translation activities of Lu Xun in Jung Raedong with the method of studying translation and introduction, and restates the resonance between Jung Raedong and Lu Xun's literature through historical documents to analyzes his research.

Keyword Lu Xun, Jung Raedong, Translation, Acception, Interpretation

중국 대학 내 한국어 번역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번역 교재 분석을 중심으로-

전 패영*

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국 대학에서 사용되는 번역 교재 4권을 분석함으로써 중국 대학 내 한국어 번역 교육과정의 개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중국 대학 내 한국어 번역 교육의 현황을 보면 한국어 번역 수업은 교육내용이나 교육 방식, 과목 유형, 학점 등이 대학마다 상이하다. 그러므로 중국 대학 내의 한국어 번역 교육과정이 아직 덜 정립되는 상황이라 확인할 수 있다. 대학들의 다양한 번역 교육과정을 일일이 살펴본다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번역 교육과정을 가장 직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번역 교재를 '교수·학습 상황'과 '내적 구성'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기로 하였다. 교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중국 대학 내 한국어 번역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데에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번역 교재나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사용 대상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야 하고 교육과정의 단계화, 체계화, 조직화가 필요하다. 둘째,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학습자의 역할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 번역 이론, 번역 실천, 번역 기교 등 교육내용의 배열·조직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육과정이나 교재를 개발할 때 적절한 상호문화적인 지식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교육과정이나 교재를 개발할 때 번역 텍스트의 난이도를 일관성이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교육과정이나 교재를 개발할 때 번역 실천이나 실습 부분의 제시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한국어 교육, 번역 교육, 교육과정 개발, 중국 대학, 교재 분석

* 고려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목차〉

1. 서론
2. 중국 대학 내 한국어 번역 교육의 현황
3. 중국 대학 내 한국어 번역 교재 내용 검토
4. 중국 대학 내 한국어 번역 교육과정의 개발 방향
5. 결론

1. 서론

본 연구는 중국 대학 내¹⁾ 한국어 번역 교육과정의 개발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국 대학에서 현재 사용되는 중한 또는 한중 번역 교재를 분석하여 이를 교육과정 개발의 기초로 삼고자 한다.

번역 교육은 학습자의 외국어 쓰기, 읽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통합적 교육 분야로 볼 수 있다. 번역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전체 텍스트를 철저히 읽고 이해해야 정확한 번역을 할 수 있고, 또한 역자와 독자 간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역자는 독자들에게 번역문 내용을 이해시켜야 한다²⁾. 따라서 외국어를 모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외국어 읽기 능력이 높아질 것이고, 모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할 때 역자가 어휘 선택으로부터 도착어 텍스트 전체의 응집성, 결속성까지 모두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어 쓰기 능력도 자연스럽게 향상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학습자가 번역 교육을 통해 외국어 읽기 및 쓰기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어교육 연구에서는 번역 교육을 고립적인 분야로 다루고, 번역 능력과 한국어 능력의 관계를 간과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어 번역 교육은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주요하게 연구되지 않고 있고, 그중에 한국어 번역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는 더욱 드물다. 한국어교육에서 통·번역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1) 본 연구에서 다루는 중국 대학은 보통 4년제인 학부를 가리키는 것인데 대학원의 경우 이 연구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2) 姜倩, 『翻譯概論』, 上海外語教育出版社, 2008, p.146.

는 김영수(2006), 김순영(2008), 김해구·리영남(2017), 정철자(2012), 쩌 하이즈영(2021), 쩌 하이즈영(2022), 고효정(2016), 임형재(2016), 박소영(2017), 박은정(2022), 심지영(2021), 추육영(2021), 투무르바타르 앙크체첵·김영란(2017), 김월휘(2019), 임형재·우메무라 마유미(2019), 완와짜 쑤켓씩(2020), 임형재(2021), 염철(2021), 하나은·윤창숙(2021), Toktarova, Zhansaya(2020) 등이 있는데, 그중에 김영수(2006)는 최초로 한국어 번역 교육과정을 위한 기초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오류 분석을 통해 어휘, 문장 번역의 교육내용을 점검하고 중국의 한국어학과 교육과정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김순영(2008)에서는 국내 학부 영한, 한영 번역 교육과정의 현황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데에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고찰해 보았다. 또한 정철자(2012)는 시장 수요를 분석하여 그 당시의 번역 교육과정 개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최근 5년 동안 한국어 번역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중국어나 영어뿐만 아니라 몽골어, 일본어, 태국어, 카자흐어·러시아어 등 다양한 언어권 학습자를 고려한 연구가 나타났다. 언어별로 보면 김월휘(2019), 고효정(2016), 김해구·리영남(2017), 임형재(2021), 염철(2021), 추육영(2021)은 중한·한중 번역이나 통·번역 교육과정을 다루었고, 박소영(2017)은 서한 전문 번역 교육과정, 투무르바타르 앙크체첵·김영란(2017)은 몽한 통·번역 전공 한국어 교육과정에 대해 검토·개발하였다. 또한 임형재(2016)는 중·일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통·번역 교육과정을 평가하였고, 임형재·우메무라 마유미(2019)는 일본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번역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밝혔다. 완와짜 쑤켓씩(2020)은 태국 대학 내의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통·번역 교육과정의 개발 방안을 모색하였고, 쩌 하이즈영(2021), 쩌 하이즈영(2022)에서는 베트남 대학의 한국어 통·번역 교육 현황 및 교육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문제점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Toktarova, Zhansaya(2020)는 요구 분석을 통해 한국어-카자흐어·러시아어 통·번역 교육과정 혁신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특정한 언어권을 한정하지 않고 한국 국내 번역 교육과정을 살펴보는 연구는 심지영(2021), 박은정(2022), 하나은·윤창숙(2021) 등이 있다. 박은정(2022)에

서는 A→B방향 한국어 번역 전공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 호주 RMIT 통번역 과정 교과목과 한국 국내 대학원 한국어 번역전공의 교과목을 비교함으로써 개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심지영(2021)에서는 일반대학원에서 개설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 전공의 운영사례와 교육과정을 소개함으로써 문제점을 짚어주고 발전 방향을 마련하였다. 하나는·윤창숙(2021)에서는 한국 국내 통·번역 대학원 번역 과목 현황을 조사함으로써 한국어 번역 글쓰기 교과과정을 제안하였다.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최근 한국어 통·번역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가 점점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 통·번역 교육과정을 동시에 다루는 연구가 다수지만 번역 교육과정에만 집중하는 연구가 미흡하다. 통역과 번역은 형식, 내용, 기능상 크게 다르므로 통·번역 교육과정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것보다 각각의 교육과정에 집중하여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뿐만 아니라 선행 연구들을 통해 중국 대학 내 한국어 번역 교육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한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한국어 전공을 개설한 중국 대학의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의 여러 대학에서는 3학년부턴 한국어 번역 수업을 개설한다고 알 수 있다. 중국의 한국어 관련 학과에서의 통·번역 교육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기능 이외에 또 하나의 기능으로 자리를 잡고 있으므로 중국 대학에서 한국어 통·번역 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³⁾. 그러나 현재 중국 대학 내의 한국어 번역 수업은 아직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중국 대학 내 한국어 번역 교육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한국어 번역 교육과정이 체계화,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도출할 수 있다⁴⁾. 따라서 중국 대학 내 한국어 번역 교육의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어 번역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

현재 한국어교육 분야에서의 번역 교육이 한국어 능력 향상과의 긴밀한 관계, 한국어 번역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의 부족, 중국 대학 내 한국어 번역 교육의

3) 김월휘, 「중국 대학 한국어 관련 학과의 통·번역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어문논총』 제35집, 전남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2019, p.195.

4) 김월휘, 앞의 논문, p.200.

중요성 및 현행 교육과정의 문제점 등 측면에서 중국 대학 내 한국어 번역 교육 과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시급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중국 대학에서 활용되는 교재 4권을 분석하여, 실제로 어떠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어떤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더욱 체계적인 번역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중국 대학 내 한국어 번역 교육의 현황

1) 중국 대학 내 한국어 전공의 특성

1992년 한중 수교 이후로 한중 양국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중국 의 여러 대학에서 한국어 전공을 개설하게 되었다. 외국어교육에서의 한국어교육은 중국 내에서 20-30년 동안 발전해왔는데 지금까지 양적으로는 비교적 상당한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교육부의 양광수능망⁵⁾에 따르면 2022년까지 중국에서 한국어(조선어) 전공⁶⁾을 개설한 대학은 총 125개에 이르고 23개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지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국어 전공이 개설된 대학은 주로 중국 동북, 중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산동성(28개), 길림성(16개), 흑룡강성(10개), 강소성(10개)에 가장 많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중국의 서북 지역, 남부 지역에서 한국어 전공을 개설한 대학 수는 적은 편이다.

이와 같은 특징이 나타난 원인은 경제, 문화, 역사, 위치 등 요소에 달려 있다고 본다. 역사, 문화 측면에서는 중국 조선족은 주로 동북 지역에 분포해 있고, 오랜 역사 속에서 비슷한 문화를 가지며 비슷한 언어를 사용해왔다. 이와 같은 환경을 바탕으로 동북 지역에서 한국어를 연구하는 데에 편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한국어 전공들이 많이 생겨났다. 경제, 위치 측면에서는 중국 산동성은 한반도와 매우 가까운 이웃이며 경제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한국 기업들이 이곳에 많이 진출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산동 지역에서 한국어에 대한

5) 양광수능망은 중국 교육부에서 운영한 사이트로서 최신의 수능 시험과 대학교 정보 등의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6) 본 연구에서 조선어, 한국어 전공은 모두 '한국어 전공'으로 통일하기로 한다.

요구가 많아지고 한국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한국어 전공이 많이 개설하게 되었다. 반면에 서북, 남부 지역은 한국과의 교류가 상대적으로 적어 한국어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지 않아 한국어 전공이 많이 개설되지 못한 것으로 알 수 있다.

이처럼 한국어 전공이 개설된 수많은 대학들의 분포지역은 서로 상이하나 전반적으로 한국어 전공이 지향하는 교육 목표와 요구하는 한국어 능력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 현재 중국 대학 내 개설한 한국어 전공에서는 ‘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교육 목표를 두었고, 학생들에게 ‘높은 도덕적 수준, 풍부한 지식,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유창하게 하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학습자들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4가지의 기능 이외에 통·번역 능력, 상호문화 능력 등도 갖추어야 한다⁷⁾.

한국어 전공에서 개설한 과목들은 대학마다 다소 상이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초 단계와 고급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중국 교육부의 규정에 따르면 비통용어 외국어 교육과정에는 기초 외국어, 고급 외국어, 외국어 말하기, 쓰기, 시청설, 문법, 쌍방향 통·번역, 문학, 또한 지역문화 등의 핵심 수업을 포함해야 한다⁸⁾. 대부분 대학에서의 기초 단계에는 ‘기초 한국어’, ‘기초 한국어 말하기’, ‘기초 한국어 듣기’ 등과 같은 한국어 문법, 듣기, 말하기를 다루는 기초적인 언어 과목들을 포함하고, 고급 단계에는 ‘한국어 쓰기’, ‘한국어 뉴스 읽기’, ‘한국어 번역’, ‘한국어 통역’ 등과 같은 높은 수준의 언어 능력 지식과 ‘한국 경제’, ‘한국 문화’, ‘한국 문학’ 등과 같은 사회 문화적 지식을 다루는 과목들을 포함하였다. 북경 B대학교⁹⁾ 한국어 전공 각 학년에 개설된 과목 목록을 통해 현재 중국 대학 내 한국어 전공의 교수 내용 특징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7) 엔쇄이, 「중국 지역 조언어(한국어)학과 교과과정 개선 방안 연구: 홍콩강성 내 3개 대학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연구』 제11집, 한국어교육연구학회, 2019, p.57.

8) 김월휘, 앞의 논문, p.188.

9) 북경 B대학교는 1941년에 설립하였고, 지금까지 101개의 외국어 언어 전공을 개설해왔다. 그중에 한국어 전공은 1994년에 처음으로 개설되어 지금까지 거의 30년 동안 발전해왔다. 30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B대학교 한국어 전공은 상대적으로完비한 교육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고, 또한 인재 양성 방안 및 교육 목표 등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중국 교육부의 비통용어 외국어 교육과정 규정에도 부합한다. 여러 측면에서 B대학교 한국어 전공은 대표성과 일반성을 지닌다고 판단해서 이를 예시로 들기로 하였다.

〈표 1〉 북경 B대학교 한국어 전공에서 개설된 과목 목록

학년	과목
1학년	기초 한국어1,2, 미디어 및 한국문화, 기초 한국어 회화1, 기초 한국어 시청설1
2학년	고급 한국어1,2, 기초 한국어 회화2, 고급 한국어 회화, 기초 한국어 시청설2, 고급 한국어 시청설1, 한국문학사연구, 한국시연구
3학년	한국어 통역1,2, 한국어 쓰기1,2, 한국어 번역1,2, 한국 경제연구, 고급 한국어 시청설2, 한국어 언어학 입문, 한국어 뉴스 읽기
4학년	한국문화연구, 한국어 쓰기3, 한국어 번역3,4, 한국어 통역3,4, 한국 문화 선포

〈표 1〉에서 제시한 북경 B대학교 과목명을 통해 한국어 전공에서 개설한 과목의 유형별 특징을 크게 한국어 언어 기능 및 지식(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법 등), 한국어 언어학, 한국어 문학, 한국어 문화, 한국어 번역학(번역, 통역)으로 나눌 수 있다. 그중에 1, 2학년에는 한국어 언어 기능 및 지식 과목을 개설하고, 3학년부터 한국어 통·번역, 한국어 언어학 등 전문적인 과목이 추가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한국어 통·번역 과목은 3학년부터 개설하여 4학년 동안 꾸준히 개설한다는 것에 주목할 만하다.

2) 중국 대학 내 한국어 번역 수업의 현황

중국 대학 내 한국어 전공에서의 번역 수업은 기초 수업으로서 보통 3, 4학년에 배치되어 있다. 중국 교육부는 전국 고등교육의 외국어 교육과정에 기본적으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통·번역 교육 등 과목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¹⁰⁾. 그러므로 한국어 전공을 개설한 모든 중국 대학들에서는 번역 수업이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알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어 전공이 개설된 대학은 주로 중국 동북, 중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중국 대학 내 한국어 번역 교육의 기본적인 상황을 알아내기 위해 김국화(2014)와 추육영(2021)을 참고하여 한국어 전공의 개설 시간이 긴 중부 지역인 산둥성¹¹⁾과 북경지역의 대학을 대상으로 한국어

10) 김월휘, 앞의 논문, pp.187-188.

11) 추육영(2021)에서 중국 산둥성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한국어 전공의 개설 시간이 긴 10개의 대학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번역 교육과정을 조사하였다.

통·번역 교육 과목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¹²⁾

〈표 2〉 북경지역 한국어 전공에 개설된 통·번역 과목(김국화, 2014:377 재인용)

대학	과목명	과목유형	총학점
북경대학	한중번역, 중한번역	필수	8학점
대외경제무역대학	번역이론 및 실천(중한), 번역이론 및 실천(한중)	필수	6학점
	통역	선택	
북경외국어대학	한국어 통역, 한국어 번역	필수	10학점
중앙민족대학	한중번역, 중한번역, 한국어 통역	필수	13학점
	사례번역한국어, 번역 이론 및 실천	선택	
북경언어대학	경제무역번역, 시사번역, 동시통역	필수	10학점
중국전매대학	한국어번역1, 한국어번역2, 한국어번역3	필수	12학점
북경공업대학	번역이론 및 실천1, 번역이론 및 실천2, 통역훈련	필수	5학점
북경연합대학	경제무역번역, 한국어번역	선택	4학점
북경제2외국어대학	한중통번역이론 및 실천1, 한중통번역이론 및 실천2	필수	6학점
	한국어구어통역	선택	

〈표 3〉 산둥성 한국어 전공에 개설된 통·번역 과목(추옥영, 2021:90 재인용)

대학	과목명	과목유형	총학점
산둥대학교	중한번역1, 중한번역2, 중한매체통·번역, 중한통역	필수	5
	중한과학기술통·번역, 중한 통·번역 이론과 실천, 중한외사통·번역, 중한시사 통·번역, 중한동시통역	선택	17
중국해양대학교	한국어 통·번역 이론과 실천1, 한국어 통번역 이론과 실천2	필수	4
산둥사범대학교	한중통·번역, 중한 통·번역	전공선택	4
곡부사범대학교	한중통·번역, 중한 통·번역	선택	4
산둥이공대학교	한중번역, 중한번역, 한국어통역	필수	6
연태대학교	한중통·번역, 중한통·번역, 통역이론 및 실천	필수	8
	상무통역	선택	
산둥과학기술대학교	한중통·번역, 중한통·번역, 경제무역통·번역, 통역이론 및 실천	필수	14
	영화작품통·번역, 과학기술 한국어통·번역, 문학통·번역감상	선택	
청도대학교	통·번역(상), 통·번역(하), 동시통역	선택	4

12) 통·번역은 별도의 과목이 아니라 통합한 과목으로 설정하는 학교가 존재하기 때문에 통역과 번역 과목을 같이 살펴보기로 한다.

청도과학기술대학교	한중쌍방향통·번역, 고급통역	선택	8
청도농업대학교	중한쌍방향통·번역1, 중한쌍방향통·번역2	필수	4

〈표 2〉¹³⁾과 〈표 3〉¹⁴⁾에서 제시하는 19개의 대학에서 개설한 통·번역 과목들을 통해 몇 가지 특징을 엿볼 수 있다. 첫째, 산동성과 북경지역의 한국어번역 과목의 유형은 필수와 선택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그중에 북경지역에 북경연합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은 한국어번역 수업을 필수과목으로 설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북경제2외국어대학교, 청도대학교 같은 경우는 통역과 번역을 서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교수하는 상황이 존재한다. 셋째, 번역 이론과 실천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 대학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알 수 있다. 넷째, 북경대학교, 산동대학교와 같이 ‘한중’, ‘중한’ 번역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경우가 많지만 북경외국어대학교와 같이 ‘한중’, ‘중한’ 번역을 세분화하지 않고 통틀어서 ‘한국어번역’이라는 이름으로 정하는 예도 있다¹⁵⁾. 마지막으로 대학들은 나름의 상황을 고려하여 번역 과목의 학점을 결정하는 것인데¹⁶⁾ 그중에 중앙민족대학교, 중국전매대학교, 북경외국어대학교, 산동대학교, 산동과학기술대학교 등 대학들은 번역 과목을 10학점 이상으로 설정하였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처럼 산동성과 북경지역만으로도 번역 과목의 교육내용이나 교육 방식, 과목 유형, 학점 등이 대학마다 상이하다는 점에서 중국 대학 내의 한국어 번역 교육과정이 아직 덜 정립되는 상황이라 확인할 수 있다. 대학들의 다양한 번역 교육과정을 일일이 살펴본다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번

13) 김국화, 「한중/중한 통역교재 설계방안: 중국대학 강의용 교재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제42집, 한중인문학회, 2014, p.377.

14) 추육영, 「한-중 번역수업 교육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 중국 산동성 소재 대학교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제72집, 한중인문학회, 2021, pp.85-111.

15) 과목의 명칭은 ‘한국어번역’으로 정해도 실제 교육현장에서 한중번역과 중한번역을 구분하여 교수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북경외국어대학교의 한국어 전공에서 3학년 2학기에 중한번역, 4학년 1학기에 한중번역으로 세분화하였다고 알 수 있다(김국화, 2014:377).

16) 김국화(2014)에 따르면 북경외국어대학교에서는 졸업생들에게 통·번역에 대한 수요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통·번역 수업의 시수를 조절하였다고 하였다.

역 교육과정을 가장 직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번역 교재를 분석하기로 하였다.

3. 중국 대학 내 한국어 번역 교재 내용 검토

1) 분석 대상

본 연구에서는 중국 대학 내 한국어 번역 교육과정의 개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중국 대학에서 사용하는 번역 교재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추육영(2021)에서는 현재 중국 대학 교육용 번역 교재는 총 18권에 달했다고 조사하였다. 18권의 번역 교재들은 사용 언어, 출발어-도착어, 내용 구성 형식이 다른 만큼 교재 유형도 다양한 것으로 보인다. 사용 언어 측면에서는 한국어로 작성된 교재와 중국어로 작성된 교재 두 가지가 있고, 번역의 출발어와 도착어 측면에서는 한중번역과 중한번역으로 나눌 수 있다. 교재의 내용 구성에는 번역 이론, 지식, 기교, 실천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교재에 따라 내용의 비중이 크게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최대한 다양한 유형의 교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대학에서 널리 사용되는 대표적인 교재 4권을 선정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한번역 이론과 기교(中韓翻譯理論與技巧)」, 「중한번역교본(中韓翻譯教程)」, 「中韓翻譯教程(第2版)」, 「韓中翻譯教程(第3版)」 4권의 번역 교재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교수·학습 상황’, ‘내적 구성’ 두 가지 측면에서 교재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선정한 교재들의 기본적인 정보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교재의 기본 정보 및 유형

교재 명	저자	출판 연도	출판사	사용 언어	출발어-도착어	내용 구성
중한번역 이론과 기교	이용해	2002	국학자료원	한국어	중-한	번역 이론 번역 기교
중한번역교본	장의원·김일	2003	연변대학출판사	한국어	중-한	번역 이론 번역 기교(편중)

中韓翻譯教程(第2版)	張敏·朴光海, 金宣希	2017	北京大學出版社	중국어	중-한	번역 기교 배경지식 번역 실천(편중)
韓中翻譯教程(第3版)	張敏·金宣希	2018	北京大學出版社	중국어	한-중	번역 기교 배경지식 번역 실천(편중)

〈표 4〉에서 보이는 것처럼 본 연구는 한국어로 작성된 교재 두 권, 중국어로 작성된 교재 두 권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출발어와 도착어를 보면 중한 번역은 3권, 한중번역은 1권을 선정하였고¹⁷⁾, 내용 구성을 보면 〈중한번역 이론과 기교〉에서는 번역 이론과 기교를 골고루 다루고 있고, 〈중한번역교본〉에서는 번역 이론을 포함하되 번역 기교를 위주로 다루었다. 〈中韓翻譯教程(第2版)〉, 〈韓中翻譯教程(第3版)〉에서는 번역 기교, 배경지식, 실천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중에 번역 실천의 비중이 상대적 크다.

2) 분석 기준

본 연구는 번역 교재를 분석하는 데에 이해영(2001), 황인교(2003), 주정(2015), 정이봉(2018)에서 제시한 교재 분석 기준의 틀을 참고하되, 이 4권의 번역 교재의 특징과 유형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분석 항목을 수정·보완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분석 기준 및 내용은 다음 〈표 5〉와 같이 제시하였다.

17) 본 연구는 번역 교재를 선정하는 데에 교재의 사용 빈도, 유형 등의 요소 외에 중국 대학 내 실제 개설된 번역 과목의 특징도 함께 고려하였다. 〈표 2〉, 〈표 3〉에 따르면 중국 대학 내 개설된 중한 번역 과목의 비중이 한중 번역보다 더 크다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특히 산동대학교의 경우 중한 번역 과목만 개설하였다. 이처럼 중국 대학 내 번역 과목의 개설 현황을 반영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한 번역 교재는 3권, 한중 번역 교재는 1권을 선정하기로 하였다.

〈표 5〉 한국어 번역 교재의 분석 기준 및 내용

범주		내용	
교수·학 습 상황		사용 기관, 사용 대상, 학습자/교사 역할	
내적 구성	교재의 목표 및 구성 원리	교재 목표는 명시적이고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교재 목표는 학습자나 교사의 요구를 잘 반영하고 있는가? 교재의 구성 원리는 무엇인가?	
	교재의 전체 구성	교수요목이 어떻게 짜여 있는가? 교수요목 구성 요소들이 적절히 연계하고 배열하는가? 교수요목의 특징이 무엇인가?	
	각 단원의 구성	각 단원의 특징이 무엇인가? 각 단원에 어떤 학습 내용을 포함해 있는가? 단원 안의 학습 내용이 주제에 잘 맞는가?	
	세부 구성	번역 텍스 트	번역 텍스트를 적절히 선정되어 있는가(길이/난이도/주제/장르 등 고려)? 텍스트 장르가 다양하고 실제적인가?
		번역 지식	번역이론, 배경지식, 번역기교, 번역방법, 번역 노하우 등은 적절히 제시되어 있는가? 번역이론, 배경지식, 번역기교, 번역방법, 번역 노하우 등은 단원 주제와 관련성이 있는가?
		연습 문제	과제 및 활동을 적절히 제시되어 있는가? 연습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답안/주관)? 과제의 복잡성/실용성이 어떠한가?
		문화	문화 내용은 적절히 제시되어 있는가? 문화 내용은 실제성과 대표성이 있는가? 상호문화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표 5〉에서 보이는 것처럼 한국어 번역 교재를 분석할 때 크게 ‘교수·학습 상황’과 ‘내적 구성’ 두 가지 범주에서 접근하도록 한다. ‘교수·학습 상황’에서는 각 교재의 사용 기관, 사용 대상, 또한 교재를 활용할 때 교사와 학습자의 역할을 규명하고자 한다. ‘내적 구성’은 크게 ‘교재의 목표 및 구성 원리’, ‘교재의 전체 구성’, ‘각 단원의 구성’, ‘세부 구성’ 등 네 개의 범주에서 교재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교재의 목표와 구성 원리를 분석할 때 교재 안에 목표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있다면 적절한지, 학습자나 교사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구성 원리가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 등 내용을 파악하고자 한다. 교재의

전체 구성과 단원 구성을 분석할 때 주로 교수요목의 특징, 구성 요소, 교육내용의 적절성과 필요성 측면에서 접근하기로 하였다. 세부 구성은 주로 번역 텍스트, 번역지식, 연습문제(과제 및 활동 포함), 문화 등 네 가지 측면에서 번역 텍스트의 다양성, 번역지식의 적절성, 연습문제의 유형, 문화 내용의 실제성 등을 검토하도록 한다.

3) 분석 결과

(1) 교수·학습 상황

〈표 6〉 분석 교재의 교수·학습 상황

교재 명	사용 기관	사용 대상	학습자/교사 역할
중한번역 이론과 기교	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대학의 중국어 학습자 • 중국 대학의 한국어 학습자 • 중한번역에 종사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중심
중한번역 교본	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중심
中韓翻譯教程(第2版)	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대학의 한국어 전공 학습자 • 한국어 전공이 아닌 선택과목으로 한국어 번역을 이수하는 학습자 • 한국어 번역을 독학으로 하는 학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중심 • 학습자 역할 강화
韓中翻譯教程(第3版)	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대학의 한국어 전공 학습자 • 한국어 전공이 아닌 선택과목으로 한국어 번역을 이수하는 학습자 • 한국어 번역을 독학으로 하는 학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중심 • 학습자 역할 강화

〈표 6〉에 의하면 이 4권의 교재는 모두 대학 교육용 교재이고 사용 대상과 학습자, 교사 역할은 교재에 따라 다르다. 〈중한번역 이론과 기교〉는 한중 대학에서 중국어를 학습·연구하거나 한국어를 학습·연구하는 자, 또한 중한번역에 종사하는 자를 위해 개발된 교재이고 전체적으로 교사 중심의 특징을 보인다. 〈중한번역 교본〉에서 학습자 유형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교재의 내용에서도 교사 중심의 특징을 드러냈다. 〈中韓翻譯教程(第2版)〉과 〈韓中翻譯教程(第3版)〉은 국내외 대학의 한국어 전공 학습자뿐만 아니라 한국어 전공이 아닌 선

태과목으로 한국어 번역을 이수하는 학습자나 독학으로 한국어 번역을 학습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개발하는 교재이다. 또한, 이 두 권의 교재는 다른 두 권의 교재와는 달리 번역 실습과 활동의 분량이 많아 학습자의 역할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내적 구성

① 교재의 목표 및 구성 원리

〈표 7〉 분석 교재의 목표

교재명	교재의 목표
중한번역 이론과 기교	중국어 학습·연구 한국어 학습·연구 중한번역 능력 제고
중한번역 교본	제시되지 않음
中韓翻譯教程(第2版)	중한번역 능력 제고
韓中翻譯教程(第3版)	한중번역 능력 제고

〈표 7〉에 의하면 〈중한번역 이론과 기교〉는 중국어를 학습·연구하거나 한국어를 학습·연구하는 자, 그리고 중한번역에 종사하는 자에게 기초를 마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제시하였고, 〈중한번역 교본〉에서는 교재의 개발 목적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中韓翻譯教程(第2版)〉과 〈韓中翻譯教程(第3版)〉은 중한/한중번역 능력을 높이는 데에 목표를 두었으며, 학습자에게 중한/한중 번역의 일반적인 규칙과 기교를 파악하고,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한국어 번역의 총괄 목표에 도달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교재의 목표를 비교해보면 〈중한번역 교본〉은 목표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것만을 제외하고 〈중한번역 이론과 기교〉, 〈中韓翻譯教程(第2版)〉, 〈韓中翻譯教程(第3版)〉은 모두 중한/한중번역 능력을 높이는 데에 목표를 두었다고 알 수 있다. 특히, 〈중한번역 이론과 기교〉는 번역 능력뿐만 아니라 한국어나 중국어 언어 능력 신장에도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교재의 구성 원리를 명시하지 않은 〈중한번역 교본〉을 제외한 나머지 3권의

교재 구성 원리는 다음과 같다. <중한번역 이론과 기교>의 집필자는 본인 수십년간의 번역 실천에서 축적한 경험과 번역학 강의를 학술적 견지에서 정리하면서, 중한번역의 특징을 이론적 체계에서 접근하여 이 책을 대학교의 교과서로 개발하였다¹⁸⁾. 이처럼 이 교재는 집필자 본인의 경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사나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中韓翻譯教程(第2版)>과 <韓中翻譯教程(第3版)>은 번역 이론과 실천을 긴밀하게 결합했고, 번역 기교와 연습을 서로 융합하며, 번역과 외국어교육을 적절히 접목하였다. 각 단원의 설계, 교수방안, 자료, 번역지식, 번역 텍스트의 장르, 평가 등 요소는 중국 대학교 번역 교수요목의 요구에 따라 개발하였고, 다양한 교육 활동을 설계하였다. 또한 이 교재에서 활용된 텍스트, 과제, 연습문제는 한국의 사회생활, 정치문화, 경제무역, 뉴스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였다.

② 교재의 전체 구성 및 각 단원의 구성

〈표 8〉 <중한번역 이론과 기교> 전체 구성 및 각 단원의 구성

머리말	/	
제1장 번역의 일반적 개념	1. 번역과 인류문명 2. 번역이론과 기타 학과 3. 역자와 저자	4. 번역이론의 연구 대상 5. 역자의 소양
제2장 번역표준	1. 엄복의 “신·달·아” 2. 노신의 “신·순” 3. 디테르의 “3대 번역원칙”	4. 나이다의 “대등 효과론” 5. 번역표준에 대한 제검토
제3장 번역과정	1. 이해 과정 2. 표현 과정	
제4장 번역방법과 수법	1. 직역 2. 의역 3. 음차역	
제5장 번역 기교	1. 번역단위의 설정법 2. 단어의 가역법 3. 단어의 감역법	4. 전의 역법 5. 단어의 구체적 역법
제6장 어휘적 현상의 대비와 번역	1. 단어의 뜻 폭 차이와 번역 2. 단어의 뜻 개괄범위 차이와 번역	3. 단어의 뜻 빛깔 차이와 번역 4. 단어의 결합 관계와 번역
제7장 문법적 현상의 대비와 번역	1. 단어의 품사 전환 2. 문장성분의 전환	
제8장 어휘 번역	1. 다의성 동사 번역	3. 한자어 번역

18) 이용해, 『중한번역 이론과 기교(中韓翻譯理論與技巧)』, 국학자료원, 2002, pp.3-4.

	2. 겹어문의 번역	4. 성구 번역
제9장 문화적 차이와 번역	/	
제10장 및 가지 문체의 번역	1. 과학기술 문체의 번역 2. 경제무역서한 번역 3. 문학문체 번역	
〈부록〉 번역참고	1. 한중 번역문 2. 중한번역 연습문	

<중한번역 이론과 기교>의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1-3장은 번역이론, 4장은 번역 방법, 5장은 번역 기교, 6-10장은 실용성을 갖춘 번역 노하우를 제시하였다. 번역 이론은 번역의 개념, 표준, 과정 등 내용을 포함하였고, 번역 기교를 제시하는 데에 주로 단어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번역 노하우 부분에 있어 어휘적, 문법적 현상으로부터 접근하여 단어와 문장성분에 대한 번역 노하우를 제시하였다. 또한 9장은 문화적 차이와 번역, 10장은 특정 문체에 대한 번역 노하우를 제시하고 마지막 부록 부분에는 번역 연습과 번역문을 제시하였다. 이 교재의 전반적인 구성 내용을 보면 단어 단위의 번역을 위주로 다루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표 8〉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단원의 세부적인 구성은 정해진 패턴이 없고 단원마다 구성 방식이 다르다. 즉, 해당 단원의 세부적인 구성은 단원의 내용에 따라 설계된 것이다.

〈중한번역 이론과 기교〉의 전체 구성 및 각 단원의 구성을 검토한 결과로 몇 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단원의 세부적인 내용은 단원의 주제나 목표에 맞지 않은 경우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8장의 제목은 ‘어휘 번역’이지만 이 부분에서 ‘겹어문’을 다루는 것이 주제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 교재는 전반적으로 ‘단어 번역’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있다. 이 교재에서 다루는 번역 기교도 단어 단위만으로 다루고 있고, 문장 측면에서 번역 기교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점이 될 수 있다. 셋째, 단원의 배열 및 조직 방식을 검토한 결과로 각 단원의 충위가 맞지 않는다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8장은 ‘어휘 번역’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인데 앞에 6장과 7장에서 어휘 번역과 관련 내용을 이미 제시하였다. 이처럼 6, 7, 8장의 경계가 뚜렷하게 구분되지 못하는 점에서 학습자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6장과 7장에서 어휘 관련

내용을 8장으로 통합하여 단원의 구성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표 9〉 〈중한번역 교본〉 전체 구성 및 각 단원의 구성

제1장 번역의 일반적 개념	1. 번역의 성격	번역은 인간 교제의 중계적 수단/ 번역은 이중성을 띤 언어 행위/ 번역은 “재창작”의 언어 행위
	2. 번역 표준과 번역 과정	번역 표준/번역 과정
	3. 번역자의 소양	
	4. 중한 번역 역사	
제2장 어휘 번역	1. 어휘적 의미의 민족성과 그 번역	단어의 어휘적 의미와 그 번역/단어의 문맥적 의미와 그 번역
	2. 체언 번역	대명사 처리/수사와 양사 처리/준말 처리/외래어 처리
	3. 용언 번역	일반 동시 처리/일반 형용사 처리/의성어와 중첩어 처리
	4. 허사 번역	전치사 처리/연사 처리/부사 처리
	5. 중한 번역에서의 한자어	한자어의 특성/한자의 처리 원칙/한자어와 독음 번역법/한자어의 편의성/한자어와 고유어
	6. 속어 번역	성구와 속담 번역/관용어 번역/혈후어 번역
	7. 어휘 번역의 수법과 기교	단어의 증가/단어의 감소/진의 역법
제3장 문장 번역	1. 문법 현상의 비교와 번역	단어의 품사 전환/문장성분의 전환/술어의 전환
	2. 복문 번역	병렬적 관계의 복문/연관적 관계의 복문/층차가 많은 복문
	3. 문장 번역에서 몇 가지 수법과 기교	어순의 변동/문장 번역에서 몇 가지 주의할 점
제4장 문체 번역	1. 응용 문체 번역	
	2. 문학 작품 번역	소설 번역/시가 번역/영화 번역

〈중한번역 교본〉의 전체 구성을 보면 1장에서는 번역의 일반적 개념을 다루고, 번역의 기본적인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2-4장은 각각 어휘, 문장, 문체 단위로 실제적인 번역 내용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한번역 교본〉은 〈중한번역 이론과 기교〉와 비교했을 때 목차의 구성은 더욱 단순하고 명확한 것으로 보이고, 각 단원의 주제는 같은 층위로 제시, 연결하였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번역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은 1장에서 집중적으로 제시한 후에 어휘, 문장, 문체의 순서대로 번역의 실재를 다루는 것이다. 또한, 각 단원의 분량에 있어 어휘 번역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중

한번역 이론과 기교)와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각 단원의 구성을 보면 <중한번역 이론과 기교>와 비슷하게 단원의 세부적인 구성은 단원의 내용에 따라 설계된 것이고 각 단원 구성에 정해진 패턴이 없다.

그러나 이 교재에서도 세부적인 내용이 단원의 주제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어휘 번역의 수법과 기교’에서 다루는 ‘단어의 감소’는 사실상 단어 단위가 아니라 문장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어휘 번역 대신 문장 번역 단원에서 다루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표 10〉〈中韓翻譯教程(第2版)〉 및 〈韓中翻譯教程(第3版)〉의 전체 구성

〈中韓翻譯教程(第2版)〉	〈韓中翻譯教程(第3版)〉
머리말	머리말
제1과 이력서(簡歷)	제1과 이력서 및 자기소개(簡歷與自我介紹)
제2과 초청장(請柬)	제2과 초청장(請柬)
제3과 축사(祝詞)	제3과 축사(祝詞)
제4과 환영사(講話)	제4과 연설(演講)
제5과 환영사(致辭)	제5과 뉴스(新聞)
제6과 뉴스(新聞)	제6과 사설(社論)
제7과 사설(社論)	제7과 논평(評論)
제8과 논평(評論)	제8과 성명(聲明)
제9과 소개(介紹)	제9과 소개(介紹)
제10과 서술문(記敘文)	제10과 논문(論文)
제11과 논문(論文)	제11과 협정 및 법규(協定與法規)
제12과 계약서(合同)	제12과 서술문(記敘文)
제13과 법규(法規)	제13과 에세이(散文)
제14과 극본(劇本)	제14과 극본(劇本)
제15과 소설(小說)	제15과 소설(小說)
제16과 시(詩歌)	제16과 시(詩歌)
부록 1-7	부록 1-3

〈표 11〉 〈中韓翻譯教程(第2版)〉 및 〈韓中翻譯教程(第3版)〉의 단원 구성

〈中韓翻譯教程(第2版)〉, 〈韓中翻譯教程(第3版)〉	
번역 텍스트 課文範文	번역 연습 翻譯練習
오류 분석 正誤評析	번역 과제 翻譯作業
번역 지식 翻譯知識	참고 자료 參考資料

〈中韓翻譯教程(第2版)〉과 〈韓中翻譯教程(第3版)〉의 전체 구성과 단원 구성은 비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두 권의 교재를 같이 비교하면서 〈표 10〉, 〈표 11〉과 같이 제시하도록 하였다.

〈中韓翻譯教程(第2版)〉과 〈韓中翻譯教程(第3版)〉은 모두 머리말, 16개의 단원, 부록으로 구성하였고, 〈中韓翻譯教程(第2版)〉의 부록은 7개, 〈韓中翻譯教程(第3版)〉의 부록은 3개로 구성하였다. 매 단원은 20쪽 내외이고, 〈中韓翻譯教程(第2版)〉과 〈韓中翻譯教程(第3版)〉에서 제시하는 내용 구조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내용상으로 이 두 권의 교재는 모두 번역 실천을 위주로 다루었고, 다른 두 권의 교재에 비해 실제성을 갖춘다고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체 구성을 확인해보면 〈中韓翻譯教程(第2版)〉에서 중복된 단원 내용을 다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4과와 제5과의 제목만 보면 致辭와 講話는 별개의 내용인 것 같지만 단원의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한 결과, 모두 ‘환영사’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서 〈韓中翻譯教程(第3版)〉과 같이 ‘致辭’와 ‘講話’ 중의 하나를 ‘연설’로 대체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단원의 구성을 보면 〈中韓翻譯教程(第2版)〉과 〈韓中翻譯教程(第3版)〉은 모두 번역 텍스트, 오류 분석, 번역지식, 번역 연습, 번역 과제, 참고자료로 구성하였다. 번역 텍스트 부분은 ‘원문’, ‘어휘 의미 해석’, ‘번역문’의 순서대로 제시하고 있다. 오류 분석 부분에 어렵거나 대표적인 문장을 10개 내외로 선정하여 잘못된 번역의 예시와 정확한 예시를 함께 제시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中韓翻譯教程(第2版)〉에서 오류 분석을 설명할 때는 한국어로, 〈韓中翻譯教程(第3版)〉에서 설명할 때는 중국어로 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번역지식은 각 단원의 주제에 알맞은 배경지식이나 번역 기법, 번역 이론(번역 개념, 성격, 표준 등)

등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번역 연습에 ‘객관식(선택형) 문제’, ‘오류 수정’, ‘문장 번역’ 등 문제들을 포함해 있다. 번역 과제 부분에는 해당 단원의 주제와 관련한 길고 복잡한 글의 번역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 참고자료는 단원의 주제와 관련된 배경지식이 한국어로 제시되는 것이다.

③ 세부 구성

a. 번역 텍스트

이 4권의 번역 교재에서 <중한번역 이론과 기교>와 <중한번역 교본>은 문장 단위로 번역 예시를 제시하고 있고, <中韓翻譯教程(第2版)>과 <韓中翻譯教程(第3版)>은 텍스트 단위로 번역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 <중한번역 이론과 기교>와 <중한번역 교본>에서 번역 예시를 선정하는 데에 텍스트의 장르를 가리지 않고, 주로 문학 작품이나 설명문, 연설문에서 나온 문장들을 무분별하게 선정하는 것에서 장르 유형의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中韓翻譯教程(第2版)>과 <韓中翻譯教程(第3版)>에서는 16가지의 장르를 선정하였다는 점에서 번역 텍스트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알 수 있다.

이 4권의 교재는 공통으로 지나치게 단순한 텍스트와 어려운 텍스트가 적절하게 배열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번역 텍스트들의 난이도를 일관성이 있게 조정하지 못하였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b. 번역지식

본 연구에서 다루는 번역지식은 포괄적으로 번역 이론, 번역 수법 및 방법, 번역 기교, 번역 노하우, 배경지식, 번역 실제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중한번역 이론과 기교>에서는 번역 이론, 기교, 방법, 실재를 모두 다루고 있다. 특히, 번역 이론, 방법, 기교는 무려 5장, 절반의 분량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학습자에게 기본적인 번역 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고 알 수 있다.

<중한번역 교본>은 번역 이론이 1장에서 제시되어 있다. 이 교재에서 번역 수법과 기교를 따로 제시하지 않고 번역 실제와 같이 설명한다는 점은 <중한번역

이론과 기교)와 구별된다.

〈中韓翻譯教程(第2版)〉과 〈韓中翻譯教程(第3版)〉에서의 번역지식은 각 주제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다른 교재에 비해서 이 두 권의 교재는 참고자료 부분에서 배경지식을 제시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中韓翻譯教程(第3版)〉 1, 2단원에서 번역의 개념, 성격, 표준 등 번역 이론을 다룬 후에 후속 단원에서 번역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中韓翻譯教程(第2版)〉에서는 전반적으로 번역 수법이나 기교들을 위주로 설명하고 있다.

c. 연습문제

연습문제를 따로 제시하지 않은 〈중한번역 교본〉만 제외하고 〈중한번역 이론과 기교〉, 〈中韓翻譯教程(第2版)〉, 〈韓中翻譯教程(第3版)〉에서 제시한 연습문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

〈중한번역 이론과 기교〉에서는 ‘사고문제’와 ‘연습문제’ 두 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사고문제’는 각 부분의 내용을 요약하라는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데 앞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라는 의도가 담겨 있다. ‘연습문제’는 앞에서 배운 방법을 활용하라는 의도에서 문장 단위로 번역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연습문제’는 대부분이 중한 번역을 위주로 다루었으나 한중 번역 연습도 같이 제시되어 있다.

〈中韓翻譯教程(第2版)〉, 〈韓中翻譯教程(第3版)〉은 번역 연습과 번역 과제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번역 연습에는 객관식(선택형) 문제, 오류 수정, 문장 번역 등 문제들을 포함해 있고, 번역 과제 부분에서는 해당 단원의 주제와 관련된 상대적 길고 복잡한 번역 텍스트를 제시하고 있다.

d. 문화

한국과 중국의 문화를 이해해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번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번역에서의 문화 내용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이 4권의 교재에서는 〈중한번역 이론과 기교〉¹⁹⁾만 상호문화적인 지식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나머지 3권의 교재는 문화 내용을 단편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다.

4. 중국 대학 내 한국어 번역 교육과정의 개발 방향

3장에서는 4권의 교재를 ‘교수·학습 상황’과 ‘내부 구성’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교재의 내용, 배열, 구성 방식 등의 특징과 문제점을 검토해 보았다. 분석 결과를 통해 중국 대학 내 번역 교육과정의 현황을 어느 정도로 파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어 번역 교육과정이나 번역 교재를 개발하는 데에 몇 가지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다.

첫째, 번역 교재나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사용 대상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여야 하고, 교육과정의 단계화, 체계화, 조직화가 필요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존의 교재들은 대부분이 사용 대상이나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고, 언어 학습자, 언어 연구자, 번역 전문가 등 수준이 전혀 다른 대상들을 가리지 않아 모두 교재의 사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학습자’, ‘연구자’, ‘전문 번역가’ 세 집단은 언어 능력이나 번역 수준에 큰 차이를 보여 같은 교재를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한 사용 대상을 제시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지 않으면 어떤 사용자에게 적합한 교재인지, 목표가 무엇인지 여전히 추측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교재 사용 대상의 달라짐에 따라 교재의 목표도 달라지기 때문에 목표를 잘 설정하려면 먼저 교재의 사용 대상을 명시해야 한다. 중국 대학 내에 3학년부턴 번역 수업을 개설하는 경우가 많지만 온전한 번역 교육과정을 개발하려면 저학년부턴 한국어 번역 수업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통·번역 교육은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급 학습자에게도 충분히 개설할 필요가 있는 과목이다. 고학년의 통·번역 수업은 본격적인 번역 연습 단계

19) <표 8>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중한번역 이론과 기교> 9장에서 한중 문화적 차이에서의 번역을 다루고 있는데 이 단원에서 인지시각, 역사, 지역문화, 풍속문화, 언어 부호학, 종교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여 한국과 중국의 문화 차이를 밝히고, 번역 사례를 제시하였다.

라고 하면 저학년의 통·번역 수업은 ‘준비단계’라고 할 수 있다²⁰⁾. 이런 맥락에서 번역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 숙달도가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초·중급 학습자를 위한 번역 교육과정은 전문적인 번역 내용보다 난이도가 상대적 낮은 내용을 다루어야 하고, 교육과정의 목표도 전문적인 번역가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 수준 제고’나 ‘입문 단계의 번역 능력 양성’, 혹은 ‘번역 동기 부여’ 등이 해당하는 ‘학습 번역²¹⁾’ 수준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²²⁾. 고급 학습자에게 설계한 번역 교육과정은 ‘학습 번역’에서 ‘전문 번역’으로 발전하는 단계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학습자의 역할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교재 분석 결과에 따라 기존의 번역 교육은 대부분 교사 설명 위주로 진행하나 번역 활동의 비중이 상대적 미흡한 편이다. 번역 수업에서 번역 이론, 기교, 방법 등 번역 지식의 교수는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습자의 직접적인 번역 실천이라고 본다. 따라서 번역 교육의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교사 중심보다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의 능동적인 역할을 보장하기 위해 교사에게 안내자나 조력자의 역할

20) 김월휘, 앞의 논문, pp.195-196.

21) 번역을 ‘전문 번역’과 ‘학습 번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학습 번역은 “외국어와 외국 문화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번역”을 말하고, 전문 번역은 “모든 교육적인 배려와 무관한 번역”을 지칭한다. 다시 말하면, 학습 번역에서 말하는 번역은 언어 학습의 수단일 뿐,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반면에 전문 번역에서 역자는 언어적 지식과 문화적 지식을 모두 완벽하게 갖추어 있다고 간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번역은 언어 학습의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다(Jean · Hannelore, 2002).

22) 초·중급 학습자에게 적용하는 ‘학습 번역’은 학습자의 한국어 읽기,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학습 방법으로 볼 수 있다. 번역 교육은 학습자가 기본적인 한국어 능력을 갖추는 전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통 대학 2학년부턴 번역 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적합해 보인다. 번역 교육과정의 단계화, 체계화를 위해 2학년은 번역 교육과정의 ‘준비단계’, 3학년은 ‘연습단계’, 4학년은 ‘실전단계’로 설정할 수 있다. 초·중급 학습자를 위한 ‘준비단계’와 ‘연습단계’는 어휘나 간단한 문장을 중심으로 번역 교육이 이루어지거나 비문학 적, 비전문적인 번역 연습을 주로 하는 것이다. 이처럼 초·중급 숙달도에 해당하는 2, 3학년 학습자가 간단한 한중 번역 연습을 통해 한국어 읽기 능력, 중한 번역 연습을 통해 한국어 쓰기 능력을 신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번역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도 배양할 수 있을 것이다(김월휘, 2019).

을 부여하는 것을 권장한다. 학습자 간의 활발한 토론을 일으키기 위해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 ‘역번역 활동’이나 ‘동료 피드백’, ‘병렬 텍스트’와 같은 다양한 번역 활동을 개발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실제 교수·학습 상황에서 교사가 협동 학습이나 발표, 토론 등 다양한 활동을 번역 수업에 도입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 번역 이론, 번역 실천, 번역 기교 등 교육내용의 배열·조직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교재의 내부적인 구성 요소는 조직·배열 방식에 아쉬움이 남아있다. 이는 교재를 개발할 때 교수요목의 조직·배열 방식이나 내용 분량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내용을 조직·배열할 때 학습자의 숙달도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초·중급 학습자에게는 흥미 유발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번역 이론이나 기교보다 가볍고 재미있는 번역 활동을 위주로 하는 것이 적합해 보인다. 고급 학습자에게는 번역 이론, 기교, 실천이 모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번역 이론과 번역 실체를 따로 제시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즉, 번역 이론을 먼저 제시하고 번역 방법과 기교를 번역 실천 부분 안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다. 예컨대 교육내용을 어떻게 조직하고 배열해야 하는지를 검토할 때 다양한 숙달도의 학습자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넷째, 교육과정이나 교재를 개발할 때 적절한 상호문화적인 지식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4권의 교재를 검토한 결과를 보면 교재 안에서 문화 관련 내용이 아주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번역이라는 것은 오직 언어를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요소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역자가 번역하는 과정에서 자국화 전략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역자가 텍스트를 번역할 때 상대국의 문화를 자국의 문화 관습대로 해석하는 것은 바로 번역의 자국화이다. 이런 자국화 과정을 통해 상호문화적인 지식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다.

교육과정이나 교재를 개발할 때 특정한 번역 텍스트의 장르를 통해 상호문화적인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²³⁾. 또한 학습자의 상호문화능력을 촉진하려면 교

육과정을 개발하는 데에 ‘병렬 텍스트’ 활동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병렬 텍스트’ 활동을 활용하는 과정에서는 학습자가 한중 양국의 대응 표현을 비교·정리하면서 양국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교육과정이나 교재를 개발할 때 번역 텍스트의 난이도를 일관성이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교재 분석 결과에 따라 번역 텍스트는 쉬운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배열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는 대상과 목표를 명확히 한정하지 못하고 숙달도별로 텍스트를 선정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가 있다. 이를 대비하는 데에 초·중급의 학습자를 위해 일상적이고 친숙한 주제의 번역 텍스트를 선정하고, 고급 학습자에게는 법률, 계약서, 사설과 같은 생소한 텍스트를 선정할 수 있다.

교육 대상과 목표에 따라 번역 텍스트를 선정하여 난이도를 조정하는 동시에 텍스트의 실제성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 초급 학습자에게는 교사가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번역 텍스트를 수집하고 편집, 수정, 조작하여 교육적 번역 텍스트로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교육적 번역 텍스트를 활용하는 것은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고급으로 올라갈수록 학습자가 막상 실제 번역 활동에 접하다 보니 마음속에서 큰 격차를 느낄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번역 텍스트를 선정할 때 학습자의 숙달 단계에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번역에 처음 접하는 학습자들을 위해서는 교육적 번역 텍스트를 적절히 활용해도 무방하지만, 수준이 올라갈수록 실제성을 지닌 번역 텍스트를 선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이나 교재를 개발할 때 번역 실습의 비중을 높이는 동시에 시대적 요소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4권의 교재 중의 2권은 2000년대 초반에 개발된 교재로 거기서 나온 많은 번역 예시들이 지금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 교육과정과 교재는 번역 교육의 중요한 기준인 만큼 오래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대적인 요소를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런 교

23) 예를 들면 계약서 번역에서는 한국식과 중국식 계약서의 답화 유형을 제시할 수 있고 환영사 번역에서는 한중 양국이 자주 사용하는 인사말 유형이나 문체 특징을 비교할 수 있으며, 소개문 번역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서로 대응하는 직위, 호칭 등을 정리하여 제시할 수 있다.

재나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번역 실천을 어떤 식으로 제시해야 할지 잘 고민해야 한다.

초·중급 학습자를 위해 교육과정이나 교재를 개발할 때 시대적인 요소가 담긴 내용을 되도록 포함시키지 않고, 문장 단위의 번역 연습을 위주로 번역 실천 부분을 설계할 수 있다. 고급 학습자를 위한 교육과정이라면 연습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대신 학습자가 스스로 번역 텍스트를 찾아오게 하는 활동을 제시할 수 있다. 학습자가 텍스트를 직접 수집하게 하면 최신의 번역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에게는 ‘필요한 자료를 선별하는 능력’, ‘확장적 읽기 능력’의 신장도 기대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현재 중국 대학 내의 한국어 번역 교육과정이 아직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 교재 분석을 통해 중국 대학 내 한국어 번역 교육과정의 개발 방향을 모색하였다. 먼저 2장에서는 중국 대학 내 한국어 전공에서 개설한 번역 교육의 현황을 검토함으로써 번역 교육의 동향과 번역 수업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3장에서는 4권의 번역 교재를 ‘교수·학습 상황’과 ‘내적 구성’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고, 실제로 대학에서 어떠한 교육과정을 사용하여 어떤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 4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 대상 및 목표 명료화’, ‘학습자 역할 고려’, ‘교육내용 배열·조직 방식 검토’, ‘상호문화적인 지식 포함’, ‘번역 텍스트 난이도 일관성 유지’, ‘번역 실습과 시대적 요소 고려’ 등의 측면에서 향후 중국 대학 내 한국어 번역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데에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해보았다.

본 연구는 번역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중국 대학 내 한국어 번역 교육과정의 개발 방향을 파악함으로써 더욱 효과적, 체계적인 한국어 번역 교육을 이루는 데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교재 분석을 통한 교육과정의 기초 연구인 만큼 개발 방향을 제안할 때 학습자, 교사, 번역 시장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고 효과적

인 번역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 ‘요구조사를 통한 기초 연구’ 등 후속 연구를 계속해서 진행해 볼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1. 자료(교재)

- 이용혜, 『중한번역 이론과 기교(中韓翻譯理論與技巧)』, 국학자료원, 2002.
장의원·김일, 『중한번역교본(中韓翻譯教程)』, 연변대학출판사, 2003.
張敏·金宣希, 『中韓翻譯教程(第2版)』, 北京大學出版社, 2017.
張敏·金宣希, 『韓中翻譯教程(第3版)』, 北京大學出版社, 2018.

2. 단행본

- Jean, D., & Hannelore, L. J, 김중규·김정연 역, 『번역교육과 교육에서의 번역』,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2.
姜 倩, 『翻譯概論』, 上海外語教育出版社, 2008.

3. 논문

- 고효정,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통·번역 교육과정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김국화, 「한중/중한 통역교재 설계방안: 중국대학 강의용 교재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 연구』 제42집, 한중인문학회, 2014, pp.373-395.
김순영, 「국내 학부 번역교육과정에 대한 고찰: 번역능력의 관점에서」, 『통번역교육연구』 제6집, 한국통번역교육학회, 2008, pp.5-22.
김영수, 「중국의 한국어학과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한 기초 연구: 중한번역과를 중심으로」, 『Korean 교육 학술토론회 자료집』 제3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2006, pp.23-40.
김월희, 「중국 대학 한국어 관련 학과의 통·번역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어문논총』 제35집, 전남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2019, pp.175-204.
김해구·리영남, 「한국어 MTI교육과정에서 번역실천의 역할: 광서사범대학의 경우를 중심으로」, 『중국조선어문』 제3집,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2017, pp.63-67.
박소영, 「서한 전문번역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 『통역과 번역』 제19집, 한국통번역학회, 2017, pp.17-44.
박은정, 「한국어(A→B방향) 번역전공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RMIT 대학의 통

- 번역 교과목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제26집,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연구소, 2022, pp.25-48.
- 심지영, 「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 전공’ 설계 사례 연구, 『인문사회 21』 제12집, 인문사회 21, 2021, pp.1637-1650.
- 염철, 「융합형 중한번역 대학원 과정 운영 사례: 한림대학교 일반대학원 중한번역 전공, 『중국어교육과연구』 제34집, 한국중국어교육학회, 2021, pp.127-134.
- 완외자 쑤쑤캣, 『태국 내 대학의 한국어 통·번역 교육과정 개발 연구』, 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 이혜영, 「학습자 중심 수업을 위한 교재 분석」, 『한국어 교육』 제12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1, pp.199-232.
- 임형재, 「중국 내 한국어 통·번역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정책의 변화: MTI와 CATTI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제11집,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2021, pp.61-84.
- 임형재, 「외국인을 위한 통·번역 목적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평가: 중·일 학습자의 자가 평가를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제12집,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16, pp.177-203.
- 임형재 · 우메무라 마유미, 「일본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번역교육 고찰: 한국어 통·번역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제15집,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19, pp.183-208.
- 연쇠이, 「중국 지역 조선어(한국어)학과 교과과정 개선 방안 연구: 흑룡강성 내 3개 대학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연구』 제11집, 한국어교육연구학회, 2019, pp.55-83.
- 장전위, 『한국어와 중국어의 통·번역을 통한 한국어 표현·이해 교육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 정이봉, 『중국 대학 학부생을 위한 한중·중한 번역 교재 개발 방안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 정철자, 「번역 교육과정 개발 평가: 시장 수요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제13집, 한국번역학회, 2012, pp.265-282.
- 정호정, 「영어구사력 교육도구로서의 통역번역」, 『통역과 번역』 제13집, 한국통역번역학회, 2011, pp.187-201.
- 주정, 『중국 대학교 한국어학과용 한중 번역 교재 개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전 하이 즈영, 「베트남 북부 대학의 한국어(학)과 통·번역 교육의 현황과 과제」, 『인문사회 21』 제12집, 인문사회 21, 2021, pp.1621-1636.
- _____, 「베트남 내 대학의 한국어 통·번역 교육의 현황과 발전 방안」,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22, pp.132-144.

- 추육영, 「한-중 번역수업 교육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 중국 산둥성 소재 대학교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제72집, 한중인문학회, 2021, pp.85-111.
- 투무르바타르 앵크체첵·김영란, 「몽골의 통·번역 전공 한국어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몽골국립과학기술대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어문교육』 제23집,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017, pp.143-179.
- 하나은·윤창숙, 「통번역대학원생을 위한 한국어 번역 글쓰기 교과 과정 설계 연구」, 『언어와 문화』 제17집,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21, pp.259-280.
- 황인교, 「국내·외 한국어 교재 분석」,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제28집,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2003, pp.287-329.
- 朴銀淑, 「중국내 대학교 한국어과 번역 관련 교과목 및 교재에 대한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제58집, 한중인문학회, 2018, pp.111-132.
- 吳 俊, 「我國外語教育政策研究綜述及發展趨勢分析(2009-2019)」, 『百色學院學報』第33期, 2020, pp.132-140.
- Toktarova · Zhansaya, 『한국어-카자흐어·러시아어 통번역 교육과정 혁신을 위한 요구 분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논 문 접 수 일	2023년 05월 02일
심 사 완 료 일	2023년 05월 26일
게 재 확 정 일	2023년 06월 08일

Abstract

A Basic Study for Developing Korean Translation Curriculum in
Chinese Universities
-Focusing on the Analysis of Translation Textbooks-

Tian, Peiying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direction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translation education curriculum in Chinese universities by analyzing four translation textbooks used in these universities. In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translation education in Chinese universities, it is evident that the content, teaching methods, subject types, and credit requirements of Korean translation courses vary significantly among universities, indicating a lack of established standards in the Korean translation education curriculum. Given the difficulty of scrutinizing every translation education curriculum of each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translation textbooks that best reflect the translation education curriculum in terms of “teaching and learning situations” and “internal structure.”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textbooks, this study suggests several implications for the future development.

Firstly, it is crucial to clearly define the target and objectives for developing translation textbooks and education curriculum. Secondly, the role of learners should be thoroughly considered. Thirdly, the design of education content should be evaluated and organized. Fourthly, including appropriate intercultural knowledge is necessary in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curriculum. Fifthly, consistent adjustment of the level of difficulty for translation texts is necessary in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curriculum or textbooks. Lastly, the presentation of translation practice or practical parts of the curriculum or textbooks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Keyword

Korean language education, Translation education, Curriculum development, Chinese universities, Textbook analysis

현대 한국어 'X+상(上)', 'X+하(下)' 구성의 의미와 문법

마영리*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자어 '상(上)'과 '하(下)'가 포함된 현대 한국어 'X+상', 'X+하' 구성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X+상', 'X+하' 구성의 형태적 특징과 문법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X+상' 구성의 '상'은 '물체의 위나 위쪽', "'올라가다' 또는 '위로'", "'지면/화면', '추상적 통신의 공간', '규범/제도와 관련된 것', '행동/행위와 관련된 것', '모양/외재적 특성과 관련된 것', '외부 요인과 관련된 것'의 8가지 의미를 가진다. 또한 'X+하' 구성에 쓰인 '하'는 '물체의 아래나 아래쪽', "'내리다' 또는 '아래로'", "'조건/환경과 관련된 것', '통치/지배와 관련된 것', '도움과 관련된 것'의 5가지 의미로 나뉜다. 그리고 'X+상', 'X+하' 구성에서 한자 '상'과 '하'의 분포는 비교적 규칙적이다. 구체적인 공간의 의미의 경우 2자어로 나타나고 B자 용법을 가지고 있으며 추상적인 의미의 경우 3자어 내지 다자어로 나타나고 β자 용법을 가지고 있다. 통사적 특징으로 'X+상', 'X+하' 구성이 문장에서 쓰일 때 의미별로 조사와의 결합 양상을 분석하였다. 대개 관형격조사 '의'와 결합하여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부사격조사 '로', '에', '에서'와 결합하여 부사어의 기능을 한다. 그런데 결합할 때 제약이 걸리기도 한다. 이외에 접미한자어 '-상'과 '-하'의 문법적 지위가 다르고, '상'은 접미사에 가까운 반면에 '하'는 의존명사의 용법까지 가지게 된다.

주제어 'X+상(上)', 'X+하(下)', 한자어 '상(上)'과 '하(下)', 원사, 차사, 2자어, 다자어

〈목차〉

1. 서론
2. 한자 형태소 '상(上)', '하(下)'의 의미
3. '상(上)', '하(下)'의 2자어 3자어 문법
4. 'X+상(上)', 'X+하(下)' 구성의 문법적 특징
5. 결론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1. 서론

한자어 방위사(方位詞) 중에 ‘상(上)’과 ‘하(下)’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추상적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예컨대 ‘관계상, 미관상, 사실상, 절차상’ 등에서의 ‘-상’은 ‘그것과 관계된 입장, 또는 그것에 따름’의 뜻이고, ‘식민지하, 원칙하, 지도하, 지배하’ 등에서의 ‘-하’는 ‘그것과 관련된 조건이나 환경’을 가리키는 것이다. ‘-상’과 ‘-하’는 접미한자어¹⁾로서 앞에 다른 성분과 결합하고 ‘X+상(上)’, ‘X+하(下)’ 구성이 문장에서 주로 관형어와 부사어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에’, ‘에서’, ‘로’ 등 제한된 조사와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고는 현대 한국어 ‘X+상(上)’, ‘X+하(下)’ 구성의 의미와 용법을 밝히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한자어 ‘상’과 ‘하’의 품사적 지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여러 관점이 있다. 채완(1998: 59)에서는 ‘하’가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없고 그 분포가 제한적이며 그 의미가 자립명사와 상당히 멀어졌다는 점에서 새 단어를 만들지는 못하는 ‘활용성 접미사’로 보고 있다. 노명희(2005: 246)에서는 ‘상, 하’가 보이는 부사적 특성을 바탕으로 이들을 묶어 다루었으나 조사 결합이나 기능적 측면에서 이들의 특징이 동일하지 않아 ‘상’은 접미사로 처리하고, ‘하’는 의존명사로 처리하였다. 또한 김창섭(2007: 43-44)에서 부접명사(附接名詞)²⁾라는 새로운 범주를 설정하고 ‘상’이 ‘공간’의 의미를 나타낼 때의 부접명사적 용법에 대하여 기술한 바 있다. 이외에 광휘(2015/2016)에서는 한자어 방위명사 ‘상’과 ‘하’가 자립명사로 쓰일 때와 단어의 구성요소로서 다른 명사와 결합하여 합성어를 만들 때의 용법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집중적으로 ‘상’, ‘하’의 용법을 검토하는 연구가 아니고, ‘X+상’, ‘X+하’ 구성에 대해서도 2자어 3자어 문법을 도입해

1) ‘접미한자어’라는 용어는 노명희(2003)에 따른 것이다. 주로 2음절 한자어의 뒤에 결합하여 접사적인 성격을 갖는 1음절 한자어를 말한다.

2) 김창섭(2007: 27)에서 기술한 바에 따르면, 한국어의 어떤 명사들은 반드시 무표지 명사구를 보충어로 요구하며 그에 직접 결합한다. 일반명사는 그 자체로서 구가 될 수 있는데 ([[B]_N]_{NP}. B=일반 명사), 부접명사는 보충어를 취하여야 비로소 구가 될 수 있다 ([[A]_{NP}[B]_N]_{NP}. B=부접명사). 이러한 명사들이 소속할 ‘부접명사(附接名詞)’라는 새로운 범주를 설정하였다.

서 연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두 구성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논의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2장에서는 한자 형태소 ‘상’, ‘하’의 의미를 밝히고, 접미한자어 ‘-상’과 ‘-하’의 앞에 결합된 성분의 의미에 따라 ‘X+상’, ‘X+하’의 형식을 취한 단어들을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할 것이다. 3장은 ‘상(上)’, ‘하(下)’의 2자어 3자어 문법을 살펴보고, 4장은 ‘X+상’, ‘X+하’ 구성을 3자어 내지 다자어 위주로 그 문법적 특징을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5장은 논의를 정리하고 미흡한 부분을 밝힐 것이다. 연구 자료는 『표준국어대사전』과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연세 현대 한국어사전』(해당 웹사전 포함)에 ‘X+상’, ‘X+하’의 형식을 취한 표제어,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와 웹 문서에서 수집한 실제 용례이다. 중국어 자료는 웹사전 『漢典』에서 제시된 『說文解字』와 『國語辭典』을 참조하였다.

2. 한자 형태소 ‘상(上)’, ‘하(下)’의 의미

‘X+상’, ‘X+하’ 구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먼저 한자 형태소 ‘상’과 ‘하’의 사전적 기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중국어 사전 『說文解字』와 『國語辭典』과 널리 읽히는 문법서에서 기술되는 의미를 살핀 다음에, 『표준국어대사전』과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연세 현대 한국어사전』에 실린 ‘상(上)’, ‘하(下)’에 대한 뜻풀이를 조사하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힐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X+상’, ‘X+하’의 형식을 취한 단어들을 분류하고자 한다.

1) 중국어에서 ‘상(上)’, ‘하(下)’에 대한 기술

중국의 가장 오래된 사전인 『說文解字』에서는 ‘상’, ‘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1) 가. 上, 高也。此古文上, 指事也。時掌切。

상은 높은 곳이다. 지사(指事)³⁾자이고, 시(時)의 성모와 장(掌)의 운모를

합쳐서 받음한다.

나. 下, 底也。指事。胡雅切。

하는 밑이다. 지사자이고 호(胡)의 성모와 아(雅)의 운모를 합쳐서 받음한다.

(1)에서 보인 바와 같이 ‘상’은 곧 ‘높은 곳’이고, ‘하’는 ‘밑’이다. 즉 ‘상’과 ‘하’의 최초의 뜻은 ‘위’와 ‘아래’에 해당한다. 또한 『國語辭典』에서 ‘상’과 ‘하’에 대한 설명은 먼저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로 나누고 각 품사별로 그 의향과 뜻풀이, 용례가 제시되고 있다. 명사는 가장 기본적인 용법이고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

- (2) ① 物体的表面、高处或边侧。물체의 표면, 높은 곳, 또는 가장자리.
 如：「门上」、「山上」、「楼上」。
- ② 皇帝. 임금.
 如：《史记·卷八·高祖本纪》：「上问左右，左右争欲击之。」
- ③ 尊长或在上位的人. 윗사람이나 지위 높은 사람.
 如：《礼记·王制》：「乐事劝功，尊君亲上，然后兴学。」
- ④ 首座. 상좌, 윗자리.
 如：《礼记·曲礼上》：「席南乡北乡，以西方为上。」
- ⑤ 表示范围或某方面. 범위나 어떤 면을 나타낸다.
 如：「路上」、「世上」、「文学上」、「感情上」、「公堂上」。
- (3) ① 低处、底部。与「上」相对. 낮은 곳, 밑.
 如：「底下」。
- ② 称隶属于人者、地位较低者. 남에 예속(隸屬)된 사람, 지위가 비교적 낮은 사람.
 如：「部下」、「手下」、「属下」、「名下」。
- ③ 内、里面. 안, 속.
 如：「心下」、「言下之意」、「意下如何」、「不在话下」。
- ④ 方面. 방면.
 如：「四下看一看」。
- ⑤ 在某个期间或时节. 어느 기간이나 시기에.

3) 指事(지사)는 한자(漢字)의 육서(六書)의 하나이다.

如：「目下」、「时下」、「年下」、「眼下」。

⑥ 量词。计算动作次数的单位。양사. 동작 횟수의 단위.

如：「打十下手心」、「做五十下伏地挺身」。

(2-3)를 통하여 ‘상’과 ‘하’의 기본의미는 각각 공간적인 의미인 ‘물체의 위와 위쪽’과 ‘물체의 아래와 아래쪽’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임금’은 ‘상’의 기본의미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沈阳·郭锐(2015: 206)에 따르면, 현대 중국어의 품사 체계에서 체언에 포함된 것은 명사(名詞), 방위사(方位詞), 시간사(時間詞), 처소사(處所詞), 양사(量詞) 이 5가지이다. ‘상(上)’, ‘하(下)’는 방위사(方位詞)과 처소사(處所詞)의 용법을 겸하고 있다. 또한 朱德熙(1982: 42-45)에서도 방위사와 처소사의 용법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다.

朱德熙(1982: 42-45)에 따르면 방위사는 단순방위사와 복합방위사로 양분할 수 있다. 단순방위사로는 ‘상(上), 하(下), 전(前), 후(后), 이(里), 외(外), 중(中), 좌(左), 우(右), 동(東), 서(西), 남(南), 북(北)’ 등이 포함된다. 방위사는 기본적으로 처소를 나타내지만, ‘상(上), 중(中), 하(下)’는 실제적인 처소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아래의 예를 살펴보자.

(4) “……上”表示在某方面。‘…상’은 어떤 면을 가리킨다.

예: 정치상(政治上), 역사상(歷史上), 표면상(表面上), 이론상(理論上), 문법상(文法上), 실제상(實際上).

(朱德熙 1982: 43-44)

(5) “……下”表示条件。‘…하’는 어떤 조건을 나타낸다.

예: 가. 在党的指导下 당의 지도하에

나. 在同学们的帮助下 학생들의 도움하에

다. 在广大群众的支持下 수많은 인민들의 지지하에

(朱德熙 1982: 43-44)

이처럼, 중국어 복합방위사에 쓰인 ‘上’과 ‘下’는 한국어 ‘X+상’, ‘X+하’ 구성에 쓰인 ‘상’과 ‘하’의 용법과 유사한 면이 많다. 즉 한국어 접미한자어 ‘-상’과

‘-하’의 용법은 중국어 ‘上’과 ‘下’의 용법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2) 한국어에서 ‘상(上)’, ‘하(下)’의 사전적 기술

『표준국어대사전』과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연세 현대 한국어사전』에서 ‘상’과 ‘하’의 의미가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⁴⁾

〈표 1〉 현대 한국어 ‘상(上)’에 대한 사전적 기술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연세 현대 한국어사전』
상 (명사)	상1(上) 「명사」 「1」 ‘ 임금 ’의 높임말. 「2」 품질이나 등급 을 나눌 때, 비교적 뛰어나고 좋은 부분.	상4 [上] 명사 (1) 차례나 등급 을 상, 중, 하 또는 상, 하로 나눌 때 가장 윗길에 속하는 것. (2) (기본의미) ‘ 임금 ’을 높여 이르는 말. (3) 물체의 위나 위쪽 .	상6 上 명사 (명사) 1. 차례나 등급 등을 상, 하, 또는 상, 중, 하로 나누었을 때 제일 첫째. 2. 높임말 임금 .
-상 (접사)	-상24(上) 「접사」 ((일부 명사 뒤에 붙어)) 「1」 ‘ 그것과 관계된 입장 ’ 또는 ‘ 그것에 따름 ’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관계상/미관상/사실상/외관상/절차상. 「2」 ‘ 추상적인 공간에서의 한 위치 ’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인터넷상./전설상./통신상. 「3」 ‘ 물체의 위나 위쪽 ’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지구상의 생물. • 도로상에 차가 많이 나와 있다.	-상14 [上] 접미사 (1) 일부 명사 뒤에 붙어, ‘ 그것에 근거함 ’ 또는 ‘ 그것에 따름 ’의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드는 말. 주로 부사적 용법 으로 쓰인다. • 외견상/미관상/외관상/역사상/형편상. (2) 일부 명사 뒤에 붙어, ‘ 그곳 위 ’ 또는 ‘ 거기에 속함 ’의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드는 말. • 색계상/인터넷상/지구상.	

4) 굵은 글씨체와 밑줄은 비교의 편리를 위해 필자가 표시한 것이다.

〈표 2〉 현대 한국어 ‘하(下)’에 대한 사전적 기술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연세 현대 한국어사전』
하 (명사)	하4(下) 「명사」 품질이나 등급을 둘 또는 셋으로 나눌 때의 맨 끝.	하2 [下] 명사 (1) 품질이나 등급을 둘 또는 셋으로 나눌 때의 맨 마지막 품질이나 등급. (2) (기본의미) 아래 또는 아래쪽.	하1 下 명사 (명사) 1. 차례나 등급을 ‘상, 하’나 ‘상, 중, 하’로 구별했을 경우에, 맨 아래, 또는 맨 끝.
-하 (접사)	-하12(下) 「접사」 ((일부 명사 뒤에 붙어)) 「1」 ‘그것과 관련된 조건이나 환경’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식민지하/원칙하/지도하/지배하. 「2」 ‘아래 또는 아래쪽이나 밑’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교각하 추락 주의. • 선반하 적치 금지.	-하12 [下] 접미사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어떤 처지나 상태 아래에 있음’의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드는 말. • 원칙하/지배하/체제하/환경하.	

위의 〈표 1〉과 〈표 2〉에서 보이듯이, 『표준국어대사전』과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서는 ‘상(上)’, ‘하(下)’의 명사와 접미사로서의 용법이 모두 제시되어 있는 반면, 『연세 현대 한국어사전』에서는 명사로서의 용법만 제시하고 있다.

명사로서의 ‘상(上)’에 대하여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첫 번째 의미로 “임금의 높임말”로 제시하고 있고,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서도 이를 기본의미로 삼고 있다. 그리고 파생 의미로 “품질, 등급, 차례” 등의 최상급을 가리키는 말로 풀이하고 있다. 주의할 만한 점은,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서 ‘물체의 위나 위쪽’이라는 의향도 있다. 본고는 ‘물체의 위나 위쪽’이라는 의향을 공간적 의미를 나타내는 일차의미로서 기본의미로 처리하기로 한다. 이런 처리는 ‘하’의 기본의미와 대응할 뿐만 아니라, 앞에서 살핀 중국어 사전에서의 기술과도 일치하기 때문이다. 한편 명사로서의 ‘하(下)’의 기본의미로는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서만 ‘물체의 아래나 아래쪽’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세 사전에서 모두 ‘품

질, 등급, 차례' 등의 최하급을 가리키는 말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를 파생의미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세 사전에서의 뜻풀이를 종합하여, 어근 또는 접미사로서의 '-상'의 용법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각각 [1] '물체의 위나 위쪽', [2] '추상적인 공간에서의 한 위치', [3] '그것과 관계된 입장' 또는 '그것에 따름'이다. 그리고 어근 또는 접미사로서의 '-하'는 두 가지의 용법으로 기술할 수 있다. [1] '물체의 아래나 아래쪽', [2] '그것과 관련된 조건이나 환경'이 그것이다.

3) 한국어 'X+상', 'X+하' 구성에 쓰인 '상'과 '하'의 의미

앞서 2. 2)절에서 논의하였듯이 어근 또는 접미한자어 '상', '하'의 의미를 크게 공간적 의미와 추상적 의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공간적 의미는 각각 [1] '물체의 위나 위쪽'과 [1] '물체의 아래나 아래쪽'이 해당하고, 추상적 의미는 각각 [2] '추상적인 공간에서의 한 위치', [3] '그것과 관계된 입장' 또는 '그것에 따름'과 [2] '그것과 관련된 조건이나 환경'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楊云(2001: 104, 108)에서 방위사 '上'과 '下'가 나타내는 공간적 위치와 어휘적 의미는 주로 그가 결합된 명사가 가리키는 물체의 물리적 속성과 기하학적 모양에 의해 결정된다고 밝힌 바가 있다.⁵⁾ 즉 '상'과 '하'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그 앞에 결합된 성분을 참조할 수 밖에 없다. 그럼 이제부터 위에 제시된 뜻풀이를 바탕으로 어근 또는 접미한자어 '상'과 '하'의 앞에 결합된 성분의 의미에 따라 '상'과 '하'의 의미를 세분하여 살펴보자.

(1) 구체적 공간의 의미

사전의 뜻풀이에 의하면 어근 또는 접미한자어 '상'과 '하'는 일차적으로 공간적 의미를 가진다. '상'은 '물체의 위나 위쪽'을 가리키고, 반면에 '하'는 '물체의 아래나 아래쪽'을 이르는 말이다. 이 경우 '상'과 '하'의 구체적인 공간의 의미는

5) 方位词“上”和“下”所表示的空间位置和词汇意义主要由它依附的名词所代表的物体的物理形状和几何形状来决定。(杨云(2001: 104, 108) 참조)

주로 단어의 구성요소로 다른 선행 성분과 결합하여 공간 개념과 관련된 합성어를 만들어서 나타난다.

(6) 가. 가상(架上), 가상(街上), 각상(閣上), 강상(江上), 경상(境上), 계상(階上), 관상(棺上), 기상(機上), 난상(欄上), 노상(路上), 농상(壟上/隴上), 누상(樓上), 단상(壇上), 담상(潭上), 당상(堂上), 대상(臺上), 도상(道上/途上), 도상(圖上), 두상(頭上), 둔상(臀上), 마상(馬上), 면상(面上), 모상(毛上), 반상(盤上), 벽상(壁上), 복상(腹上), 봉상(峰上), 분상(墳上), 빙상(氷上), 사상(沙上/砂上), 산상(山上), 상상(床上/牀上), 석상(石上), 선상(船上), 선상(線上), 설상(雪上), 성상(城上), 세상(世上), 소상(沼上), 송상(松上), 수상(水上), 수상(樹上), 슬상(膝上), 시상(市上), 아상(衙上), 안상(案上), 안상(鞍上), 양상(洋上), 양상(梁上), 영상(嶺上), 옥상(屋上), 육상(陸上), 전상(殿上), 주상(柱上), 정상(頂上), 지상(池上), 지상(紙上), 지상(誌上), 차상(車上), 천상(天上), 청상(廳上), 축상(軸上), 침상(枕上), 탁상(桌上), 하상(河上), 함상(艦上), 해상(海上), 호상(湖上)

나. 격상(格上), 계상(計上), 계상(啓上), 곡상(斛上), 공상(供上), 공상(貢上), 픽상(斛上), 기상(記上), 납상(納上), 능상(凌上), 대상(貸上), 동상(同上), 동상(凍上), 등상(騰上), 매상(買上), 매상(賣上), 반상(反上), 번상(番上), 범상(犯上), 봉상(封上), 봉상(捧上), 부상(付上), 부상(浮上), 북상(北上), 비상(飛上), 서상(敍上), 선상(先上), 소상(邇上), 압상(押上), 언상(言上), 여상(如上), 역상(逆上), 인상(引上), 진상(進上), 충상(衝上), 절상(切上), 정상(呈上), 주상(奏上), 증상(增上), 직상(直上), 참상(參上), 추상(追上), 향상(向上), 허상(許上), 헌상(獻上), 환상(還上), 흡상(吸上)

다. 각하(脚下), 강하(江下), 계하(階下), 곡하(轂下), 관하(管下), 관하(關下), 교하(橋下), 군하(郡下), 궐하(闕下), 궐하(機下), 기하(旗下), 낭하(廊下), 누하(樓下), 단하(段下), 단하(壇下), 당하(堂下), 당하(幢下), 대하(臺下), 도하(都下), 막하(幕下), 명하(名下), 목하(目下), 묘하(墓下), 문하(門下), 배하(配下), 부하(府下), 산하(山下), 산하(傘下), 성하(城下), 송하(松下), 수하(水下), 안하(案下), 안하(眼下), 빙하(氷下), 애하(崖下), 역하(闕下), 연하(輦下), 영하(零下), 요하(腰下), 우하(宇下), 월하(月下), 읍하(邑下), 이하(垓下), 이하(以下), 이하(耳下), 일하(日下), 임하(林下), 장하(杖下), 장하(帳下), 장하(牆下/墻下), 적하(滴下), 정하

(庭下), 제하(臍下), 제하(題下), 족하(足下), 주하(廚下), 지하(地下), 직하(直下), 천하(天下), 천하(泉下), 침하(檐下), 청하(廳下), 촉하(燭下), 추하(楸下), 탐하(榻下), 피하(皮下), 필하(筆下), 현하(現下), 휘하(麾下)

- 라. 가하(加下), 각하(却下), 각하(刻下), 감하(減下), 감하(瞰下), 강하(降下), 격하(格下), 겸하(謙下), 계하(啓下), 낙하(落下), 남하(南下), 내하(內下), 달하(達下), 명하(命下), 방하(放下), 번하(番下), 분하(分下), 불하(拂下), 비하(批下), 사하(瀉下), 삭하(朔下), 서하(書下), 선하(先下), 선하(宣下), 설하(泄下), 솔하(率下), 쇠하(殺下), 수하(垂下), 수하(樹下), 슬하(膝下), 시하(侍下), 어하(御下), 연하(嚙下), 예하(例下), 예하(豫下), 예하(隸下), 오하(誤下), 용하(用下), 유하(流下), 윤하(潤下), 인하(引下), 일하(一下), 자하(自下), 적하(積下), 적하(謫下), 전하(轉下), 절하(切下), 점하(點下), 제하(除下), 주하(奏下), 차하(差下), 체하(帖下), 추하(墜下), 추하(趨下), 취하(取下), 층하(層下), 침하(沈下), 탄하(吞下), 탈하(傾下), 투하(投下), 판하(判下), 폼하(貶下), 향하(向下), 혜하(惠下), 획하(劃下)

(6가, 나)는 2음절 단어에서 ‘상’이 어근으로 쓰인 예인데, 여기서 ‘상’은 ‘위’라는 의미를 비교적 분명히 가진다. (6가)의 예들은 ‘상’의 결합형이 조사와의 결합에 별 제약이 없어 완전한 명사로서의 용법을 지닌다. (6나)는 ‘상’이 ‘올라가다’ 또는 ‘위로’의 의미로 동사적 또는 부사적으로 해석된다. (6다, 라)의 예는 ‘하’가 2음절 한자어의 구성 형태소로 쓰인 예들이다. (6다)는 ‘하’가 ‘아래’라는 뜻을 지니면서 ‘하’ 결합형이 주로 명사로 쓰이는 예이고, 조사와의 결합에 별 제약이 없다. (6라)는 ‘하’가 ‘내리다’ 또는 ‘아래로’의 의미로 동사적 또는 부사적으로 해석되는 예이다. (6나, 라)의 단어는 ‘하다’와 결합하여 서술어로도 쓰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2) 추상적 의미

이 절에서는 사용 환경에 따라 ‘X+상’, ‘X+하’ 구성에서 쓰인 ‘상’과 ‘하’의 추상적인 의미를 아래와 같이 나눠서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X+상’이 가진 ‘추상적인 공간에서의 한 위치’의 뜻을 ‘지면/화면’과

‘추상적 통신의 공간’ 2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X+상’의 ‘그것과 관계된 입장’ 또는 ‘그것에 따름’의 뜻을 ‘규범/제도와 관련된 것’, ‘행동/행위와 관련된 것’, ‘모양/외재적 특성과 관련된 것’, ‘외부 요인과 관련된 것’ 4가지 유형으로 세분할 수 있다.

- (7) 가. 달력상, 시간표(時間表)상, 스크린상
 나. 전산(電算)상, 인터넷상, 웹상
 다. 원칙(原則)상, 예의(禮儀)상, 예산(豫算)상
 라. 경영(經營)상, 관리(管理)상, 진행(進行)상
 마. 외관(外觀)상, 성격(性格)상, 구조(構造)상
 바. 사정(事情)상, 시간(時間)상, 방법(方法)상

(7)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추상적인 의미로 쓰인 접미사 ‘-상’의 의미는 6가지로 나뉜다. (7가)의 예들은 지면이나 전자 기계의 화면 등 평면 공간으로 간주될 수 있다.⁶⁾ (7나)의 예들은 인터넷과 관련된 추상적인 통신 공간으로 간주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상’의 선행 성분이 인터넷과 관련된 용어일 경우 흔히 한자어가 아닌 외래어로 나타난다는 점이다.⁷⁾ (7다)의 예들은 모두 ‘규범/제도와 관련된 것’의 의미를 가진다.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늘 어떤 규범이나 규칙에 따라 행동한다. 그 규범 및 규칙이 되는 것이 ‘상’과 결합하여 ‘그것에 따름’의 뜻으로 나타난다.⁸⁾ (7라)의 예들은 ‘행동/행위와 관련된 것’의

6) ‘지면/화면’과 관련된 ‘X+상’ 구성에서 X에 해당하는 성분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곽휘(2016: 120) 참조)

예: 기록(記錄), 신문(新聞), 편지(便紙), 장부(帳簿), 지면(紙面), 부기(簿記), 시간표(時間表), 명부(名簿)

7) ‘추상적 통신의 공간’과 관련된 ‘X(외래어)+상’ 구성에서 X에 해당하는 성분은 다음과 같이 찾아볼 수 있다. (곽휘(2016: 119) 참조)

예: 온라인, 사이버, 프로그램, 컴퓨터, 네트워크, 그래프

8) ‘규범/제도와 관련된 것’의 의미를 가진 ‘X+상’에서 X에 해당하는 성분은 아래와 같이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을 다시 (가) 법률과 관련된 것, (나) 규칙이나 제도와 관련된 것, (다) 습관이나 의식과 관련된 것, (라) 계약과 관련된 것으로 세분할 수 있다. (곽휘(2016: 116) 참조)

예: 가. 법률(法律), 헌법(憲法), 형법(刑法), 민법(民法), 상법(商法), 세법(稅法), 법규

의미를 나타낸다.⁹⁾ (7마)의 예들은 ‘모양/외재적 특성과 관련된 것’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사람이 흔히 사물의 모양이나 외재적인 특성을 관찰하므로 판단이나 평가를 내리는 것과 관련이 있을 듯하다.¹⁰⁾ (7바)의 예들은 ‘외부 요인과 관련된 것’의 의미를 나타낸다. 외부의 환경 등이 사태의 원인이 되는 맥락에서 쓰인다.¹¹⁾

(法規), 헌장(憲章), 국제법(國際法), 현행법(現行法), 선거법(選舉法), 특허법(特許法),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나. 규제(規制), 규정(規定), 제도(制度), 세제(稅制), 절차(節次), 정책(政策)

다. 관행(慣行), 관례(慣例), 도덕(道德), 예의(禮儀), 관념(觀念), 이치(理致), 논리(論理), 이론(理論), 통념(通念), 원칙(原則), 교리(教理), 이념(理念), 의식(意識), 습관(習慣), 풍토(風土), 품행(品行), 개념(概念), 양심(良心), 풍수(風水), 의리(義理)

라. 계약(契約), 협정(協定), 협약(協約)

9) ‘행동/행위와 관련된 것’의 의미를 가진 ‘X+상’ 구성에서 X에 해당하는 성분은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다. (곽휘(2016: 117) 참조)

예: 경쟁(競爭), 교육(教育), 임용(任用), 발전(發展), 설계(設計), 작업(作業), 운영(運營), 해석(解析), 인지(認知), 운용(運用), 사용(使用), 인식(認識), 제작(製作), 외교(外交), 영업(營業), 보안(保安), 통계(統計), 진행(進行), 시행(施行), 분석(分析), 집행(執行)

10) ‘모양/외재적 특성과 관련된 것’의 의미를 가진 ‘X+상’ 구성에서 X에 해당하는 성분은 아래와 같이 들 수 있다. 이것들을 다시 (가) 사물의 모양 또는 외재적인 요인과 관련된 추상 명사, (나) 사람의 성격이나 사물의 모양 및 특성, 혹은 내재적인 요인과 관련된 추상명사로 세분할 수 있다. (곽휘(2016: 118) 참조)

예: 가. 구조(構造), 구성(構成), 표면(表面), 규모(規模), 형식(形式), 외형(外形), 미관(美觀), 외양(外樣), 외면(外面), 형상(形狀), 양식(樣式), 체면(體面), 형태(形態), 지리(地理), 신체(身體), 내용(內容), 명목(名目), 외견(外見), 문맥(文脈), 표현(表現)

나. 특성(特性), 특징(特徵), 속성(屬性), 성격(性格), 성질(性質), 생리(生理), 본질(本質), 체질(體質), 조직(組織), 본성(本性), 명분(名分)

11) ‘외부 요인과 관련된 것’의 의미를 가진 ‘X+상’ 구성에서 X에 해당하는 성분은 다음과 같이 많이 찾아낼 수 있다. (곽휘(2016: 119) 참조)

예: 기교(技巧), 기능(機能), 과정(過程), 업무(業務), 편의(便宜), 사업(事業), 직업(職業), 건강(健康), 문헌(文獻), 의미(意味), 행정(行政), 직무(職務), 여건(餘件), 방법(方法), 전략(戰略), 재산(財産), 서류(書類), 기술(技術), 능력(能力), 발음(發音), 산업(產業), 공무(公務), 실무(實務), 재무(財務), 작품(作品), 언어(言語), 학문(學問), 관계(關係), 경험(經驗), 현실(現實), 인정(人情), 종교(宗教), 행정(行政), 위생

한편 ‘X+하’ 구성에 쓰인 접미사 ‘-하’의 추상적 의미는 사전에서 ‘그것과 관련된 조건이나 환경’의 뜻으로 해석되어 있다. ‘-하’의 이러한 의미를 아래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각각 ‘조건/환경과 관련된 것’, ‘통치/지배와 관련된 것’, ‘도움과 관련된 것’이다.

- (8) 가. 원칙(原則)하, 조건(條件)하, 환경(環境)하
 나. 통치(統治)하, 통제(統制)하, 지배(支配)하
 다. 지도(指導)하, 인도(引導)하, 교육(教育)하

(8가)의 예들은 ‘조건/환경과 관련된 것’의 의미를 나타낸다.¹²⁾ ‘X+하’ 구성에서 X자리에는 한자어뿐만 아니라 ‘리더십, 시스템, 인플레이션’ 등 외래어도 들어갈 수 있다. (8나)에서 제시한 예들은 ‘통치/지배와 관련된 것’의 의미를 가진다.¹³⁾ 이러한 의미는 은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하면, 권력이나 힘이 있는 자는 ‘상’에 있고, 통치나 지배를 당한 자는 ‘하’에 있으며 ‘상’에 복종하는 위계질서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8다)의 예들은 ‘도움과 관련된 것’의 의미로 나타낸다.¹⁴⁾ 이 의미 또한 은유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즉, 힘이

(衛生), 지표(指標), 조건(條件), 염색체(染色體), 호적(戶籍)

12) ‘조건/환경과 관련된 것’의 의미를 가진 ‘X+하’ 구성에서 X에 해당하는 성분은 다음과 같이 찾아낼 수 있다. (곽휘(2016: 121) 참조)

예: 계획(計劃), 기조(基調), 기획(企劃), 기반(基盤), 체제(體制), 조건(條件), 여건(條件), 법규(法規), 제도(制度), 지표(指標), 체계(體系), 제약(制約), 이론(理論), 상황(狀況), 영향(影響), 온도(溫度), 전제(前提), 기후(氣候), 미명(美名), 약속(約束), 신념(信念), 동의(同意), 동참(同參), 이론(理論), 배경(背景), 의도(意圖), 원칙(原則), 명분(名分), 정권(政權), 제목(題目), 판단(判斷), 표제(標題), 목적(目的), 보장(保障), 명칭(名稱), 상태(狀態), 형편(形便), 국가(國家), 구도(構圖), 관념(觀念), 이념(理念), 구조(構造), 가정(家庭), 규율(規律), 부처(部處), 기조(基調), 현행법(現行法)

13) ‘통치/지배와 관련된 것’의 의미를 가진 ‘X+하’ 구성에서 X에 해당하는 성분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곽휘(2016: 123) 참조)

예: 감독(監督), 감시(監視), 관리(管理), 관할(管轄), 독재(獨裁), 압박(壓迫), 위협(威脅), 점령(占領), 제어(制御), 지배(支配), 통제(統制), 학대(虐待)

14) ‘도움과 관련된 것’의 의미를 가진 ‘X+하’ 구성에서 X에 해당하는 성분은 다음과 같이 정리

분은 원사(元辭)라고 한다. 그리고 원사에 대해서는 ‘원사의 원사 요구’ 원칙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한편 3자어는 보통 2자어 형성에서 참여하는 일반적인 자와 마치 접두사나 접미사처럼 2자어를 작용역으로 하여 쓰이는 특별한 자가 결합함으로써 형성된다. 이 경우 전자를 원사라고 부르고, 후자를 차사(次辭)라고 부른다. 그리고 차사에 대해서는 ‘차사의 단어 어기 요구’ 원칙을 제시하였다.

김창섭(2013: 171)에서 서로 지위가 다른 한자에 대해 다른 부호를 부여한 바 있다. 단어 자격을 갖춘 1자어는 W로 표시된다. 2자어 형성에 참여하는 원사에 대해 앞에 오는 자는 A로 표시되고, 뒤에 오는 자는 B로 표시된다. 그리고 차사의 경우, 1자어나 2자어 앞에 오는 차사는 α로, 1자어나 2자어 뒤에 오는 차사는 β로 표시된다. 이처럼 김창섭(2013: 172-173)에서 제시한 일반적인 한자어의 종류는 다음과 같은 3가지가 있다.

- (11) 가. 1자어(W)
- 나. 2자어(AB)
- 다. 차사어(αW, αAB, Wβ, ABβ)

이러한 ‘2자어 3자어 문법’에 따라 ‘X+상’, ‘X+하’ 구성에서 한자 ‘상’과 ‘하’의 형태적 지위는 다음 <표 3> <표 4>와 같다. 그리고 ‘X+상’, ‘X+하’ 구성의 경우, ‘상’과 ‘하’는 해당 구성의 끝자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A자 용법’과 ‘α자 용법’을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표 3> ‘X+상’ 구성에서 한자 ‘상’의 형태적 분포

의미	B자 용법	β자 용법
물체의 위나 위쪽	옥상(屋上)	×
‘올라가다’ 또는 ‘위로’	격상(格上)	×
지면/화면	×	달력상
추상적 통신의 공간	×	전산(電算)상
규범/제도	×	원칙(原則)상
행동/행위	×	경영(經營)상
모양/외계적 특성	×	외관(外觀)상
외부 요인	×	사정(事情)상

〈표 4〉 'X+하' 구성에서 한자 '하'의 형태적 분포

의미	B자 용법	β자 용법
물체의 아래나 아래쪽	지하(地下)	×
'내리다' 또는 '아래로'	평하(賤下)	×
조건/환경	×	원칙(原則)하
통치/지배	×	통치(統治)하
도움	×	지도(指導)하

〈표 3〉과 〈표 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X+상', 'X+하' 구성에서 한자 '상'과 '하'의 분포는 비교적 규칙적이다. 구체적인 공간의 의미의 경우 2자어로 나타나고 B자 용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추상적인 의미의 경우 3자어 내지 다자어로 나타나며 β자 용법을 가지고 있다.

4. 'X+상(上)', 'X+하(下)' 구성의 문법적 특징

이 장에서는 3자어 내지 다자어의 형식을 취한 'X+상', 'X+하' 구성의 문법적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이들 구성은 문장에서 격조사와 결합하여 관형어와 부사어의 두 가지 기능으로 쓰인다. 관형어나 부사어로 쓰이는 'X+상', 'X+하'는 '의', '로', '에', '에서' 등 격조사와 결합할 수 있다. 먼저 관형어의 용법으로 'X+상' 뒤에 '의'와 결합할 수도 있고, 격조사와 결합하지 않고 나타날 수도 있다.

(12) 가. 우리 나라에서도 **기록상** 최초의 시 작품의 하나인 〈귀지가〉도 〈삼국유사〉에서 밝힌 대로 보면 한 집단이 초자연적인 사건을 초래하기 위해 합창한 일종의 주문이었다.

가. **기록상**의 사실을 뒤엎을 일이라도 일어나게 된다면요.

나. **전산상** 오류가 있다고 해서 접수 못 했습니다. (곽휘 2016: 127)

나. **전산상**의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회사와 거래를 지속하고 싶은 고객도 없다.

다. 어떤 강좌 하나가 (**규정상** 최소인원을 넘었는데도) 등록인원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다음 학기에 학과에 의해 개설이 중단되었다는 것이었다.

다. 본 문제로 돌아가서 ABC 상사는 금 수출입에 관하여 수출입 승인을 득하는 데에 대외무역법상의 문제점은 없으나 외국환관리 **규정상**의 문제

점은 있다.

- 라. 보호소관계자들은 아직 전문기관으로서의 기반을 마련하지 못해 **관리상**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한다.
- 라. 학교 전체 차원에서 보면 지정기금은 **관리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 마. ... 제1차 대전 후 발흥(勃興)한 제반 문예사조의 **성격상** 계통을 파악하기 위한 까닭이다.
- 마. 걱정에는 **성격상의** 걱정, 상태별 걱정, 상황별 걱정으로 나눈다.
- 바. 정부는 조사단의 의견을 인정하면서도 **시간상** 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 바. 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현대’는 ‘지금의 이 시대’, ‘이 세대’, ‘현금’, 즉 ‘지금’, ‘이제’, ‘눈앞’ 같은 **시간상의** 구분을 위한 개념으로 풀이되고 있다.

2장에서 ‘X+상’의 추상적 의미인 ‘그것과 관계된 입장’ 또는 ‘그것에 따름’의 뜻을 6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12가-바)의 ‘X+상’은 관형어의 용법으로 이 6가지 의미를 나타낼 때 뒤에 격조사 ‘의’와 결합이 가능하고, 조사와 결합하지 않고 나타날 수도 있다. (12가-가)에서 ‘기록상’처럼 평면적 공간을 가리키는 단어 뒤에 조사 ‘의’와 결합하기 가능하지만 조사와 결합하지 않고 나타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12나-나)에서 ‘전산상’은 추상적 공간 의미를 나타내는 ‘X+상’이 ‘의’와 결합할 수도 있고, 조사와 결합 없이 단독으로 쓰일 수도 있다.

이어서 ‘X+상’, ‘X+하’ 구성이 문장에서 격조사와 결합하여 부사어로 쓰이는 경우를 살펴볼 것이다. 먼저 부사어로서의 기능을 ‘지면/화면’, ‘추상적 통신의 공간’, ‘규범/제도’, ‘행동/행위’, ‘모양/외재적 특성’, ‘외부 요인’의 의미로 나눠서 ‘로’, ‘에’, ‘에서’와의 결합 가능 여부를 살펴보자.

- (13) 가. 채식위주인 우리 나라 **사정상** 물 사용량을 줄이는 것은 어렵다
- 나. 시간 **관계상** 더이상 질문할 수 없군요.
- 다. **지면상**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바이오퍼드백, 자율훈련법, 근육 이완법, 호흡법, 인지수정치료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3)에서 보이듯이 ‘X+상’이 뒤에 아무 조사와 결합하지 않고 부사어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이때 주로 ‘외부 요인’과 ‘지면/화면’의 의미로 많이 나타난다. ‘추상적 통신의 공간’, ‘규범/제도’, ‘행동/행위’, ‘모양/외재적 특성’과 관련된 것은 보통 다른 조사와 결합해야 나타날 수 있다.

- (14) 가. **기록상**으로 보면 임진왜란 이후 전선(戰船)터 소형화하기 위한 논의나 또는 건의 등을 찾아 볼 수 있으며,...
- 나. 이후 이들의 논의는 지하로 잠복하거나 **인터넷상**으로 옮겨갔고 일부는 신좌파와 이론적 대화를 모색하고 있다.
- 다. 근대에 들어와 양의학(洋醫學)이 수입됨으로써 한의학은 **제도상**으로 버림받게 되었다.
- 라.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은 **통계상**으로 보면 외국에 비해 상당히 높다.
- 마. **형식상**으로 포항제철은 분명히 국민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 바. 검사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시간에 모두 끝이 났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제법 넉넉한 여유가 있었다.

(14)는 ‘X+상’이 조사 ‘로’와 결합하여 부사어의 용법으로 나타나는 경우이다. 여기서 격조사 ‘로’는 ‘원인이나 이유’와 ‘방법이나 방식’의 의미를 나타낸다.

위에 살핀 바와 같이 ‘X+상’은 모든 의미에서 격조사 ‘로’와 결합하여 부사어의 용법으로 쓰일 수 있다. 이어서 조사 ‘에’, ‘에서’와의 결합 양상을 살펴보자.

- (15) 가. 빛보증은 회계 **장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정부 빛이 많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 가. 일부 재벌은 **장부상**에서 부채비율을 낮췄지만 우리는 기술개발로 정면 돌파했다.
- 나. 이처럼 **인터넷상**에 연수원을 구축, 사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사이버연수원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 나. 월드와이드웹 혹은 줄여서 웹이라는 서비스의 개발은 **인터넷상**에서 멀티미디어 기능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 다. 한편 그러한 변화가 **제도상**에 미친 영향은 아직 대수로운 것이 아니었다.
- 다. 다음 대외 **정책상**에서 전형적인 것을 들면 고구려가 수·당과의 투쟁에서 이룩한 자립적 방위주의 정책과,...

- 라. 그 **설계상**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새로이 모델을 바꾸어야 하는 일이 생겨날 수도 있지 않을까?
- 리. 건축 설계 현장에서 창문이 없는 방을 ‘떡방’이라고 부른다. 빛이 들지 않아 떡처럼 까만 방이라는 뜻인데, **설계상에서** 떡방이 나오는 것을 최대의 실수로 여긴다.
- 마. 용인과 같은 넓지 않은 지역에서도 지역에 따라 가옥의 공간배치 및 **구조상**에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자연환경의 차이와 문화적 배경의 차이에서 연유한 것으로 사료된다.
- 미. 학계는 녹색마케팅의 **구조상에서** 직접적인 당사자라기보다는 각각의 다른 주체들을 보조하고 교육시키며 연구를 통한 정보의 개발 및 제공을 통한 혁신적 방법의 제시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른바 촉매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바. 지금 네 분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공정거래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는 데는 대체로 인식을 같이 하시면서도 **방법상**에 의견차이가 있으신대요.
- 박. ***방법상에서** 의견차이가 있으신대요.

(15)는 ‘X+상’이 의미별로 격조사 ‘에’, ‘에서’와 결합하여 부사어의 기능을 수행하는 예들이다. 격조사 ‘에서’는 ‘원인’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15바-박)에서 보인 것처럼 ‘외부 요인’의 의미를 가진 ‘X+상’이 ‘에’와 결합이 가능하지만 ‘에서’와는 결합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관형어와 부사어로 쓰인 ‘X+상’이 뒤에 조사와 결합하는 양상은 아래 <표 5>와 같이 나타날 수 있다.

<표 5> ‘X+상’ 구성의 의미별 격조사와의 결합 양상

‘X+상’	관형어		부사어			
	조사	의	조사	로	에	에서
지면/화면	○	○	○	○	○	○
추상적 통신의 공간	○	○	×	○	○	○
규범/제도	○	○	×	○	○	○
행동/행위	○	○	×	○	○	○
모양/외재적 특성	○	○	×	○	○	○
외부 요인	○	○	○	○	○	×

다음으로 ‘X+하’의 경우를 살펴보자. ‘X+하’도 ‘X+상’처럼 조사와 결합하여 관형어와 부사어로 나타날 수 있다. 먼저 ‘X+하’는 흔히 조사 ‘의’와 결합하여 관형어로 나타난다.

- (16) 가. 후진 **환경하**의 마르크스주의 운동권에게는 같은 환경하에서 창안된 레닌적 모형이 무리없이 수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 가. *후진 **환경하** 마르크스주의 운동권에게는 같은 환경하에서 창안된 레닌적 모형이 무리없이 수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나. 현대는 결국 4일 새벽 정몽헌 회장 **지배하**의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모두 끊어모아 정부의 요구수준에 맞췄다.
- 나. *현대는 결국 4일 새벽 정몽헌 회장 **지배하**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모두 끊어모아 정부의 요구수준에 맞췄다.
- 다. 러시아의 민족주의적 언론은 베를린 회의를 비스마르크 공작의 **지도하**의 반러 유럽연대라고 불렀다.
- 다. *러시아의 민족주의적 언론은 베를린 회의를 비스마르크 공작의 **지도하** 반러 유럽연대라고 불렀다.

(16가, 나, 다)의 ‘X+하’는 ‘조건/환경’, ‘통치/지배’, ‘도움’의 의미로 뒤에 조사 ‘의’와 결합하여 관형어의 용법으로 나타나는 경우이다. ‘X+상’은 뒤에 격조사 ‘의’를 생략하여 관형어로 쓰일 수 있지만 ‘X+하’는 ‘의’ 생략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 (17) 가. 1945년 해방과 동시에 미국군정 **통치하** 군정 체제의 수도로 되어 3년간 역시 수도 구실을 하면서 수도성(首都性)을 이어 온 가운데 대한민국의 수도로 자연스럽게 승계된 것이다.
- 나. 초음파 **유도하** 전립선 생검은 위험하고 아픈 시술인가요? (인터넷 검색)
- 다. 마르크스주의 운동이 시작된 1920년대의 중국 또는 서유럽의 경우와는 달리 후진적 **환경하**에 있었다.
- 라. 한국의 비정부조직들은 대부분 정부의 철저한 감시와 **통제하**에서 조직활동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억압된 채로 존재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 마. 특정 장소에 도착한 119차량과 파출소 순찰차는 군부대 통제로 이동이 불가해 군차량의 **인도하**에 현장까지 이동했다. (인터넷 검색)

- 바. 이러한 **배경하에서** 중인계층(中人階層)의 문화적, 학술적 활동이 활기를 띠고, 서화(書畵)를 즐기는 경향도 두드러지게 되었다.
- 사. 일제하에서는 일본사람들과 마지 못해 섞여 살았지만, 식민지 **지배하에서** 그들을 증오하는 것이 애국심과 일맥 상통했다.
- 아. 본질적으로는 도시 소비자들의 **지원하에서** 유기농업을 실천하는 농민들이 확대되는 생활기술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직거래운동과 다를 게 없지요.

(17가, 나)는 ‘X+하’가 조사와 결합하지 않고 단독적으로 부사어의 용법으로 나타나는 경우이다. (17다-아)는 의미에 따라 뒤에 조사 ‘에’, ‘에서’와 결합하여 부사어로 쓰이는 경우이다. 보다시피 ‘X+하’는 모든 의미에서 조사 ‘에’, ‘에서’와 결합이 가능하지만 격조사 ‘로’와는 결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격조사 ‘로’는 ‘수단, 도구’, ‘방법’과 ‘이유’ 등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X+하’의 세 가지 의미와 모두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관형어와 부사어로 나타나는 ‘X+하’가 조사와 결합하는 양상은 아래 <표 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6> ‘X+하’ 구성의 의미별 격조사와의 결합 양상

‘X+하’	관형어		부사어			
	조사	의	로	에	에서	
조건/환경	×	○	○	×	○	○
통치/지배	×	○	○	×	○	○
도움	×	○	○	×	○	○

지금까지 ‘X+상’, ‘X+하’와 조사와의 결합 양상을 살펴보았다. ‘-상’과 ‘-하’는 문장에서 격조사와 결합하여 관형어와 부사어의 두 가지 용법으로 나눌 수 있고, 관형어와 부사어의 용법으로 나타날 때 ‘X+상’, ‘X+하’ 뒤에 ‘의’, ‘로’, ‘에’, ‘에서’ 등 조사와 결합할 수 있지만 약간의 차이도 보인다.

사실 접미한자어 ‘-상’과 ‘-하’의 품사적 지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여러 관점이 있다. 채완(1998: 59)에서는 ‘하’가 관형형의 수식을 받을 수 없고 제한된 분포를 가지며 그 의미가 자립명사와 상당히 멀어졌다는 점에서 새 단어를 만들지

는 못하는 ‘활용성 접미사’로 보고 있다.

노명희(2005: 246)에서는 ‘상, 하’가 보이는 부사적 특성을 바탕으로 이들을 묶어 다루었으나 조사 결합이나 기능적 측면에서 이들의 특징이 동일하지 않아 ‘상’은 접미사로 처리하고, ‘하’는 의존명사로 처리하였다. 특히 접미한자어 ‘-상’과 ‘-하’는 명사 상당의 어구를 어기로 취한 경우(즉 구에 결합한 경우)가 주목할 만하다.

(18) 가. 앞으로 시나 군청이 ‘주위 자연환경이나 생활보전상 적합하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이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토지 거래 허가나 신고 접수를 거부할 수 없게 된다. (한겨레 96.7.25)

나. 여러 가지 통사 혹은 형태 구조상에 반복 등장함으로써 분리될 수 있는 언어 단위로 인정되는 형식이어야 한다. (한국어문 1:31)

(노명희, 2005: 243)

(18가)의 ‘-상’은 부사격조사 ‘으로’가 결합할 수 있으나 보통은 아무 조사의 도움 없이 부사적 기능을 발휘한다. 반면에 (18나)의 ‘-상’은 그것이 생략되어도 문맥에 이상을 초래하지 않으며 이때에는 후행하는 조사 ‘에’가 생략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이런 점에서 (18가)의 ‘-상’은 부사성이 강한 용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와 달리 (18나)의 ‘-상’은 명사성이 강한 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18나)의 ‘-상’은 그 의미가 덜 추상화되어 있고 부사격조사 ‘으로’가 결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부사적 기능을 발휘하는 (18가)의 ‘상’과 구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¹⁵⁾

(19) 가. 선생님의 인술 하에 견학을 갔다. (노명희, 2005: 245)

가. ^{??}선생님이 하는 인술 하에 견학을 갔다. (노명희, 2005: 245)

15) 노명희(2005: 243)에 따르면, 이 때의 ‘-상’은 ‘구체적이거나 추상적인 공간에서의 한 위치’를 의미하는 ‘도로상, 인터넷상’ 등에서의 ‘상’과 관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상’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면서 조사 결합에도 차이를 보이는데(‘도로상의/에서/*으로’와 ‘관례상의/*에서/으로’), 후자의 경우 ‘상’이 구와 결합할 때는 조사 결합 양상이 또 달라진다(*연구원에서 정한 관례상으로 그는 사표를 제출했다). (노명희(2003: 87-88) 참조)

- 나. 어린이들은 선생님의 지도 하에 야외 학습을 나갔다.
 다. 약속을 지킨다는 조건 하에서 협상이 타결되었다.

(19)의 ‘-하’는 관형사형의 수식을 받을 수 없으나 반드시 명사 상당 어구를 어기로 취하며, 그 선행어로 관형형어미가 이끄는 관형절이 올 수 있고, 조사 결합에도 제약을 보이므로 의존명사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노명희(2005: 246)에서는 접미한자어 ‘-하’는 일부 접미사적 특성을 보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의존명사의 지위를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하’를 ‘상’과 달리 의존명사로 보면 ‘하’ 결합형이 ‘상’ 결합형과 달리 부사격조사의 생략이 불가능한 점도 설명된다. ‘상’이 결합한 ‘형식상으로, 역사상으로’는 ‘으로’가 생략되어도 여전히 부사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으나 ‘하’가 결합한 ‘인식 하에’는 ‘에’가 생략되어 부사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하’ 결합형은 ‘상’ 결합형과 달리 그 선행 어기가 관형어나 관형절과 같은 수식 성분이 선행해야 자연스럽다는 점에서 ‘하’의 품사적 지위를 ‘상’과 동일하게 처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외에 김창섭(2007: 43-44)에서 부접명사(附接名詞)라는 새로운 범주를 설정하고 ‘상’이 ‘공간’의 의미를 나타낼 때의 부접명사적 용법에 대하여 기술한 바 있다.

- (20) 가. 해수면 상, 역사 상, 계획 상, 시간표 상, *관계 상 ...

나. 뜨거워진 해수면 상(에/에서/으로/의)

우리 긴 역사 상(에/에서/으로/의)

.....

최근 가까워진 미국과 중국의 관계 상(에/에서/으로/의)

(김창섭, 2007: 43)

(20나)의 ‘상’은 구와 결합하므로 명사일 수밖에 없다. (20가)의 보충어는 (20나)의 보충어가 확대되지 않은 것일 뿐이므로 그 핵인 ‘상’은 (20나)의 ‘상’과 동일한 존재이다. (20가)의 ‘상’은 접미사가 아니라 명사인 것이다. *관계 상이 성립하

지 않지만 ‘미국과 중국의 관계 상’이 성립하는 것은 ‘상’을 명사로 볼 때 잘 설명된다. *‘관계 상’이 성립하지 않은 것은 ‘관계’의 필수적인 보충어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일 뿐인 것이다. 그것이 채워진 ‘미국과 중국의 관계 상’은 훌륭히 성립한다. 이 ‘상’은 다음 (21)에서 보이듯이 부접명사이다. (21가)는 (21라)의 구조를 가진다.

- (21) 가. 뜨거워진 해수면 상(에/에서/으로/의)
 나. *뜨거워진 해수면의 상(에/에서/으로/의)
 다. *뜨거워진 해수면 [... 상] (에/에서/으로/의)
 라. [[뜨거워진 해수면]NP [상]N]NP

(김창섭, 2007: 44)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고는 ‘X+상’, ‘X+하’ 구성에서 ‘상’과 ‘하’의 문법적 지위가 다르고, ‘상’은 접미사에 가까운 반면에 ‘하’는 의존명사의 용법까지 발달하게 된다고 생각된다.¹⁶⁾

5. 결론

본고는 현대 한국어 ‘X+상’, ‘X+하’ 구성에 쓰인 ‘상’과 ‘하’의 의미를 분석하고, 2자어 3자어 문법을 도입하여 ‘X+상’, ‘X+하’ 구성의 형태적 특징을 검토하였으며, 3자어 내지 다자어 ‘X+상’, ‘X+하’ 구성의 문법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본고의 논의를 정리하고, 미흡한 부분을 밝히면서 결론으로 갈음하고자 한다.

검토의 결과로 ‘X+상’ 구성에 쓰인 ‘상’의 의미를 3가지로 나눌 수 있고 각각 [1] ‘물체의 위나 위쪽’, [2] ‘추상적인 공간에서의 한 위치’, [3] ‘그것과 관계된 입장’ 또는 ‘그것에 따름’이다. [2]번과 [3]번 의미는 각각 그 선행 성분의 의미에 따라 ‘지면/화면’, ‘추상적 통신의 공간’ 2가지로, ‘규범/제도와 관련된 것’, ‘행동/행위와 관련된 것’, ‘모양/외재적 특성과 관련된 것’, ‘외부 요인과 관련된 것’

16) 중국어 ‘上’과 ‘下’의 비대칭성에 대한 인지적 연구는 周统权(2003)을 참조하기 바란다.

4가지로 다시 세분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X+하’ 구성에 쓰인 ‘하’의 의미는 2가지의 의미를 가지며 각각 [1] ‘물체의 아래나 아래쪽’, [2] ‘그것과 관련된 조건이나 환경’이다. [2]번 의미를 다시 ‘조건/환경과 관련된 것’, ‘통치/지배와 관련된 것’, ‘도움과 관련된 것’ 3가지로 나눠서 고찰하였다.

이어서 3장에는 현대 한국어 한자어 연구의 ‘2자어 3자어 문법’을 도입하여 ‘X+상’, ‘X+하’ 구성에서 한자 ‘상’과 ‘하’의 분포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들의 의미별 분포는 비교적 규칙적이다. 구체적인 공간의 의미의 경우 2자어로 나타나고 B자 용법을 가지고 있으며 추상적인 의미의 경우 3자어 내지 다자어로 나타나고 B자 용법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다음에 4장에서는 ‘X+상’, ‘X+하’ 구성이 문장에서 쓰일 때 의미별로 조사와의 결합 양상을 분석하였다. 대개 관형격조사 ‘의’와 결합하여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부사격조사 ‘로’, ‘에’, ‘에서’와 결합하여 부사어의 기능을 한다. 그런데 결합할 때 제약이 걸리기도 한다. 이외에 접미한자어 ‘-상’과 ‘-하’의 품사적 지위에 대한 여러 논의도 소개하였다. 이 둘의 문법적 지위가 다르고, ‘상’은 접미사에 가까운 반면에 ‘하’는 의존명사의 용법까지 가지게 된다고 결론을 지었다.

마지막으로 본고의 미흡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고는 한자어 ‘상’과 ‘하’에 해당하는 고유어인 ‘위/아래’와의 체계적인 비교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둘째, 비교와 관련된 내용에서 특히 중국어 방위사와 한국어 방위명사의 의미 및 용법상의 비교를 더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향후의 연구로 보완하겠다.

◆ 참고문헌

1. 사전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9.
 _____,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다음 어학사전)
<https://dic.daum.net/>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1.
 _____,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연세 한국어사전』, 두산동아, 1998/2006.

_____, 『연세 현대 한국어사전』 <https://ilis.yonsei.ac.kr/dic/>
『汉典』 <https://www.zdic.net/>

2. 단행본

- 김창섭, 『국어의 단어형성과 단어구조』, 國語學叢書 21, 태학사, 1996.
노명희, 『현대국어 한자어 연구』, 國語學叢書 49, 태학사, 2005.
沈阳·郭锐 编, 『现代汉语』, 北京: 高等教育出版社, 2014.
朱德熙, 『语法讲义』, 北京: 商务印书馆, 1982.

3. 논문

- 곽휘, 「방위명사의 의미와 단어 형성 참여 양상 - ‘上’과 ‘下’에 관한 의미를 중심으로 -」,
『형태론』, 제17집 제2호, 2015, pp.264-284.
_____, 「현대 한국어 방위명사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김창섭, 「국어어휘자료 처리를 위한 한자어의 형태-통사론적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연구
보고서, 1999.
_____, 「한자어 형성과 고유어 문법의 제약」, 『국어학』 제37집, 2001, pp.177-195.
_____, 「부접명사의 설정과 식별」, 『국어학』 제50집, 2007, pp.27-55.
_____, 「부접어의 설정과 부접 구성」, 『국어학』 제62집, 2011, pp.47-72.
_____, 「-的’의 두음 경음화와 2자어 3자어론」, 『국어학』 제68집, 2013, pp.167-188.
노명희, 「구에 결합하는 접미한자어의 의미와 기능」, 『한국어 의미학』 제13집, 2003,
pp.69-95.
손옥, 「한국어 ‘X+중(中)’ 구성에 대한 연구」, 『한국어학』 제96집, 2022, pp.69-94.
채완, 「의존명사의 사전적 처리」, 『새국어생활』 제8집 제1호, 1998, pp.5-22.
황화상, 「접미 한자어의 형태와 의미」, 『한국어 의미학』 제55집, 2017, pp.113-135.
후박문, 「現代 韓國語 漢字語 ‘式’의 意味와 用法」, 『어문연구(語文研究)』 제50집 제2
호, 2022, pp.127-155.
杨云, 「方位词“上”和“下”的空间定位」, 『云南师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第2期,
2001, pp.104-108.
周统权, 「“上”与“下”不对称的认知研究」, 『语言科学』, 第1期, 2003, pp.39-50.

논문 접수 일	2023년 05월 11일
심사 완료 일	2023년 05월 28일
게재 확정 일	2023년 06월 08일

*Abstract*The Meaning and Grammar of the Construction of ‘X+sang’
and ‘X+ha’ in Contemporary Korean

Ma, Yongli

This study discussed the morphological and grammatical features of the construction of ‘X+sang’ and ‘X+ha’ including the Sino-korean ‘sang’ and ‘ha’ in Korean. The ‘sang’ of ‘X+sang’ has eight meanings: ‘above or above an object’, “‘going up’ or ‘upward’”, ‘the surface of paper or screen’, ‘abstract space of communication’, ‘related to norms/instructions’, ‘related to behavior/act’, and ‘related to appearance/external factors’. And the ‘ha’ used in ‘X+ha’ has five meanings: ‘below or below an object’, “‘get down’ or ‘down’”, ‘related to conditions/environment’, ‘related to rule/domination’, and ‘related to help’. In addition, the distribution of Sino-korean ‘sang’ and ‘ha’ in the construction of ‘X+sang’ and ‘X+ha’ is relatively regular. In the case of the meaning of specific space, it appears in two-character words and has B-character usage, and in the case of abstract meaning, it appears in three or multi-character words and has β-character usage. As a syntactic feature, when the construction of ‘X+sang’ and ‘X+ha’ is used in a sentence, the combination pattern with the postpositional particle was analyzed by meaning. Usually, it functions as a adnominal phrase in combination with the adnominal case marker ‘uy’, and functions as an adverb in combination with ‘lo’, ‘ey’, and ‘eyse’. However, there are also restrictions when combining. In addition, the grammatical status of the suffix ‘-sang’ and ‘-ha’ are different, and ‘sang’ is close to a suffix, while ‘ha’ has the use of bound noun.

Keyword the construction of ‘X+sang’ and ‘X+ha’, Sino-korean ‘sang’ and ‘ha’, primary character(wonsa), secondary character(chasa), two-character word, multi-character word

식민주의와 인종의 경계

-<베금의 유산>의 한·중·일 번역과정을 중심으로-

정혜영* · 曹家瑜**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 소설가 쥘 베른의 <베금의 오역 프랑>(1879)의 일본어(1889)와 중국어(1903), 한국어(1908) 번역과정을 중심으로 근대식민주의의 아시아적 적용에 관해서 고찰하려고 한다. 근대식민주의에서 백인을 제외한 모든 인종은 야만적이며 열등한 존재로서 규정되었다. 인종적 위계질서에 기반한 유색인종의 타자화는 근대 제국주의 시기 서구 소설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 중 하나였다. 쥘 베른의 과학소설 <베금의 오역 프랑> 역시 이와 같은 인종적 위계질서의 세계관을 강하게 지닌 소설이다. 이 소설에서 작가 쥘 베른은 인류 전체의 행복을 지향하는 복지 공동체사회 유토피아적 사회로서 제안하면서, 그 사회에서 황인종을 철저히 배제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배제의 이유는 간단하다. 황인종은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로 도시를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도왕비의 유산’에 나타난 황인종에 대한 인종주의적 편견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를 살펴본 후, 이와 같은 편견이 편견의 대상=독자였던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로의 번역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었던가를 고찰하려고 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원작의 번역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환과 그 변환의 의미를 통해서 일본, 중국, 한국에서 서구근대의 수용과정의 차이와 의미를 탐색하려고 한다.

주제어 칠세계, 베금의 오역 프랑, 문학 번역, 인종, 애국

* 경북대학교 교양교육센터 초빙교수

** 경북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연구원

〈목차〉

1. 〈베금의 오억 프랑(Les Cinq Cents Millions de la Béguin)〉과 〈인도 왕비의 유산〉, 그리고 〈철세계〉간의 거리
2. 과학소설의 계몽성과 애국소설의 정치성
3. 번역자의 개입과 그 의미
4. 이상적 세계에서 배제된 황인종
5. 결론

1. 〈베금의 오억 프랑(Les Cinq Cents Millions de la Béguin)〉과 〈인도왕비의 유산〉, 그리고 〈철세계〉간의 거리

쥘 베른의 〈베금의 오억 프랑(Les Cinq Cents Millions de la Béguin)〉은 유토피아적 도시 프랑스빌과 강철도시 슈탈슈탈츠 간의 대립을 소재로 한 소설이다. 이 소설은 한국에서 1908년 〈철세계〉라는 제목으로 축약 번안된 후, 100여 년이 지난 2005년 〈인도왕비의 유산〉으로 제목을 바꾸어 첫 완역된다. 원제 중, ‘베금(Béguin)’이라는 단어는 인도 벵골 지역 토후(土侯)의 부인을 의미하고, 5억 프랑은 바로 그녀가 남긴 유산이니, ‘인도왕비의 유산’이라는 한국어 제목이 프랑스어 원작의 원제와 무관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고는 해도 〈인도왕비의 유산〉이라는 제목은 ‘베금의 오억 프랑(Les Cinq Cents Millions de la Béguin)’이라는 원제의 의미를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1908년의 번안소설 〈철세계〉와 달리 2005년의 〈인도왕비의 유산〉은 ‘첫 완역’이라는 야심찬 타이틀을 걸고 나온 것이어서 제목만 여전히 의역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은 흥미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인도왕비의 유산〉으로 제목을 바꾼 것이 출판사의 의도였는지, 번역자의 의도였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다. 일단 이 제목은 한국어 완역에서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니었다. 1960년대 중반부터 말까지 일본에서는 세 종류의 쥘 베른 전집이 기획, 간행되는데 그 세 종류의 전집에 〈베금의 오억 프랑〉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세 종류 중 슈에이사(集英社)에서 간행한 《베른전집》 시리즈에서 〈인도

왕비의 유산》이라는 제목이 처음으로 등장한다.¹⁾ 30여 년 후인 1993년 슈에이샤에서 다시 전집 개정판을 간행하는데 그때도 〈인도왕비의 유산〉이라는 제목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2005년 한국어 첫 완역을 내걸고 출판된 열림원의 《쥘 베른컬렉션》의 〈인도왕비의 유산〉은 바로 이와 같은 일본어 번역 제목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²⁾ 《베금의 오억 프랑》이 1968년 일본어로 번역 출판되는 과정에서 〈インド王妃の遺産〉으로 제목이 바뀌고, 다시 이 소설이 2005년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인도왕비의 유산〉이 된 것이다.

인도 벵갈 지역 제후의 왕비를 지칭한 Bégun과 인도제국을 통치하는 왕의 부인을 의미하는 인도 왕비는 명확히 다른 것이었다. 〈インド王妃の遺産〉이라는 제목에는 인도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에게 전달할 방법을 찾기 어려웠던 번역자의 고뇌와 더불어, 1990년을 넘어선 시기에도 인도문화에 대해 여전히 지식이 많지 않았던 일본 사회의 한계 역시 함께 드러나고 있다. Bégun이 존재했던 벵골 지역이 이슬람교였음에도 불구하고³⁾, 1993년 슈에이샤(集英社)

- 1) 집영사의 쥘 베른 전집은 일본에서 발행된 쥘 베른 첫 전집기획이었다. 1967년 〈80일 간의 세계일주〉를 1권으로 하여 시작된 이 시리즈는 1969년까지 총 22권으로 마감된다. 〈인도왕비의 유산〉의 번역자는 일본의 저명한 소설가이자 평론가인 나카무라 신이치로(中村真一郎)로 그가 ‘인도왕비의 유산’이라는 제목을 선택한 것이다. 같은 시기인 1969년 偕成社에서 「베르너 명작전집」 총 15권이 간행되는데 이 전집 중 9권 〈秘密の科学都市(비밀의 과학도시)〉가 바로 《베금의 오억 프랑(Les Cinq Cents Millions de la Bégun)》이다. 이외에도 学習研究社 1964년부터 69년에 걸쳐 소년소녀를 대상으로 12권의 《소년소녀베르너과학 전집》이 출판되는데 《베금의 오억 프랑》은 〈砂漠の秘密都市(사막의 비밀도시)〉라는 제목으로 9권에 해당된다. 1960년대 중반부터 일본에서는 쥘 베른의 붐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2) 〈인도왕비의 유산〉은 2005년 출판사 열림원에서 쥘 베른 사후 100주년 기념 기획한 ‘쥘 베른 컬렉션’ 시리즈의 7번째 소설로 출판되었으며, 시리즈 전체를 김석희가 번역하였다. 창작 창작연도와도 무관하게 기획된 이 시리즈에서 〈인도왕비의 유산〉이 〈해저이만리〉, 〈80일 간의 세계일주〉 등 쥘 베른의 대표작에 이어서 7번째 작품으로 기획되었다는 것은 의외의 일이었다. 이 소설은 쥘 베른의 독창적 창작물이 아니었는데다가, 쥘 베른 소설 중에서도 큰 호평을 받지 못한 작품이었기 때문이다. 2022년 열림원에서 쥘 베른 소설 중 ‘독자들이 가장 사랑한 11권’을 뽑아서 쥘 베른 베스트 컬렉션을 간행하는데, 〈인도왕비의 유산〉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 3) 칸 앞갈은 〈철세계〉의 한국적 수용과정을 1857년 인도 세포이 항쟁의 반제국주의적 정서와 연결해서 설명하면서 베금(Begum)’이라는 용어는 보통 인도 무슬림 사회에서 토후왕

간행서 표지에 불교를 상징하는 부처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일본어 번역 제목을 그대로 중역(重譯)한 2005년 한국의 열림원 발행 〈인도왕비의 유산〉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거슬러 올라가 보면 〈베금의 오역 프랑〉의 번안이 1908년 한국에 처음 발표되었을 때도 동일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당시 한국 번안작의 제목은 원제와는 전혀 다른 〈털세계〉, 즉 ‘철세계(鐵世界)’였다. 〈베금의 오역 프랑〉이 이상적 장수촌과 파괴적 연철촌(軟鐵村) 간의 대립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던 만큼, ‘철세계’라는 용어는 소설 주제와 깊은 연관을 지닌 것이었다. 그러나 원작에서 핵심적 비판 대상이었던 ‘철세계’가 번역과정에서 제목으로 선정된 것은 의외라면 의외의 선택이었다.

번안자 이해조가 독창적으로 이 의외의 선택을 한 것은 아니었다. 이해조는 바오티엔샤오(包天笑)의 중국어 번역을 저본으로 했고, 바오티엔샤오는 모리타 시켄(森田思軒)의 일본어 번역을 저본으로 하였기 때문이다.⁴⁾ 그리고 프랑스어가 불가능했던 모리타 시켄은 킹스톤(Kingston)이 영어로 번역한 〈베금의 유산(The Begum's Fortune)〉을 저본으로 번역했는데, ‘철세계’라는 제목은 바로 이 영어번역을 일본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모리타 시켄이 선택한 제목이었다. 말하자면 이해조는 바오티엔샤오의 중역의 제목이 ‘鐵世界’였기 때문에 ‘鐵世界(털

국의 왕비를 위해서 사용되는 용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칸 앞질의 「한국근대초창기 인도 소재 문학의 번역 및 수용—〈털세계〉를 중심으로—」(『국해양대학 교해외한국학 중핵대학사업단 3단계 제1회학술대회』, 2023. 3. 24.-25.)을 참조했음.

4) 바오티엔샤오는 자신이 일본어 책을 통해서 번역한 〈철세계〉와 다른 2권 책에 대해 언급 하면서 자신의 외국소설 번역 경험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시기 이후 문화적으로 발달해서 출판한 책 중에 구미의 문학 책이 적지 않았다. 그들 국내에 헌책과 새로운 책이 많았다. 책 읽은 사람은 자주 읽은 책을 헌책방에 팔고, 얻은 돈으로 새로운 책을 구매하곤 한다.” “내가 번역한 일본책은 전부 내 일본 유학 친구들이 헌책방에서 가져와 귀국했을 때 나에게 선물한 것이다.” “나는 당시 일본이 서양 책을 번역할 때 거의 한문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을 중국어로 번역한다면 훨씬 더 쉽다. 따라서 나는 그들에게 구(舊)소설의 소개를 부탁했다. 그리고 2가지 조건을 걸었다. 하나는 구미에서 오는 책이어야 하고, 다른 하나는 책 내용에 한문이 더 많이 있어야 함이다.” 包天笑, 「譯小說의開始」, 『鈞影樓回憶錄』, 上海三聯書店, 2014, pp.168-169.

세계)’라는 제목을 붙인 것뿐이었다.⁵⁾ 당연히 바오티엔샤오는 모리타 시켄의 일본어 번역본의 제목을 그대로 붙인 것이었다. 이 점에서 볼 때 이해조의 자신이 변안한 소설의 원제목이 무엇인지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⁶⁾ 이처럼 이해조의 <철세계>는 원작→영어번역→일본어번역→중국어번역→조선어 번역이라는 네 단계를 거치고 프랑스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다섯 개의 언어가 서로 충돌한 결과물로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구조가 다른 언어 사이에 있어 완전한 언어의 일치 따위는 있을 수 없”는 만큼 원작과 번역 간의 ‘거리’는 근본적으로 불가피한 것이다. 아울러 번역이라는 행위 자체가 “언어와 언어, 문화와 문화가 부딪치는 현장”⁷⁾이기에 이 충돌의 상황에서 다양한 변화가 발생하고 이 변화가 다시 또 원작과 번역작 간의 거리를 만들어 내게 된다. 예를 들자면 他언어에 호응하는 자국어의 선택에서부터 이질적 문화의 번역 방법에 이르기까지 번역자의 목소리가 의식적으로건 무의식적으로건 개입되게 되는 것이다. 서구 문화의 수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1800년대 말부터 1900년대 초의 동북아시아, 즉 일본, 중국, 한국에서 서구문학의 번역에는 번역자의 의도가 더욱더 강하고, 절대적으로 개입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개입의 의도를 ‘인종주의’적 인식과의 관련을 통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쥘 베른의 <베금의 오역 프랑>은 인종주의적 편견, 특히 황인종에 대한 편견을 심각하게 드러내고 있는 소설이었던 만큼 이 부분을 한, 중, 일의 번역자들이 어떻게 수용하였는가는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지금까지 김종육의 「쥘베른 소설의 한국 수용 과정」을 비롯하여 이 소설이 지닌 애국계몽적 측면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베금의 오역 프랑>의 ‘애국소설’적 측면에 집중하되, 이 이면에 내재한 인종주의적 편견은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⁸⁾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베금의 오역

5) 표지에는 단지 이해조라고만 명시되어 있으나, 판권에 ‘譯述者 이해조’로서 명기되어 있다. 아울러 소설의 마지막에 ‘과학소설 철세계’로서 명기되어 있다.

6) 바오티엔샤오의 번역후기에서는 모리타 시켄의 일역을 중역하였으며, 쥘 베른 원작의 프랑스 소설이라는 점은 명시되어 있으나 원제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7) 鴻巢友季子, 『明治大正翻譯ワンダーランド』, 新潮社, 2005, p.20.

8) <철세계>의 번역과정에 처음으로 주목한 것은 김종육의 「쥘베른 소설의 한국 수용 과정」

프랑)번역과정에서 일어난 변화를 인종주의적 편견이라는 문제와 연결시켜서 고찰하려고 한다.

2. 과학소설의 계몽성과 애국소설의 정치성

〈베금의 오역 프랑〉은 인도 왕비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은 프랑스인과 독일인 두 과학자의 이야기이다.⁹⁾ 이 소설은 상속받은 유산을 위생에 전념하는 이상적 도시 건설에 사용하는 프랑스인 과학자, 그리고 프랑스 이상도시 파괴와 세계 정복을 위한 군비확장에 그 돈을 사용하는 독일인 과학자, 이 둘의 대립을 중심으로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적 미래가 교차되며 전개된다. 〈베금의 오역 프랑〉이 조선에 번역, 소개된 것은 1908년으로, 「해저 이만리」에 이어 두 번째로 조선에 소개된 쥘 베른 소설이었다. 이 시기 이미 일본과 중국에서는 〈해저 여행〉, 〈80일간의 세계일주〉를 비롯하여 다수의 쥘 베른 소설이 번역되어 있었다.¹⁰⁾

그런 점에서 대한제국말기였던 1908년, 이해조가 일본어와 중국어로 번역된 여러 편의 쥘 베른의 소설 중에서 왜 하필이면 〈베금의 오역프랑〉을 번역작으로 선택했을까는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베금의 오역 프랑〉은 쥘 베른의 소설 중

(『한국문학논총』 49집, 2008)이다. 김종욱은 이 소설의 과학소설적 측면을 넘어, 애국소설로서의 성격에 주목하고 있다. 이외 曹淑俐, 吳淳邦의 「科幻小说《铁世界》的中韩译本研究」(『中國語文論譯叢刊』 第45輯, 2019.) 그리고 金孝順의 「韓国における科学小説の受容—ジュール・ヴェルヌ作、李海朝述譯〈科学小説鉄世界〉の啓蒙性と科学的想像力を中心に」(『跨境』, 2020. 22) 등이 있다. 曹淑俐와 김효순의 경우, 과학소설로서의 측면에서 주목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들은 일본어 번역자의 의도를 당시 부국강병을 표방한 일본사회의 흐름과 연결시킴으로써 그 이면에 내재되어 있던 자유민권운동의 흐름과의 연계를 간파하고 있기도 하다.

- 9) 〈철세계〉는 한국 최초의 SF소설로서 언급되고 있으며 이 점에 주목한 연구로는 김교봉의 「〈철세계〉의 과학소설적 성격」(『과학소설이란 무엇인가』, 국학자료원, 2000)과 최예순의 「초창기 과학소설의 두 갈래 양상—〈철세계〉와 〈비행선〉—」(『우리어문연구』 68, 2020)이 있다.
- 10) 1873년 가와시마 츄노스케(川島忠之助)가 〈80일간의 세계일주〉를 〈新説八十日間世界一周〉라는 제목으로 번역한 이래 〈베금의 오역 프랑〉의 번역에 이르기까지 10여 편이 넘는 쥘 베른의 소설이 일본어로 번역되었고, 중국 역시 거의 동일하였다.

에서 별로 호평을 받지 못한 작품인데다가 프랑스-프로이센 전쟁 이후 유럽의 복잡한 정치적 지형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어서 조선 독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¹¹⁾ 이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베금의 오역 프랑〉의 창작을 둘러싼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일단 〈베금의 오역 프랑〉의 원작자는 프로이센-프랑스 전쟁 직후 수립된 혁명정부 파리 코뮌에 관여한 정치가 파스칼 그루제이다. 쥘 베른의 독창적 창작물이 아니었던 것이다. 파리 코뮌 실패 후 영국으로 망명한 파스칼 그루제가 필명으로 〈베금의 유산(遺産)〉이라는 제목의 소설 초고를 출판사에 보내고 이 초고가 대중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출판사 측에서 소설가 쥘 베른에게 원고의 수정 보완을 요청하였고 쥘 베른이 이 요청을 수락하여 3주간 수정 끝에 만들어낸 것이 바로 〈베금의 오역 프랑〉이다.¹²⁾ 초고 〈베금의 유산(遺産)〉의 “과학적이고 애국적인”¹³⁾ 특징이 쥘 베른이 수정한 〈베금의 오역 프랑〉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수정과정에서 내용적 뼈대는 그대로 유지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과학’과 ‘애국’. 이 두 요소 중에서도 ‘애국’은 특히나 〈베금의 오역 프랑〉을 구성하는 핵심적 주제였다. 〈베금의 오역 프랑〉이 프랑스-프로이센 전쟁(1870)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1875년, 이 전쟁의 여파로 일어난 파리 코뮌 관계자 파스칼 그루제가 창작한 소설이라는 점에서 이미 이 소설의 정치성은 어느 정도 예측된다. 예를 들면 소설에서 디스토피아적 미래를 상징하는 도시 슈탈슈탈츠

11) 이와 같은 한계와 문제점을 반영하듯 한국에서 〈철세계〉가 ‘SF소설 계보의 시작점’으로서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는 것과 달리, 일역과 중역 〈철세계〉는 일본과 중국 연구자들에게 별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12) 파스칼 그루제와 쥘 베른의 협업, 수정의 정도, 제목의 변경, 저작권 양도의 문제 등에 대해서는 フォルカ・デース, 石橋正季訳, 「パスカル・グルーゼ〈ベガンの遺産〉からジュール・ベルン〈ベガンの五億フラン〉」를 참조했음(『Excelsior!』, 2010. 04. pp.12-21)

13) 원작자 파스칼 그루제의 친구였던 가스통 드 마나스 신부는 1877년 2월 22일 당시 출판사 측에 보낸 편지에서 이 소설을 두고 “〈베금의 유산〉이라는 제목의 과학적이며 애국적인 요소를 핵심으로 하는 소설”이라고 평하였다. 이상에 대해서는 フォルカ・デース, 石橋正季訳, 「パスカル・グルーゼ〈ベガンの遺産〉からジュール・ベルン〈ベガンの五億フラン〉」를 참조했음(『Excelsior!』, 2010. 04. p.17)

에 위장 취업하여 슈탈츠 박사의 욕망을 저지하는 것이 바로 알자스 출신의 프랑스 청년 마르셀이다. 마르셀의 고향인 알자스 지방은 프로이센에게 패배한 프랑스가 패전의 댓가로 프로이센에게 양도한 지역이다. 조국 프랑스를 향한 강렬한 애정 그리고 적국 독일을 향한 증오와 분노를 독자들에게 불리일으키는데 있어서 독일영토로 귀속된 알자스 지역의 프랑스 청년이야말로 최적의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근대로의 전환과 제국주의의 확장 및 침략을 앞두고 있던 조선과 중국, 일본— 특히 조선—의 번역자들은 <베금의 오역 프랑>의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이 소설을 번역, 수용한 것일까. <베금의 오역 프랑>의 번역은 일역(日譯)—중역(中譯)—조선어역, 즉 일본—중국—조선의 순서로 수용이 진행되지만, 수용 목적에 따라서 각 번역은 편차를 보인다. 번역을 하나의 행위로서 간주할 때 ‘모든 번역 행위에서는 행위의 목적이 수단을 결정’하는 것인 만큼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번역 과정에서의 선택사항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소설 목차를 중심으로 이 변화 과정을 파악할 때 총 20장(章)으로 구성된 원작과 달리 일역, 중역, 조선어역은 모두 15장(章)으로 축소, 구성된다. 장(章)의 축소는 첫 번역인 일역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일역의 번역자는 모리타 시켄으로 그는 영역본 <베금의 유산>을 <仏・曼・二學士の譚>이라는 제목으로 1887년 3.26. - 5. 10까지 『우편호치신문(郵便報知新聞)』에 연재한 후, 같은 해 제목을 <鐵世界>로 수정하여 출판한다.

번역과정에서 일어난 다양한 변화, 즉 장(章)의 축소를 비롯하여 제목을 ‘鐵世界’로 바꾸고, 원작의 ‘프랑스빌’과 ‘슈탈슈탈츠’를 제각각 ‘장수촌(長壽村)’과 ‘연철촌(練鐵村)’으로 번역하는가 하면, 프랑스 과학자 사라젠의 이름을 좌선(佐善)으로, 독일 과학자 슈탈츠의 이름은 ‘無’를 뜻하는 의미의 ‘니히트’ 즉 ‘忍毘’로 바꾼 것 모두가 일본어 번역자 모리타 시켄의 ‘선택’이었다. 모리타 시켄은 <鐵世界> 첫 장에 <범례, 세 가지>라는 글을 신고 이 책 번역의 특징을 밝히고 있다. 이 글에서 그는 이 책의 번역은 “동양에 특수한 사상체계가 혼입되지 않도록 군데군데 자의적으로 각색한”¹⁴⁾ ‘역술(譯述)’임을 명시한다. 예를 들자면 “화제가 갈라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연애담’을 삭제하고 “저자가 기술하지 않았

던 이야기를 삼입”¹⁵⁾하는 등 번역의 과정에 자신의 목적과 의도를 개입시켰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다. 아래는 모리타 시켄의 〈범레, 세 가지〉이다.

1. 나는 이 책을 역술(譯述)하는 데 인명·지명 등이 이야기에 관계가 없으면 모두 일본인이 쉽게 부를 수 있도록 고쳤다. 예를 들면 술츠(チュールツ)를 니히트(忍毘:무[無]의 뜻임)로 번역했고, 슈탈슈탈츠(스탈루타트)를 연철촌(練鐵村), 프랑스빌(프랑크바일)을 장수촌(長壽村)으로 번역했다.

2. 원문에는 사라젠(佐善)에게 일남일녀가 있었다. 마구스(馬克:원작의 마르셀)는 그 딸을 사랑하게 되어 그 때문에 움직이는 모습도 담겨져 있다. 그러나 그 연애는 지극히 담백하고 있어도 없어도 본질기에 관계가 없을 정도여서 나는 공연히 화제가 갈라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모두 삭제했다. 그리고 그 연애 이야기는 사라젠의 이야기로 수렴시켰다. 또한 그 아들 오토우(乙透)는 장수촌 방어위 원으로 서술해 놓았다.

3. 사라젠의 연설이나 니히트의 독백을 비롯하여 저자가 기술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삼입한 부분도 적지 않다. 동양에 특수한 사상체계를 혼입시키지 않도록 군데군데 자의적으로 각색하였기에 단순히 ‘역(譯)’으로 하지 않고 그것에 ‘술(述)’을 더하여 그렇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했다.¹⁶⁾

모리타 시켄은 번역과정에서 마르셀과 잔느 두 젊은 연인의 ‘연애 이야기’를 없앤 후 ‘사라젠 이야기’로 소설의 모든 내용을 ‘수렴’하는가 하면 사라젠의 연설 내용을 늘이는 등 소설 전개에 모든 초점을 ‘사라젠’이라는 인물에 맞추고 있다. ‘사라젠’을 부각시키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모리타 시켄이 ‘사라젠’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일까. 이 지점에서 쥘 베른의 〈베금의 오역 프랑〉의 ‘우화’적 측면을 지적한 언급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베금의 오역 프랑〉을 다룬 짧은 글, 「도시와 감옥」에서 기사치 야스히코는 “일정부문의 교훈과 풍자를 주제로 하는 ‘우화’에서는 그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비편실적인 것이 일어나도 좋은 것이다”고 전제한 후, “〈베금의 오역 프랑〉도 SF소설이라는 측면보다도 파괴적 독재자에 의한 감옥 도시, 그리고 독일

14) 森田文蔵訳述, 〈鐵世界〉, 集成社, 1889, p.1.

15) 森田文蔵訳述, 〈鐵世界〉, 集成社, 1889, p.1.

16) 森田文蔵訳述, 〈鐵世界〉, 集成社, 1889, pp.1-2.

覆權主義의 자멸을 주제로 하는 ‘우화’에 다름 아닌 것은 아닐까”¹⁷⁾라며 이 소설이 내건 SF적 요소를 하나의 장치로서 파악하고 있다.

모리타 시켄이 <베금의 오역 프랑>을 번역한 1887년의 일본문단은 쥘 베른의 SF 소설이 일단락되고,¹⁸⁾ “쥘 베른 붐을 대신하여 정치상의 계몽, 우의(寓意), 선전 등을 소설에 의탁해서 표현하는 일본産 정치소설로 이행해가”던 때였다.¹⁹⁾ 아울러 1887년의 일본사회는 절대주의적인 메이지 정권에 맞서서 민주적 개혁을 요구한 자유민권 운동이 정부의 탄압으로 쇠퇴의 길을 걷던 중, 잠시 세력을 회복하고 있던 때이기도 했다. <베금의 오역 프랑>에는 당시 일본문단의 과도기적 특징 즉 과학적 요소와 정치상의 계몽, 우의, 주장, 선전의 요소가 모두 들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체주의에 맞선 사라젠의 모습은 일본 자유민권운동의 정신에 부합되는 것이기도 했다. 모리타 시켄은 번역과정에서 원제목 대신 ‘철세계’를 제목으로 내세워 ‘철세계’의 파괴성을 부각시키는 한편, 공공의 선을 지향하는 사라젠의 사상과 이미지를 강조함으로써 <베금의 오역 프랑>을 번역작으로 선택한 자신의 ‘의도’와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리타 시켄이 살았던 메이지 시대는 일본이 ‘부국강병’의 모토 아래 아시아를 향해서 세력을 넓혀가고 있던 때였다. 모리타 시켄의 이상은 사라젠의 ‘장수촌’에 있었을지 몰라도 메이지 일본의 이상은 슈탈츠 박사의 ‘연철촌’과 중첩되고 있었다. 모리타 시켄이 제목으로 내세운 파괴적인 ‘철세계’는 중국인 바오티엔샤오와 조선인 이해조의 입장에서는 중국과 조선을 향해 거침없이 세력

17) 일본의 쥘 베른 학회에서는 쥘 베른 사후 100주년을 기념하여 특집호를 발행하는데 기사치 야스히코의 글은 그 특집호에 실린 것이다. (私市保彦, 「都市と監獄 -〈バグムの5億フラン〉をめぐって-」, 『Excelsior!』, 2010. 4, p.77.)

18) 일본에서는 1878년 이노우에 켄(井上勸)이 번역한 「九十七時 二十分間 月世界旅行」을 기점으로 쥘 베른 붐이 일어나기 시작하여 1888년부터 1889년을 경계로 해서 일단락된다. “이노우에의 번역은 “당시 새로운 국가 만들기를 겨냥하고 있던 자유민권 사상을 지닌 사람들까지 읽고, 1889년 메이지 헌법발포 직전, 붐이 하강하기까지 쥘 베른 붐이 일어나서 그의 소설은 계속 번역되어 사람들에게 읽혀졌다.” 그러나 메이지 국가가 확립되고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자 쥘 베른 붐은 꺼지기 시작한다.” 岡村昭彦, 「SFの歴史から見た魯迅訳 〈月界旅行〉の弁言」, 『中国研究月報』400, 1981. 10, p.11.

19) 横田順彌, 『日本のSFこてん古典』, 早川書房, 1980, p.322.

을 확장해오던 일본의 공포스러운 이미지와 연결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청일전쟁의 승리를 통해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잡은 일본의 이상과 행보는 슈탈츠 박사의 ‘철세계’, 바로 그 자체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바오티엔샤오가 모리타 시켄의 선택과 의도가 가미된 <철세계>를 저본으로 하여 중국어 번역을 하고, 이해조가 바오티엔샤오의 번역을 저본으로 조선어 번역을 했다고 해도 중국과 조선이 일제의 침략 앞에 놓여있던 만큼 번역과정에는 제각각의 의도와 목적이 다시 또 개입되면서 작품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예정된 일이었다.²⁰⁾

3. 번역자의 개입과 그 의미

「베금의 오억 프랑(Les Cinq Cents Millions de la Béguin)」은 원작-영역-일역-중역을 거쳐 조선 독자들에게 전달된다. 세 차례의 번역을 거쳐 탄생한 조선어번역 <철세계>를 「베금의 오억 프랑」과 동일 작품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앞서 살펴봤듯이 원작-영역-모리타 시켄의 일역-바오티엔샤오의 중역-이해조의 조선어역에 이르기까지 각 번역 과정에는 당시 그 나라 문학의 형태, 대중의 수준, 정치적 상황, 번역자의 목적 등이 복잡하게 뒤얽혀서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번역자의 개입은 각 장(章) 제목 및 도입부의 변화에서부터 세부적 내용에 이르기까지 소설 전반에 걸쳐서 일어난다. 도입부를 예로 들어볼 때, 모리타 시켄은 -축약된 형태이기는 하지만- 사라젠 박사의 독백에서 시작하여 사라젠의 외형 묘사로 옮겨가는 원작의 묘사를 가능한 한 그대로 반영한다. 이에 반해서 바오티엔샤오는 소설 도입부에²¹⁾ 전통적 중국 문학에서 흔히 사용되

20) 쥘 베른 소설의 한국적 수용과정 및 <철세계>의 한중일 번역 과정에서 일어난 제목의 변화에 대해서는 김중옥의 「쥘 베른 소설의 한국수용과정」(『한국문학논총』 49집, 2008)에서 세밀하게 고찰하고 있다.

21) “夕陽明媚，萬木蔚蔥，門外繞以鐵欄，雜花怒放，關內細草如氈，風景閒曠可愛。中有斗室，明窗淨幾，簾幕斜捲。”(“석양이 눈부시고,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으며, 철책으로 둘러싸인 문, 잡꽃이 피어 자랑하며, 우리 안에는 잔디가 담요처럼 느껴져 풍경이 빨강고 아름답다. 중간에 썩 작은 방이 있는데 침실이 밝고 깨끗하고, 커튼이 비스듬하게 말려 있다”) 原譯者 法國 迦爾威尼·翻譯者 吳門天笑生, 「第一章 天外飛來之一億五百萬圓

는 풍경을 담은 문장을 삽입하며, 조선의 이해조 역시 이 부분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²²⁾

새로운 근대적 문체의 도입을 시도하려고 한 모리타 시켄의 모험적 선택, 그리고 전통적인 문학습관을 통해 대중적 접근성을 높이려 한 바오티엔샤오의 계몽적 목적, 이처럼 번역에 임하는 각 번역자의 의도의 차이가 번역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으로 추정된다.²³⁾ 번역과정에서 일어나는 도입부의 변화 이상으로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장(章) 제목의 변화이다. 바오티엔샤오는 일역의 장(章) 제목을 기본적으로 따르면서도 번역과정에서 인비(슈탈츠 박사)와 동의어로 ‘괴물’이라는 단어를 첨가하는가 하면(제3장), ‘연철촌’에는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철혈주의(鐵血主義)’(제5장)를, 장수촌에는 강력한 지지와 공감을 의미하는 ‘이상(理想)’(제2장) 혹은 ‘만세’를 덧붙이고 있다.²⁴⁾ 제5장 제목에 첨가된 ‘철혈주의’는 1862년 비스마르크가의 제국의회 총리 취임 연설 중 ‘독일 통일은 ‘철과 피’로서 달성될 수 있다’는 발언에서 나온 것으로서 이 단어를 장(章)제목에 첨가할 정도로 중국을 향해오는 서구와 일본 제국주의 세력에 대한 바오티엔샤오의 분노, 위기감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鐵世界>의 ‘번역의 말’에서 바오티엔샤오는 이와 같은 절박한 심경을 드러내고 번역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이 책(‘철세계’)은 독일 프랑스 전쟁 이후에 완성된 것이다. 그것이 프랑스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주었다. 책 속에서 게르만족 사람들의 각박하고 엄숙하고 싸늘함에

1, <科學小說 鐵世界>, 上海文明書局, 光緒29年(1903), p.1.

22) 바오티엔샤오의 중역(中譯)의 과정에 대해서는 천홍슈의 「철 베른에서 바오티엔샤오까지」에서 세밀하게 다루고 있다.(천홍슈, 「철 베른에서 바오티엔샤오까지」, 『동아시아의 일본어문학과 번역의 문학, 문화의 번역』, 역락, 2018.)

23) 바오티엔샤오는 번역의 말(譯者贅言)에서 이 소설을 파리 소설가의 소설이라며 자신이 “프랑스어에 능통하지 못해 이 책을 번역하지 못한다”라며 “이 책은 일본 모리타 시켄(森田思軒本)이 중역한 것”이며 “원래의 뜻을 추호도 빗나가지 않게 했다”라고 평가했다. “僕少肆法文，然不能譯書。此書由日本森田思軒本轉譯而來。然竊謂於原意不走一絲，可自信也。”法國 迦爾威尼 저·吳門天笑生 역, 「譯者贅言」, <科學小說 鐵世界>, 앞의 책, p.1.

24) 이 변화의 의미에 대해서는 曹淑俐, 吳淳邦의 「科幻小說<鐵世界>的中韓譯本研究」(『中國語文論譯叢刊』第45輯, 2019, p.69)을 참조했음

대해 철저하게 묘사했다. 원망이 과도하게 컸다. 비록 내가 생각하기에, 다시 생각하기에, 지나인들에게는 이것이 아무 충격을 주지 않는다, 그들은 호랑이를 모방한 듯 서로에게 아첨한다. 나는 필(筆)을 던지고 세번 탄식을 했는데 파도를 일으키지 못한다.²⁵⁾

바오티엔샤오는 번역의 말에서 “과학소설은 문명세계의 선구”로 “문명사상을 수입하는 데 가장 민첩”하다며, 문명사상의 습득 도구로서 과학소설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여기에서 바오티엔샤오가 언급한 문명사상의 핵심으로서의 과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앞의 내용에 이어지는 문장, “〈해저이만리〉가 있기에, 오늘날 영국 학사가 해저 잠수함을 만든 것”이라는 문장에서 드러나듯 바오티엔샤오가 말한 ‘과학’이란 무기개발과 동의어이다. 바오티엔샤오의 〈철세계〉번역이 이루어진 1903년은 “아편전쟁을 계기로 전통적인 아시아의 화이질서가 급속히 붕괴”²⁶⁾된 때였다. 아울러 청일전쟁(1895), 의화단 사건(1901)을 거치면서 중국이 서양과 일본 제국의 약탈장으로 전락하고 있던 때였으니 무기=과학을 향한 바오티엔샤오의 열망은 당연한 일이었다.²⁷⁾ 그런 만큼 〈철세계〉는 “필을 던지고 3번 탄식을 했는데 파도를 일으키지 못한다”며 항거의 힘을 상실한 중국의 무기력한 현실을 개탄하면서도 중국인들의 마음에 ‘파도를 일으키려는 노력’을 견지하고 있던 바오티엔샤오 의지의 결과물이었다.

이해조가 저본으로 삼은 것은 독일에 대한 분노를 담은 쥘 베른 원작 〈베금의 오억 프랑〉도, 그렇다고 자유민권운동을 지향한 모리타 시켄의 〈鉄世界〉도 아

25) “一是書之成在德法戰爭以後，其意欲大快法人之心。而書中描寫日耳曼人刻薄嚴冷之風，不遺餘力，怨毒之於人亦甚矣哉。雖然，我思之我重思之，我卦之不痛剛之不覺之支那人，以效虎佞孤媚於彼族者，何心耶。擲筆三歎，能無汎漚不已。” 法國 迦爾威尼 著·吳門天笑生 譯, 『譯者贅言』, 『科學小說 鐵世界』, 앞의 책, p.2.

26) 박지향, 「영국 제국주의와 일본 제국주의의 비교(1)」, 『영국연구』 제2호, 1998, p.168.

27) 「베금의 오억 프랑(Les Cinq Cents Millions de la Bégum)」의 갈등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실제로는 슈탈츠 박사가 개발한 신무기이며, 슈탈츠 박사의 거대한 대포라든가 이산화 탄소를 드라이 아이스化하여 포탄에 탑재하는 등 과학을 활용한 신무기 관련 내용이라는 점이야말로 포천서가 제시한 ‘과학’의 실질적 의미였다고 할 수 있다.

년, 제국의 침략 앞에 무방비 상태로 놓인 현실 속에서도 중국인의 각성의 염원을 담은 바오티엔샤오의 <鐵世界>였다.²⁸⁾ 이해조는 1865년생으로 25세까지 한학을 공부하며 ‘忠’의 유교적 이데올로기를 내면화시킨 인물로서 <철세계>번안이 이루어진 1908년을 전후한 시기, 일제에 맞서서 실력 양성과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한 국채보상운동과 애국계몽운동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 서구 근대문학의 습득을 핵심 목적의 하나로 되던 모리타 시켄의 번역보다는 제국주의의 확장에 맞서 근대적 중국 건설과 제국 침략에 항거하려는 거대한 ‘과도’를 중국인의 마음속에 일으키려는 노력을 절절하게 담아내고 있는 바오티엔샤오의 번역에, ‘대한제국 황실’의 위기를 눈앞에서 보고 있던 이해조의 마음이 향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²⁹⁾ 그런 점에서 이해조가 바오티엔샤오의 중역 <철세계>의 장(章) 제목, 도입부를 그대로 번역한 것은 무의식적이며 일방적 수용이었다기보다는 ‘공감’과 ‘선택’의 결과였다고 보는 편이 정확할 듯하다.³⁰⁾ 이처럼 모리타 시켄 과 바오티엔샤오, 이해조 간에는 제국 일본과 제국의 침략에 내던져진 중국, 조선 간의 좁혀지기 힘든 거리가 자리해있었고 이 거리가 번역 과정에서 다

28) 물론 전통적 한학교육을 받고, 일본어 학습 경험이 없어서 중역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기는 했지만, 모리타 시켄의 <철세계>가 어차피 한문이 주종인 메이지 문체였던 만큼 이해조의 한문능력으로는 해석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다. 이해조가 굳이 바오티엔샤오의 번역을 저본으로 한 이유를 파악함에 있어서 김종욱의 다음의 언급은 주목할 만하다. “당시 지식인들의 언어능력이나 사고 구조를 염두에 둔다면 중국과의 오랜 문화적 친연성이 하루아침에 단절되었다고 하기 어렵다. 일본을 통해서 서구의 지식을 수행한 것 이상으로 중국을 매개로 한, 그래서 중국식으로 변용된 서구 사상과 연결되었던 것이다.” (김종욱, 「료리학의 번역을 둘러싼 몇 가지 단상」, 『한국근대문학연구』 Vol.20 No.1, 2019, p.225.)

29) <철세계>를 ‘과학’과 ‘애국’이 결합한 ‘구국의 연대’로서 파악한 박주현의 연구(박주현, 「1900년대 과학소설 속 영웅 형상과 구국의 논리 - <해저여행>과 <철세계>를 중심으로 -」, 『고전과 해석』 제37, 2022.) 그리고 “「철세계」의 수용을 근대과학 지식의 수용이라는 계몽적 맥락만으로 한정짓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고 지적한 김종욱의 연구는 이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김종욱, 「킬 베른 소설의 한국수용과정」, 『한국문학논총』 49집, 2008. 8.)

30) 이해조의 <철세계>와 일제의 문명국 이미지를 과시하며 일제의 조선침탈을 합리화한 이 인직의 <은세계> 두 편의 소설이 1908년 11월 20일, 같은 날 함께 발행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양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해조가 바오티엔샤오 번역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한 것은 아니었던 듯하다. 적어도 <베금의 오역 프랑> 속 ‘황인종의 차별’과 관련한 인식에서는 모리타 시켄과 바오티엔샤오, 이해조는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었고 이 판단의 차이는 번역 과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번역과정을 통해 나타난 판단 차이의 분석에 앞서, 먼저 원작 <베금의 오역 프랑>의 핵심적 기조가 되고 있는 ‘인종론’에 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베금의 오역 프랑>에는 독일인 술츠의 입을 통해서 “색슨족과 라틴족이 싸우면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한 색슨 족에 승산이 있다”거나 “게르만족이 다른 민족을 흡수”한다는 등 인종주의적 언급이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폴 킨케이드(Paul Kincaid)는 『SF Site Reviews』에서 <베금의 오역 프랑>을 가리켜 “인종적 고정관념으로 가득 찬 소설”³¹⁾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19세기는 이른바 인종의 시대였다”³²⁾라는 언급처럼 <베금의 오역 프랑>이 발표된 1879년을 전후한 시기 유럽에서는 우생학에 기반한 인종론이 활발하게 대두되고 있었다. 프랑스에서는 1820년대 중반부터 샤를 뒤누아예(Charles Dunoyer)를 중심으로 한 인종과 관련한 인식, “인종 간에는 타고난 불평등이 있고 그것이 자유에의 도달능력의 차이를 결정한다”는 인식을 기초로 한 ‘인종의 과학’이 학문으로서 도입된다.³³⁾ 인종을 둘러싼 이와 같은 이론 전개 과정에 있던 프랑스 이론가 중의 한 사람으로서 아르튀르 고비노가 있다. 그는 1855년 『여러 인종의 불평등에 관한 시론(試論)』을 발표 한 후 이 연구에서 “백인이 흑인이나 황인종에 비해 지적으로 우월하며, 모든 문명은, 심지어는 중국문명도 원래는 백인으로부터 나왔”³⁴⁾다며 백인지상주의를 제창한 후, 문명의 성공이라는

31) Paul Kincaid, 「The Begum's Millions」, 『SF site Reviews』, 2006.
<https://www.sfsite.com/03a/bm219.htm>

32) 문종현, 「아르튀르 고비노의 인종론」, 『역사와 철학』 Vol-27, 2014, p.208.

33) 이상의 논의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조했음.(クロード・オリ비에・ドローン, 福崎裕子訳, 「人種・自由・平等・博愛: 프랑스における科学と政治の間での「人種」概念の來歴」, 『人文学報』第114号, 2019. 12, p.130.)

34) 김웅중, 「오리엔탈리즘과 인종주의 : 토크빌과 고비노의 논쟁을 중심으로」, 『담론201』

것은 백인 중, 아리아 혈통의 순수성이 얼마나 잘 보존되어 있는가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리아인'이 문명의 주도자이자, 문명성공의 척도로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베금의 오역 프랑〉속 앵글로 색슨족의 우수성을 언급하면서 이를 다시 게르만족의 우수성으로 연결시키는 슈츠의 '인종주의'적 발언은 시기적으로 볼 때 고비노의 이론을 반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슈츠의 인종차별적 태도가 그의 대척점에 위치한 인물, 말하자면 “모든 사람의 운명에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을 다하며 이상적 도시 건설에 매진하는 “훌륭한 인물” 사라젠 박사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사라젠은 베금의 유산으로 미국 오리건 주에 위생적 이상도시 ‘프랑스 빌’을 건설할 정도로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선한 의지를 지닌 인물이다. 그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더욱 가까워지고 상대를 형제처럼 느끼고 동질감을 맛보고 마음이 통하는” 세상, 즉 차별이 없는 평등한 세상의 형태를 프랑스 빌을 통해 구현하고는 ‘조국’이 생겼다면서 감동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사라젠의 이상을 담은 이상적 도시의 구성원에도, ‘조국’의 국민의 범위에도 그 어디에도 ‘황인종’은 배제되어 있다. 쥘 베른이 소설에서 ‘슈츠’의 형상화를 통해서 인종주의적 인식을 비난하고 있었지만, 19세기 프랑스와 유럽을 뒤덮고 있던 인종론에서 그 역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황인종’에 대한 유럽인의 멸시를 모리타 시켄과 바오티엔샤오, 이해조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일까.

4. 이상적 세계에서 배제된 황인종³⁵⁾

〈베금의 오역 프랑〉의 프랑스빌은 ‘공중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토양을 혼란시키거나 깊은 도랑을 파는 일은 철저히 피’하고 ‘모든 네거리에는 공원이 조성’되는 것은 물론 하수구 배치 하나까지 고려된 계획적 이상도시이다. 이 도시에서 아이들은 네 살 때부터 두뇌 훈련을 받아야 하며, 옷의 얼룩 하나에도 부끄러워할 정도로 청결에 익숙해져 있다.³⁶⁾ 그래서 기사치 야스히코는 「도시와 감옥」에서 프랑스빌을 가리켜 슈탈슈탈츠와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디스토피아’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음영있는 거리가 소멸되고 극도로 청결하고 완벽한 관리사회”³⁷⁾인 프랑스빌이나, 외부에서 들어가기 어렵고 내부에서 탈출도 불가능한 감옥도시 ‘슈탈슈탈츠’나 관리자가 인정하는 한에서의 자유만 허용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프랑스빌의 설계자 사라젠 박사의 공공성은 선별된 대상에게만 적용되는 차별적 공공성이다. 예를 들자면 “산업이나 과학이나 예술에서 유익하고 자유로운 직업을 영위할 능력”이 되는 사람만이 이 도시의 거주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이 거주 대상에서 철저히 배제된 존재가 바로 이 도시를 건설한 중국인 쿨리이다. 소설에서 프랑스빌은 500명의 유럽인 현장감독과 기술자들의

35) 〈철세계〉 속 ‘인종’ 문제를 다룬 연구로는 장노현의 「인종과 위생—「철세계」의 계몽의 논리에 대한 재고, 『국제어문』 제58집, 2013. 08.) 이 논문에서 장노현은 “「철세계」에 관한 연구는 과학소설로서의 성격을 밝히는 데 집중”되어 온 점을 지적한 후 원작과 중국어 저본의 조선어 번안과정에서 일어난 ‘축약과 생략 등의 기법’을 중심으로 이해조 〈철세계〉를 계몽주의의 논리에서 재해석하고 있다. 인종과 위생의 문제 역시 이 연장선상에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인종주의적 편견과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

36) 프랑스빌의 위생이데올로기는 “콜레라 유행병으로 인해서 파리 시민 사망률이 위생상 문제를 안고있던 빈민굴을 중심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던 사회적 분위기와 깊이 연결된 것이었다고 한다. 실제로 프랑스빌의 이미지는 1875년 출판된 벤자민 리차더슨의 『건강도시 히기에이아』를 기저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었다고 한다.(이상의 사항에 대해서는 私市保彦의 「都市と監獄 -「ベグムの5億フラン」をめぐる-」(『Excelsior!』, 2010. 4, p.76.)를 참조했음.

37) 私市保彦, 「都市と監獄 -「ベグムの5億フラン」をめぐる-」, 『Excelsior!』, 2010. 4, p.76.

지시를 받아서 2만 여명의 중국인 쿨리가 건설한 도시로서 묘사되고 있다. 500명의 유럽인 현장감독과 기술자들은 프랑스빌의 거주 조건, 즉 ‘산업’에서 유익한 능력을 지닌 자들이기에 그들이 원한다면 프랑스 빌 거주권을 얻을 수가 있지만 도시 건설에 실제로 참여한 2만 명의 중국인 쿨리는 이미 계약시에 절대로 도시에 남지 않겠다는 서약을 했기에 절대로 도시 거주권을 얻을 수가 없다. 도시를 건설한 주체인 중국인 쿨리들이 그 도시의 혜택에서 철저히 배제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설정은 이 시기 중국인에 대한 미국 사회의 극심한 반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흥미롭다.

1848년 캘리포니아의 금광 발견으로 미국에서는 대량의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수많은 중국인들이 미국으로 이주한다. 이렇게 유입된 중국인 노동자들은 ‘쿨리’로 통칭되며 광산, 대륙횡단철도 건설 등 미국 노동시장의 핵심적 노동력으로 등장한다.³⁸⁾ 그러나 쿨리의 대량유입은 이들 쿨리들이 “굉장히 싸고 아무런 조건 없이 어떠한 권리요구도 없이 쓸 수 있는 노예와 거의 유사한 노동력”이라는 점에서 미국 내 백인노동자들의 위기의식을 초래하는 한편, 백인 보수계층의 타인종 기피의식과 맞물려 미국 사회 내에서 인종적 편견을 심화시키게 된다. 예를 들어 지방의 대중언론들은 앞다투어 “작은 머리, 찢어진 눈, 낮은 코, 두꺼운 입술, 해괴한 턱 등 쿨리들의 외모는 지적(知的)이라고 인지되는 어떤 형태의 모습과도 거리가 먼 종족”³⁹⁾이라는 왜곡된 이미지를 유포하는가 하면 한 재판에서는 “미개한 중국인은 열등하고 지적 성장이 더디서 미국 법체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물론이고 판단능력 또한 부족한 인종이”⁴⁰⁾이므로 증인능력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다.

38) 쿨리는 한자의 고역(苦力)이 영어로 음역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육체노동자를 뜻하지만 19세기 미국에서는 이것이 황인종이라는 인종개념과 중국이라는 배타적 공간개념이 결합되면서 거의 유일하게 중국인 저임금 노동자만을 지칭하는 용어로 전용됐다.(오영인, 「미국 1870년 민권법(Civil Rights Act of 1870)과 이민자들」, 『역사와 세계』 56, 2019, p.263.)

39) Edward J. M. Rhoads, “‘White Labor’ vs. ‘Coolie Labor’: The ‘Chinese Question’ in Pennsylvania in the 1870s,” *Journal of American Ethnic History* 4 (2002), p.22(오영인의 「미국 1870년 민권법(Civil Rights Act of 1870)과 이민자들」(『역사와 세계』 56, 2019, p.263.)에서 재인용)

이처럼 1850년대에서 70년대에 이르는 시기 미국 사회에서 중국인은 외국인 일반이 아니라 “미국 사회에 동화될 수 없고 문명화될 수 없는” 특징을 가진 “새로운 인종적 타자”로서 인식되고 있었다.⁴¹⁾ 〈베금의 오역 프랑〉에서 프랑스빌 건설작업에 투입된 중국인 쿨리를 향한 사라젠 박사의 시선은 자신이 비판한 독일인 슐츠 박사의 인종주의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슐츠 박사가 라틴인종에 대한 앵글로 색슨족의 우수함을 역설하고 있던 것처럼 사라젠 박사는 백인을 ‘인종적으로 특권화된 위치’에, 그리고 중국인 쿨리를 ‘열등한 하위인종’의 위치에 안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라젠 박사는 중국인에 대한 인종적 편견을 어느 틈엔가 중국인 쿨리=황인종으로 확장한 후, 이와 같은 고정관념을 백인 對 황인종, 이라는 인종 간의 문제로 확대하고 있다. 문제는 이 편견의 근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 무렵 북아메리카에서는 중국인 쿨리가 크게 늘어나는 바람에 노동시장이 큰 혼란을 겪고 있었다. 많은 주가 시민의 생계 수단을 보호하고 유혈 폭력사태를 막기 위해 그 불행한 노동자들을 대량으로 추방할 수밖에 없었다. 프랑스빌의 건설은 다행히도 그들을 파멸의 수렁에서 구해주었다.(중략)임금은 매주 대표의 입회 아래 샌프란시스코 은행에 예치되었고, 쿨리들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돈에 손을 댈 수가 없었다. 이것은 황인종을 배제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방책이었다. 그러지 않으면 황인종은 반드시 개탄스러운 방법으로 신도시의 형태와 성격을 변화시킬게 분명했다.⁴²⁾

소설 속 사라젠 박사가 쥘 베른의 이념과 이상을 대변하는 인물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 점에서 ‘황인종 배제’ 결정은 쥘 베른의 결정이다. 쥘 베른은 사라젠의 입을 통해서 이처럼 비인간적인 결정의 이유를 ‘개탄’이라는 추

40) Charles J. Mac Clain Jr., “The Chinese Struggle for Civil Rights in Nineteenth Century America: The First Phase, 1850-1870,” California Law review, 72-4 (1984), p.550.(오영인, 앞의 책, p.272에서 재인용)

41) 김용태, 「19세기 미국의 중국인에 대한 인종인식과 인종분류」, 『인문과학연구』 제71집, 2021, p.253.

42) 쥘 베른, 김석희 옮김, 〈인도왕비의 유산〉, 열림원, 2009, p.168.

상적 용어로서 마무리하고 있다. 이 추상적 모호함은 쥘 베른 스스로가 당시 유럽에서 성행하고 있던 과학적 인종주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 없이 얕은 수준의 ‘인종적 고정관념’에 매몰되어 있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쥘 베른의 가벼운 수준의 ‘인종적 고정관념’이 당시 미국 내의 중국인 이주민에 대한 반발 상황과 연결되면서 중국인=황인종=배제라는 근거 없는 결정으로 귀결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점에서 황인종 배제를 내세운 〈베금의 오역 프랑〉 발표로부터 20년도 되지 않은 1895년, 쥘 베른이 그토록 경멸하고 비판했던 독일의 황제 빌헬름 2세가 ‘황화론’을 내세우며 황인종의 멸시와 경계를 유럽 전역에 퍼뜨리고 있었다는 점은 참으로 아이러니컬하다고 할 수 있다.⁴³⁾ 그렇다면 ‘황인종 배제’의 이 구절을 일본의 모리타 시켄, 중국의 바오티엔샤오, 그리고 조선의 이해조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었던 것일까. 다음은 앞서 인용한 ‘황인종’ 관련 문장의 일역, 중역, 조선어역이다.

1) 프랑스 학사가 장수촌을 건설했을 때는 그는 부역을 기피하지 않고 노고를 꺼리지 않았다. 또한 오직 돈을 찾아 아메리카로 몰려온 중국인이 날마다 늘어났는데, 미국인은 점점 그들을 혐오하게 되어 가는 곳마다 중국인 배척론이 시끄럽고 지역에 따라서는 지방정부가 법령으로 중국인을 경외에 쫓아내기도 했다. 혹은 미국인들이 몰래 동맹하여 중국인을 고용하지 않겠다는 계약을 맺었다. 중국인 무리 중에는 저기로 몰리고 여기에 돌아오고 해서 설 자리에 헤매는 이가 엄청나게 많았다. 이에 **사라젠은 그들을 활용하여 한편으로는 무자비한 취급을 받아 아사 직전에 처해 있던 중국인을 구제하고 한편으로는 중국인들이 노력파이고 고분고분한 성질을 이용하여 건설을 크게 진척시켰다.**⁴⁴⁾

43) 독일의 빌헬름 19세기 말 독일 황제 빌헬름 2세는 ‘황화론’을 주장하면서 특히 동아시아의 중국과 일본에 대해 적대 정책을 쓰며 제국 영역의 확장을 도모했다. 빌헬름 “황제는 화가인 크낙푸스 Knackfuß에게 명하여 ‘유럽민족들이여, 그대들의 성스러운 재보를 지켜라.(Völker Europas, wahrt eure heiligsten Güter)’라는 제목의 그림을 그리도록 했다. 그것은 기독교를 대표하는 대천사 미카엘이 황인종을 수호하는 아시아의 부처상에 맞서 싸우도록 유럽국가들을 선동하는 상징화로, 황제의 지시에 따라 그 사본들은 러시아의 니콜라이 2세를 비롯해 유럽 여러 나라의 고관들과 미국 대통령에게까지 보내졌다.”고 한다.(두행숙, 『독일황제 빌헬름 2세의 동아시아 정책과 황화론의 실체』, 『독일어 문학』 92, 2021, p.53.)

44) 森田文蔵訳述, 〈鐵世界〉, 集成社, 1889, p.120.

2) 프랑스 학사가 이 장수촌을 건설했을 때 마침 유랑하며 갈 때가 없는 지나인들이 황금을 좇아 아메리카에 가서 노동을 하다 **자신의 몸을 희생한다**. 그곳에 온 지나인들이 날이 갈수록 많아지자 아메리카 사람들은 싫증이 나 여기 저기 지나인들을 배척하는가 하면 지방정부의 법령으로 경계선 이외의 곳으로 추방하기도 하고 미국인들이 개별적 계약을 통해 지나인을 고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수만 명의 지나인들이 유랑하고 신세계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좌선은 이들을 받아들이고 고용한다. 그것은 **자비심으로 동양의 패배자와 굶어 죽는 자를 살리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의 부지런하고 부드러운 성격을 이용하여 건설의 업적을 만들려는 것이다.⁴⁵⁾

3) 장수촌설시홀썩니, 맞춤형중국인슈만명이, 미국인의 쏘긴바되야, 동서표박하고, 유리기결헝야, 디장벳그로, 나가거늘, 좌선이, 공까를후이쥬어, 일병공역을시키고.⁴⁶⁾

모리타 시켄의 번역에서는 문제의 ‘황인종’ 배제와 관련한 내용이 완전히 삭제되고 있다. 아울러 가난한 중국인을 구제하는 사라젠 박사의 위업이 강화되는 한편, 원작에는 없는 중국인의 성실함과 순종성에 관한 내용이 첨가되고 있다. 바오티엔샤오는 모리타 시켄의 번역을, 그리고 이해조는 바오티엔샤오의 번역을 저본으로 한 만큼 바오티엔샤오와 이해조는 ‘황인종’ 배제라는 원작의 내용을 인지할 여지라는 것이 애초부터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번역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묘한 변화를 고려할 때 서구인이 쓴 서양 소설 속 중국인 모습은 모리타 시켄, 바오티엔샤오, 이해조 세 사람 모두에게 동양과 동양인에 대한 서양 사회와 서양인의 인식과 동양의 위치를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에 분명하다. 서양인의 멸시를 받으면서도 서양인의 자비심에 의지하여 삶을 영위해갈 수밖에 없는 중국인 쿨리들의 모습과 황인종 일반에 대한 소설의 부정적 시선은 일본인 모리타 시켄의 입장에서도, 중국인 바오티엔샤오의 입장에서, 조선인 이해조의 입장에서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탈아입구(脫亞入歐)’의 모토 아래 근대국가 건설에 힘을 다해가던 메이

45) 法國 迦爾威尼 著·吳門天笑生 譯, 「第十章 長壽村之組織」, 『科學小說 鐵世界』, 앞의 책, p.70.

46) 李海朝, 『鐵世界』, 滙東書館, 1908, p.62.

지 시기 일본의 지식인 모리타 시켄에게 있어서 ‘황인종 배제’의 문구는 곤혹스럽고 혼란스러운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문구는 미개하고 열등한 아시아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던 메이지 시기의 일본, 말하자면 “스스로를 소중화 제국이라고 자부하고 제국의 상속인이 되었지만 식민지와 동일한 동아시아 문명권에 속하였다는 사실”⁴⁷⁾이 큰 부담이자, 족쇄였던 일본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 위태로운 지점에서 모리타 시켄은 ‘황인종’ 관련 문장을 번역과정에서 삭제하고 중국인에게 ‘미개한 인종’의 모든 짐을 지운 후 메이지 일본이 내건 ‘미개하고 열등한 여타 아시아’와 ‘우월한 일본’의 구도를 그대로 유지해낸다. 이 소설의 대상이 일반 대중이며, 번역의 목적이 근대국가 건설을 위한 대중 계몽에 있었던 만큼 당연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조선인 번역자 이해조의 선택이 흥미롭다. 시혜자로서의 서양인 對 시혜 대상으로서의 중국인의 구도를 번역과정에서 그대로 수용하며 ‘동양의 패배자’라는 자기비하적인 단어까지 첨가하고 있던 바오티엔샤오와 달리 이해조는 이 부분을 ‘청국인 수 만 명이 미국에서 힘들게 살다가 사라젠이 임금을 후하게 주고 일을 시켰다’는 두 줄로 축약하여 번역한다. 바오티엔샤오의 번역에서 첨가된 ‘동양의 패배자’라는 용어를 비롯해서 모리타 시켄의 번역에서 첨가된 ‘중국인의 순종성’에 대한 언급, 서양인 사라젠의 위대함을 강조하는 표현 등을 이해조는 조선어 번역과정에서 모두 배제한 것이다. 도입부의 풍경묘사까지 바오티엔샤오 번역을 그대로 옮겼던 이해조의 번역태도를 생각하면 이 부분의 배제는 의도적인 ‘선택’이었다고 봐도 좋을 듯하다. 물론 축약이기에 이 선택의 이유를 파악하는 어렵기는 하지만 바오티엔샤오 번역의 해당 부분과 이해조 번역의 해당 부분 간 의미의 차이를 통해서 축약의 의도를 다소간은 유추할 수 있다.

일단 모리타 시켄의 번역은 순종성과 미개함을 중국인의 속성으로 이미지화하며 인종적인 편견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인의 순종성과 미개함이 강화되면 될수록 일본의 아시아 지배의 명분 역시 힘

47) 박지향, 「영국 제국주의와 일본 제국주의의 비교(1)」, 『영국연구』 제2호, 1998, p.168.

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이해조가 모리타 시켄의 번역을 참조했는지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번역과정에서 중국인 관련 부정적 내용을 빼 것을 보면 적어도 그는 일역과 중역 <鐵世界>속 중국인에 대한 인종적 편견에는 찬성할 수 없었던 듯하다. 이 점에서 조선어역 <철세계> 번역과 동시기인 1908년 이해조의 또 다른 번역인 모토라 유지로(元良勇次郎)의 「中等教育 倫理講話」의 번역과정에 대한 김종육의 분석은 주목할 만하다. 김종육은 이해조가 모토라 유지로의 원작이 아니라, “고유한 유교적 사유”⁴⁸⁾를 번역과정에서 첨가한 마이딩화(麥鼎華)의 중국어 번역을 저본으로 삼았던 것을 거론하며 “전통적인 유학의 영향을 깊게 받”은 이해조 “나름대로의 사상적 친연성”⁴⁹⁾을 번역작 선택의 이유로서 지적한다.

<철세계> 조선어 번역과정에서의 중국인 관련 내용의 삭제는 이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을 듯하다. 이해조는 전통적 한문교육을 받기는 했지만 “근대교육에 대한 신념과 의지가 누구보다 높았던” 인물, 말하자면 “근대와 전근대의 사이에 끼어있는 문체적 개인”⁵⁰⁾으로서의 면모를 지닌 인물이었다. 그렇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그는 ‘근왕주의자’⁵¹⁾로서 성장과정에서 익힌 한학의 유교이데올로기가 그의 실질적 삶의 기반을 이루고 있었다. 그런 만큼 사대주의의 극복을 주장했다고 해도 이해조로서는 중국을 향한 서구인의 멸시를 수용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음이 분명하다. 물론 이해조가 중국인=순종적 인종으로서 폄하하고, 중국을 패배자로 규정할 부분을 번역과정에서 삭제한 것이 단지 이 이유

48) “「중등교육윤리강화」를 저본으로 삼아 번역된 중국어본 중등교육 윤리학에는 『대학』뿐만 아니라 『서경』, 『논어』, 『중용』, 『맹자』 등이 덧붙여 있는데, 이는 중국어로 번역할 때 마이딩화가 새로 추가한 것이다.”(김종육, 「『륜리학』의 번역을 둘러싼 몇 가지 단상」, 『한국근대문학연구』 Vol.20 No.1, 2019, p.224.)

49) 김종육, 「『륜리학』의 번역을 둘러싼 몇 가지 단상」, 『한국근대문학연구』 Vol.20 No.1, 2019, p.224.

50) 송민호, 「열제 이해조의 생애와 사상적 배경」, 『국어국문학』 156, 2010, p.264.

51) 김종육은 이해조와 이인직의 사상의 궤적을 논하면서 “그들은 과거의 사덕 대신에 국가 윤리라든가 공덕을 강조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군주제의 논리에 따라 ‘국가=군주’에 불과했다.”면서 이들은 근본적으로는 ‘근왕주의자’들이었다고 언급한다.(김종육, 「『륜리학』의 번역을 둘러싼 몇 가지 단상」, 『한국근대문학연구』 Vol.20 No.1, 2019, p.226.)

에서만은 아니었던 듯하다. 중국인에게 덧입혀진 서구인의 인종적 편견이 점차 조선인을 포함한 황인종 전체로 확대되어 서구 제국의 아시아 침략 명분이 될 것임을 이해조는 예견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 결론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시기 조선과 중국, 그리고 일본에서 서구문학의 번역은 제국주의 확장과 같은 다양한 정치적 상황과 연결되어 이루어졌다. 쥘 베른의 <베금의 오역 프랑>은 그 대표적인 예였다고 할 수 있다. 쥘 베른은 이 소설에서 독일인의 전체주의적 의식을 비판하는 한편 공익을 우선시하는 프랑스인의 선량함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식민지 개척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해가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프랑스 역시 독일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영토를 확장해간 프랑스의 자기중심성은 <베금의 오역 프랑> 속 프랑스인 사라젠 박사가 건설한 이상도시 프랑스빌의 형태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도시 건설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중국인 쿨리에게는 인종주의적 이유로 도시 거주가 허락되지 않은 것이다. 쥘 베른 역시 노동은 식민지의 뭇, 과실은 제국의 뭇으로 이원화시키고 있던 제국주의의 논리를 소설에서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과 중국, 그리고 조선의 지식인들이 대중적 계몽을 위해 <베금의 오역 프랑>을 제각각 자국의 언어로 번역한 것은 이 점에서 역설적이면서도 당시 아시아 국가들의 절박한 현실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해서 안타깝다. 이 역설성과 절박함은 서구 근대문학을 일본적 현실과 이해관계에 맞추어서 번역했던 일본, 그리고 일본의 번역을 통해 서구 근대문학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나머지 두 나라 중국, 조선 간에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중국인의 순종성과 미개함을 번역과정에서 강조함으로써 미개한 여타 아시아와 문명화된 일본이라는 구도를 통해 아시아 지배 명분을 대내외적으로 명시한 일본어 번역, 아시아의 패배자로서 전략한 중국의 현실을 부각시켜 중국인의 각성을 촉구하려한 중국어 번역, 그리고 인종 관련 내용을 축약함으로써 일본이 유포한 인종주의에서 거리를 두고 있던

조선어 번역, 이처럼 〈베금의 오역 프랑〉의 번역과정에는 조선과 중국, 그리고 일본이 절박하게 향해가던 지점이 정확하게 반영되고 있었다.

◆ 참고문헌

1. 자료

- 李海朝, 〈鐵世界〉, 滙東書館, 1908.
 吳門天笑生, 〈科學小說 鐵世界〉, 上海文明書局, 1903.
 森田文蔵訳述, 〈鐵世界〉, 集成社, 1889.
 쉐 베른, 김석희 옮김, 〈인도왕비의 유산〉, 열림원, 2009.

2. 단행본

- 김효순 편, 『동아시아의 일본어문학과 번역의 문학, 문화의 번역』, 역락, 2018.
 横門順彌, 『日本のSFこてん古典』, 早川書房, 1980.
 包天笑, 『釧影樓回憶錄』, 上海三聯書店, 2014.
 鴻巢友季子, 『明治大正翻訳ワンダーランド』, 新潮社, 2005.

3. 논문

- 김용태, 「19세기 미국의 중국인에 대한 인종인식과 인종분류」, 『인문과학연구』 제71집, 2021, pp.243-275
 김용중, 「오리엔탈리즘과 인종주의 :토크빌과 고비노의 논쟁을 중심으로」, 『담론201』 6-2, 2003, pp.197-220
 김종욱, 「『료리학』의 번역을 둘러싼 몇 가지 단상」, 『한국근대문학연구』 Vol.20 No.1, 2019, pp.209-231
 김종욱, 「쉐 베른 소설의 한국수용과정」, 『한국문학논총』 49집, 2008, pp.55-82
 두행숙, 「독일황제 빌헬름 2세의 동아시아 정책과 황화론의 실제」, 『독일어문학』 92, 2021, pp.47-72
 문중현, 「아르튀르 고비노의 인종론」, 『역사와 철학』 vol27, 2014, pp.206-237
 박주현, 「1900년대 과학소설 속 영웅 형상과 구국의 논리 - 〈해저여행〉과 〈철세계〉를 중심으로 -」, 『고전과 해석』 제37, 2022, pp.81-116
 박지향, 「영국 제국주의와 일본 제국주의의 비교(1)」, 『영국연구』 제2호, 1998, pp.161-194

- 송민호, 「열제 이해조의 생애와 사상적 배경」, 『국어국문학』 156, 2010, pp.241-271
- 오영인, 「미국 1870년 민권법(Civil Rights Act of 1870)과 이민자들」, 『역사와 세계』 56, 효원사학회, 2019, pp.261-294
- 장노현, 「인종과 위생—「철세계」의 계몽의 논리에 대한 재고」, 『국제어문』 제58집, 2013, pp.533-557
- 최애순, 「초창기 과학소설의 두 갈래 양상—〈철세계〉와 〈비행선〉—」, 『우리어문연구』 68, 2020, pp.131-170
- 칸 앞잘, 〈한국근대초창기 인도 소재 문학의 번역 및 수용—〈철세계〉를 중심으로—〉, 『중국어양대학교외한국학 중핵대학사업단 3단계 제1회학술대회』, 2023.
- クロード・オリビエ・ドローン, 福崎裕子訳, 「人種・自由・平等・博愛:フランスにおける科学と政治の間での「人種」概念の來歴」, 『人文学報』 第114号, 2019, pp.123-157
- フォルカ・デース, 石橋正季訳, 「パスカル・グルーセ 〈베간의 遺産〉 からジュール・벨렌 〈베간의 五億フラン〉」, 『Excelsior!』, 2010.
- 岡村昭彦, 「SFの歴史から見た魯迅訳「月界旅行」の弁言」, 『中国研究月報』 400, 1981, pp.10-26
- 金孝順, 「韓国における科学小説の受容—ジュール・ウエルヌ作、李海朝述譯〈科学小説 鉄世界〉の啓蒙性と科学的想像力を中心に」, 『跨境』, 2020, pp.29-45
- 私市保彦, 「都市と監獄 —〈베그ムの5億フラン〉をめぐって—」, 『Excelsior!』, 2010, pp.74-77
- 曹淑俐, 吴淳邦, 「科幻小说《铁世界》的中韩译本研究」, 『中國語文論譯叢刊』 第45輯, 2019, pp.55-82

논문접수일	2023년 05월 09일
심사완료일	2023년 05월 28일
게재확정일	2023년 06월 08일

Abstract

Colonialism and the Racial Border

-Focusing on the translation process of 〈Begeum's Five Hundred Million Francs〉 into Korean, Japanese, and Chinese-

Jung, Hyeyeong · Tsao Chia-yu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the Asian application of modern colonialism, focusing on the translation process of French novelist Jules Verne's 〈The Begum's Millions〉 (1897) into Japanese(1889), Chinese(1903), and Korean(1908) languages. In modern colonialism, all races except whites were defined as savage and inferior. The otherization of peoples of color based on racial hierarchy was one of the common features found in western novels during the modern imperialism period. Jules Verne's science novel 〈The Begum's Millions〉 is also a novel with a such strong worldview of racial hierarchy. In this novel, the author Jules Verne proposes a utopian society, a welfare community that aims for the happiness of all mankind, and insists on the thorough exclusion of the yellow race from that society. The reason for exclusion is simple. This is because the yellow race changes the city into an "undesirable form".

In this study, first we examined the origin of the racist prejudice against the yellow race in 〈The Begum's Millions〉 and then review how this prejudice was reflected in the translation process into Japanese, Chinese, and Korean languages, whose speakers were the readers as well as the targets of the bias. In addition, we tried to explore the meanings and the differences of the accepting process of modern west in Japan, China, and Korea by looking into the various transformations and its meanings that occur during the translation process of the original work.

Keyword 〈The Begum's Millions〉, Racial hierarchy, Literature translation, Colonialism

1980년대 북한 소설 중의 중국지원군 서사 연구

-작품집 『형제』에 수록된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오 명*

국문요약

본고는 1980년대 출판된 북한 작품집 『형제』에 수록된 네 편의 단편소설 〈있지 못할 추억〉 〈아들〉 〈눈보라 속에서〉 〈만만디 다리에서〉를 중심으로 북한 작가들이 중국지원군에 대한 서사적 특징을 분석하려 한다. 『형제』에 수록된 네 편의 소설은 1980년대 북한의 우의탑 증축, ‘도라지 소녀’, 조·중 수교 35주년 등의 현실 사건에 호응하여 북한이 중국 항미원조에 대한 역사적 기억과 조·중 관계에 대한 공식적 태도가 문학 영역에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텍스트 분석을 통해 네 편의 작품 속에서 창작 기교와 지원군 이미지 처리 등에서 뚜렷한 유형화와 일치성을 알아볼 수 있다. 첫째, 중국지원군 주인공과 북한 민중 주인공들 사이의 ‘가정재건(家庭重建)’식 가족에 서사로 조·중 양국의 사회주의 동맹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둘째, 영웅 서사를 중요시한다. 작품들에서 지원군 인물들을 모두 혁명적 낙관주의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위험에 처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영웅적인 이미지로 등장시킨다. 셋째, 항일 전쟁 시기부터의 국제주의 이념을 일관되게 계승하면서 동시에 중국에 대한 이역(異域) 상상이 내포되어 있다. 『형제』의 네 편의 소설에서 중국지원군은 북한을 지키는 친구, 국제주의의 실천자, 조·중 우애의 건설자 등의 이미지로 조·중 인문교류의 특수 주체가 된다. 이를 통해 1980년대 초반 북한 사회의 중국 항미원조에 대한 집단적 기억을 엿볼 수 있다.

주제어 『형제』, 중국지원군, 한국전쟁, 항미원조, 영웅 서사, 북한 문학

* 중국 산둥대학교 외국어대학 박사과정, 영국 에든버러대학교 방문 연구형 박사생

〈목차〉

1. 머리말
2. 전쟁 기억과 북한의 지원군 이야기
3. ‘가정’재건으로 표현된 동맹 관계
4. 도식화의 영웅 서사
5. 국제주의 시각에서의 이역(異域) 서사
6. 맺음말

1. 머리말

한국전쟁 시기 중국은 항미원조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공화국의 군인이 국제 무대에 처음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사회주의 진영의 우군이자 원조를 받은 북한은 전시 및 전후 기간 중국지원군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학작품을 창작하였다. 비교문학 형상학에서 ‘문학 형상’은 “(이국에 대한 관점이) 문학화되고 동시에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이국에 대한 총합 관점”¹⁾으로 정의된다. 이국적 형상은 사회의 집단적 상상(social collective imagination)의 범주에 속한다²⁾. 북한 문학에서의 중국지원군 형상은 북한의 사회적 집단적인 중국 상상을 반영하여 역사적인 조·중 관계를 이해하는 한 창을 제공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1950년대 북한의 조국해방전쟁 소설을 연구하였으며 북한 작가들이 그린 중국 지원군의 형상이 비교적 도식화되고 중한 민족이 항일혁명투쟁 시기부터 이어져 온 형제애와 전우애를 찬양하는 전통을 이어받았다는 것을 지적했다.³⁾

1) 达尼埃尔-亨利·巴柔, 「形象」, 『比较文学形象学』, 孟华译, 北京:北京大学出版社, 2001, p.154.

2) 위의 책, p.156.

3) 북한 소설이 중국 군인에 대한 문학 형상화 특징에 관한 연구로는 한국의 신영덕, 「한국전쟁기 남북한 소설과 미군·중국군의 형상화 양상」, 『한중인문학연구』 제10집, 한중인문학회, 2003. 주춘홍, 『한국전쟁기에 중국어로 번역된 북한문학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논문, 2020. 등이 있다. 중국 학자의 기존 연구로는 常彬, 「北朝鲜作家笔下的朝鲜战争——1950年代中国报刊刊载一瞥」, 『河北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12年第6期를 참조할 수 있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 북한 작가들이 창작한 중국지원군 관련 소설은 현재 국내의 학계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고 연구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50년대 북한 조국해방전쟁 문학에서 나와 있는 조·중 형제적 관계의 고정 관념이 전쟁 이후 북한 문학에서 계속해 존재하는가? 세대 간의 계승 사이에서 이런 고정적 관념에 내포되고 있는 함의는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가 생겼는가? 문학이 당과 국가를 위해 복무하는 북한 문단에서 국제 관계, 정치적 심리 등 요소는 작가들의 중국지원군 문학 형상화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북한 국내의 문학 자료 획득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까지의 북한 지원군 문학작품을 철저히 수집하고 연구하여 상술한 의문을 해답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접할 수 있는 일부 북한 작품들을 통해 우리는 북한 작가들이 전쟁 이후 중국지원군에 대한 서사적 특징을 부분적으로 고찰할 수 있다.

본 논문은 1980년대 출판된 북한 작품집 『형제』에 수록된 네 편의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북한 작가들이 중국지원군 이미지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형제』의 출판 시기와 배경을 고찰하여 이 작품집이 80년대 북한 사회의 한국전쟁에 대한 역사적 기억 및 조·중 관계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다음 『형제』에 수록된 소설의 서사적 특징을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현재 한국전쟁 문학 연구 분야에서 비교적 빈약한 북한 전후 문학 중 중국지원군 형상 연구를 보충하고 80년대 북한 사회가 중국 항미원조에 대한 집단적인 상상을 문학적 시각에서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본다.

2. 전쟁 기억과 북한의 지원군 이야기

전쟁 문학은 일반적으로 전쟁의 경험과 기억을 담고 있으며 전시와 전후의 서로 다른 시각과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다. 전쟁 중에 나타난 문학작품은 대개 전시 동원을 목적으로 창작되는 반면에, 평화 시기에 쓰인 전쟁 문학은 전쟁을 둘러싼 다양한 시각에서 반성과 재인식으로 이루어지며 전쟁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인 역사적 평가나 사회 대중들의 전쟁 기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80년

대 초반, 중국과 북한의 교류는 밀접했으며 양국의 고위층 대표단이 빈번하게 방문했다. 1982년 김일성이 중국을 방문한 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우의탑을 증축하기로 했고, 1983년 11월에 착공하여 이듬해 완공했다.⁴⁾ 그 이듬해인 1984년은 조·중 수교 35주년을 맞이하는 해였다. 문학 작품집 『형제』는 1984년 11월,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 출판되었다. 해당 작품집은 1960~80년대 북한 작가들이 중국지원군을 소재로 창작한 단편소설 4편, 시가 10편 그리고 영화대본 1편을 수록하고 있으며 그중 단편소설로 김영철의 〈잊지 못할 추억〉, 리상식의 〈아들〉, 리직의 〈눈보라 속에서〉, 김봉식의 〈만만디 다리에서〉 등이 있다. 우선 각 소설의 줄거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잊지 못할 추억〉은 창해라는 주인공의 일인칭 시점에서 전개되며 30여 년 전에 지원군 고사포 중대가 북한의 한 마을에서 주둔하던 추억을 그린 작품이다. 한국전쟁 시기 열네 살이었던 창해는 어머니와 함께 옥강리라는 외진 산골 마을에 살고 있었다. 그 지역의 옥강교는 전선과 연결되어 있어 미군의 폭격을 자주 받았다. 1952년 정월, 중국지원군의 한 고사포 중대가 옥강리 일대에 주둔하면서 마을 사람들의 집에서 잠시 하숙하게 되었는데 창해와 어머니도 특별한 손님 장옥매를 맞이하게 된다. 장옥매는 중대의 무전기 정보 수신을 담당하는 자로 때론 창해에게 전쟁 때문에 중단되는 방송을 들려주기도 하였는데 이로 인해 창해는 마을 아이들의 부러움을 받게 된다. 어느 날, 창해가 장옥매에게 방송을 들려달라고 청했는데 어머니는 무전기에 필요한 수산화나트륨이 매우 귀중한 전시물자라서 창해를 혼냈다. 며칠 후, 미국 적군의 폭격 속에서 옥매의 수산화나트륨 병이 깨지는 사고를 발생하자 속수무책의 상황에서 창해는 심야에 홀로 학교 화학 선생님의 집으로 달려가 수산화나트륨을 찾아왔고 지원군을 도와 작전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전투가 끝난 후 옥매가 창해한테 방송을 들려주려고 하자 철이 든 창해가 사절한 것으로 소설은 끝을 맺는다.⁵⁾

리상식의 〈아들〉은 조선 할아버지 박 노인과 지원군 전사들의 따뜻한 이야기

4) 刘正学·冯志远·李突, 「让朝中人民友谊世代相传——朝中友谊塔扩建工程胜利竣工」, 『人民日报』1984年10月15日.

5) 『형제』, 평양: 문예출판사, 1984, pp.1-22.

를 다루고 있다. 대청봉 탈환 전투를 앞두고 군사 고지 725에서는 지원군 부대의 이동과 주민들의 철수가 밤사이에 진행되고 있었다. 박 노인은 짐을 꾸려 나서던 중 절벽 밑에 세워놓은 벌통을 한참 동안 쳐다봤다. 이 벌통은 인민군인 아들이 전선으로 떠나가기 전에 만들어 놓은 것으로 한동안 생각에 잠겨있던 박 노인은 벌통과 꿀을 그냥 남기기로 했고, “지원군 동무들, 이 벌통 안에 꿀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성의로 알고 뽑아서 맛이나 보십시오”⁶⁾하는 편지를 남겨두고 떠난다. 위만호 중대장은 취사병 곽수봉 등 몇몇 병사들과 함께 취사장을 찾기 위해 초가집으로 찾아갔고 박 노인 집에서 꿀과 편지를 발견하고 다들 깊게 감동한다. 곽수봉은 박 노인의 꿀이 세간나고 있음을 알게 되고 전쟁의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새 벌통을 만들어 주고 떠난다. 대청봉 탈환전에서 미군은 교량과 도로를 포격하고 후방 보급 통로를 차단하자 북한 민중들은 전선 지원사업에 나섰다. 박 노인도 달구지로 20리를 달려 탄알과 수류탄 상자를 지원군에게 운송한 후 집에 돌아가 보니 벌통의 꿀이 그대로 남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벌통 하나와 지원군의 종이쪽지가 꽂혀 있었다. 박 노인은 지원군들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늙은이의 별 것 아닌 재산을 잘 지켜준 행동에 큰 감동을 받았고 다시 전선까지 찾아가서 그들에게 꿀물을 먹인다.⁷⁾

리직의 〈눈보라 속에서〉는 1960년에 쓰인 소설이다. 이 소설은 회상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지원군 정찰 분대장 왕평산이 눈보라 속에서 리숙희 모자를 구원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아주 무더운 여름날, 석공 조장인 리숙희가 쉬지 않고 일을 하는 모습으로 소설이 시작한다. 노동자들은 우의탑을 세우는 현장인데 리숙희는 이 일을 하면서 그들 모자의 은인인 왕평산을 생각한다. 1950년 겨울, 왕평산과 대원 주호은 적 후 정찰 임무를 마치고 부대로 돌아가는 도중 들리는 신생아의 울음소리를 따라 소나무 아래에서 의식을 잃은 리숙희를 발견했다. 임신한 리숙희는 마지막 철퇴한 북한 민중의 일원으로 피난 도중 뜻밖에도 마을 사람들과 흩어져 버린다. 그녀는 한 달이 넘도록 혼자서 북쪽 산맥을 따라

6) 위의 책, p.27.

7) 위의 책, pp.23-42.

가다가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 출산한 후 눈밭에서 혼미 상태에 빠지게 된다. 왕평산은 나뭇가지로 거친 썰매를 만들어 한 손으로는 아이를 안고 한 손으로는 썰매를 끌면서 미군과 싸워 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리숙희 모자를 목숨을 걸고 구해주었다.⁸⁾

김봉식의 <만만디 다리에서>는 북한 소녀 미란 일가가 지원군 왕덕명과 함께 전투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열일곱 살이 된 오미란은 어머니와 함께 북한강 지류 옆에 있는 마을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강의 양측은 각각 인민군과 지원군의 고사포 진지가 되었고 미군의 적기는 자주 다리를 파괴하려고 폭격을 가했다. 자동차가 판자로 임시 복구된 어설픈 다리를 건널 때 지원군 도로정리초소원들이 운전자들에게 ‘만만디(천천히)’라고 외치는 바람에 그 다리는 ‘만만디 다리’로 불린다. 어느 날, 왕덕명 지원군 도로정리초소장이 심한 설사로 미란의 집에서 머무는데 미란은 설사에 도토리가 좋다는 말을 듣고서 도토리나무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다리를 접질리게 된다. 그날 해 질 무렵 적군이 갑자기 폭격을 퍼붓자 위급한 상황에서 미란의 어머니는 왕 초소장을 먼저 구하기로 했고 발이 접질린 미란은 부러진 용마루에 깔려 다치게 되지만 다행히 지나가던 지원군 위생차에 의해 구원된다. 미란은 처음에는 자신을 내팽개친 어머니에 대해 서운한 생각이 있었지만 왕 소장과 다시 만나 어머니가 폭격으로 중상을 입었음을 알게 되고 걱정한다. 또한, 돌아가신 아버지와 왕 소장이 중국 항일전쟁, 해방전쟁 시기에 절친한 전우였다는 사실을 통해 어머니의 행동을 이해하게 된다. 미란은 아버지 세대가 한 일에서 숭고한 의의를 깨닫고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며 다리 근처에서 밤낮으로 길을 지나는 지원군 동무들에게 더운물을 공급해 주었다. 왕 초소장의 생일날, 미군의 폭격으로 인해 한 자동차가 다리 위에서 불이 붙자 다리가 터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왕 초소장은 자신이 운전석으로 올라가서 자동차를 몰고 강물로 뛰어들어 장엄한 최후를 맞이한다. 이 희생을 목격한 미란은 깊은 감명을 받았고 왕 소장이 희생하기 전에 주었던 호각을 들고 만만디 다리에서 차량을 인도하기 시작한다.⁹⁾

8) 위의 책, pp.43-63.

한국전쟁 시기 북한 소설에서 중국지원군이 북한 인민군과 형제 같은 존재로 반복적으로 등장한다.¹⁰⁾ 이상 네 편 소설의 내용을 살펴보면 『형제』의 작품 선정이념도 50년대부터 이어진 조·중 우호의 전통적 서사를 계승한 것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 작품집은 사실상 80년대 북한이 중국 항미원조에 대한 정치적 기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형제』는 1984년에 출판된 작품집이다. 그 안에 수록된 첫 번째 소설 〈잊지 못할 추억〉의 구체적인 창작 시간이 확인할 수 없지만 30년 전의 이야기를 추억하는 내용 설정이라는 점에서 1980년대에 창작된 새 작품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1960년이라고 명시된 〈눈보라 속에서〉는 작품집 출판 시기 20년 전의 소설이긴 하지만 수록된 원인을 살펴보았을 때 주인공의 전후 작업 공간이 우의탑 공사장이기 때문에 80년대 북한 우의탑 증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만만디 다리에서〉의 주인공 오미란의 형상에서는 1982~1983년 사이에 중국의 『인민일보』와 북한의 『로동신문』에 보도된 ‘도라지 소녀’ 석길영¹¹⁾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 그녀가 오미란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형제』에 수록된 네 편의 소설은 1980년대 중기 북한이 중국 항미원조에 대한 역사적 기억 양상이나 조·중 관계에 대한 공식적 태도가 문학적으로 투사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네 편의 작품들은 중국지원군에 대한 창작 기교, 서사 주제, 이미지 처리 등에서 뚜렷한 유형화와 일치성을 나타내고 있다.

9) 위의 책, pp.64-96.

10) 신영덕, 「한국전쟁기 남북한 소설과 미군·중국군의 형상화 양상」, 『한중언문학연구』 제 10집, 2003, p.1.

11) 1982년 10월, 중국 『인민일보』는 장의생의 「단풍곡」을 게재하여 한국전쟁 중 중국 지원군에게 봉사적으로 식수를 제공한 북한 소녀 석길영(石吉英)의 사적을 소개하였다. 이 기사는 북한 『로동신문』에도 보도되어 북한 내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로동신문』의 기사는 이 ‘소녀’를 탐방하였으며 후속 보도를 발표했고, 1983년 초에 중국 『인민일보』는 이 속보의 일부분 내용을 다시 게재하였다. 韩淳松 作, 张锦芳 译, 「一往情深的“桔梗姑娘”」, 『人民日报』1983年1月27日.

3. '가정'재건으로 표현된 동맹 관계

가정(家庭)에 관한 서사가 곳곳에 나타나 있는 것이 네 편 소설의 공통된 특징이다. 동아시아 문화에서 가정은 사회 구조의 기본 구성단위이자 개인적 감정 공동체의 중요한 연결고리와 귀착점이다. 『형제』의 네 편 소설은 모두 전선과 후방의 접경지대를 이야기의 공간으로 삼아 중국지원군과 북한 민중들 사이 한 가족처럼 따뜻한 정을 그려낸다. 이들 이야기에서 개인 주인공이 사회주의 형제국의 민중이나 군인들에게서 느끼는 가족애를 체험하며 이를 통해 가정 구조의 전시 '재건' 효과로 거창한 전쟁 서사 속에서 조·중 동맹 관계를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예를 들어 〈잊지 못할 추억〉은 전쟁 시기의 일상을 중심으로 '나'(소년 창해), '나의 어머니, 장옥매의 일상적인 생활이 대부분 편폭을 차지하며 지원군의 전투는 간략하게 언급된다. 소설의 시작에서 보면 마을 자위대장 아저씨가 장옥매를 창해 집으로 데리고 오자마자 창해 모자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형도 누나도 없는 나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장옥매는 친누이처럼 반갑고 정다웠다.”¹²⁾ 시간이 지나면서 “옥매와 우리는 한집안 식구처럼”¹³⁾ 친숙해졌다. 옥매는 매일 긴장한 전투에 매여있었지만, 틈만 나면 창해 집 일손을 도와주었으며 창해에게 말도 태워주고 이따금 방송도 들려주었다. 소설에서는 창해 어머니가 지원군을 대접하려 하지만 옥매의 반대 때문에 화를 내는 장면이 있다.

“옥매! 나는 옥매가 나를 보고 어머니, 어머니해서 친딸처럼 생각했는데 섭섭하구만, 섭섭해.” 어머니는 썰던 떡합지를 짝 밀어놓으며 바람벽쪽으로 돌아앉았다.

“어머니! 그런게 아니예요. 우리가 도와드리진 못하구 계속 신세만 지면 어떻게 해요.” 옥매가 어머니의 팔을 붙들고 사정했다.

“알겠네. 날보고 다신 어머니라고 부르지 말게!” 어머니는 옥매의 손을 뿌리치면서 썩하고 밖으로 나갔다.

“야 이 일을 어쨌으면 좋을까?”하고 한동안 안절부절하던 옥매가 중대부로 달려

12) 『형제』, 앞의 책, p.4.

13) 위의 책, p.8.

갔다.¹⁴⁾

이 플롯에서 창해 어머니와 옥매의 친밀한 관계가 명확히 드러난다. 두 사람은 서로의 행위에서 서먹서먹한 인사치레가 없이 가족이나 친한 친구 사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친밀한 방식으로 교류하는 것이다. 창해의 어머니는 진심으로 장옥매를 가족으로 여기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고 장옥매도 어머니 앞에서는 전투원의 이성적이고 성숙한 모습이 아닌 발랄하고 애교를 부리는 딸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아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박 노인이 지원군 전사가 만들어 준 별통을 통해 자신의 친아들을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하긴 지원군들도 다 내 아들이나 같지. 그토록 나를 위해주고 내 집을 돌봐주는 사람들”¹⁵⁾이라고 하면서 감동이 받는다. 박 노인이 지원군들에게 꿀물을 다시 보내주었는데 위만호 중대장은 군대 규율을 지키기 위해 박 노인의 호의를 사양하자, 이에 박 노인은 화가 난 척했다.

“내 심정을 그렇게도 몰라주다니!”

박노인의 얼굴에는 진정 노여운 빛이 어리었다.

“내 아들이라면 이르지 않을거여...”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리는 박노인의 목소리는 석침하게 갈리었다. 박노인의 목소리와 얼굴에서 그의 진정을 읽은 위만호는 그의 두손을 꼭 움켜쥐며 말했다.

“빠빠! 세세!(아버지 고맙습니다.)”¹⁶⁾

〈잊지 못할 추억〉과 〈아들〉이 군인과 민중 간의 일상적인 교류를 중심으로 다루는 것과 달라 〈눈보라 속에서〉는 왕평산의 구원 행동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소설에서 구원을 받은 북한 여자 리숙희는 혼수상태에 빠졌으므로 왕평산과는 교류할 가능성이 없었지만, 작가는 여전히 소설 안에 가족에게 관한 묘사를 삽입하였다. 혼수상태에 빠진 여성과 막 태어난 아기는 주인공 왕

14) 위의 책, p.14.

15) 위의 책, p.40.

16) 위의 책, p.42.

평산에게 고향에 있는 아내와 아이를 떠올리게 하였으며 이는 그의 마음속에 군인의 온정과 전투의 혈성을 동시에 자극시켰다.

그는 본능적으로 썰매를 돌아보았다. 그는 녀인에게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리숙희는 눈을 무겁게 내려감은채 누워있었다.

왕평산은 아기를 가슴에 포근히 대고 가볍게 흔들었다. 그의 이마살엔 진땀이 송골송골 들었다. 아기를 달래는 그의 눈앞엔 어느덧 고향의 처와 첫딸에 대한 생각이 방불히 떠오르는 것이었다.

자기의 안해가 처음 몸을 풀었을 때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와 축하해주었다.

그날 안해는 침대우에 조용히 누운채 행복에 겨운 미소를 띠우고 있었고 아기는 그의 옆에서 잠들어있었다. 그리하여 온집이 기쁨으로 들끓지 않았던가!

바로 이때였다. 산너머에서 쇠를 깎는 듯한 소리를 내며 미국놈 셋새기 한편대가 머리우로 날아왔다. 왕평산은 그만 가슴을 치미는 울분을 느꼈다.

(이놈들! 두고보자. 이 녀인과 어린애의 불행은 너희들의 죄악이다! 승냥이놈들!)¹⁷⁾

또한 <만만디 다리에서>에서 미란의 어머니는 혼수 전 마지막 순간까지 왕초소장이 물을 마실 수 있는지 관심했다.

기운이 쇠진해진 어머니는 발고랑에 머리를 떨구었다.

“마마(어머니)”하고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꿈결에서 마냥 날아왔다.

무겁게 내리누르는 눈두덩을 가까스로 치며 내다보니 황초소장이 기여오고 있었다.

“(중략)... 사방에 널려있는 나뭇탄사이를 빠져 어머니에게 가니 어머니는 얼굴을 땅에 파묻고 있었다. 어깨를 흔들며 어머니를 불렀다. 그 소리를 들은듯 눈시울을 힘겨우게 뜯 어머니는 나를 알아보자 손에든 물통을 내밀며 마시라고 하더라. 마개가 빠진 물통아구리에서 실오리 같은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허지만 그물을 어떻게 마실 수 있니.

눈앞에 불쑥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 얼굴이 사물거려 나는 저도 모르게 ‘어머니!’ 하고 불렀다. 어머니는 물이 식기전에 마시라고 하면서 꺼실꺼실한 엄지손가락으로 나의 눈굽이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훔쳤다. 그러나 머리를 떨구었다...”¹⁸⁾

17) 위의 책, p.56.

18) 위의 책, pp.78-79.

상술한 내용을 통해 작품집 『형제』에 수록된 네 편의 소설에서 주인공들이 가족애에 대한 감정 이입 심리가 보편적으로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중국지원군 주인공은 항상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순박한 북한 민중에게서 고국의 부모, 처자를 떠올리고 북한 민중의 배려를 받으면서 전투적 신념이 더욱 충만해지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북한 민중들도 지원군에게서 가족과 같은 믿음직한 안정감을 느끼며 이를 통해 멀리 떠난 어느 한 가족의 일원을 연상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가족의 성원은 일반적으로 부재한 성인 남성이다. 아래 <표 1>과 같이 네 편의 소설에서 북한 측 가족 중 성인 남성의 부재는 인물 구조에 있어 공통된 특징으로 나타난다. <아들>에서 박 노인의 아들과 <눈보라 속에서>에서 리숙희의 남편은 모두 인민군으로 전선에서 참전하고 있었으며 <만만디 다리에서>에서 미란의 아버지가 이미 희생되었다. 또한 <잊지 못할 추억>에서는 창해의 아버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창해와 어머니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상황을 놓고 볼 때 창해 아버지 역시 부재중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표1> 『형제』에 수록된 소설의 등장 주인공

소설명	중국지원군 주인공	북한 측 주인공	가정에서 부재중인 남성	지원군의 가정 역할
<잊지 못할 추억>	장옥매	창해 (소년) 창해 어머니 (편모)	창해 아버지 (미 언급)	딸/누나
<아들>	위만호, 곽수봉	박 노인 (혼자 사는 할아버지)	박 노인 아들 (전선에 있는 인민군)	아들
<눈보라 속에서>	왕평산	리숙희(임신부)	리숙희 남편 (전선에 있는 인민군)	오빠(남편같은 보호자)
<만만디 다리에서>	왕덕명	미란 (소녀) 미란 어머니 (편모)	미란 아버지 (열사)	오빠/형제

가정 내부에서 구성원의 결석은 전통적인 가족 구조의 불완전함을 조성한다. 그러나 멀리서 온 지원군들이 이 빈자리를 어느 정도 메워주기 때문에 소설에서 ‘가족 구조’를 재건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북한 민중에게 있어 지원군들은 전쟁 시기 후방에 남아 있는 과부, 노인, 어린이, 부녀 등의 가족 역할을 임시로

충당하게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원군에게 있어 북한 민중은 멀리서 온 그들을 진심으로 맞아주면서 떠나면 이국땅에서 가족과 같은 따뜻한 관심을 다시금 느끼게 하는 존재이다. 이런 이야기 구조 속에서 가족을 잃은 ‘불완전한 가정’과 집 떠난 병사들이 가족과 비슷한 감정의 공동체가 형성되며 이러한 ‘가족애’는 소설의 플롯 전개에 따라 강해지고 조·중 ‘형제 나라’ 사이의 개인적인 소가족과 사회적인 대가족, 작은 사랑과 큰 사랑이 결합하면서 결국 작품에서 조·중 두 나라가 한 가족처럼 친한 사회주의 동맹 관계의 정치적 이념을 해석한다.

4. 도식화의 영웅 서사

영웅 서사는 전쟁 문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제이다. 북한의 당대 문예 정책은 모범적 영웅 인물을 형상화하는 전통이 있으며 조국 해방전쟁문학에서도 이와 같은 영웅적 이미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1950년 6월 30일, 6·25 전쟁 발발 직후 김일성은 중군작가를 접견해 작가들에게 작품을 전투 인민의 손에서 가장 강력하고 예리한 무기로 삼아 인민 전체가 최후의 승리를 거두도록 고무할 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또한 창작의 세분 목표로 북조선군의 용맹성, 점령군에 대한 후방 인민의 휘황한 투쟁 그리고 적의 잔학하고 야만적인 모습을 묘사할 것을 지시했다.¹⁹⁾ 김일성은 1951년 6월 30일 작가와 예술가들의 좌담회에서 인민군 영웅주의 형상화 문제를 재천명하였으며, 조소(朝蘇)·조중(朝中) 친선의 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도록 호소하였고 중국지원군이 전선과 후방에서 보여 준 영웅성과 헌신정신을 긍정적으로 언급하였다.²⁰⁾ 또한, 전후 1960년 11월 김일성은 「천리마 시대에 맞는 문학예술을 창조하자」라는 연설을 통해 전형적인 신세대 영웅은 유쾌하고, 위협에 직면해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용감하게 전진하며, 강인한 의지를 지닌다고 주장했다.²¹⁾ 비록 이 연설의 본래 의도는 북

19) 이은자, 「북한전시소설의 주제 특성에 대한 연구」, 『현대소설연구』 제12집, 한국현대소설연구학회, 2000, p.341.

20) 안함광, 『조선문학사』, 연길 : 연변교육출판사, 1956, p.527.

21) 『金日成文选(1945-1967)』, 北京 : 人民出版社, 1982, p.267.

한 작가들에게 60년대의 노동 영웅을 창작하도록 호소하는 것이지만 이를 통해 북한 문단이 장기간에 걸쳐 영웅 서사의 중요성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또한 영웅의 정의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영웅’개념 자체에 대한 이해는 북한 작가들이 자국의 영웅을 묘사할 뿐만 아니라 중국지원군 영웅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형제』에 수록된 소설은 50년대와 60년대의 이러한 영웅성에 대한 강조와 이해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난다.

첫째는 혁명적 낙관주의의 영웅적 성격이다. 즉 지원군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적극적인 태도와 필승의 신념을 유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잊지 못할 추억〉속의 장옥매는 바쁘고 긴장된 전투 속에서도 언제나 유쾌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지닌 인물이다. 작가는 옥매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그 이튿날도 전투, 그 다음날도 전투, 어느 하루도 전투 없는 날이 쉽지 않았다. 그사이 적들은 여러대의 비행기를 잃고도 계속 집요하게 달려들었다.

그렇수록 옥매는 잠시도 무전기앞에서 떠날 줄 몰랐다. 무전기에선 야무진 전파음이 끊없이 울려나오고 옥매가 전전을 두드릴 때마다 신호등에선 푸른 불빛이 방긋거렸다.

그사이 가름하던 옥매의 얼굴은 깎뚝해지고 쌍가풀진 눈에는 언제나 가는 피줄이 어려있었다.

그러나 옥매의 얼굴에선 언제나 밝은 웃음이 떠날줄 몰랐고 그의 입에선 맑고 구성진 노래소리가 꿰칠줄 몰랐다.²²⁾

〈아들〉의 취사병 곽수봉도 세심하고 담대하며 낙관적인 형상의 전형적인 인물이다. 박 노인의 별이 분가하고 있음을 발견한 곽수봉은 환희에 차 “경사가 났습니다. 경사가.....”²³⁾고 말했고 기분이 좋을 때 그는 중대장과 통역원들에게 아기처럼 한쪽 눈을 찡긋하기도 했고 별통을 만든 뒤에 전사의 근엄한 정신으로 포격 테스트까지 꼼꼼하게 진행했다. 곽수봉의 얼굴이 별에 쏘여 부어오른 모습은 전우들에게 웃음을 자아냈지만, 전사들은 곽수봉을 따라 숨씨를 발휘하

22) 『형제』, 앞의 책, p.10.

23) 위의 책, p.30.

여 별통을 개량하기도 했다.

작가들은 이처럼 지원군의 전투에 대한 전념, 작전의 열정, 화목한 대열 등을 소설에 담아내고 있다.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열정적이고 밝은 전투적 색채로 만들면서 이를 통해 지원군의 정신 면모를 구가한다. 또한, 군대의 전투 격정과 사기는 일반적으로 병사들이 전투의 정당성에 대한 주관적인 확인에 기초한다는 데 고려해 보면 작가들이 작품 속 지원군의 양호한 풍모를 통해 조국해방 전쟁의 정당성과 정의성도 어느 정도 은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아 낼 수 있다.

둘째는 북한 민중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영웅적 행동이다. 지원군이 후방에서 민중의 재산을 지키거나 생명을 구원하는 플롯은 네 편의 소설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잊지 못할 추억〉에서는 창해의 어머니가 미군에 의해 파괴된 옥강교를 복구하는 작업 중 다리를 다쳤고 지원군 고사포 중대의 위생지도원은 창해 어머니를 극진하게 치료해준 일과 〈아들〉에서 지원군 위만호 등이 피난해 나가는 박 노인이 주동적으로 남겨둔 벌꿀에 대해 조금도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쟁 중이라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꿀벌을 잘 챙겨주었으며 노인의 재물을 내버려 두지 않은 일, 〈눈보라 속에서〉의 북한 임산부 리숙희는 민중 철수 도중 미군 때문에 마을 사람들과 헤어지게 되었고 지원군 왕평산이 극악한 환경 속에서도 생사의 갈림길에 선 리숙희 모자를 끈질기게 구원한 일, 〈만만디 다리에서〉에서 미란과 미란의 어머니도 미군 폭격 때문에 위협에 처했을 때 지원군 위생차에 실려 전지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일 등이 모두 지원군의 영웅적 행동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많은 구원과 보호의 플롯은 미국 군인과 중국 군인으로 이루어진 ‘악과 선’, ‘파괴와 보호’의 대립적인 구조를 독자들에게 보여 준다. 즉 사악한 미군은 교통 요충지인 교량과 마을을 미친 듯이 포격하여 북한 백성들에게 큰 재산 손실과 생명 위협을 일으킨 반면 정의로운 중국지원군은 군중의 작은 소품까지도 소중히 여기고 파손된 가옥과 교량을 복구하여 손실을 최소화하고 미군에 의해 생명의 위협을 받는 북한 민중을 보호하고 구원한다. 미군의 악마적인 행위는 북한 인민들에게 침통한 재난을 안겨준 데 비해 중국지원군의 영웅적인 행동은 북한 인민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준다. 작품들은 이러한 정의와 악의 대결에

서 지원군 주인공들의 영웅성을 도의적으로 더욱 분명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셋째는 위협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웅적인 기개이다. 『형제』에 수록된 작품에서 지원군 주인공들은 모두 현실의 어려움과 적군과의 전투에서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미지로 나타난다. 왕평산은 혼자서 리숙희 모자를 구조하던 도중 세 명의 미군과 마주치게 되는데 용맹하고 지략이 있는 그는 격전을 통해 미국 병사를 물리쳐 위협을 제거한다. 소설에서 왕평산은 리숙희 모자를 구하기 위해 중상을 입었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몇 갑절 큰 정신적인 힘이 가슴속에 타오르고 있는 것이었다.”²⁴⁾고 묘사된다. 〈만만디 다리에서〉의 왕덕명도 헌신적인 영웅적 인물로 그려진다. 불타는 차가 진로를 막고 다리가 끊긴 긴급한 상황에서 그는 주저 없이 차를 몰아 강물로 뛰어들어 목숨으로 전우들의 길을 열어주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형제』에 수록된 네 편의 소설에 등장하는 지원군들은 모두 긍정적 이미지로 묘사된다. 그들은 혁명적 낙관주의 정신이 있으며 위협에 처했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웅적인 기개로 싸우며 민중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성장형의 북한 측 주인공들과 달리 지원군들은 등장부터 ‘완벽한’ 영웅 형상으로 그려지며 표준화된 온정, 전투와 희생 외에는 그들의 행동이나 사상적 변화, 충돌 등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50년대 전쟁 시기에 창작된 북한 소설에서 당의 정책에 기반을 두어 도식적인 중국지원군의 형상²⁵⁾과 유사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이유 중 하나는 새로운 세대의 북한 작가들이 중국이나 중국지원군과 직접적인 교류가 있었다기보다는 주로 기존의 서면이나 영상 자료를 통해 중국지원군과 전쟁 상황을 이해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중국지원군 영웅의 이미지는 북한의 일관된 문학적 영웅 개념과 일치하여 문학작품에서 반복적으로 묘사되며 계속해서 도식화되었다. 이를 통해 80년대 북한 사회에서 지원군 영웅주의에 대한 집단적인 인식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24) 위의 책, p.59.

25) 신영덕, 앞의 논문, p.22.

5. 국제주의 시각에서의 이역(異域) 서사

한국전쟁 중 조·중 양국은 모두 사회주의 진영에 속했으며 국제주의의 정치 이념을 공유하였다. 1951년 6월 30일, 김일성은 작가와 예술가 좌담회에서 북한의 문예 종사자들이 소련과 중국지원군을 대상으로 한 예술적 창작이 부족하여 북한에 국제주의적 지지와 격려를 해주는 인민민주주의 국가들을 충분히 대표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²⁶⁾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그는 북한 작가들에게 관련 주제에 대해 수준 높은 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기를 호소했다. 『형제』에 수록된 작품들도 플롯이나 인물 심리, 작품 취지에 있어서 이런 국제주의의 담론을 일관되게 계승하고 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지원군은 계속 전후의 북한 작가들에 의해 국제주의의 이념의 실천자로 묘사되었고 그들은 항일전쟁 시기부터 조·중 양 민족 간의 반제국주의와 계급혁명을 핵심으로 하는 무산계급 국제주의 연합 전통을 계승하여 위기에 처한 북한 인민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이런 이념은 소설에서 명백한 텍스트로 직접 표현되고 있다. 소년 창해는 30여 년이 지나도록 온 힘을 다해 북한을 도와준 지원군 아저씨와 무선전 소녀를 잊지 못하였고²⁷⁾ 박노인은 지원군이 꿀물을 마시던 범랑 컵의 “허리에 둘러쓴 ‘항미원조보가위국’이라는 빨간 글이 또렷이 살아 숨쉬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했다.²⁸⁾ 〈눈보라 속에서〉의 결말에서는 리숙희가 돌을 쪼아낸 소리를 “조·중 량국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맥맥히 흐르는 더없이 숭고한 정신”으로 비유하고 또한 “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 멀리 조국 땅을 떠나 조선 전선에 와서 흘린 중국 인민지원군 용사들의 고귀한 피와 불멸의 낮이, 그리고 또한 가지가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깃들이라는 것”²⁹⁾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다양한 표현은 문학적인 텍스트라기보다는 가

26) *KIM II SUNG SELECTED WORKS I*, PYONGYANG: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76, p.310.

27) 『형제』, 앞의 책, p.21

28) 위의 책, p.42.

29) 위의 책, p.62.

치 지향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만만디 다리에서>는 국제주의 이념을 더욱 생동하게 전달하는 대목이 있는데 소설 속 미란의 아버지는 중국 항일전쟁과 해방전쟁에서 희생된 열사였으며 어머니 또한 포화 속에서 친딸을 버리고 지원군인 왕덕명을 먼저 구원한다. 중국에서 한반도로 온 미란 아버지의 옛 전우인 왕덕명은 귀국한 후 약혼녀와 결혼하려고 했지만, 전투 중 자기의 생명으로 다리를 지켜낸다. 왕덕명이 불이 붙은 차를 강으로 몰고 간 장면을 작품 속에서 고조시키며 그의 희생을 목격한 미란은 마침내 부모와 왕덕명의 행동이 국가나 민족이라는 개념으로는 설명되지 못할 것을 깨닫게 된다.³⁰⁾ 이같이 작가는 미란의 시각을 통해 두 나라가 치열한 투쟁 속에서 맺어진 계급적 우애와 혁명적 의리에서 나오는 국제주의적 감정을 독자들에게 보여 준다.

지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지원군은 한반도 외부에서 온 외국인이다. 북한 작가들은 지원군의 옷차림, 언어, 고향 등에 대한 묘사를 통해 문학 서사에서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이역적인 상상을 불가피하게 교차시킨다. 중국지원군과 북한 민중 사이의 언어 차이는 네 편의 소설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된다. 작품들 속에서 북한 민중들은 일반적으로 ‘니하우(안녕하세요)’ ‘신쿠(수고)’ ‘쎬쎬(감사합니다)’ 등 간단한 중국어 몇 마디만을 알고 있으며 지원군을 처음 만났을 때는 궁급하게 바라보다가 언어 대신 웃음이나 손을 꼭 잡아주는 몸짓으로 환영의 의미를 표현한다. 또한, 일부 소설에서는 지원군 주인공의 성장 배경과 관련하여 중국 본토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기도 한다. 이러한 묘사는 흔히 항일 서사와 연관이 있다. 예를 들어 <잊지 못할 추억>에서 장옥매가 맑은 강물을 보며 자기의 고향인 청해(靑海)를 떠올리고, 가족들이 일본놈들에게 끌려 동북 무순탄광으로 이주했던 과거를 생각한다.³¹⁾ 이와 같은 서사에서는 일제 침략 하의 구(旧) 중국과 미제 침략 하의 ‘현(現) 조선’(소설 중의 전쟁 시간)은 인접한 시간과 공간에서 비슷한 싸움을 벌이며 소설이 전개된다. 중국이 작품에서 제국주의 때문에 아름다운 삶이 파괴된 전시 북한과 유사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 ‘항일 중

30) 위의 책, p.94.

31) 위의 책, p.12.

국'과 '항미 조선'은 북한 작가들의 펜 끝에서 지리적 공간과 역사적 시간에 있어서 모두 국제주의적 연합의 연장선으로 나타난다.

문화적 측면에서 볼 때, 지원군과 북한 민중의 교류는 다국적 문화교류를 가져온다. 작품 속의 지원군들은 외래문화 수입자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한민족 문화를 수용하고 있다. 이는 물질적인 교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데 예하면 지원군 중대 식당에서 제공된 만두나 한국 어머니와 처녀가 만든 떡과 순두부찌개 등과 같은 음식이다. 또한 <만만디 다리에서>의 미란이 소설 처음 등장할 때에는 전통 한복을 입고 있었으며 발에는 지원군 전지병원의 간호사가 만든 중국식 형깁신을 신고 있었다.³²⁾ 물질적 교류 외에도 지원군은 북한 민중들이 중국의 역사, 문화, 혁명 전통, 정치 관념과 대중 생활을 이해하는 교량 역할을 한다. <만만디 다리에서>와 <잊지 못할 추억> 두 작품 모두 지원군이 북한 사람과 함께 「동방홍(東方紅)」을 노래는 장면이 있다. 그리고 <잊지 못할 추억>에서 창해모자는 지원군 장옥매로 부터 청해(靑海)의 민요를 배우게 되고³³⁾ <만만디 다리에서>의 왕덕명은 전투가 없을 때 미란에게 성도(成都)의 교외에 있는 두보초당(杜甫草堂), 연극 「백모녀(白毛女)」,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五星紅旗), 중국 인민이 '항미원조보가위국(抗美援朝保家衛國)'의 가치 등을 이야기해주었다.³⁴⁾ 여기서 북한 작가들은 음식, 노래, 복장, 혁명 이야기 등 구체적인 것을 통해 중국지원군의 이질적 문화 이미지를 그려낸다.

한국전쟁 시기 중국지원군은 북한 측의 청을 받아 한반도에 진입하여 작전을 벌였으며 북한의 유력한 전시 정치, 군사적 맹우였다. 일부 학자들이 밝힌 대로 북한 문학에서 중국지원군은 국제주의 전우³⁵⁾, 국제주의 정신의 실천자로 등장하며³⁶⁾ 『형제』에 수록된 네 편의 소설에서도 이 전형적인 서사 주제를 이어갔

32) 위의 책, p.64.

33) 위의 책, p.13.

34) 위의 책, p.85.

35) 신영덕, 앞의 논문, 2003, p.19.

36) 주춘홍, 『한국전쟁기에 중국어로 번역된 북한문학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논문, 2020, pp.103-111. 참조.

다. 그러나 지원군은 한반도의 '외래자'로서 일반 북한 민중에게는 친숙하면서도 낯선 존재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북한 작가들은 중국지원군을 부각할 때 정치, 지리, 문화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복합적인 이역적 상상을 드러낸다.

6. 맺음말

이상 작품집 『형제』에 수록된 네 편의 단편소설 속 지원군 서사 특징에 대하여 등장인물 구조, 지원군의 영웅성 주제, 국제주의 이역적 상호작용 등 세 가지 방면에서 자세히 고찰해보았다. 북한의 중국지원군 소설은 지원군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데 문예 정책과 정치적 이념의 깊은 영향을 받는다. 『형제』에 수록된 소설은 조·중 우의를 찬양하고 조·중 동맹을 선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조·중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가정'재건의 효과로 표현하고 지원군의 영웅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국제주의적 정치 이념을 전달한다. 중국지원군은 작품 속에서 북한을 지키는 친우, 국제주의 실천자, 양국 우의의 건설자와 인문교류의 특수한 주체로 묘사된다. 이를 통해 우리는 1980년대 북한 인민들이 한국 전쟁 시기 사회주의 진영의 맹우이자 이웃인 중국에 대해 '형제적 나라'라는 집단적 기억을 갖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형제적 나라'의 문학 형상화는 1950년대의 조·중 우호, 영웅주의, 국제주의 등 서사 전통을 거의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받은 것으로 보여 준다. 하지만 이 고정된 서사 전통도 시대에 따라 완전히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고귀한 사람』(이태준, 1951), 『나의 옛 친우』(윤시철, 1958) 등을 비롯하여 50년대의 북한 소설들은 중국지원군과 북한 인민군 사이의 협동적 작전을 많이 다루었는데 이에 중국지원군은 "북한의 인민군과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형제"³⁷⁾ 같은 형상으로 묘사되었다. 이와 달리 『형제』에 수록된 단편소설들은 모두 후방에 관한 이야기로 지원군과 인민군이 같이 전투하는 소설은 한 편도 수록되지 않았다. 이는 과연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전쟁 이후 북한 소설에서 중

37) 신영덕, 앞의 논문, p.22.

국지원군 이미지의 변화에 내포된 심층적인 정치적 함의와 역사적 맥락은 조·중 관계와 심지어 한중관계 등 동북아 사회의 지역적 환경과도 긴밀한 연관이 있을 것을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형제』를 중심으로 80년대 북한의 중국지원군 문학 형상화 양상을 부분적으로 살펴봤다. 하지만 앞으로 북한의 중국지원군 문학 서사 자료를 진일보로 정리하여 연구하는 작업 또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1. 단행본

- 안함광, 『조선문학사』, 연길 : 연변교육출판사, 1956.
『형제』, 평양: 문예출판사, 1984.
孟华 主編, 『比较文学形象学』, 北京: 北京大学出版社, 2001.
金日成, 『金日成文选(1945-1967)』, 北京: 人民出版社, 1982.
KIM II SUNG, KIM II SUNG SELECTED WORKS I, PYONGYANG: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76.

2. 논문

- 신영덕, 「한국전쟁기 남북한 소설과 미군·중국군의 형상화 양상」, 『한중인문학연구』 제10집, 한중인문학회, 2003, pp.1-26.
이은자, 「북한전시소설의 주제 특성에 대한 연구」, 『현대소설연구』 제12집, 한국현대소설연구학회, 2000, pp.337-361.
주춘홍, 『한국전쟁기에 중국어로 번역된 북한문학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논문, 2020.
常 彬, 「北朝鲜作家笔下的朝鲜战争——1950年代中国报刊刊载一瞥」, 『河北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12年第6期, pp.8-14.
——, 「叙事同构的中朝军民关系——抗美援朝朝文学论」, 『河北学刊』 2013年第33卷第1期, pp.99-103.

3. 신문지

- 韩淳松 作, 张锦芳 译, 「一往情深的“桔梗姑娘”」, 『人民日报』 1983年1月27日.
刘正学·冯志远·李突, 「让朝中人民友谊世代相传——朝中友谊塔扩建工程胜利竣工」, 『人民日报』 1984年10月15日.

논문 접수일	2023년 05월 03일
심사 완료일	2023년 05월 29일
게재 확정일	2023년 06월 08일

Abstract

A Study of the Narrative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 Army in
the North Korean Short Stories in 1980s
-Focusing on the anthology *The Brother*-

Wu, Ming

This article analyzes how North Korean writers depict the Chinese Volunteers in the Korean War through the short stories 'Unforgotten Memory', 'Son', 'In Blizzard', and 'On the Slowly Bridge' in the anthology *The Brother* published in 1984. These four stories reflect the realities of the 1980s, including the expansion of the Sino-Korean Friendship Tower in North Korea and the story of the 'Bellflower Girl'. They offer insights into North Korea's historical memory of Chinese support during the Korean War and their official attitudes towards North Korea-China relations in the early 1980s, presented within the realm of literature. The analysis of the texts revealed that the four works displayed distinct typification and consistency in their creative techniques and the construction of images portraying the Chinese volunteers. Firstly, the texts portray the socialist alliance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through the narrative of familial love, presenting a textual character of 'family reconstruction' between the main characters, who are Chinese volunteer soldiers, and the North Korean people. Secondly, the texts emphasize heroic narratives, portraying all Chinese Volunteer soldier characters as courageous figures with a revolutionary spirit of optimism, unafraid to confront danger. Thirdly, the texts consistently uphold the ideology of internationalism inherited from the time of the Anti-Japanese War, while also reflecting the North Korean writers' alien imagination of China as a country outside of Korean peninsula. In the four stories of *The Brother*, the Chinese volunteer soldiers assume a special role for humanistic exchange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embodying the image of friends who safeguard North Korea, practitioners of internationalism, and contributors to the friendship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This offers insights into the collective memory of Chinese assistance to North Korea against the United States during Korean War within North Korean society during the

early 1980s.

Keyword *The Bother*,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 Army, Korean War, Campaign to resist U.S. aggression and aid North Korea, Heroic narrative, North Korean Literature

清州古印刷博物館 소장 『唐宋八家詩選』 詩作選定에 대한 일고찰

崔 婷*

국문요약

『唐宋八家詩選』에는 李白, 杜甫, 韋應物, 柳宗元, 歐陽修, 王安石, 蘇軾, 黃庭堅 등 당송팔가의 시자들이 수록되어 있다. 고문 영역에서의 ‘唐宋八大家’는 韓愈, 柳宗元, 歐陽修, 蘇洵, 蘇軾, 蘇轍, 王安石, 曾鞏 등을 가리킨다. 『唐宋八家詩選』의 ‘당송팔가’는 산문 팔대가와는 다르다. 시가 영역의 ‘당송팔가’는 송나라후기부터 관용된 팔대가를 가리킨다. 『唐宋八家詩選』의 ‘팔가’에는 韓愈 대신 韋應物이 속해 있다. 이것은 韓愈의 僻字를 많이 사용하고 괴상하고 가파른 시어들을 쓰면서 대담하게 새로운 예술적 경지를 추구하는 시풍이 『唐宋八家詩選』에서 시작을 취하는 기준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唐宋八家詩選』의 시작 선정 기준과 수록된 시작들의 특징을 보면, 당송 시를 병행시키면서 송시 중에서도 당시의 풍격을 보여주는 시들을 선호하였고, 情景交融, 自然簡單한 시작들과 알기 쉽고 배우기 쉬운 시작들을 수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팔가’의 선정기준과 팔가들의 시작의 특징을 살펴봐도 확인할 수 있다. 『唐宋八家詩選』은 시인의 개성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館閣의 수요에 알맞은 시작들을 수록했다. 『唐宋八家詩選』은 중국의 시작을 선별하여 수록할 때 五律, 七律, 七絶 등 세 가지 근체시 시작들을 묶어 律詩나 七言絶句를 편집한 시선집을 만들었다. 안평대군과 집현전 학자들은 당시 조선의 실정에 맞게 시학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三體詩’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삼체시 외에 악부시, 가행체시를 포함한 고체시와 근체시의 율격을 엄격히 지키지 않은 시작들도 수록하였다.

주제어 唐宋八家詩選, 당송팔가, 선정기준, 삼체시, 악부시

* 中國北京語言大學校 國際中文學院 講師

〈목차〉

1. 서론
2. 『시선』의 당송팔가
3. 三體詩와 樂府詩
4. 『시선』 시작의 선정기준
5. 『시선』에 수록된 시작의 특징
6. 결론

1. 서론

『唐宋八家詩選』(이하 『시선』)은 世宗26년(1444년) 安平大君 匪懈堂 李瑢(1418-1453)을 비롯한 집현전 학사들이 편찬한 중국 당송시대의 시선집이다. 『시선』에는 李白, 杜甫, 韋應物, 柳宗元, 歐陽修, 王安石, 蘇軾, 黃庭堅 등 8명의 당송 시인들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시선』은 李瑢의 序文을 시작으로 崔恒, 樸彭年, 申叔舟, 李善老, 李埏, 成三問 등 7편의 序跋記贊문을 실었다.

『시선』은 총10권으로 五言律詩, 七言律詩, 七言絶句 등 三體詩 편성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1, 2, 3에는 각각 61편, 66편, 64편의 五言律詩가 실려 있고, 권4, 5, 6, 7에는 각각 61편, 56편, 65편, 58편의 七言律詩가 실려 있다. 그리고 권8, 9, 10에는 각각 72편, 93편, 72편의 七言絶句가 실려 있다.

『시선』에 관한 연구는 黃渭周(2003)과 李旻貞(2011), 심경호(2018), 최웅권, 진사우(2022) 등이 있다. 黃渭周(2003)는 주로 조선조 中國 詩選集 編纂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시선』에 대해서는 간략히 소개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李旻貞(2011)은 『시선』의 편찬 동기와 구성 체계, 수록 양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 보았다. 심경호(2018)는 『시선』에 수록된 서문 4편의 내용을 살펴보았으나 『시선』에 대한 전체적인 고찰은 하지 않았다. 최웅권, 진사우(2022)는 『시선』에 수록된 시작들을 자세히 분석하여 그 底本을 밝히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최웅권, 진사우(2022)는 또한 그 동안의 『시선』 연구에서 시인과 시작의 선정 기준에 관한 논의가 부족하였고 이러한 연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고려 중기부터 이미 ‘李杜韋柳, 歐王蘇黃’이라는 설법이 있었다. 그러나 『시선』에 와서야 처음으로 명확하게 ‘당송팔가’라는 개념을 확정지었다. 『시선』에서 당송 8명의 시인들을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들의 수많은 시작 중에서 어떤 작품들을 선정하였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등의 문제는 『시선』 연구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연구가 이루어져야만 『시선』에 대한 심도 있고 전면적인 연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2. 『시선』의 당송팔가

명나라 초엽의 朱佑(1314-1376)는 韓愈, 柳宗元, 歐陽修, 蘇洵, 蘇軾, 蘇轍, 王安石, 曾鞏 등 8명의 시인들의 시작을 수록하여 『팔선생文集』을 편찬했다. 후일 명나라 말년의 茅坤(1512-1601)이 『팔선생文集』에 기초하여 『唐宋八大家文鈔』를 편찬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唐宋八大家’라는 명칭이 고문 영역에서 고착되었다. 그러나 『시선』에서의 ‘당송팔가’는 이와 달리 李白과 杜甫, 韋應物, 柳宗元, 歐陽修, 王安石, 蘇軾, 黃庭堅 등 8명을 가리킨다. 安平大君이 이들을 ‘당송팔가’라고 명명한 것은 단순한 私見이 아니라 신라 말엽부터 문단에 끼친 당송 시가의 영향력과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 역사적 기초가 있었기 때문이다.

‘李杜韓柳’라는 명칭을 최초로 사용한 것은 중국 송나라의 陳善이다. 그의 『捫虱新話·李杜韓柳有優劣』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당나라 때 시에서는 李杜를 손꼽았고 文章에서는 韓柳라 하였다(唐世詩稱李杜, 文章稱韓柳).”¹⁾ 陸遊에게도 七言絕句로 「與兒輩論李杜韓柳偶成」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런 說法은 모두 시가와 文章을 통틀어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송나라 때에 와서는 ‘歐王蘇黃’이라는 명칭이 나타났다. 胡仔의 『茗溪漁隱叢話後集』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당나라 때에 李杜韓柳라는 說法이 있었다면 本朝(宋代)에는 歐王蘇黃이라는 명칭이 있다(若唐之李杜韓柳之稱,

1) 陳善, 『捫虱新話』, 商務印書館, 1960, p.34.

本朝之歐王蘇黃已存).”²⁾ 여기서 주목되는 부분은 당송 때 보편적으로 거론한 韓愈와 韋應物에 대한 문제이다. 조선조 전기에 와서 ‘李杜韓柳, 歐王蘇黃’이라는 칭호는 세간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 “당나라 때에는 文運이 흥기했는데… 그때 李杜韓柳가 으뜸이고 그 뒤로 많은 문인들이 배출되었다. 송나라 때에는 歐蘇가 윗가해 당나라의 文運을 일으키려 했다(唐興文教大振…逮至李杜韓柳, 然後渾涵汪洋, 宋之歐蘇能奮起, 追秩前光).”³⁾ “世宗17년 (1435년)에 集賢殿大提學 孟昞은 성균관 유생들이 경학을 공부하는 여가에…李杜韓柳, 歐王蘇黃의 시를 읽을 것을 제청하였다(成均館儒生們經學餘暇…李杜韓柳, 歐王蘇黃).”⁴⁾ 이런 설법들을 보면 『시선』의 ‘팔가’에는 韓愈 대신 韋應物이 속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蘇軾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위응물의 시작이 높은 위치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는 “李白과 杜甫 이후에도 시인들이 계속 배출되었다. 간혹 높은 품격을 지닌 시들도 있었으나 그 재능은 이상적이지 못하였다. 다만 위응물과 유종원이 섬세하면서 화려함을 시작품에 드러냈고 담백한 경지에 이르렀다. 내가 따를 수가 없다(李杜之後, 詩人繼作, 雖間有遠韻, 而才不逮意, 獨韋應物, 柳宗元發纖穠於古簡, 寄至味於淡薄, 非餘子所及也).”⁵⁾ 라고 말하였다. 소식은 능히 이백, 두보와 비견될 만한 시인은 없다고 여겼다. 그 가운데서 선택한다면 위응물과 유종원을 손꼽을만하다고 여겼다. 소식의 뒤를 이어 蔡正孫의 『詩林廣記』, 魏慶之의 『詩人玉屑』 등 詩話에서도 위응물과 유종원을 나란히 높은 위치에 올려놓았다. 曾季狸도 『艇齋詩話』에서 “선인들은 시작을 논할 때 처음에는 韋蘇州나 柳子厚를 몰랐다. 두 사람은 東坡에 이르러 그 시가 인정받았고 그로부터 위응물과 유종원을 나란히 도연명과 같은 위치에 놓았다(前人論詩, 初不知有韋蘇州, 柳子厚…二者至東坡而後發此秘, 遂以韋柳淵明).”⁶⁾ 라

2) 胡仔, 『苕溪漁隱叢話』, 人民文學出版社, 1962, p.235.

3) 徐居正, 「牧隱詩精選序」, 『韓國古典文集叢刊』 제5집, 韓國民族文化推進會, 1996, p.178.

4) 孟昞, 『世宗實錄』 卷68, 世宗十七年六日丙申, 『朝鮮王朝實錄』 卷3, p.639.

5) 蘇軾, 『書黃之思詩集後.孔凡禮注:蘇詩文集』, 中華書局, 1986, p.2113.

6) 丁福保輯, 『歷代詩話續編』, 中華書局, 2006, p.789.

고 말했다.

고려시대 중반부터 소식의 영향력은 자타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조선조 초기에 와서도 宋詩風과 더불어 소식의 열기는 식지 않았다. 이것은 위응물이 ‘팔가’로 선정될 수 있는 데 큰 영향을 주었으리라 생각한다. 둘째로 中唐詩人인 韓愈는 두보를 전범으로 삼으면서 동시대의 白居易처럼 平易한 시풍을 추구하지 않았다. 僻字를 많이 사용하고 괴상하고 가파른 시어들을 쓰면서 대담하게 새로운 예술적 경지를 추구해 나갔다. 한국에서도 고려 시기의 林椿부터 韓愈의 생소하고 괴이하며 험준한 시어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익숙히 알고 있었다. 林椿은 “大曆年間에 文士로는 昌黎와 杜甫이다…세속에 물젖지 않고 명성 또한 높으나 매우 두렵게 느껴진다(大曆能文士, 昌黎與杜甫…免使世俗關, 名高亦可懼).”⁷⁾ 고 하였다. 여기에서 두려움의 대상은 韓愈이다. 안평대군도 “선인들이 이르기를 시를 구하는데 가장 취할 만한 것은 平易한 것이다. 기괴하고 억지로 짜 맞추는 시는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⁸⁾고 지적한 바가 있다. 이것은 시작을 취하는 기준은 韓愈의 시풍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詩賦로 시험을 보는 유생들에게도 어울리지 않았을 것이다.

匪懈堂은 陶淵明을 비조로 하는 산수자연 시인들을 숭상하면서 산수자연 시가 가지는 담백하고 청담한 풍격을 선호하였다. 匪懈堂의 「半山精華序」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왕형공의 시는 청담하면서 화려하고, 오묘하면서 단아하고 절주도 있다. 그의 시작은 도연명을 전범으로 삼고 사령운을 답습했다(王荊公之詩清淡而華妙, 高雅而從容, 其為作也祖淵明而宗靈運).”⁹⁾ 이는 왕안석에 대한 평가이지만 匪懈堂이 陶淵明을 몹시 숭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중국에서는 陶韋이라는 명칭으로 위응물의 시풍이 도연명을 답습했다고 여겼다. 『시선』에 수록된 시작을 보면, 위응물의 五言律詩가 52%를 차지하고 있고 두보 다음으로 그 수량이 많다. 위응물은 시구의 조탁

7) 林椿, 「西河先生集」, 「漢陽吳賢良世才見語, 以詩謝之」卷1, 『韓國古典文集叢刊』 제1집, 韓國民族文化推進會, 1996, p.211.

8) 李瑢, 『唐宋八家詩選 詩選序』, 淸州고인쇄박물관소장, 1444.

9) 李瑢, 「半山精華序」, 한국 성균관대학교 尊經閣 소장, 1705.

과 對仗의 운용, 聲律의 조화에 힘썼고 五言律詩의 창작 기교에 치중하였던 대략 연간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위응물의 시는 고려시기에 와서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李穡의 『牧隱詩稿』에 의하면 "고려 말 稼亭李穀의 문집에서 「韋蘇州集」을 발견할 수 있었다(稼亭所畜唐詩中有韋蘇州集)."¹⁰⁾ 그 뒤로 위응물은 한국 문단에서 간간히 소개되면서 맥을 이어갔고 조선 초에 팔가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李瑢는 위응물의 시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정밀하면서 아름답고, 호방하여 매임이 없는 것이 위응물의 시이다(精深而妙麗, 豪放而不羈, 蘇州之詩也)."¹¹⁾

3. 三體詩와 樂府詩

李塏는 『시선』 後序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五·七言短律과 七言絶句 중에서 모범이 될 만한 몇 수를 모아 10권으로 나누어, 읽고 보기 편하게 하였다(采五七言短律及七言絶句等可爲楷範者凡若干首, 分爲十卷, 以便觀閱)."¹²⁾ 李塏는 律詩와 絶句를 대조하면서 五·七言短律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五·七言短長律의 '長'자가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短律이라는 것은 대체로 律詩가 여섯 구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長律이라는 것은 여덟 구를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삼체시'라는 명칭은 송나라의 周弼(1194-1255)이 편찬한 唐代詩歌集 『三體詩』에서 유래되었다. 이 시선집은 唐詩 중에서 五言七言律詩와 七言絶句만 수록하였는데 '삼체시' 혹은 '三體唐詩'라고 하였다. 삼체시는 시가의 형식과 작시법을 몹시 중요시하였기에 그 영향력이 중국, 조선, 일본 등 나라에서 지대했다. 황위주(2003)의 考證에 의하면 『三體詩』는 조선조 초기에 이미 조선에 流播되었으며 經筵에 소장되었다. 世宗18년(1436년) "經筵에 소장되어 있던 善本(三體詩)을 하사하면서 開刊을 명하였다(世宗出賜經筵所藏善本, 下令開刊)."¹³⁾

10) 李穡, 『牧隱詩稿』 卷6, 『韓國古典文集叢刊』 제4집, 韓國民族文化推進會, p.20.

11) 李瑢, 『唐宋八家詩選, 詩選序』, 청주고인쇄박물관소장, 1444.

12) 李塏, 『唐宋八家詩選, 詩選後序』, 청주고인쇄박물관소장, 1444.

이리하여 청주에서 『三體詩法』이 간행되었던 것이다. 안평대군 李瑢은 「香山三體法」序에서 "내가 다행히 (백거이 시집)元本을 얻어 보았는데 분량이 너무 방대하고 번잡하여 오늘 三體詩順으로 배열하여 '香山三體法' 이라고 명하였다 (餘幸得元本, 浩穰繁亂, 今以三體類而出之, 名曰三體法)."14)고 하였고 金佺은 후일 『海東文獻總錄』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香山三體法은, 匪懈堂이 白樂天의 五言四韻, 七言四韻 및 七言絕句로 배열하였는데 제목을 『香山三體法』이라 달았다(香山三體法, 匪懈堂選自樂天五言四韻及七言四韻, 七言絕句, 名曰香山三體法)."15)

중국은 南宋에서 元나라에 이르기까지 近體詩 선집을 편찬하는 풍기가 유행되었다. 趙師秀의 『眾妙集』, 劉客莊의 『千家詩』, 周弼의 『三體詩』, 方回的 『瀛奎律髓』, 元好問의 『唐詩鼓吹』, 於濟와 蔡正孫의 『精選唐宋千家聯珠詩格』 등 수많은 근체시 시선집이 편찬되었다. 서거정은 「四佳集」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처음으로 『영규율수』를 접했는데 명가들의 뜻을 해석하기 너무 어려웠다. 시집에 담은 시들을 읽어보니 『唐詩鼓吹』, 『三體詩』 등과 다르고 그 풍격이나 批點도 『須溪集』과는 거리가 멀다."16) 그 당시 조선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시선』은 중국의 시작을 선별하여 수록할 때 五律, 七律, 七絕 등 세 가지 근체시 시작들을 묶어 律詩나 七言絕句를 편집한 시선집을 만들었다.

안평대군과 집현전 학자들은 당시 조선의 실정에 맞게 시학을 진흥시키기 위해 '三體詩'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삼체시 외에 악부시, 가행체시를 포함한 고체시와 근체시의 율격을 엄격히 지키지 않은 시작들도 수록하였다. 삼체시 格律의 규칙을 따르지 않고 삼체시라는 큰 타이틀 아래서 시선집을 편찬하였던 것이다.

主纂 匪懈堂 李瑢은 序文에서 명확하게 '三體詩'순으로 『시선』을 편찬하고

13) 鄭麟趾, 三體家法跋, 「關於韓國編撰的中國詩選集研究」, 『中國詩歌研究』 제2집, 中華書局, 2003, p.234, 黃渭周(2003)에서 재인용.

14) 李瑢, 「香山三體法序」, 『香山三體法』, 봉좌문고장,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 증중 10년(1515)경.

15) 金佺, 『海東文獻總錄』, 學文閣, 1969, p.559.

16) 徐居正, 「四佳集」 52卷, 第25詩類, 『韓國古典文集叢刊』 제11집, 한국민족문화추진회, 1996, p.127.

‘三體詩’로 나누어 詩體 별로 모아 10권으로 만들었다(以三體法彙而集之, 分爲十卷, 名曰『唐宋八家詩選』).¹⁷⁾ 고 말했다. 李瑢과 집현전 학자들이 『詩選』을 ‘三體詩’ 편찬법으로 펴내려고 한 의도를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

詩體	卷次	唐宋八家
五言律詩	卷1(61首)	李白27首, 杜甫34首
	卷2(66首)	杜甫66首
	卷3(64首)	韋應物16首, 柳宗元3首, 歐陽修9首, 王安石21首, 蘇軾12首, 黃庭堅3首
七言律詩	卷4(61首)	李白5首, 杜甫56首
	卷5(56首)	杜甫26首, 韋應物5首, 柳宗元9首, 歐陽修16首
	卷6(76首)	王安石37首, 蘇軾39首
	卷7(47首)	蘇軾28首, 黃庭堅19首
七言絕句	卷8(72首)	李白34首, 杜甫13首, 韋應物12首, 柳宗元13首
	卷9(93首)	歐陽修14首, 王安石79首
	卷10(72首)	蘇軾52首, 黃庭堅20首

그러나 『시선』에서는 三體詩의 形式만 갖춘 樂府詩도 三體詩 부류에 수록하였다. 李白의 「清平調」(卷1), 「峨眉山市歌」(卷1) 등은 원래 악부시 가행체 시가에 속한다. 중국에서는 역대로 고체시의 범주에 넣었다. 李白은 五言律詩에 매우 능하다. 그러나 『시선』에 수록된 五言律詩 중에서 格律에 맞지 않는 경우도 찾아 볼 수 있다. 권1에 수록된 「送趙雲卿」을 보면 “白玉一杯酒, 綠楊三月時。春風餘幾日, 兩鬢各成絲。”와 같은 시구가 있는데, 이 시는 首聯의 對仗은 정확하나 頷聯의 對仗은 틀렸다. 格律에 얽매이지 않은 셈이다. 권1에 수록된 「南陽送客」을 보기로 하자. “鬪酒勿爲薄, 寸心貴不忘。坐惜人去, 偏令遊子傷。離顏怨芳草, 春思結垂楊。揮手再三別, 臨岐空斷腸。”, 여기서 중간 구절

17) 李瑢, 『唐宋八家詩選, 詩選序』, 청구고인쇄박물관소장, 1444.

의 경우, 비록 對仗은 工整하나 聲律에 맞지 않다. 권2의 七言律詩 「贈郭將軍」을 보자. "將軍少年出武威, 入掌銀台護紫微。平明拂劍朝天去, 薄暮垂鞭醉酒歸。愛子臨風吹玉笛, 美人向月舞羅衣。疇昔雄豪如夢裏, 相逢且欲醉春暉。", 이 시는 平韻으로 入句했지만 出句는 平仄이 聲律에 맞지 않다. 권8의 七言絶句 「山中與幽人對酌」도 格律에 부합되지 않는 歌行體 詩歌이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七言律詩는 李白 이후에 성숙되었고 李白은 近體詩의 格律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분방한 個性을 지니고 있었다. 杜甫는 5·7언 律詩에서 매우 큰 성과를 거둔 시인이다. 그러나 「城西陂泛舟」(卷5)의 頷聯, 頸聯에서 모두 失粘을 하고 있다. 이백과 두보의 이러한 시작들은 樂府詩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선』은 이러한 시작들도 삼체시 부류에 수록한 것이다.

4. 『시선』 시작의 선정기준

1) 당송 시에 평등한 지위를 부여하여 선정

『시선』은 唐宋 詩를 평등하게 여기고 선별하였다. 안평대군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씨의 당나라가 우뚝 일어나고 조 씨의 송나라가 뒤를 이어 일어나면서 시도가 중흥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李唐崛起, 趙宋迭興, 可謂詩道之一中興。)."18)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안평대군은 당송 시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당시와 유일하게 비견할 수 있는 것은 송시이다. 안평대군은 송시를 당시 이후 시가 발전의 최고봉으로 여겼으며 당송 시에 대해서 모두 개방적인 태도를 취했다. 시편 수량은 시체와 시인 개인에 따라 달랐다. 근체시의 발전 역정을 살펴보면 五言絶句는 漢代에 산생되어 '初唐四傑'에 이르러 그 형태를 갖추었고 당나라 때에 와서 최고봉을 이루었다. 律詩의 발전은 絶句보다 늦다. 南朝 永明 때의 '四聲說'은 律詩와 聲律의 틀을 세웠고 初唐에서는 '粘對'규칙을 制定하였으며 盛唐에 와서 두보에 의해 성숙되었다. 그러나 律詩를 대량으로 창작한 것은 晚唐과 宋이었다. 안평대군은 총 191수의 五言律詩를 선정하였는데 李

18) 李瑄, 『唐宋八家詩選, 詩選序』, 청주고인쇄박물관소장, 1444.

白, 杜甫, 韋應物 등 唐代 시인의 시작들을 집중적으로 수록하였다. 이는 安平大君이 唐代의 五言律詩가 이미 성숙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七言律詩는 237수가 수록되었는데 주요하게 杜甫, 蘇軾, 王安石에 집중되었다. 이는 七言律詩가 杜甫에 의해 성숙되고 宋代에 와서 그 맥을 이어가는 추세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李杜韋柳와 같은 唐代 시인들의 경우, 五言律詩, 七言絕句가 七言律詩를 능가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宋代詩人 歐王蘇黃의 경우에는 七言律詩, 七言絕句가 五言律詩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록된 시편의 수량을 놓고 볼 때 두보가 1위이고 왕안석이 2위이며 소식이 3위이다. 안평대군이 『시선』에서 당송시를 병행시키면서 송시를 더 많이 수록한 것은 송시가 格律規則을 더 엄격히 지키고, 풍격이 더 다양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시선』권5에서 歐陽修의 七言律詩 「城西陂泛舟」, 권6에서 蘇軾의 七言律詩 「風水洞和李節推」, 권7에서 黃庭堅의 七言律詩 「和荅元明黔南贈別」 등은 모두 聲律 규칙을 엄격히 지킨 七言律詩이다. 또한 시가를 선정할 때 송시 중에서도 당시의 풍격을 보여주는 시들을 선호하였다.

〈표 2〉

卷數	卷1-3	卷4-7	卷8-10	合計
詩體	五言律詩	七言律詩	七言絕句	三體詩
李白	27	5	34	66
杜甫	100	82	13	195
韋應物	16	5	12	33
柳宗元	3	9	13	25
歐陽修	9	16	14	39
王安石	21	37	79	137
蘇軾	12	67	52	131
黃庭堅	3	19	20	42
合計	191	240	237	668

2) 情景交融, 平淡한 山水田園詩를 선정

『시선』은 情景交融, 自然簡單한 시작들을 선호하였다. 안평대군은 중국의 도연명을 몹시 숭상했으며 조선시대의 명화가 安堅에게 命하여 「夢遊桃源圖」를 그리게 하였고 21명의 文士들로 하여금 序跋을 짓게 하였다. 안평대군은 또한 『시선』을 펴내면서 자연경물을 묘사하고 서정적이고 情景이 交融된 시작을 중요시했다. 그의 「詩出自然」이라는 관점은 시의 「感興」 전통을 이어받은 것으로 사물에 의탁하여 인생의 감수를 토로하는 것이다. 李白, 杜甫의 자연 산수에 대한 사랑이나 韋應物의 山水 隱逸生活에 대한 동경, 柳宗元의 산수 속에서 체험한 貶謫失意, 歐陽修와 王安石의 산수에서의 인생체험, 蘇軾과 黃庭堅의 산수 속에서 거닐면서 느낀 哲理와 情趣 등 시인들이 드러낸 정감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 觸景於情, 借景抒情의 명작들을 탄생시켰다. 『시선』은 서정적 주인공이 정면에 등장하지 않고 주관적인 정서가 드러나지 않는 시작들을 선택했다. 예를 들면 두보의 「江邊星月」(卷1)은 원래 2수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시선』은 첫 번째 시만 수록하였다. 그 이유는 이 시에서는 경물만 묘사하고 정감을 경물 속에서 표현하면서 서정적 주인공이나 주관적인 정감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번째 시는 「曆曆竟誰種, 客愁殊未已」라는 두 구절에서 「誰, 客」이라는 주인공이 등장하고 「竟, 愁」 두 자는 주관적인 정서를 發露하고 있기 때문이다. 王安石的 「秋夜」(卷2)도 2수로 되어있는데 두 번째 시만 수록되었다. 이 두 편의 시는 모두 가을밤의 적막감과 처량함을 표현했는데, 첫 번째 시는 說理적 색채가 짙어 수록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安平大君이 情景交融이 잘된 시편을 즐겨 읽고 주관적인 감정이 개입된 시편들을 심미적으로 멀리 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시선』에는 情景交融의 담백한 시작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3) 알기 쉽고 배우기 쉬운 시작을 선정

안평대군은 『시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다만 팔가집 가운데서 남이 쉽게 알 수 있는 것을 취해서 보기에 편하도록 하여 삼체법으로 나누었다(只

於八家集中取人所易曉而便於觀覽者，以三體法彙而集之，分爲十卷。)”¹⁹⁾ 三體詩 選定에서 편찬자들은 ‘易曉’, ‘易學’이라는 선별 기준을 실행에 옮겼다. 平仄과 韻, 對仗 등의 엄격한 作詩原則을 배워야만 詩道의 중흥에 기여할 수 있고 詩賦로 取仕하는 科試에 능란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 산수전원시의 비조인 陶淵明의 시는 담백하고 平易한 것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李瑢 등 集賢殿學者들은 『시선』에서 陶淵明을 스승으로 삼는다고 하면서 『시선』에서 平易한 시작들을 선별하려고 노력했다. 이백의 시작에서는 격조 높고 웅장한 시는 수록되지 못하고 가볍고 부드러우며 활발한 기상을 띤 시들이 수록되었다. 「黃鶴樓送孟浩然之廣陵」(卷8)과 같은 시작에서는 꽃피는 삼월, 외로운 돛대, 먼 그림자, 푸른 하늘, 하늘 끝의 양자강 등 익숙한 시어들, 그리고 봄날의 화사함과 석별의 정을 교차시키면서 흥겨운 기분 속에서 시를 쉽게 터득할 수 있게 된다. 두보의 七言絕句 『絕句』에서는 두 마리의 피꼬리, 한 떼의 백로, 천년설, 萬裏船을 대조하면서 명사 대 명사, 동사 대 동사의 평측의 규범화와 압운의 경쾌함을 살려 모방하기 용이하게 하였다.

『시선』은 시의 생활화와 실용화를 倡導하면서 館閣文人들의 審美적인 需要를 충족시키려 하고 쉽게 접하면서 배울 수 있는 시작을 선정했다. 안평대군이 『시선』을 편찬한 가장 주된 목적은 ‘聯與二三同志者共之’ 하는 데에 있었다. 여기서 두 세 사람(二三同志者)은 독자들인데 작은 범위에서는 주변의 집현전 文士들이고, 넓은 범위에서는 館閣文人 계층이었다. 안평대군은 바로 이러한 계층의 심미적 수요와 館閣에서의 실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주력했던 것이다. 徐居正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조정 관각의 시가 있는가 하면 산림초야의 시도 있다. 작가의 처지가 다르므로 토로하는 서사도 서로 다르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有朝廷台閣之詩，有山林草野之詩。夫所處之地不同，而發爲言辭者，不得不爾也。)"²⁰⁾ 이것이 바로 館閣의 수요이다. 시적 題材의 경우, 『시선』은 詠物, 離別, 山水田園 등 시작 외에도 頌聖, 應酬, 侍宴, 題讚 등 시작들을

19) 李瑢, 『唐宋八家詩選, 詩選序』, 청주고인쇄박물관소장, 1444.

20) 徐居正, 「泰齋先生集序」, 『韓國古典文集叢刊』 제8집, 韓國民族文化推進會, 1996, p.569.

많이 선정했다. 따라서 이백의 「宮中行樂詞」, 「淸平調」 등 5수와 두보의 「端午日賜衣」를 비롯한 11수가 선정되었다. 구양수, 왕안석, 소식, 황정견 등의 시인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시자들은 宮廷 官僚文人들이 應制 시를 짓거나 연회, 제화시, 酬唱시 등 宮廷生活과 밀접한 상관성을 지니며 시의 예술과 시인의 개인생활의 고리를 맺어주는 역할도 하였다. 이런 제재의 시자들은 官府, 宮廷生活에서 직접 인용할 수 있었기에 사회생활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5. 『시선』에 수록된 시작의 특징

1) 李白

『시선』의 서발문에서는 李白을 최고의 詩人으로 치켜세우면서 각 권의 가장 앞자리에 그의 시를 수록하였다. 그러나 『시선』에 선정된 이백의 시작은 36편에 불과하여 柳宗元 다음으로 수량이 적다. 이백은 자유분방한 창작풍격을 지닌 시인으로서 근체시의 엄격한 격식에 얽매는 것을 싫어하였다. 그는 근체시보다 樂府詩와 歌行體 詩歌에서 더 높은 성취를 거두었으며 시편의 수량도 근체시보다 훨씬 많다. 그의 시작이 『시선』에 많이 수록되지 못한 것은 그의 이러한 창작 실제와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악부시와 가행체 시가를 다수 선정 한 것은 이백 시의 주요 창작 경향도 보여주려는 편찬자들의 苦心도 깃들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시선』에는 李白의 「宮中行樂詞四首」(卷1), 「淸平調詞三首」(卷8), 「永王東巡歌五首」(卷8), 「上皇西巡南京歌十首」(卷8) 등 宮廷에 관한 시작들 위주로 수록하였다. 이러한 궁정색채를 띤 시가들은 모두 17수로 『시선』 전체 시편의 42%를 차지한다. 이런 시편들은 모두 군주의 뜻에 따라 지은 것으로 보이며 시의 주제는 ‘頌聖’, ‘諷諫’ 두 가지이다. 李白은 화려하고 포만한 정감으로 시적 재능을 과시한 동시에 그 저변에 ‘諷諫’의 의미를 깔았다. 안평대군과 집현전 文士들은 자신들의 館閣 시인의 신분을 명기하고, 제왕과 나라의 태평성세를 노래하고 통치자들을 規諫하는 것은 나라를 위한 것이며, 자신들의 사명으로 여겼다. 李白은 文人들에게 관각 문인으로서 작품을 창작할 때, 政權에 대한 충성을

충분히 표현해야 한다는 계시를 주고 있다.

李榕은 「八家詩選序」에서 이백의 시는 "굴원(屈原)과 송옥(宋玉)의 초사(楚辭)와 함께 달리고, 양웅(揚雄)과 사마상여(司馬相如)를 채찍질 한다(馳驅屈宋, 鞭撻揚馬)"고 하였고, 崔恒은 「唐宋八家詩讚並序」에서 이백의 시는 "구름을 능가하는 기개와 같다(逸態凌雲之氣)"고 하였다. 『시선』에는 李白의 情景交融의 시작들이 선정되었다. 『시선』은 함축되고 완곡한 감정표현을 선호하고 주관적인 감정의 표출을 꺼렸다. 情景交融의 시편은 「宮中行樂詞」와 「永王東巡歌五首」(卷8), 「長門怨」(卷8)을 말한다. 「宮中行樂詞」는 8수의 시작으로 되어 있다. 『시선』은 「宮中行樂詞」 중에서 주관적인 감정 개입이 잘 나타나지 않는 제2, 제3, 제5, 제6의 시작을 선정하였으며 원본의 순서대로 시작을 배열하지 않았다. 「永王東巡歌五首」(卷8)는 11수의 시편으로 되어있는데 『시선』은 그중에서 제4, 제5, 제6, 제7, 제8만 선정하였다. 그리고 「長門怨」(卷8)은 두 편의 시로 되어있는데 『시선』은 그중의 첫 수만 선택하였다. 선정된 시작들은 모두 주관적 감정개입이 잘 나타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2) 杜甫

杜甫는 苦吟형 詩人으로서 창작 태도가 몹시 근엄하다. 그는 당나라의 近體詩 大家이며 七律에서의 업적은 그를 능가할 사람이 없다. 匪懈堂 李榕과 집현전 학사들은 『시선』을 묶기 전에 먼저 李璧이 注를 달고 劉辰翁이 批點을 단 『分類補注杜詩』를 간행하였다. 두보는 『시선』에서 이인자의 위치에 있으나, 수록된 그의 시 편수는 189수로 단연 수량이 가장 많다.

杜甫도 李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宮廷 官府生活를 묘사한 시작들이 많이 선별되었다. 李白의 시가 頌聖과 諷諫이라면 杜甫의 시는 頌聖과 憂國이었다. 『시선』은 『集千家注杜工部詩集』에서 「宮殿」, 「省宇」로 분류된 시작들을 거의 모두 수록하였다. 그 당시의 두보는 仕途에서 아주 순조로웠고 그의 시작은 여유작작하고 귀족의 냄새가 풍기는 화려한 시풍이었다. 그는 「和賈舍人早朝大明宮之作」(卷4)에서 "따스한 햇빛아래 깃발들이 용이 춤추듯이 나뭇기고 미풍

속에서 제비들이 궁정 상공을 날아가네(旌旗日暖龍蛇動, 宮殿風微燕雀高。). ” 라고 노래를 했고, 「紫宸殿退朝口號」(卷4)에서는 "향기가 紫宸殿에서 바람 따라 떠다니고 못관들이 백화만발한 길 위에서 장쾌히 움직이네(香飄合殿春風轉, 花覆千宮淑景移。)."라고 노래했다. 그리고 「端午日賜衣」(卷1)에서는 "官服은 바람을 머금고 더 부드러워지고 비단옷은 눈꽃이 사뿐히 내려앉은 것처럼 가볍네(細葛含風軟, 香羅疊雪輕。)." 라고 노래했다. 이와 같은 궁정 시들은 시어가 정교하고 청신하고 우아하며 웅건한 기개가 흐른다. 安史之亂 후의 유랑 생활과 파촉에서의 蟄居는 나라에 대한 그의 사명감과 위기의식을 촉발시켰다. 『시선』에서 두보의 宮廷 생활을 노래한 시들과 憂國憂民의 시들을 대량 선정한 것은 두보 시어의 청신함과 작시법의 공교함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두보의 "밥 한 끼 먹을 때에도 임금님을 잊은 적 없다(一飯未嘗忘君)."는 忠君愛國 정신의 체현이기도 하다. 安平大君이 宮廷詩歌에 대해 고도로 중요시한 것은 그 시인들 역시 館閣文人들이고 향후 朝廷의 수요와도 관계가 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두보 시의 풍격에 대해 前人들은 ‘沉鬱頓挫’하다는 평가를 내렸는데 『시선』에는 두보의 평담하면서 閑適한 心情을 표현한 시들을 많이 수록했다. 李榕은 「八家詩選序」에서 두보의 시는 "위로는 풍아의 바름에 이르고, 아래로는 여러 작가의 장점을 쌓아 가슴은 운몽의 큰 못을 삼키고, 기운은 황하의 물길을 막은 것은 두보가 집대성한 것이다(上薄風雅之正, 下積眾家之長, 胸吞雲夢, 氣障黃流)"라고 하였고, 崔恒은 「唐宋八家詩讚並序」에서 두보의 시는 "조화와 함께 흐른다(造化同流)"고 하였다. 『시선』에는 「秋興七首」(卷4), 「春夜喜雨」(卷8)와 같은 시편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시들은 청신하고 담담하며, 平易하고 유창한 언어적 특징을 보이고 시의 내용은 閑適하면서 즐거운 심정을 노래하고 있다.

3) 韋應物

『시선』은 韋應物의 시를 燕集에서 1수, 寄贈 10수, 離別 11수, 酬唱 5수, 相

逢 1수, 懷思 1수, 登眺 1수, 遊覽 1수, 雜興 2수 등 아홉 가지 제재를 다룬 총 33수의 시를 선별해 수록했는데 선정된 시작들이 상당히 널려있는 감을 준다. 그러나 대체로 청아하고 아름다우며 고풍스럽고 여운을 남기는 영물 시작들을 선정했고 시작 선별에 있어서 높은 안목을 보였다. 위응물의 五言律詩는 총 120여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淮山喜會梁州故人」(卷1)을 위시하여 5수를 선택했다. 선별된 시를 보면 대체로 담담한 시구들이나 깊은 정을 담고 있다. 七律도 마찬가지이다. 「自鞏洛舟行入黃河即事寄府縣僚友」(卷4)가 대표적인 시작이 된다고 할 수 있다. 李瑢은 「八家詩選序」에서 韋應物의 시는 "정밀하되 아름답고 호방하여 매임이 없다(精深而妙麗, 豪縱而不羈)"고 하였고, 崔恒은 「唐宋八家詩讚並序」에서 韋應物의 시는 "다듬지 않은 옥과 금(璞玉渾金)"과 같고 하였다. 이러한 평가에서 위응물 시의 담백한 기풍을 엿볼 수 있다. 『시선』은 대체로 위응물의 '吏隱'의 심정을 표현한 작품들을 수록했다. '吏隱'은 비록 벼슬에 있지만 마치 隱者와 같이 지낸다는 뜻이다. 위응물은 비록 산수전원 시인인 도연명을 숭상했으나 그는 엄연히 관리생활을 영위했고 적극적인 인생관을 가졌다. 그의 시작들은 모두 그가 관가에서 관리 노릇을 할 때 지은 것으로 도연명, 맹호연과는 그 사정이 다르다. 위응물은 직무에 충실해야 했다. 정사에 근면했고 백성의 우환을 걱정하는 세속적인 관리의 직책을 수행해야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한 은일 문사의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만의 독립성을 보전하려고 했다. 『시선』에서는 위응물의 이런 이중적인 정신세계를 표현한 시편들을 수록하기에 힘썼다.

첫째로 정사에 근면하면서 백성들의 삶의 애환을 걱정하는 시작들을 수록했다. 「送黎六郎赴陽翟少府」(卷2)의 "낮에는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기만 기다리며, 저녁에는 부모님께 효도를 다 할 것을 다짐한다(只應傳善政, 日夕慰高堂。)" 이는 善政이 백성들에게 전해지기만을 바라면서 저녁에는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는 훌륭한 관리가 되길 바란다는 시편이다. 「寄李儋元錫」(卷4)에서는 "거리에는 유민들이 많아 나라 봉급을 받는 것이 부끄럽다(邑有流亡愧俸錢)"고 하면서 拙政에 대한 부끄러움을 토로했다.

둘째로 은일을 숭상하는 사상을 나타낸 시편들을 수록했다. 「贈王侍禦」(卷4)

를 보면, 자신의 고결한 정조와 은일 생활에 대한 동경을 표현했다. 「早春對雪寄前殿中元侍禦」(卷1)에서는 시인이 속세에 파묻혀 살지만 마음은 항상 담담한 전원생활에 머물러 있으려는 염원을 표출했다. 이런 시편들은 모두 위응물이 은일을 표방하면서 관가에서 직분을 다하려는 생각의 표징이다.

위응물은 ‘吏’와 ‘隱’의 모순이 융합되어 있고, 세속의 관가에 머물러 있지만 내면세계는 淸淨하고 담담하다. 그의 시작에도 초연한 정서가 감돈다. 이런 시작에 나타난 官吏 생활과 吏隱하려는 염원은 『시선』이 시편을 선정할 때의 의도와 비슷했을 것이다.

4) 柳宗元

安平大君은 『시선』의 詩選序에서 柳宗元의 시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묘하면서 청신하고 아름다우며, 언어가 부드러우면서 情이 깊다(幼眇而淸妍, 言婉而情至, 柳州之詩也.)" 여기서 ‘幼眇而淸妍’이라는 표현은 『詩人玉屑』에서 나온 것이다. ‘幼眇’라는 것은 ‘精微’를 가리키며 ‘淸妍’은 ‘淸巧’를 가리키는데 시가의 정밀성과 엄숙함을 말한다. ‘言婉而情至’는 유종원 시의 함축적이면서 은은한 정감을 표현하는 수법을 말한다. 崔恒은 「唐宋八家詩讚並序」에서 柳宗元의 시는 "웅심(雄深)하고 簡淡하다(雄深簡淡)"고 하였다. 위응물과 유종원의 시는 陶淵明, 謝靈運의 시법을 닮았다고 하나 이들의 시법은 서로 다르다. 도연명과 위응물의 시는 沖淡하며 저절로 흘러나오면서 淡泊하고 한적한 隱居之情을 드러냈다. 유종원도 비록 簡淡之作은 있으나 그것은 고체시에서 많이 표현된 것이고, 그의 근체시는 淸峭精嚴하며 孤傲耿介의 기상을 표현했다. 안평대군은 비록 시를 지을 때 閑適平淡한 시풍을 즐겼지만 유종원의 精嚴深婉의 근체시를 높이 평가했다. 유종원의 「同劉二十八哭呂衡州兼寄江陵李元二侍禦」(卷5) 등 여러 편의 시들은 모두 이런 풍격의 대표작이며 그의 가장 이른 시기의 七律이다. 유종원은 자연경물과 用典, 對仗을 一體로 녹여 整體를 만들었고, 언어는 典雅하면서 深蓄達情하였다. 유종원의 시 창작은 초기에 일부러 精工하려는 경향을 보였지만, 창작의 성숙기인 근체시 창작시기에 와서는 자유롭

고 활발한 창작경지에 진입하여 시종 精絕工致의 풍격을 고집했다. 예를 들면 「從崔中丞過盧少尹郊居」(卷5)와 같은 작품은 白描의 수법으로 생기가 넘치는 장면들을 설정하여 형상적으로 楚南의 소박한 民風을 묘사하면서 貶謫의 불평을 드러냈다. 경물 묘사에서 슬기롭게 典故를 사용하면서 崔灑와 盧照鄰을 절찬했다. 『시선』에서 일관되게 창도한 자연산수에 대한 서정과 情景交融의 창작 풍격은 유종원의 시편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유종원의 시는 또한 언어가 소박하면서 깊은 뜻을 담고 있다. 소동파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겉으로는 아위어 보이거나 깊숙이 들어가면 기쁨지고 담백하면서 아름답다." 21) 이러한 풍격은 유종원의 絕句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시선』은 유종원의 시 중에서 언어가 소박하면서 깊은 뜻을 담고 있는 절구를 가장 많이 수록하였다. 「詔追赴都二月至灞亭上」(卷9)과 같은 시는 살벌한 경물을 묘사하였는데 정감이 침울하고 응고되어 있다. 봄빛이 무르익는 늦은 봄에 백화가紛紛히 떨어지고 榕나무 잎이 온 뜰 안에 나뒹굴고 찌꼬리가 처량하게 울어대는 정경을 묘사했다. 시인의 관각 생활과 유배지에서의 정감을 토로했는데 그 구상과 뜻을 담은 것이 常態를 벗어나 긴 여운을 남긴다. 시어는 평담하지만 淡泊하면서 풍만한 유종원만의 특징을 충분히 나타냈다.

5) 歐陽修

『시선』은 歐陽修의 시작 중에서 뜻이 새롭고 언어가 정교한 시편들을 수록하였다. 안평대군은 『시선』의 詩選序에서 구양수 시의 풍격을 "마음속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며 억지로 꾸미지 않는다(自出胸臆而不見牽強)."라고 평가했다. 마음에서 저절로 흘러나온다는 것은 새로운 뜻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면서 유창하게 흘러가게 한다는 것이다. 崔恒은 「唐宋八家詩讚並序」에서 歐陽修의 시는 "온화하고 화려하며, 심오하고 평온하다(溫麗深穩)"고 하였다. 구양수의 시는 온화속에 여전히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는 이백을 따라 배우면서도 또 그 특유의 온화하고 平易한 시법속에서 恬淡한 詩風을 감추었다. 구양수의 「懷嵩

21) 尹佔華, 韓文奇校註, 『柳宗元集校註』, 中華書局, 2014, p.3634.

樓新開南軒與郡僚小飲」(卷5)에서는 정감, 경물, 이미지를 결합시켜 경물로 서정을 토로하고, 경물을 통하여 인간의 덕성을 표현했다. 신기하면서 힘이 있고 박력이 넘친다. 경물묘사가 선명하면서 그 뜻이 깊고 심금을 울린다. 「集禱謝雨」(卷9)와 같은 시는 앞의 세 구절에서 비내리는 정경을 묘사하면서 ‘재촉하다(催)’, ‘깊다(深)’, ‘급하다(急)’, ‘늦다(遲)’, ‘소슬하다(蕭蕭)’와 같은 동사나 형용사를 통해 ‘비’라는 형상이 가지는 긴장감을 표현했다. 그러나 마지막 구절에서는 실컷 잠을 잔 것으로 끝맺으면서 앞의 구절에서 나타났던 긴장감을 확 풀어 버린다. 「豐樂亭遊春」(卷8)에서는 첫 수가 선정되었다. 여기서는 "새가 노래하고 꽃들이 춤추니 태수가 술에 취하다. 내일 술이 깨면 봄은 이미 사라졌겠지(鳥歌花舞太守醉, 明日酒醒春已歸。)"라고 했는데, 앞의 두 구절은 경물을 묘사하고 뒤의 두 구절은 서정을 표현한 것이다. 경물묘사는 색깔이 화려하고 서정은 그 함의가 매우 깊다. 정감이 면면히 맥을 잇고 여운이 깊다. 이어서 세 번째 구절에서는 새, 꽃, 태수를 한 구절에 엮어 놓고 태수가 황홀경에 도취된 정경을 짙진하게 그려냈다. 마지막 구절에서는 의인화의 수법으로 봄날의 사라짐을 애석해하는 심정을 여실히 드러냈다. 「送謝學士歸闕」(卷3) 등 시편들은 모두 구양수의 意新語工의 대표작들이다. 경물에 의탁해 서정을 토로했고 관리 생활과 隱居의 모순된 생각을 담은 시편들이 『시선』에 수록되었다. 구양수의 근체시는 寫景抒情의 시편이 많다. 능히 같지 않은 경물묘사를 통해 자신의 처지와 인격을 드러냈는데, 이는 情景融合된 시편을 편중한 『시선』의 취지와 일치하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시작은 「應制賞花釣魚」(卷5)이다. 이 시는 황제의 명을 받들어 지은 시인데 봄날의 경물은 아름답지만 구양수의 ‘意新語工’은 찾아 볼 수 없다. 이것은 『시선』 편찬자들이 주로 시의 내용에 의해 시작을 선택한 사정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6) 王安石

『시선』은 王安石의 『荊公體』에서 전범이 될 작품들을 수록했다. 안평대군은 왕안석의 시에 대해 몹시 편애하였고 詩選序에서 "착상이 높고 묘하며 격률이

엄정하다(用意高妙而操律精嚴).”와 같은 높은 평가를 하였다. 이러한 평가는 왕안석의 『荊公體』에 대한 간명한 개괄이기도 하다. 崔恒은 「唐宋八家詩讚並序」에서 王安石의 시는 “연꽃이 바람과 기묘함을 닮다(芙蓉倚風之妙)”고 하였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王安石 시가의 높은 예술성을 엿볼 수 있다.

『시선』은 王安石의 七言絶句를 무려 79수 수록하였다. 『시선』에 수록된 왕안석의 시는 기타 시인들에 비해 그 수량이 훨씬 많다. 후일 안평대군은 왕안석의 시작들을 모아 『半山精華』를 간행했다. 그가 王安石의 시를 얼마나 편애했는지를 알 수 있다. 『시선』에 수록된 왕안석의 시들은 풍격이 매우 함축되어 있고 깊은 정을 유발하며 예술적 기교가 월등히 뛰어났다. 「泊船瓜洲」(卷9)에서는 “봄바람에 강남땅이 푸르러졌네(春風又綠江南岸)”라고 했는데 여기서 ‘푸르다’의 ‘綠’자는 역대로 煉字의 典範으로 여겨졌다. 「遊鍾山」(卷9)에서는 ‘山’자가 8번이나 나타난다. 순환, 반복되면서도 지루한 감을 조금도 주지 않는다. 煉字의 또 하나의 典範이라 하겠다. 「書湖陰先生壁二首」(卷9)라는 시편에서는 ‘一水’, ‘兩山’을 의인화하여 산수자연에 인간의 정감을 주입하면서 정적인 경물을 살아있는 경물로 묘사해 청신한 감을 준다. 동시에 典故도 엄밀하게 인용하여 흔적을 남기지 않았으며 청신하고 雅麗한 느낌을 주는 걸작이다. 이 밖에도 「雨過偶書」(卷5), 「葛溪驛」(卷5)과 같은 시작은 모두 『荊公體』를 대표하는 우수한 시편들이다. 『시선』에 선정된 이러한 시편들은 안평대군이 “겉으로 보기에 평범하나 매우 기이하고 돌출되었으며 평이하게 이루어진듯 하나 고심이 깃들여 있다”²²⁾ 라는 왕안석 시에 대한 평가와 맞아떨어진다.

『시선』은 또한 왕안석의 산수 자연에서 자신의 감회를 토로한 시들을 많이 선정했다. 왕안석은 관각에서 浮沉을 거듭하면서 과란만장한 인생노정을 걸어왔다. 그의 시의 제재는 詠物, 感懷, 政論, 詠史, 記事, 憂國, 離家, 隱逸로 그 영역이 매우 넓다. 그러나 『시선』에서 선택한 「暮春」(卷2), 「半山春晚即事」(卷2), 「鳥塘」(卷2), 「雨中」(卷2), 「遊杭州聖果寺」(卷2), 「雪乾」(卷9), 「南浦」(卷9) 등은 모두 경물을 묘사하면서 서정을 토로한, 말하자면 어떤 이미지에 의탁

22) 李榕, 『唐宋八家詩選 詩選序』, 청주고인쇄박물관소장, 1444.

하여 感懷를 읊은 작품들이다. 만년의 왕안석은 정치개혁의 실패로 돌아간 고배를 마셨고 愛子の 요절로 큰 타격을 받았다. 왕안석은 쓸쓸함과 고독 속에서 처량한 세월을 보냈는데 정치포부를 역설하는 政論詩보다 산수 자연에 자신의 정감을 몰입했다. 江寧에서의 隱居는 그를 더욱 산수자연에 심취하게 만들었다. 『시선』에는 이밖에도 왕안석의 시작 중에서 宮廷生活을 다룬 시편들도 수록했다. 「和禦制賞花釣魚詩二首」(卷6)가 그 대표적인 시작들이다. 여기서는 宮廷의 화려한 생활정경을 묘사했는데, 이러한 시작은 산수자연에 대한 감회를 읊은 시편들과는 확연히 구별된다. 이것 또한 『시선』 편찬자들의 미학정서와 宮廷 생활의 수요에 근거하여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7) 蘇軾

蘇軾의 시작들은 모두 거창하고 풍격이 하늘에서 흘러 내려오는 장강처럼 웅장하기에 역대로 그를 豪放派 시인의 주장으로 일컬어왔다. 그러나 『시선』에는 그의 호방한 풍격의 시들이 거의 수록되지 않았다. 그 대신 세세한 일상생활을 묘사한 시들이 다수 수록되었다. 안평대군은 序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소식의 시는 워낙 율격이 뛰어나 만고를 내리 씻어내는 듯하다(雪堂辭格超逸, 可一洗乎萬古。)." 이러한 평가는 안평대군이 中國詩家들의 말을 빌어 소식을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송나라의 胡仔는 王安石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내가 개보의 「明妃曲」 두 수를 읽어보니 율격이 초일하고 永叔에게 뒤지지 않으며 나무랄 데가 없다(餘觀介甫 「明妃曲」 二首, 辭格超逸, 誠不下永叔, 不可遺也。)." ²³⁾ 송나라의 唐庚은 소식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오직 소동파의 「赤壁」 二賦 만이 만고를 내리 씻어내는 듯하다(惟東坡 「赤壁」 二賦, 一洗萬古, 欲仿佛其一語, 畢世不可得也。)." ²⁴⁾ 이것은 안평대군이 『시선』을 편찬하기 위해 많은 詩評을 읽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안평대군이 소동파의 시를 '一洗萬古', '辭格超逸'라 한 것은 소동파에 대한 적중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23) 蔡正孫, 『詩林廣記』, 中華書局, 1981, p.189.

24) 唐庚, 『唐子西文錄』 卷1, 『續修四庫全書』 第1713冊, 上海古籍出版社, p.403.

미사여구를 버리고 시의 自然性情을 추구하고 옛 것에 얽매이지 않고 새 것을 추구하려는 소식 시의 풍격에 대한 평가라 하겠다. 소식은 산수와 전원을 묘사한 당나라의 시인들과는 달리 일상생활 속에 있는 경물묘사를 통해 新意를 발견하려고 하였다. 「謝宋漢傑惠李承晏墨」(卷10), 「真一酒」(卷7), 「白塔浦歇馬」(卷7)과 같은 시작들에서는 ‘벼룩들’, ‘술단지’와 같은 평범한 물건들로 새로운 흥취와 妙理들을 나타내고 있으며, 시 속의 모든 평범한 경물들은 모두 象外之理와 象外之趣를 띠고 있다. 소식의 시작은 또한 情, 景, 理와 서사를 결합시켜 일상생활의 정서와 흥취를 돋우고 있다. 「次韻周長官壽星院同錢魯少卿」(卷7)과 같은 시들은 비록 이별을 노래한 작품들이지만 처량한 기분이 아니라 특이한 樂趣가 풍겨 난다.

『시선』은 제재의 선택을 중요시했다. 소식은 "무릇 경물은 모두 가관이다. 가령 모두 가관이라면 그 속에는 모두 樂趣가 있을 터인데 반드시 기이하고 화려한 것은 아니다(凡物皆有可觀, 苟有可觀, 皆有可樂, 非必怪奇瑋麗也凡。)"²⁵⁾라고 하였다. 『시선』에서는 여러 가지 제재를 다룬 소식의 시에 눈길을 돌렸다. 첫째로는 詠物 題畫詩이다. 「海棠」(卷10), 「紅梅」(卷7), 「芍藥」(卷10) 등은 자연영물 제화시이다. 뿐만 아니라 회화, 서법, 부채 등 藝術品에 대한 題畫詩도 있다. 예를 들면 「李世南所畫秋景」(卷10), 「郭熙秋山平遠」(卷10), 「書皇親畫扇」(卷10)과 같은 시작은 소식 시의 진품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시선』에서는 이런 시작들의 사회적 교제성에 깊은 관심을 돌렸다. 둘째로 『시선』은 次韻을 한 소식의 酬唱 시들을 대량 수록했다. 시가의 酬唱은 교제성을 띠고 있으며 인간 간의 사회성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면 「次韻秦少章和錢蒙仲」(卷7)이나 「次韻劉貢父春日賜幡勝」(卷7) 등이 그렇다.

8) 黃庭堅

江西詩派의 수령인 黃庭堅은 煉字를 중요시하고 清奇한 詩風을 강조하면서 시 창작에 있어서 脫胎換骨을 주장했다. 그의 시는 初學者들이 模仿하거나 배

25) 蘇軾, 『蘇軾文集·超然台記』, 嶽麓書社, 2000, p.82.

우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황정건도 소식과 마찬가지로 주로 일상생활의 제재를 다룬 시편들이 수록되었다.

安平大君은 『시선』에서 황정건을 두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청신과 기묘는 마치 구슬이 옆에 있는 듯하다(淸新奇巧若珠玉在傍)."²⁶⁾ 황정건의 시에서는 청신하고 교묘하며 절제된 작품들을 선별하여 수록했다. 사실 황정건 시의 가장 큰 특징은 修辭와 造句이고 用典, 煉字造句, 曲折적인 變化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선』에서는 이와 달리 기묘한 작시법과 淸新한 미감을 보여주는 시편들을 선택하고 시가의 抒情性에 주안점을 두었다. 「和答元明黔南贈別」(卷7)에서는 用典을 반복적으로 사용했으나 자연스럽고 시상과 잘 어울린다. 더욱이 정감의 진실성과 완곡함은 읽는 이들의 심금을 울린다. 「鄂州南樓書事」(卷10)와 같은 시는 여름밤 누각에 올라 멀리 바라보는 정경을 그렸다. 여기서 '明月'이 몽롱한 夜色과 산과 물이 一色이 된 야경을 그렸다. 달밤에 비로소 芡荷가 내뿜는 향기를 맡게 되었다고 했다. 시의 마지막 두 구절에서는 淸風이 보내준 싱그러운 향기를 맡으면서 은은한 달빛은 부드럽고 조용하다고 했다. 참으로 月光과 淸風은 혼연일체를 이루었다.

『시선』은 황정건 시작 중에서 일상생활을 묘사한 시들을 선택했다. 황정건은 일상생활 속의 자질구레한 사건들을 시작에 녹여 넣었다. 「題小景扇」(卷10), 「題花光畫山水」(卷10), 「臘梅」(卷10), 「和答錢穆父詠猩猩毛筆」(卷10) 등은 모두 이런 부류에 속하는 시작들이다. 「臘梅」에서는 겨울날 매화꽃의 외적인 형상을 그리면서 哲理와 매화를 유기적으로 융합시켜 새로운 뜻을 나타냈다. 「秋思寄子由」(卷10)과 같은 시는 늦가을 낙엽이 떨어지는 애상적인 기분에 젖어 귀뚜라미가 천을 찌는 겨울옷을 빨리 봉제하라고 재촉하는 시이다. 시인의 고독한 신세와 功名을 이루지 못한 서글픈 감회를 토로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혼탁한 사회현실과 타협하지 못하는 고독을 느끼지만 오기로 넘치는 심정을 표현하면서 자신의 서글픈 처지를 달래고 있다. 전편은 구조가 細密하고 끊어지는듯 하면서도 이어지는 시의 흐름을 보여준다. 또한 여러 차례 用典을 하면서 흔적은

26) 李瑤, 『唐宋八家詩選, 詩選序』, 청주고인쇄박물관소장, 1444.

남기지 않고 완곡한 시의를 드러내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이처럼 사물을 빌어 교묘하게 생활의 참뜻을 나타낸 것은 生活圈이 상대적으로 좁은 문인들에게 많은 계시를 주었을 것이다. 이것이 『시선』에서 황정견의 시들을 선정한 이유라고 생각할 수 있다.

6. 결론

『시선』은 문학의 심미적 특성을 중요시하고 시가의 형식과 기교에 주의를 돌렸다. 이는 새로운 시대의 문학적 풍조를 형성하는 데 일조를 하였으며 조선조 초기 시 선집 편집에 모범을 보여주었다. 『시선』은 고려 중 후기부터 蘇黃을 숭상하고 晚唐風이 그 여파를 계속 몰아가고 있는 조선조 초기에 杜甫, 王安石, 韋應物 등을 추켜세웠다. 이것은 매우 특이한 일이다. 송시풍이 조선조 초기에 여전히 주류를 이루고 있었을 시기에 송시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였으니 『시선』은 그 당시 문단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을 것이다. 『시선』은 시인의 개성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館閣의 수요에 알맞은 시작들을 수록했다. 도연명 풍의 산수 전원시들과 알기 쉽고 배우기 쉬운 시들을 선정한 것이다.

안평대군은 지도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시선』 외에도 『찬주분류두시』, 『반산정화』, 『山穀精粹』, 『宛陵詩選』, 『香山三體法』 등 중국 시선집의 편찬에 주찬으로 있었다. 李榕의 통솔 하에 『시선』 편찬에 참여한 집현전 文人들은 각각 자신의 심미관으로 시를 선택하였을 것이다. 그들 각자의 문학 활동과 연관을 지어 보면 시작의 선별 기준과 그 편찬 과정이 더욱 명료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의 과제로 남겨두겠다. 앞으로 더 정밀하고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더욱 다양한 시각으로 『시선』 연구가 진행될 것을 기대한다.

◆ 참고문헌

1. 자료

金佺, 『海東文獻總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800.

- 李穡, 『牧隱詩稿』 卷6, 『韓國古典文集叢刊』 제4집, 韓國民族文化推進會, p.20.
李瑤, 『당송팔가시선』, 청주고인쇄박물관소장, 1444.
李瑤, 『香山三體法』, 초주갑인자훈입보자본, 증종 10년(1515)경.
李瑤, 『香山三體法』, 초주갑인자훈입보자본, 명종 200년(1563).
李瑤, 申叔舟, 『半山精華』, 성균관대학교 尊經閣, 1705.
孟昞, 『世宗實錄』 卷68,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454.
徐居正, 『四佳集』,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705.
徐居正, 「牧隱詩精選序」, 『韓國古典文集叢刊』 제5집, 韓國民族文化推進會, 1996, p.178.
徐居正, 「泰齋先生集序」, 『韓國古典文集叢刊』 제8집, 韓國民族文化推進會, 1996, p.569.
徐居正, 「四佳集」 52卷, 第25詩類, 『韓國古典文集叢刊』 제11집, 한국민족문화추진회, 1996, p.127.

2. 단행본

- 심경호, 『안평』, 알마, 2018.
林椿, 『西河先生集』, 영인본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88 한국문집총간.
丁福保輯, 『歷代詩話續編』, 中華書局, 2006.
陳善, 『捫虱新話』, 商務印書館, 1960.
蔡正孫, 『詩林廣記』, 中華書局, 1981.
黃庭堅, 任洲, 史容, 史季溫注, 黃寶華點校 『山谷詩集注上』, 上海古籍出版社, 2003.
胡仔, 『茗溪漁隱叢話』, 人民文學出版社, 1962.
蘇軾, 『書黃之思詩集後.孔凡禮注:蘇詩文集』, 中華書局, 1986
蘇軾, 『蘇軾文集·超然台記』, 嶽麓書社, 2000.
唐庚, 「唐子西文錄」 卷1, 上海古籍出版社, 2002.
尹佔華, 韓文奇校註, 『柳宗元集校註』, 中華書局, 2014.
王安石, 『王荊文公詩箋注』, 上海古籍出版社, 2010.

3. 논문

- 이민정, 「당송팔가시선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최웅권, 진사우, 「唐宋八家詩選底本考」, 『국어국문학』 제200호, 2022, pp.247-278.
황위주, 「韓國本 中國詩選集의 編纂에대한 研究」, 『東亞人文學』 제 3 집, 동아인문학회, 2003, pp.317-337.

논문 접수 일	2023년 04월 24일
심사 완료 일	2023년 05월 29일
게재 확정 일	2023년 06월 08일

Abstract

A Study on Selected Poems from the *Anthology of Eight Giants of Tang-Song* in Cheongju City Printing Museum

Cui, Ting

The *Anthology of Eight Giants of the Tang-Song* include poems by Li Bai, Du Fu, Wei Ying-wu, Liu Zongyuan, Ouyangxiu, Wang Anshi, Su Shi and Huang Tingjian. The Eight Masters of the Tang-Song refer to Han Yu, Liu Zongyuan, Ouyang Xiu, Su Xun, Su Shi, Wang Anshi, Zeng Gong, etc. The *Anthology of Eight Giants of the Tang-Song* are excellent in both quality and study, which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eight masters of prose. In the field of poetry, it refers to the eight masters who have been used since the late Song Dynasty. However, Wei Ying-wu replaced Han Yu in Eight Poems of the Tang-Song. This is because Han Yu used a large number of rare characters, wrote some strange poems, and pursued a new artistic realm. According to the selection criteria and the features of the poems, we can think that Tang poetry and Song poetry are both emphasized, especially the poems that embody the style of Tang poetry. These can be verified by the selection criteria and the characteristics of poems in Selected Poems of the *Anthology of Eight Giants of Tang-Song*. The Selected Poems of the *Anthology of Eight Giants of Tang-Song* fully respect the poet's personality and include poems that meet the needs of the library. The Selected Poems of the *Anthology of Eight Giants of the Tang-Song* combine three kinds of modern poems, namely, five-yield, seven-yield and seven-character quatrain. Anpyeong-gun and Jiphyeonjeon scholars used the name "Samchesi" to promote poetics in line with the reality of Joseon at that time. In addition to the Santishi, also included Yuefu poetry, including ancient poetry and contemporary poetry metrical poetry.

Keyword *anthology of Eight Giants of Tang-Song*, Eight Giants of Tang-Song, selection criteria, Samchesi, Akbusi

崔昭 『荊庵文略』의 글쓰기 양상*

김 홍 매 **

국문요약

『荊庵文略』은 한학역관 崔昭(1786-?)의 문집으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역관 문학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금까지 발견된 역관들의 문집이 대부분 시선집이거나 서신 자료집이었던 것에 반해 『형암문략』은 상당한 양의 산문을 수록하고 있으며 예전의 역관 문학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면모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형암문략』은 편찬 경위와 수록된 작품의 문체적 특징, 최소의 경력과 수록 작품의 향유 양상 등을 볼 때 수록된 작품 중 상당수가 사역원의 시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그중 적지 않은 글이 역관의 시험을 위한 글쓰기의 교본으로 유통되었을 것으로 가능성이 있다.

『형암문략』에서 가장 큰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사론 산문과 擬作인데 이는 모두 과거시험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체이다. 최소의 사론 산문은 유교적 가치관의 옹호, 병렬식 단락 구성, 진진적 논의 전개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반면 의작들은 역사 사건이나 인물을 소재로 한다는 점에서는 사론 산문과 같지만 직접화법의 사용과 강한 감정적 색채, 역사 인물의 내밀한 감정을 잘 파고들었다는 점에서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하지만 역사 사실에 근거한 치밀한 전개에서는 또 사론 산문과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주제어 역관, 崔昭, 『荊庵文略』, 사론 산문, 擬作

〈목차〉

1. 서론
2. 『형암문략』의 편찬 경위와 문체적 특징
3. 『형암문략』의 창작수법과 특징
4. 결론

* 본 논문은 廣東外語外貿大學南國商學院 校級科研項目 「『荊庵文略』研究」(19-006B)의 지원으로 작성되었음.

** 중국 광둥외어의무대학교 남국상학원 한국어학과 부교수

1. 서론

崔昭(1786-?)는 지금까지 학계에서 주목받지 못한 한학 역관으로, 자세한 행적이나 활동 양상에 관해서는 관련 자료가 많지 않아 알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41편의 글이 수록되어 있는 문집 『荊庵文略』이 남아 있어 그가 꽤 활발한 창작 활동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남아 있는 역관의 문집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형암문략』은 역관들의 글쓰기 양상을 고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19세-20세기에 활약한 李尙迪, 金秉善, 卞元圭, 崔性學 등 역관이 척독 등 서신 자료 외에 대부분 시만을 남겼고, 역관이 남긴 산문집은 오직 卞鍾運(1790-1866)의 『獻齋文鈔』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형암문략』의 가치는 더욱 분명해진다.

『형암문략』에는 20편의 사론 산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문집 전체의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 또 특정한 역사 인물의 신분으로 직접화법으로 작성한 擬作도 6편이나 된다. 이는 문집 전체의 절대 대부분을 차지하는 분량이며, 사대부 문인들과 비교해 보아도 매우 많은 편인데 이전에 발견된 역관의 문집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경향이다. 그러므로 『형암문략』의 문체적 특징과 창작 경향을 밝히는 것은 역관 문학의 다양한 면모를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되며, 기타 역관들의 작품을 분석하는 데도 일정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형암문략』의 이런 가치에 주목하여, 그 편찬 경위와 문체적 특징을 살피고 해당 문집에 수록된 역사 소재 작품의 창작수법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한다.

2. 『형암문략』의 편찬 경위와 문체적 특징

1) 편찬 경위

崔昭는 자가 景宣이고 호가 荊庵이며 본관은 경주이다. 순조 4년(1804)에 19세의 나이로 역과 식년시에 장원으로 합격하였다. 전공은 한학이며 사역원 直長을 지냈다. 생부 崔道鈺은 典醫監直長을 지냈고 증조부 崔臺相은 역과 출신이

다. 처부 장윤경(張允慶, 1750-?) 역시 한학 역관으로 次上通事를 지냈다. 최소의 아들 崔勉植(1811-?)은 왜학 역관으로 사역원 교회를 지냈고 정3품 通政大夫의 품계를 받았다. 손자 崔性孝(1826-?)는 왜학 역관이고 崔性學(1842-?)은 한학 역관이다.¹⁾

『荊庵文略』은 최소의 사후에 최성학이 교정하여 편찬한 것으로, 현재 규장각에 필사본의 형태로 소장되어 있다. 최성학은 문집 뒤의 識에서 이 책을 교정하여 필사하게 된 경위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내가 弱冠일 때 부친께서 책 한 권을 손수 보여주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나의 선친이신 형암공께서 쓰신 文略이니, 너는 읽고 소장하라.”라고 하였다. 庚申(1860)년 가을에 나는 거상을 당하여 병이 들어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있는 바람에 여러 번 해가 바뀌었는데도 교정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9년이 지나 戊辰(1868)년이 되어 서야 다시 여러 번 반복해 교정하게 되었다. 즉 ‘焚餘稿’ 한 편, ‘讀史漫論’ 한 편, ‘雜著’ 한 편으로 총 3권 41수였는데 모두 낡은 종이와 해진 책에서 얻은 것들이다. 그 古文과 辭賦 작품들은 몇 편이나 되는지 잘 모르지만 다 잃어버려서 전하지 않는다. 아, 공의 글이 어찌 겨우 이것밖에 안 되겠는가? 손꼽아 헤아려 보니 이미 10년이 되었다. 매번 부친의 독실한 가르침을 생각할 때마다 (공의) 책이 오래되어 날로 흩어져 사라질까 두려웠다. 이에 급히 도모하여 베껴 모아서 깊이 간직할 가문의 보물로 삼고자 하였다.²⁾

위의 글에서 말한 경신년은 1860년이다. 글의 내용을 보면 최면식이 최성학에게 『형암문략』을 보여준 것은 이보다 조금 앞선 시기였을 것으로 보인다. 최성학은 4년 뒤인 壬寅(1864)년에 23세의 나이로 역과에 급제하였으므로³⁾ 1860

1) 최소의 생년과 과거급제 기록, 벼슬, 가족사항 등은 『譯科榜目』을 참조하였다. 최성학에 관해서는 김홍태, 「역관 崔性學의 생애와 문학 세계」, 『대동한문학』 50, 대동한문학회, pp.305-333 참조.

2) 崔昭, 『荊庵文略』 47a-47b, 崔性學, 〈識〉, “昔吾弱冠, 先大夫手示一冊而曰, ‘是我皇考荊庵公所著文略, 爾其讀而藏之.’ 庚申年秋, 不肖苦由淹病, 星霜屢更, 而未嘗校讎. 越九年戊辰, 始得而三復焉. 卽焚餘藁一編, 讀史漫論一編, 雜著一編, 凡三卷四十一首, 皆從故紙殘簡而得之. 若其古文詞賦諸作, 又不知爲幾篇, 而遺佚不傳. 嗚呼, 公之文章, 其寥寥止於斯已乎? 僕指十年之頃, 每思庭訓之篤, 而懼其編帙之愈久愈散, 亟圖抄輯, 庸以爲青箱鴻寶焉.”

년 무렵에는 역과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최면식이 최성학에게 『형암문략』을 보여준 것은 역과 시험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크다. 최소가 1804년에 19세의 나이로 역과 장원을 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조부의 문집은 손자인 최성학에게 분명 격려와 학습의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최성학은 역과에 급제한 4년 뒤인 1868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조부의 글을 베껴 모아 『형암문략』이라는 책으로 묶을 수 있었다.

『형암문략』 권1 『분여고』의 제목 뒤에는 두 줄로 된 작은 글씨로 “『분여고』는 본래 2권이었으나 지금은 모두 전하지 않는다. 다만 7수만을 수록하였을 뿐이다.”⁴⁾라고 하였고 권2 『독사만록』의 제목 뒤에는 “『독사만록』은 무릇 140여 수였는데, 흩어져 전하지 않으므로 현재 베껴서 전하는 것 20수를 취하였다.”⁵⁾라고 하였다. 『독사만록』이 140편이었다는 것은 『분여고』가 원래 2권이었던 것을 감안해도 문집 전체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음을 의미한다. 또 “베껴서 전하는 것”이 20편이나 되었다는 것은 최소의 작품이 상당히 인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최성학은 특히 그중 〈孔明不用魏延計論〉과 〈殺曲端論〉은 다른 사람들이 외워서 전하는 것을 얻어 수록하였다고 특별히 밝히고 있다.⁶⁾

최성학은 識에서 최초의 글에 대한 두 사람의 평가를 언급하였다. 한 사람은 동시대 한학 역관이자 문인인 변중운이고 다른 한 사람은 영의정을 지낸 사대부 문인인 南公轍(1760-1840)이다. 아래 변중운의 평가에 관한 내용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예전에 卞獻齋 선배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암 선생은 평소 시를 짓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늘 『左傳』과 『漢史』를 즐겨 읽었으며 그 글은 별로 깊이 생각을 하지

3) 최성학에 관한 내용은 『역과방목』 참조. 최성학은 高宗 1년(1864) 甲子 增廣試에 三等 3위로 합격하였다.

4) 崔昭, 『荊庵文略』 권1 『焚餘稿』 6a, “『焚餘稿』舊本二卷, 今並不傳. 僅錄七首.”

5) 崔昭, 『荊庵文略』 권2 『讀史漫論』 6a, “『讀史漫論』凡一百四十餘首, 散佚不存. 今取抄傳者二十首..”

6) 崔性學, 『荊庵文略』 권2 『讀史漫論』, 61b, “此下二篇嘗從人紀誦而錄之. 故附之.”

않은 것 같으면서도 문장이 깊고 웅장하며 풍요롭고 도타우니[沈雄腴厚] 보잘것 없는 후생들이 어찌 그와 같은 글을 지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동치 무진년 초 여름에 불초 손자 성학이 삼가 識를 쓴다.⁷⁾

변중운은 최소보다 4년 아래로, 최소보다 5년 늦게 역과에 합격하였으며, 최소의 손자인 최성효와 변중운의 손녀가 혼인하였으므로 최소와는 인척이 된다. 또 최성효가 일찍이 변중운에게 수학한 적도 있으므로 두 가문의 인연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⁸⁾ 그러므로 최소에 대한 변중운의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신뢰할 만하다.

변중운의 말에 따르면 최소는 평소 시 짓기를 즐겨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좌전』과 한나라 때의 역사서를 즐겨 읽었다는 것을 보면 역사에 관심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독사만론』에 수록된 글이 본래 140편이나 되었다는 최성학의 말과도 맞아떨어진다.

최소는 남공철과도 인연이 있었다.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형암문략』에는 붉은 색으로 권점과 비점이 쳐져 있는데 최성학의 글에 따르면 이 권점과 비점은 남공철이 친 것이다.

공은 일찍이 歸恩 南公轍 상국의 지우를 입었고, 공이 지으신 원고는 남공철공께서 평점을 해 주신 것이 많았다. 지금 이미 6, 70년이 지나 상자에는 먼지가 쌓이고 주머니는 헤어졌으나 먹 자국은 뚜렷하여 여전히 분별할 수 있다. 정리 편찬이 끝나고 삼가 그 평점을 함께 기록하고 연유를 적는다.⁹⁾

최성학이 『형암문략』을 편찬할 때가 1868년이니, 이 내용대로 하면 남공철이

7) 崔昭, 『荊庵文略』 47a-47b, 崔性學, 〈識〉, “曩者聞卞嘯齋前輩之言曰, ‘荊庵先生平日不喜作詩, 常嗜讀『左氏傳』、『漢史』, 其屬文若不構思, 而其文沈雄腴厚, 藐茲後生烏得以述其辭也?’ 同治戊辰肇夏, 不肖孫性學謹識。”

8) 두 집안의 관계에 대해서는 김홍대, 「소재 변중운 문학의 주제의식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pp.26-27 참조.

9) 崔昭, 『荊庵文略』 47b, 崔性學, “公嘗受知于歸恩南相國, 所著文章多從南公點定. 今距六七十年, 雖塵篋殘裹, 墨痕黝然可辨矣. 既輯編, 謹錄其點定, 并志緣起云爾.”

최소의 글을 수정해 주었다는 시기는 1800년에서 1810년 무렵이 된다. 즉 최소가 역과 시험에 급제하기 전후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고관 문인인 남공철이 최소의 글을 읽고 평점까지 붙이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역관은 신분은 높지 않았지만 외교와 관련된 중대한 임무를 담당하였기에 역관의 교육과 평가는 항상 중시를 받아왔다. 사역원의 시험에는 院試, 考講試, 取才試, 譯科試 네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 취재시는 예조에서 주관하여 사역원 제조로 하여금 시험을 보도록 하였다. 역과시는 초시와 복시로 나뉘는데 초시는 사역원에서 실시하지만 복시는 사역원과 예조에서 실시하였다.¹⁰⁾ 남공철은 1799년에 예조참판이 되었는데 최소는 1804년에 역과시에 장원으로 급제했다. 1804년 전에 최소는 아마 사역원 생도로 있었을 것이며, 최소가 취재시나 역과시 시험을 볼 때 남공철이 예조참판으로서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남공철과 역관들의 인연은 변중운과의 관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변중운은 남공철의 환갑에 올린 축수시에서 자신을 ‘門下’라고 칭하였는데 이 또한 사역원 역관과 남공철의 인연을 보여주는 사례이다.¹¹⁾ 남공철은 아마도 예조참판을 지내는 기간에 사역원의 공식적인 시험이나 교육, 평소의 시험 등에 관여하면서 역관들을 글을 읽거나 지도, 평가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남공철이 최소의 글을 읽고 평점과 비점을 가한 것은 아마 이런 관계가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문체적 특징

『형암문략』에 실린 작품을 보면 권1 『분여고』에 贈序 2편, 記 3편, 引 한 편, 題 한 편이 수록되어 있고 권2 『독사만론』에 論 20편이 수록되어 있으며 권3 『잡저』에는 序 세 편, 書 한 편, 詔 한 편, 說 한 편, 記 한 편, 頌 두 편, 銘 네 편, 贊 한 편이 수록되어 있다.

10) 이용길, 「조신시대 사역원의 외국어 교육」, 『한국교육사학』 44권 22호, 2022, p.139-140 참조.

11) 변중운의 축수문에 대해서는 하버드 연칭대학교 소장 『丙辰貼』土冊 참조. 병진년은 1856년인데, 『병진첩』에 최소의 글은 발견되지 않는다.

권1에 실린 작품들은 최소의 개인적인 생활과 교유, 여행과 사행 등에 대한 관점 등을 반영하고 있다. 원래 2권이었던 것으로 보아 적지 않은 작품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쉽게도 전해지지 않아 최소의 생활이나 교유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기대하기 어렵다.

『형암문략』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독사만론’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진 論인데, 전체의 반 정도를 차지한다. 이런 부류의 작품이 원래 140여 편이나 되었다는 점은 최소의 창작 취미 혹은 경향이 이쪽에 편중되었을 것이라는 짐작을 가능케 한다. 내용을 보면 모두 특정된 역사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주장을 개진한 독립적인 산문으로, 사론 산문의 범주에 귀속시킬 수 있다.¹²⁾ 다만 사론 산문은 ‘雜著’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형암문략』에서는 따로 ‘독사만론’이라는 항목으로 분류되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사론 산문은 복송 때 과거시험에서 책론을 중시하면서 크게 부상하였으며 특히 蘇軾의 사론 산문은 과거시험용 글쓰기를 위한 전범으로 학습되면서 후세의 사론 산문 창작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 백진우는 한국에서는 조선 전기부터 상당히 많은 수의 사론 산문이 창작되기 시작하였다고 하였으며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大科·庭試·月課 등 시험을 들고 있다.¹³⁾ 또 사론 산문의 작가층이 조선 중기까지는 관료 문인들에게 국한되었으나 후기부터 중인, 서얼, 여류 등으로까지 확대된 것으로 보고 있다.¹⁴⁾ 실제로 역관인 변중운의 문집인 『소재문초』를 보면 ‘論’, ‘讀書隨筆’, ‘辯’이라는 분류 밑에 여러 편의 사론 산문이 수록되어 있어서 역관들도 사론 산문을 썼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최소가 창작했던 ‘論’이라는 제목을 붙인 사론 산문만 140편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역관들, 적어도 최소와 동시대 역관들은 상당히 많은 사론 산문을 창작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아래 최소와 변중운이 남긴 사론 산문의 제목을

12) 사론 산문에 대해서는 백진우, 「조선 후기 사론 산문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년, p.25 참조. 백진우는 사론 산문을 고문의 형식을 갖춘 단편의 작품으로, 역사서 성격의 저술에 부기된 사론과는 다르게 독립된 한 편의 산문 작품으로서 별도의 구성과 체계를 갖추고 자신의 주장을 그 안에 논리적으로 풀어낸 글이라고 정의하였다.

13) 백진우, 앞의 글, p.85 참조.

14) 백진우, 앞의 글, p.91 참조.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최소

〈造干戈論〉, 〈使蘇治水論〉, 〈成王之賜伯禽之受皆非論〉, 〈孔子貌類陽貨論〉, 〈無敵國外患者國恒亡論〉, 〈伍尙伍員孰賢論〉, 〈豫讓眞義士論〉, 〈事漢非本心論〉, 〈不渡烏江論〉, 〈斬丁公論〉, 〈大封同姓論〉, 〈偽遊雲夢論〉, 〈蕭何盛治未央宮論〉, 〈漢文不用賈誼論〉, 〈不相賣廣國論〉, 〈五尺之童羞稱五霸論〉, 〈蘇武娶胡女論〉, 〈問牛喘論〉, 〈孔明不用魏延計論〉, 〈殺曲端論〉.

변중운

〈秦論〉, 〈蕭何論〉, 〈魯仲連論〉, 〈孔蠅論〉, 〈審象求弼辯〉, 〈郭巨埋兒辯〉, 〈長城說〉, 〈滹沱河說〉, 〈讀南華經〉, 〈誤中副車〉, 〈蒙恬〉, 〈李斯〉, 〈汲黯〉, 〈呼韓邪來朝〉, 〈謝安〉

두 역관의 사론 산문을 살펴보면 일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는 秦·漢 시기의 역사 인물이나 사건에 관한 내용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라의 흥망, 군왕의 자세, 신하의 등용, 이적과의 관계 등과 관련되는 주제가 많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국가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응대하기 위해 지은 사대부들의 사론 산문에서도 똑같이 드러나는 특징이다. 또 이들이 소재로 삼은 역사 사건이나 인물도 특별히 새로운 것이 없는, 많은 문인들에 의해 과작으로 쓰여졌던 것들이 많다. 〈無敵國外患者國恒亡論〉은 申靖夏의 『怨菴集』에 ‘科作’이라는 自註가 붙은 채로 실려 있으며, 豫讓에 관해서도 역시 많은 문인들이 논의 형태로 글을 지은 바 있다. 한고조나 소하에 관한 이야기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므로 최소와 변중운이 이런 역사 소재로 사론 산문을 지은 것은 고립된 현상이 아니며, 개인의 능력을 시험해 보기 위한 공식적으로 시행하는 시험의 형태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권3 『잡저』에 실린 의작의 존재도 이런 가설을 뒷받침한다. 권3에 실린 14편의 글의 제목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代燕太子丹送荊軻入秦序〉, 〈擬蜀中人士送蘇明允率二子入京師序〉, 〈爲范雎謝厠中守者序〉, 〈使毛遂上自薦書〉, 〈代漢博士撰却千里馬詔〉, 〈農人告春及說〉, 〈氷山記〉, 〈鳳鳴岐陽頌并小序〉, 〈指南車銘并小引〉, 〈斬蛇劍銘并序〉, 〈太牢祀孔子頌并序〉, 〈折檻銘并小序〉, 〈四知金贊并小序〉, 〈木牛流馬銘并小序〉

『잡저』에서 앞의 여섯 편의 글과 〈太牢祀孔子頌并序〉는 모두 저자가 특정 역사인물의 입장이 되어 쓴 글이다. 그 중 세 편은 문체로 보면 贈序에 속한다. 앞의 두 편은 送別序로, 燕나라 태자 丹의 입장이 되어서 진시황을 암살하려 가는 荊軻를 전송하는 내용과 사천 지역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蘇洵 삼부자를 격려하는 내용, 范雎의 입장이 되어서 그를 측간에서 구해준 사람에게 감사하는 내용이다. 다른 세 편은 毛遂의 입장이 되어서 올린 자기추천서, 博士의 신분으로 漢文帝를 대신하여 지은 조서, 柴桑의 농민이 陶淵明에게 농사를 권장하고 시골의 삶을 즐기라고 권장하는 글이다. 〈太牢祀孔子頌并序〉는 漢代의 신하의 신분을 상정하여 지은 頌이다. 역사 사건이나 인물을 다루고 있다는 점은 사론 산문과 같지만, 저자가 본인이 아닌 역사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한 문체라고 할 수 있다. 의작 뒤에 수록된 記, 頌, 銘, 贊 역시 저자의 현시점이 아닌 과거의 일과 과거의 시점에서 쓴 글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진다.

‘代’, ‘擬’의 형식을 띤 의작 역시 과거시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은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¹⁵⁾ 또 위의 주제들이 시험 문제로 사용된 기록들도 일부 발견할 수 있다. ‘太牢祀孔子’는 정조 22년(1798)에 유생을 試取하는 제목으로 사용되었고¹⁶⁾ 순조 3년(1803)에는 편전에서 문신의 제술을 시험하는 表題로 사용된 바 있다.¹⁷⁾ 1798년은 최소가 13세 때, 1803년은 최소가 17세 때이므로 최

15) 우지영에 따르면 『한국문집총간』에 수록된 250편의 의작 중 약 30% 정도에 ‘庭試’, ‘科作’, ‘月課’ 등의 표시가 되어 있다. 우지영, 「擬作의 창작 동기와 창작 양상에 대한 一考—韓信 소개 擬作 작품을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41, 동방한학회, 2009, pp.341-363.

16) 『日省錄』 정조 22년 음력 2월 5일, “書下御題, 命左議政蔡濟恭試取本府校宮釋菜時參班諸生, 以‘太牢祀孔子’爲賦題, 命諸生應製.”

17) 『日省錄』 순조 3년 음력 4월 4일, “御便殿行文臣製述, 讀券官徐龍輔, 黃昇源, 洪養浩.

소가 한창 글공부를 할 때 제술 제목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이의 ‘折檻銘’ 역시 월과로 출제되었던 기록을 찾을 수 있다.¹⁸⁾ 또한 권1에 이미 記가 있었음에도 권3에 다시 『잡저』라는 분류를 두고 記를 수록한 것도 두 記의 차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이다. 권1에 실린 〈亦山樓記〉는 최소가 자신의 누각인 亦山樓를 기념하기 위해 쓴 기인데 반해 권3에 수록된 「氷山記」는 당현종 때 나타났다는 빙산을 논한 글이기 때문이다.

사론 산문과 의작의 과거시험과의 밀접한 관련성으로부터 볼 때 최소의 글에 이렇게 많은 분량의 사론 산문과 의작이 나타난 것은 분명 사역원에서의 역관들의 글짓기 훈련 및 시험과 관련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朴趾源(1737~1805)은 〈自笑集序〉에서 역관 李弘載가 사역원의 관리들이 밤낮으로 익히는 것이 바로 고전적인 산문이며, 글제를 두고 재주를 시험하는 것도 다 여기서 취한다고 했다.¹⁹⁾ 이홍재의 문집인 『자소집』은 論, 辯, 序, 記, 書, 說 등 백여 편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고 했는데 문체를 보면 『형암문략』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변중운의 문집과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²⁰⁾

이 외에 최소가 역과 시험에 장원을 한 인물이라는 점, 『형암문략』의 권2에 실린 20편의 사론 산문이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것을 얻어 수록한 것이라는 점, 『형암문략』이 비점과 권점을 보존한 형태로 편찬되었다는 점, 비점을 짚은 인물이 역관의 시험을 주관하는 부서인 예조의 참관을 지낸 문인 남공철이라는

對讀官金近淳, 尹光顏, 李存秀, 金銑. 以擬漢群臣賀太牢祀孔子爲表題. 教曰, 文臣製述表三下居首新及第金用默, 之次草三下副正字沈能憲, 令政院考例捧傳旨.”

- 18) 金華俊, 『棠溪集』 권1, 「折檻銘 己卯月課」, 『한국문집총간』 속29집 p.216.
- 19) 朴趾源, 『燕巖集』 권3, 한국문집총간 252, 62쪽, 〈自笑集序〉, “是乃本業. 而果有用. 則蓋其事大交鄰之際, 莫善乎辭令, 莫嫻乎掌故. 故本院之士, 其日夜所肄者, 皆古文辭而命題試才皆取乎此.”; 朴趾源 저, 김명호 편역, 『지금 조선의 시를 쓰라』, 돌베개, 2007, pp.145-146.
- 20) 필자는 역관 변중운의 사론 산문을 분석하면서 역사 비평과 현실 인식이라는 틀을 적용한 바 있다. 하지만 최소의 사론 산문과 결부해 살펴보면 변중운의 사론 산문 역시 사역원에서의 시험을 염두에 두고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역관들의 사론 산문에서 현실비평이 과연 가능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김홍매, 「소제 변중운 문학의 주제의식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참조.

점도 최소의 글이 사역원에서의 시험에서 혹은 시험에 대비해서 지은 글일 가능성과 글쓰기의 참조 교본으로 유통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鳳鳴岐陽頌并小序〉는 자신의 家塾에 있는 여덟 살짜리 아이의 질문에 대답하고 그 아이의 청에 의해 지은 글이라는 내용을 서문에서 밝히고 있어서²¹⁾ 이 글이 敎本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2. 『형암문략』의 창작수법과 특징

1) 사론 산문의 창작수법과 특징

『형암문략』에서 가장 많은 비증을 차지하는 것은 ‘**論’의 형태로 명명된 사론 산문이다. 그러므로 『형암문략』의 창작수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독사만필』에 수록된 사론 산문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어야 한다. 아래 율과로 출제된 적이 있으면서도 화제성을 갖춘 소재를 다룬 〈蘇武娶胡女論〉을 통해 최소의 사론 산문의 창작수법을 살펴보기로 하자.

① (가) 혼인의 義는 막중한 것으로, 장차 두 성씨의 좋음을 합하여 위로는 종묘를 섬기고 아래로는 후세를 잇는 것이다. / (나) 나의 자손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며, 나의 몸은 바로 부모의 支體이다. 그러므로 배필의 짝이 합당하지 않으면 부모의 지체가 異類로 변하는 것이 분명하다. / (다) 효성스럽기로 顔閔 같고 충성스럽기로 逢干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찌 혼인의 예에 신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② (가) 『시경』에 이르기를, “꿩이 울면서 수컷을 찾네”라고 하였다. / (나) 이는 구하는 상대가 아닌데 구하는 것을 풍자한 것이다. / (다) 내가 『잡기』를 읽어 보니 黃帝가 그 딸을 嫫毘에게 시집보내서 그 후손이 犬戎의 종족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처음에는 놀랐으나 나중에는 웃으면서 말하기를 “황제는 성인이어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는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하였다. 한나라 역사서에서 여염집 딸을 장공주로 봉하여 흉노에게 시집보낸 일을 일을 볼 때마다 탄식하지

21) 崔昭, 『荊庵文略』 권3 『雜著』 41a-41b, 〈鳳鳴岐陽頌并小序〉, “余家塾有八歲兒, 讀史至鳳鳴岐陽, 問曰, ‘鳳何鳥?’ 曰, ‘靈鳥也.’ ‘岐陽何地?’ 曰, ‘周之舊邦也.’ ‘何爲而鳴?’ 曰, ‘應聖王之瑞而鳴也.’ 兒曰, ‘可得聞其鳴乎?’ 曰, ‘古或有之, 今者未之聞也.’ 兒因摳衣固請述鳳之德, 遂試鷄毛筆作此頌.”

않은 적이 없었다. 여염집 여자는 홀로 天民의 자식이 아닌가? 선왕의 婚義를 여기에서 망하게 하고 일시적인 계책으로 삼다니, 어찌 이렇게 하는가?

③ (가) 蘇武는 흉노에게 잡혀 있을 적에 그쪽 여인을 취하여 아들을 낳았다. / (나) 안타깝도다! 소무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 (다) 오랑개 여자의 아들은 소무에게서 나온 것이다. 즉 소무의 부모의 지체이거늘 어찌 부모의 지체를 오랑개의 땅에 버려둔단 말인가? 소무의 충심과 굳센 절조는 흉노가 두려워하고 탄복하는 것이지만 오직 이 일만은 사람들이 버릴 것이다. 즉 충심에는 남음이 있으나 혼인의 짝을 구함에는 타당함을 잃은 것이다.

④ (가)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19년 동안 홀로 거주한 것은 인정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며 다만 후사를 얻는 데 급하여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하였다. / (나) 이는 소무를 위해 변호한 것이지만 사실 그 절책을 더 무겁게 만드는 것이다. 소나무와 잣나무는 바람과 서리도 범할 수 없으며 눈이 내려도 변하지 않는데 이것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 (다) 그러므로 뜻이 있는 선비는 작은 행동으로 그 절개를 손상시키지 않고 오래 거주한다고 해서 그 절개를 바꾸지 않는다.²²⁾

이 글은 구성상 네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고 매 단락은 또 다시 (가), (나), (다)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매 단락의 구성은 모두 3단식 구조로 되어 있는데 (가)에서 화두를 던지고 (나)에서 그것을 이어받아 평가한 뒤 (다)에서 다시 논의를 이끌어 내거나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는 방식이다.

첫 단락은 “혼인의 義는 막중한 것으로, 장차 두 성씨의 좋음을 합하여 위로는 종묘를 섬기고 아래로는 후세를 잇는 것이다”라는 말로 시작된다. 이는 『禮記』 「昏義」에 나오는 “혼례란 장차 두 성씨의 좋음을 합하여 위로는 종묘를 섬

22) 崔昭, 『荊庵文略』 권2 『讀史漫論』 30a-31a, 〈蘇武娶胡女論〉, “婚姻之義重矣。將合二姓之好, 上以事宗廟, 下以繼後世也。吾之子孫, 吾之出也。吾之身, 即父母之支體也。故配儷失宜, 父母之支體即變爲異類也審矣。雖孝如顏閔, 忠如逢干, 可不慎其婚禮哉? 詩曰, ‘鳩(雉)鳴求其牡’, 亦譏其非其求而求之也。余讀『雜記』, 有黃帝以其女妻槃瓠, 其後爲犬戎之種。始則瞿然, 終而笑曰, ‘黃帝聖人, 寧有是事? 此傳會之說也。’ 及讀漢史以民家女爲長公主嫁匈奴, 未嘗不歎也。民家女, 獨非天民之子乎? 先王之婚義, 至此而泯矣。而爲國姑息之計, 安用此爲哉? 蘇武在匈奴, 娶其女生子。惜乎! 武之有此事也。胡女之子, 武之出也。即武父母之支體也。何其遺父母之支體於蠻貊之方也。武之誠忠苦節匈奴之所畏服, 而唯此事人將棄之。則是忠有餘而何配儷之失宜也。或云十九年曠居, 人情之所不堪, 而惟取嗣爲急。此爲武辨之之而責之之深也。松柏不犯風霜, 雨雪而不變者, 亦何所稱哉。故志士不以細行害其節, 不以久居易其介也。”

기고 아래로는 후세를 잇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가 중히 여긴다.(昏禮者, 將合二姓之好. 上以事宗廟, 而下以繼後世也. 故君子重之.)”라는 말을 변용한 것이다. 경전의 내용을 가져와 문장의 주제를 확정한 것으로 破題에 해당된다. (나)는 이 경전의 말을 자기식으로 풀이한 것이다. 혼인의 예가 막중하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배필을 잘못 구하면 후손이 異類로 변할 수 있으므로 이는 부모의 지체를 손상시키는 것이라는 주장을 끌어내었다. 이는 承題의 부분에 해당한다. (다)에서는 효자와 충신의 대표적 사례인 顏閔과 逢干을 거론하면서 그들과 같은 사람 역시 혼인의 예에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이는 곧 거론하게 될 소무를 평가하기 위한 포석을 마련한 것으로서 起講에 해당한다. 즉 1 단락의 이 세 부분은 八股文을 짓는 章法에 완전히 일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³⁾

저자는 두 번째 단락에서 첫 단락의 말을 곧바로 이어받지 않고 또 새로운 경전을 인용한다. 바로 『시경』 「匏有苦葉」의 “평이 울면서 수컷을 찾네”라는 구절이다. (나)는 주자의 주장을 가져와 구절을 해석하였다.²⁴⁾ (다)에서는 황제가 딸을 견용에게 시집보낸 일이 사실일 수 없으며, 한나라 때 여염집 딸을 흉노에게 시집보내어 화친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을 폈다. 성리학적 관점에 입각하여 화친을 부정적으로 본 것은 송나라 때부터 시작되었으므로 이는 주자의 견해를 충실히 따른 것이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확실하지 않은 상고 시절 이야기와 분명한 기록이 있는 한나라 때 이야기를 나란히 두고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여 짝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두 차례 포석을 깔아둔 뒤에야 세 번째 단락에서 본론으로 들어간다. 이 단락 역시 3단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가)에서 소무가 흉노 여인과 혼인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나)에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뒤 (다)에서 다시 앞 두 단락의 논의에 근거하여 소무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논증하였다.

23) 물론 팔고문에는 문장의 구성, 대우 등 더 엄격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으므로 이 문장이 팔고문의 격식에 완전히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24) 朱熹는 『詩經集傳』에서 이 구절을 “남녀의 교제도 예의를 헤아리고 관계를 맺어야 함을 비유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하지만 문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소무의 혼인이라는 역사 소재의 화제성과 담론의 전통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전시대 문인들의 주장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소무에 관한 최초의 기록을 남긴 사람은 최치원이지만²⁵⁾ 하지만 소무가 충절의 상징이 되어 가장 많은 찬양을 받은 것은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였고 특히 양란 이후에 특별한 관심을 받았다.²⁶⁾ 소무가 흉노족 여인과 혼인을 한 일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조선 후기에 대두되었는데 소무가 색욕을 참지 못해서 저지른 잘못이라고 보는 관점이 있는가 하면 기록이 잘못된 것이라고 굳게 믿는 사람도 있었다.²⁷⁾ 이와 반면 李瀾은 19년이나 이역에 있으면서 돌아올 가망이 이미 끊어졌고 외로운 선비가 이역에서 늙게 되었으니 여자를 얻어 자식을 낳는 것이 의리에 무엇이 해롭겠는가고 소무를 두둔했다.²⁸⁾

최소가 마지막 단락에서 논쟁의 상대로 삼은 사람은 이익이다. 우선 최소는 (가)에서 이익의 주장을 언급하고 (나)에서 그 견해를 반박한 뒤 (다)에서 다시 경전을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공고히 하면서 글의 서두 부분과 호응하고 있다. (다)는 『書經』 「旅獒」의 “자그마한 행동이라도 신중히 하지 않으면 큰 덕에 끝내 누를 끼친다(不矜細行，終累大德).”를 변형한 것인데, 이는 ‘색욕’을 참지 못했다는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는 일과 ‘혼인의 의’라는 큰 문제, 혼인의 문제라는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는 문제와 ‘충절’이라는 큰 문제를 대조시킴으로써 첫 단락의 (가), (다)와 모두 호응관계를 이룬다.

이 글의 네 단락은 3단식 병렬구조를 이루며, 한 번에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화두를 던지고 다시 분석하는 식으로 층층이 포석을 깔아나가면

25) 장운수, 「한국 문헌에 나타난 蘇武 관련 기록의 특징」, 『철학논총』 79, 새한철학회, 2019, p.439 참조.

26) 정하정, 「蘇武를 제제로 한 科表 창작의 시대적 동인과 그 양상」, 『한국언어문화』 60, 한국언어문화학회, 2016, p.335.

27) 정하정, 앞의 글, p.335.

28) 李瀾, 『星湖僿說』 권13, ‘人事門’, 〈女色陷人〉, “尚論者以蘇子卿取胡婦生通國為譏, 是不然. 十九年海上, 歸望已斷, 白鬚孤臣老死異域, 取婦生子, 於義何妨? 愚恐雖聖賢亦所屑為也.” 장운수, 앞의 글, p.451 참조.

서 점진적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첫 단락과 마지막 단락은 밀접한 조응 관계를 이룬다. 또 경전의 적절한 인용과 해석, 확고한 유가적 가치관의 수호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의작의 창작 수법과 특징

『형암문략』에서 두 번째로 많은 비증을 차지하는 것은 의작이다. 이 작품들은 역사 사건이나 인물을 소재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독사만론』에 수록된 글과 같은 면모를 보이지만 글쓰기의 수법은 확연히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 일단 가장 큰 특징은 이성을 기반으로 한 논리적인 글쓰기가 아니라 감정에 호소하는 감성적인 성격이 매우 짙다는 점이다. 아래 〈代燕太子丹送荊軻入秦序〉의 창작 수법과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자.

①점 한 자루로 이웃 나라의 군주를 우습게 여기고 몇 사람이 모여 천하의 일을 논의하니 저의 계획은 서툴고 선생이 가시는 길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미 몸을 바쳐 義舉를 행하기로 하셨으니 이곳에서 마음속의 말을 하려고 합니다. 선생께서는 살펴 주십시오.

②진나라는 저에게 불구대천의 원수입니다. 진나라에 당한 치욕으로 인해 깊은 수치심과 울분이 맺혀 이 원한을 갚을 것을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과부적으로 틈탈 기회조차 없어서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빼앗긴 땅을 되찾자니 회맹에 나간 曹沫 같은 사람이 세상에 없고, 암살을 시도하자니 俠累를 쫓아 죽인 聶政 같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중략)

③아, 선생은 검을 논하여 俠士들 가운데서 신망이 두텁습니다. 저는 崑山과 函穀에서 원한을 품은 지 오래 되었습니다. 진나라의 嬴政의 목을 베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저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게다가 진나라 군사는 날로 강해져 작년에는 韓과 魏 두 나라를 멸망시켰고 올해에는 趙나라를 도륙했습니다. 그 휩쓰는 기세를 보면 얼마 안 가 곧 易水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약한 燕나라가 버티지 못할 것은 선생도 아는 바입니다. 속수무책으로 멸망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기이한 계획을 내어 행여나 만분의 일이 기회라도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하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이는 또한 제가 선생이 일찍 저에게 승낙한 바를 기대하는 점입니다.

④선생도 들으셨지요? 要離가 慶忌를 암살하자 혜성이 달을 침범하였고 專諸가 吳나라 왕 僚를 죽이자 검은 독수리가 대전을 쳤다는 이야기를요. 이 두 사람은 몸

은 죽었으나 功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선생이 진나라에 들어감에 흰 무지개가 해를 뚫고 지나가고 하늘색이 참담하니 그 장대한 기운이 하늘에 뻗치고 제가 도모하고자 하는 일이 가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아, 역수의 찬 바람이 쭉뼛 일어선 머리에 불어오고 배웅하는 자들은 모두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눈을 부릅떠 찢어지려고 하는 것은 선생의 용기요, 한 자 길이의 비수와 지도 한 장으로 나라의 큰일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선생님께 깊이 기탁하는 바입니다. 선생께서는 살펴 주십시오.²⁹⁾

이 글의 시대적 배경은 戰國 시기이고 글의 장르는 贈序이다. 하지만 이 시대적 배경과 글의 장르 사이에는 사실 모순이 존재한다. 다른 사람에게 주는 글을 ‘序’라고 이름하기 시작한 것은 唐나라 초기에 시작된 일이므로 전국시대 사람인 燕나라 태자 丹이 동시대 사람인 荊軻에게 ‘序’라는 장르적 속성을 명기하는 글을 써준 일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에 ‘代’, ‘擬’, ‘使’ 등 글자를 붙이면 상황은 달라진다. 역사 인물을 가정한 글쓰기의 성격을 띠게 되기에 존재의 근거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증서는 唐代에 창작되기 시작하였고 韓愈에 이르러 큰 발전을 가져왔으며, 清代 姚鼐의 『古文辭類纂』에서 처음으로 하나의 독립된 문체로 인식되었다. 증서는 주로 권면의 뜻을 주제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증서의 기본적인 성격은 의론이다. 특히 한유는 증서를 통해 의론을 전개하는 데 능했다. 『분여고』에 실린 최초의 두 편의 송별서(증서) 역시 비교적 강한 의론적 색채를 띠고 있는데 이는

29) 崔昭, 『荊菴文略』, 권3 『雜著』 34a-35a, 「代燕太子丹送荊軻入秦序」, “一劍而賤鄰國之君, 數人而謀天下之事, 丹之計疎矣. 先生之行亦危矣. 然既荷捐軀之義, 茲盡傾心之語, 維先生察之也. 丹之於秦讎不共天, 恥深於折辱, 憤結於見陵. 欲申此怨, 靡日不忘. 顧眾寡不敵, 無?隙之可乘, 邦國日蹙有危亡之立. 至欲奪汶上之田, 則世無怯盟之曹沫, 又圖行刺之術, 則未有剽累之聶政. (중략) 噫, 先生之講劍於俠士之藪深矣. 丹之齎憤於崑崙之天久矣. 今日聞之受讎則明日丹雖死無恨矣. 且秦兵日強, 去年滅韓魏, 今歲屠趙, 代以席捲之勢, 將不日而次易水也. 弱燕之不能支, 先生之所知也. 與其束手以待亡, 毋寧策奇微幸冀萬一之會也. 而丹之所期於先生之所嘗許於丹者也. 先生不聞乎? 要離刺慶忌彗星犯月, 專諸殺王僚蒼鷹擊殿, 彼二人者身雖死而功則成矣. 今先生入秦白虹貫日, 天氣慘澹, 可見壯氣之衝天宇而丹之事庶有望矣. 嗟乎, 易水風寒, 怒發蕭蕭, 白衣祖道, 電目裂眦者, 先生之氣勇也. 尺匕函首一幅與圖謀國大事者, 丹之所以深托先生者也. 惟先生察之焉.”

이런 전통을 따른 것이다. 하지만 증서는 특정된 상대를 정해서 쓰는 글이기 때문에 ‘사적인 글’이라는 설정 또한 갖게 되었는데 歐陽修나 蘇洵 같은 송대의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체감하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글을 썼다.³⁰⁾

최소의 이 글은 권면의 뜻을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증서의 성격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권1에 수록된 송별서가 상대적으로 강한 의론적 특징을 보이는 것과 달리 이 글은 감성적인 색채가 충만하다. 저자가 연나라 태자 丹의 신분이 되어 1인칭의 직접화법을 구사하고 있어서 역사 인물의 내밀한 감정이나 정서를 드러내는 데 매우 적합하다. 하지만 동시에 역사 정세에 대한 세밀한 분석 또한 구비하고 있다.

시작 부분인 ①에서는 우선 ‘검 한 자루’, ‘몇 사람’과 ‘이웃 나라의 군주’, ‘천하의 일’을 대비시켜서 진나라 왕을 암살하려는 시도의 무모함과 위험을 부각시켰다. 이어 곧바로 형가가 몸을 바쳐 義舉를 행하기로 했음을 논하여 뒤에서 자신의 절박함과 형가의 비장함을 서술하기 위한 포석을 깔고 있다. 여기서 “검 한 자루로 이웃 나라의 군주를 우습게 여기고”와 “몇 사람이 모여 천하의 일을 논의한 것”은 내용과 형식에서 모두 완벽한 대구를 이루며, “저의 계획은 서툴고”와 “선생이 가시는 길은 위험합니다”는 형식에서는 완벽한 대구가 아니지만 내용으로는 짝을 이룬다. 짝을 이루는 동시에 선명한 대비를 이루어 암살 시도의 위험성과 송별의 분위기의 비장함을 더 고조시켰다.

이어 ②에서는 자신과 진나라의 원한, 형가에서 암살을 부탁하게 된 계기를 서술하고 ③에서는 이번 암살을 결단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을 설명하였다. ①과 ②에서는 상황 서술 뒤에 ‘그러나[然]’라는 어휘를 넣어 앞뒤 상황을 대조시키면서 감정의 진지함과 상황의 절박성을 부각시켰다. ④에서는 要離와 專諸의 사례를 들어 암살에 성공하면 형가 역사에 길이 남을 큰 업적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격려하였다. 이어 흰 무지개가 달을 뚫고 들어가는 천문현상, 역수의 찬 바람과 배웅하는 사람들의 흰옷, 형가의 용기 등에 대한 묘사를 통해 비장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30) 천평위안, 김홍매·이은주 옮김, 『중국산문사』, 소명출판, 2020, pp.225-232 참조.

이 글 역시 앞의 사론 산문과 마찬가지로 포석을 갈아나가면서 단계적으로 설득해 나가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다만 앞에서 본 〈소무취호녀론〉의 단락들이 병렬식 구조였던 것과 달리 위의 글은 네 단락이 비교적 긴밀한 기승전결의 구도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네 단락이 각자 안정적이고 자족적인 구도를 취하고 있는 점은 같다. 매 단락이 모두 새로운 화두를 던지는 느낌으로 시작되는 외에, 반복하여 轉折의 수법을 사용하여 과란을 일으키면서 점차 감정을 고조시키고 있다.

3. 결론

이상 한학 역관 최소의 문집인 『형암문략』의 편찬 과정과 내용, 문체적 특징, 창작수법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형암문략』에 실린 대량의 역사 소재 작품은 체제와 주제 등 면에서 사대부 문인들의 글쓰기와 상통하는 점이 매우 많다. 본고에서는 『형암문략』에 수록된 작품과 사대부 문인들의 작품을 비교하고 사역원의 시험제도를 살펴 『형암문략』에 수록된 작품 상당수가 사역원의 시험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또 최소가 역과에서 장원을 했으며 작품 상당수가 벼껴서 전해지거나 외워서 전해졌다는 점, 『형암문략』이 예조참관을 지낸 남공철의 평점이 부기된 형태로 편찬되었다는 점, 최소가 家塾의 학동에게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창작한 글이 들어있는 점 등으로부터 『형암문략』이 역관의 글쓰기 교본의 용도로 편찬되었거나 향유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위의 견해를 기반으로 『형암문략』에 수록된 작품 중에서 비교적 화제성이 있는 역사 사건이나 인물을 소재로 한 사론 산문과 의작을 예로 창작수법을 살펴보았다. 사론 산문에서는 〈蘇武娶胡女論〉을 예로 들었는데 이 작품은 총 4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단락이 모두 3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병렬식 구조로 되어 있다. 매 단락에서 모두 시작 부분에서 특정 주장이나 사건을 언급한 뒤 그에 대한 판단이나 해석을 붙이고 이어서 구체적인 논의를 펼치는 식이다. 또 논지를 첫 번째 단락에서 주장한 뒤 곧바로 전개하지 않고 한두 번 포석을 갈아둔 뒤 다시 구체적인 전개로 들어가며, 첫 번째 단락과 마지막 단락의 수미 조응에

신경 쓰고 유가의 경전을 인용하여 시작과 끝을 맺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의작에 대해서는 <代燕太子丹送荊軻入秦序>를 예로 들어 창작수법을 살펴 보았다. 이 작품 역시 네 개의 단락으로 나뉘어질 수 있으며, 각 단락이 상대적으로 독립된 구성을 보이고 층층이 포석을 깔아나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사론 산문의 창작 수법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역사 사건의 정확성과 구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등장 인물의 내밀한 심리와 감정을 드러내는데 천착한다는 점, 짙은 감성적 색채를 지닌다는 점에서는 사론 산문과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

최소의 『형암문략』에 수록된 작품들은 과거시험과의 관련성을 강하게 드러내는데, 이는 다른 역관의 문집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양상이다. 『형암문략』의 글은 당시 역관의 시험에서 중시되었던 주제와 글쓰기 형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역관의 글쓰기 양상을 알아보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다른 역관의 글쓰기 특히 적지 않은 분량의 사론 산문을 남긴 변중운의 문학작품을 분석하는 데도 새로운 참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의 의미는 학계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역관의 문집인 『형암문략』을 소개하고 그 문체와 창작수법에 대한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선행연구에서는 밝혀지지 않았던 사역원 시험의 새로운 면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역관들의 모범이 되었던 작품의 글쓰기 전략을 분석하여 19세기 역관 문학의 새로운 면모를 밝혔다는 점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지면의 제한으로 일부 작품만 살펴보는 데 그쳤고 다른 역관 나아가 사대부 문인들의 작품과의 비교는 진행하지 못했는데 이 부분은 후속 연구로 미룬다.

부록: 『형암문략』 수록 작품

권명	작품명	내용
焚餘稿	李君金剛記序	李君이 쓴 『金剛記』에 붙인 서문
	送人赴燕序	연경으로 가는 사람에게 써준 송별서
	關南廟記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에 관우의 묘가 생기게 된 일
	文昌侯影堂記	永平에 있는 최치원의 사당에 대해 쓴 글
	亦山樓記	본인의 누각인 亦山樓에 붙인 기문
	芭蕉引	마당에 파초가 자라난 일을 읊은 글
	題陰騭文後	벗이 중국에서 구입해 온 『陰騭文』에 대해 쓴 글
讀史漫論	造干戈論	黃帝가 전쟁을 일으킨 것은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잘못이 아니다.
	使蘇治水論	舜임금이 蘇를 등용한 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행해졌으므로 잘못이 아니다.
	先王之賜伯禽之受皆非論	주공이 사망하였을 때 천자의 예로 장례를 치르게 한 것은 잘못이다.
	孔子貌類陽貨論	공자와 양화가 용모가 비슷했는데 성품과 경지가 완전히 달랐던 것은 공자는 열심히 도를 닦았으나 양화는 聖道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無敵國外患者國恒亡論	나라에 외환이 없으면 군주의 마음이 태만해져 나라가 망할 가능성이 커진다.
	伍尚伍員孰賢論	춘추 시기의 伍員과 그의 형 伍尚은 한 명은 부친과 생사를 함께 했고, 한 명은 부친과 형의 원수를 갚았으므로 두 사람이 다 어질다.
	豫讓眞義士論	豫讓은 두 임금을 섬겼으므로 이미 진정한 義士가 아니며, 그는 다만 俠士였을 뿐이다. 또한 의리가 아니라, 군주가 자신에게 어떤 이익을 주었는가를 그에게 충성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척도로 삼았으므로 이 또한 신하의 도리가 아니다.
	事漢非本心論	장량이 진심으로 漢과 韓 두 나라의 안위를 걱정한 것이 아니므로 두 나라를 섬긴 것이 모두 진심이 아니었다.
	不渡烏江論	項羽가 패한 뒤 烏江을 건너지 않은 것은 패하고도 구차하게 살아남으려고 하지 않고, 할 수 없음을 알고는 더 이상 하지 않은 것으로, 그가 진정한 대장부였음을 보여준 것이다.
	斬丁公論	漢高祖는 賞罰恩怨을 성인의 도로 하지 않고 詐術로 하였다.
大封同姓論	봉건제는 천하를 공공의 것으로 본 것이며 한고조가 同姓을 크게 봉한 것은 주나라의 제도를 따른 것이다.	
偽遊雲夢論	漢高祖가 신하들을 의리가 아닌 술수로 대한 것은 잘못되었다.	

	蕭何盛治未央宮論	미양궁을 화려하게 건축한 것이 분명 한고조의 의사였음에도 소하가 모든 비난을 혼자 떠안았을 것이다.
	漢文不用賈誼論	漢文帝가 賈誼에게 높은 벼슬을 주지는 않았지만 그의 책략을 사용했으므로 등용한 것과 마찬가지다.
	不相賣廣國論	한문제는 외척의 정권 농단이 두려워 두황후의 동생인 竇廣國이 재능이 있음에도 그를 등용하지 않았다.
	五尺之童羞稱五霸論	공자 문화의 어린 동자조차도 春秋五霸에 대해 논하기를 부끄러워했다.
	蘇武娶胡女論	蘇武가 흉노족 여인과 결혼하여 후손을 낳은 것은 예법에 맞지 않으므로 잘못된 것이다.
	問牛喘論	漢나라의 재상인 丙吉이 소가 헐떡이는 것을 묻고 사람들이 죽고 다친 일에 대해 묻지 않은 것은 人事를 무시하고 天道를 파악하려 한 것으로, 잘못되었다.
	孔明不用魏延計論	諸葛亮이 魏延의 계책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상황 판단을 잘못 해서가 아니다.
	殺曲端論	南宋 때 張浚이 명장인 曲端을 죽인 일은 모함을 믿고 인재를 죽인 것이므로 잘못이다.
雜著	代燕太子丹送荊軻入秦序	燕나라 태자 丹의 입장이 되어서 진시황을 암살하러 가는 荊軻를 전송하는 贈序
	擬蜀中人士送蘇明允率二子入京師序	사천 지역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蘇洵 삼부자를 격려하는 내용
	爲范雎謝廁中守者序	范雎의 입장이 되어서 그를 측근에서 구해준 사람에게 감사하는 내용
	使毛遂自上薦書	毛遂의 입장이 되어서 올린 자기추천서
	代漢博士撰却千里馬詔	博士의 신분으로 漢文帝를 대신하여 지은 조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천리마가 아니라 인재라는 내용
	農人告春及說	柴桑의 농민이 陶淵明에게 농사를 권장하고 시골의 삶을 즐기라고 말하는 내용
	氷山記	당나라 때 楊國忠이 음험한 수단으로 국정을 농락하였기에 陰을 기운으로 하는 빙산이 나타났다고 하는 내용
	鳳鳴岐陽頌并小序	봉황이 岐山에서 운 일에 대해 쓴 頌
	指南車銘并小引	黃帝가 만든 指南車에 대해 쓴 銘
	斬蛇劍銘并序	한고조 劉邦의 斬蛇劍의 공로를 읊은 銘
	太牢祀孔子頌并序	漢代의 신하의 신분을 상징하여 太牢로 공자를 제사지내며 지은 頌. 秦은 성인의 道를 저버렸으므로 멸망했고 漢은 오래 번창하리라는 내용
	折檻銘并小序	漢成帝가 朱雲이 잡았던 난간을 보존한 일에 대해 읊은 銘
	四知金贊并小序	楊震이 하늘과 땅과 당신과 내가 안다고 하면서 뇌물을 받지 않았던 일을 읊은 贊
木牛流馬銘并小序	諸葛亮이 魏와 싸울 때 군량 운수용으로 만들었던 나무소와 딸말이말을 읊은 銘	

◆ 참고문헌

1. 자료

崔昭, 『荊菴文略』, 규장각 소장 필사본, <奎7258>
 卞鍾運, 『獻齋集』, 한국문집총간 303.
 朴趾源, 『燕巖集』, 한국문집총간 252.
 李瀾, 『星湖僿說』, 한국문집총간 27.
 金華俊, 『棠溪集』, 『한국문집총간』 속29.
 『丙辰貼』 土冊, 하버드대학교 연칭대학교 소장 필사본.
 『譯科榜目』
 『日省錄』

2. 단행본

김홍매, 『소재 변종운 문학 연구』, 국학자료원, 2020.
 천평위안, 김홍매 · 이은주 옮김, 『중국산문사』, 소명출판, 2020.

3. 논문

김홍매, 「소재 변종운 문학의 주제의식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년.
 ———, 「역관 崔性學의 생애와 문학 세계」, 『대동한문학』 50, 대동한문학회, pp.305-333.
 백진우, 「朝鮮後期 史論 散文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년.
 우지영, 「擬作의 창작 동기와 창작 양상에 대한 一考-韓信 소재 擬作 작품을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41, 동방한문학회, 2009, pp.341-363.
 이용길, 「조선시대 사역원의 외국어 교육」, 『한국교육사학』 44권 22호, 2022, 113-144 쪽.
 장운수, 「한국 문헌에 나타난 蘇武 관련 기록의 특징」, 『철학논총』 79, 새한철학회, 2019, pp.437-455.
 정하경, 「蘇武를 제재로 한 科表 창작의 시대적 동인과 그 양상」, 『한국언어문화』 60, 한국언어문화학회, 2016, pp.331-357.

논문접수일	2023년 05월 10일
심사완료일	2023년 05월 26일
게재확정일	2023년 06월 08일

Abstract

The Writing Patterns of Choi So's "The works of Hyeong-am"

Jin, Hong-mei

"The works of Hyeong-am" is a collection of writings by a Chinese interpreter Choi So(崔昭, 1786-?), and although there are not many works included, it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the literature of the interpreter. Unlike most of the works of translators found so far, "The works of Hyeong-am" shows a side that has not been found in translator literature in the past as it contains a large amount of prose.

Considering the compilation process, stylistic characteristics, the author won first place in the interpretation qualification test, and people memorized his works, there are many articles related to the interpreter's test, and these articles may have been used as reference books for writing.

The largest portion of "The works of Hyeong-am" is an argument and an imitation work, all of which are very closely related to the past exam. The Choi So's an argument is characterized by the advocacy of Confucian values, the composition of parallel paragraphs, and the development of forward discussions. On the other hand, an imitation work are similar to prose in that they are based on historical events and characters, but they show different characteristics in that they have penetrated the use of direct painting, strong emotional colors, and the inner emotions of historical characters. However, in the meticulous development based on historical facts, it also tends to be similar to an argument.

Keyword Interpreter, Choi So(崔昭), "The works of Hyeong-am(『荊庵文略』)", an argument, an imitation work

中国学界朝鲜语研究现状与展望

-基于CiteSpace的科学计量分析-

金哲俊* · 赵光范**

국문요약

본 논문에서는 문헌계량학방법을 이용하고 CiteSpace에 기반해 지식 그래프를 그려 넘으로써 1980년-2020년의 기간 동안 CNKI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한국어 연구 관련 주제 문헌을 측정 및 시각화했다. 저자는 문헌 시간 분포, 저널 분포, 저자 및 과학 연구 기관의 분포를 조사하여 중국에서의 한국어(조선어) 연구 현황, 연구 이슈 및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과학 지식 그래프를 그려 한국어(조선어) 연구의 계량학적 특징을 직관적으로 나타내고, 다차원적 관점에서 한국어(조선어) 연구의 진화적 맥락을 발굴 및 탐색하며, 이 분야의 지식 구조를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중국에서의 한국어(조선어) 연구의 전체 문헌량은 안정-성장-순환의 3단계로 나타났는데 주요 학술지의 수량은 안정적인 반면에 수가 적은 편이다. (2)연구분야의 주축으로 되는 학자로는 필옥덕, 이득춘, 강춘옥, 김항화, 김영수, 김광수 등의 학자들이다. (3)핵심 기관은 연변대학교, 요동학원, 대련외국어대학교, 상해외국어대학교, 사천외국어대학교, 중앙민족대학교, 해방군 외국어학원 등의기관에 집중되어 있다. (4)주요 학술지로는 『한국어 교수 및 연구』, 『연변대학교 학보』, 『민족어문』, 『동강학간』, 『중국어학습』, 『중국조선어문』 등의 간행물에 집중되어 있다. (5)연구의 관심분야로는 ‘한국어(조선어)와 교수 패턴, 한국어(조선어)와 고등직업대학교, 한국어(조선어)와 어휘, 한국어(조선어)와 음성, 한국어(조선어)와 문법, 한국어(조선어)와 비교 연구’ 등이 있다.

주제어 CiteSpace, 한국어(조선어), 시각화 분석, 문헌계량학, 지식 그래프

* 延边大学 朝汉文学院 朝文系 教授

** 延边大学 朝汉文学院 朝文系 博士研究生, 第二作者

〈目録〉

1. 引言
2. 研究设计
3. 数据分析
4. 存在的问题及建议
5. 结论

1. 引言

了解某一领域的研究现状，文献综述是一个重要的途径。本文将‘朝鲜语、朝语、韩国语、韩语’作为主题检索词，进行文献检索。与此同时，为了扩大研究的广度，将‘韩国学’加入到检索词中。需要说明的是，在本文中阐述研究主题词时，统一采用‘朝鲜语’一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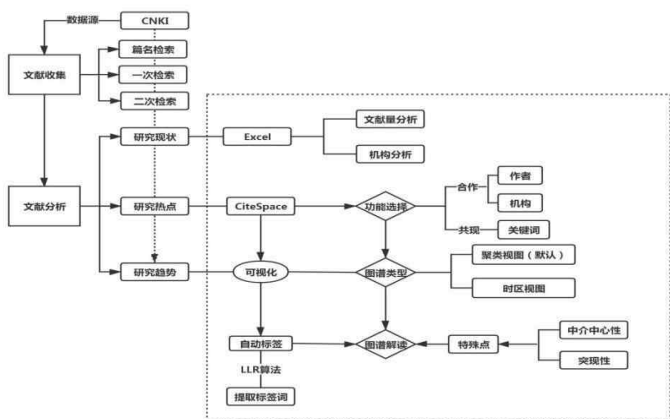
文献计量学是以文献体系和文献计量特征为研究对象，采用数学、统计学等计量方法，研究文献情报的分布结构、数量关系、变化规律和定量管理，并进而探讨科学技术的某些结构、特征和规律的一门学科¹⁾。随着现代信息技术在教育领域的推广与普及，计算机辅助的统计方法在文献计量研究中的应用逐步受到重视，为了掌握朝鲜语领域的研究现状、研究热点以及研究趋势，本文采用文献计量学方法，借助可视化分析软件CiteSpace，对中国知网（CNKI）数据库中1980—2020期间收录的朝鲜语研究相关主题文献，进行了计量可视化分析。通过考察其文献时间分布、期刊分布、作者和科研机构分布情况，尝试分析该领域的研究现状、研究热点和研究趋势，绘制科学知识图谱直观地呈现出朝鲜语研究的计量学特征，旨在从多维视角来挖掘和探索朝鲜语研究的演进脉络，梳理该领域的知识结构。希望本研究成果能为今后朝鲜语研究的学者们提供一定的指导与借鉴作用。

1) 邱均平，『文献计量学』，北京：科学出版社，2019，p.9.

2. 研究设计

1) 研究思路

根据研究目的, 本文设计了文献综述研究方案流程图(见图1)。



〈图1〉‘朝鲜语’文献综述研究方案

2) 数据来源

为了了解中国学界朝鲜语研究的总体发展状况, 本文以中国知网(CNKI)数据库为检索源, 以‘朝鲜语、朝语、韩国语、韩语、韩国学’为检索词, 将来源类型选择全部期刊, 检索到第一条有效文献的时间为1956年, 同时本文还发现, 从1956—1977年期间文献出现断层现象。因此, 本文考虑到数据的连贯性以及数据源系统更新周期等问题, 将开始时间设定为1980年, 截止时间限定为2020年²⁾, 其他选项都不勾选, 采用主题检索方式, 得到4688条数据, 经人工手动剔除书评、简介、通知等无效数据1850条, 剩余2838条有效数据。数据检索时间为2022年9月12日。

2) 本文为了提高运行效率, 绘制时区知识图谱时阈值选择的整数设置、数据源系统更新周期以及进一步探索并验证研究趋势等问题, 将文献的截止时间设定为2020年。

3) 研究问题

通过对中国学界朝鲜语研究进行可视化分析, 本文试图挖掘以下问题: ①朝鲜语研究主要涉及哪些热点话题? ②朝鲜语研究在期刊分布具有哪些特征? ③朝鲜语研究的高产作者有哪些? ④朝鲜语研究的作者机构分布情况如何? ⑤朝鲜语研究存在哪些不足点? ⑥朝鲜语研究未来研究领域大致呈现出什么样的特点和趋势?

4) 研究工具

作为一款用Java语言编写而成的文献计量可视化软件, CiteSpace集合作网络分析、共现分析、共被引分析、聚类分析、耦合分析等诸多功能于一身, 能够根据研究者输入的纯文本格式文献资料和参数设置, 自动生成某一指定领域的科学知识图谱, 在文献可视化分析方面具有独特优势³⁾。本文借助文献计量学领域可视化分析软件CiteSpace, 结合定量与定性分析方法, 通过设定具体参数绘制知识图谱, 从作者、机构、词频等多维角度对中国学界朝鲜语研究进行深入剖析, 来挖掘1980-2020年期间朝鲜语文献的研究现状、研究热点和未来趋势等。

在CiteSpace运行界面中, 时间分割 (Time Slicing) 设置为1980-2020, 时间切片参数 (Years Per Slice) 设置为4年⁴⁾, 节点内容 (Node Types) 选择作者 (Author)、机构 (Institution)、关键词 (Keyword), 网络剪裁 (Pruning) 选择Pathfinder (寻径)、节点阈值 (TopN) 设定为50, 其他数值默认系统不变。

3) 李杰, 陈超美, 『CiteSpace: 科技文本挖掘及可视化』, 北京: 首都经济贸易大学出版社, 2016, p.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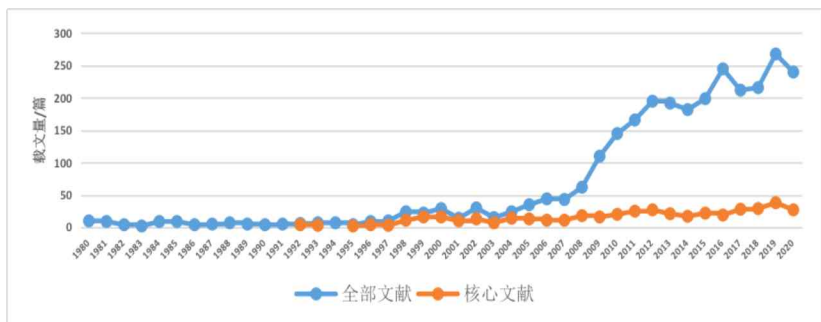
4) 时间切片参数 (Years Per Slice) 设置是根据检索文献的年限跨度进行设置的, 一般选择'1', 意思是将检索得到的文献, 按照1年为单位进行划分。本文文献的年限跨度是从1980-2020年, 由于文献年份跨度较大, 文献数量较多, 也可选择更长年份进行切片, 以此来提高运行效率, 同时也为了绘制时区知识图谱时阈值选择的整数设置, 因此本文将时间切片参数设置为4.

3. 数据分析

1) 研究现状

(1) 文献量分析

文献的数量变化能够直接呈现该领域的知识量的变化情况，通过分析文献数量的增长变化规律来判断和探索朝鲜语学科的发展规律。本文以年发文献量为单位对检索的全部文献2838条和核心文献（北大核心&CSSCI）450条进行统计，运用Excel办公软件绘制文献的年度数量趋势图（见图2）。



〈图2〉“朝鲜语”文献量的年度趋势图

从图2可以看出，40年来朝鲜语研究呈现井喷式增长趋势。其中重要的拐点出现在2008年。从2008年开始，朝鲜语研究的论文数量呈现出持续快速增长的趋势。根据Menard的研究表明，一门学科总的文献增长率随不同的时期而变化，他认为，一般可以分为三个阶段：①稳定界—直线型增长，学科处于诞生时期；②增长界—以较快的指数型速率增长，学科处于发展时期；③循环界—稳定和增长交替发生，学科处于成熟期⁵⁾。由图可知，朝鲜语研究文献的数量变化符合该规律。从整体上来看，从1980—2000年是朝鲜语研究的萌芽期，文献数量在小幅波动中平稳增长；2001—2010年是朝鲜语研究的发展奠定

5) 邱均平，《信息计量学》，武汉：武汉大学出版社，2007，p.63.

期,从十几个扶摇直上百个文献,这一时期的中国学界朝鲜语研究有了重大进展,在‘量与质’上都取得了前所未有的成果,硕果累累,为推动中韩文化交流做出了巨大的贡献;2011-2020年是朝鲜语研究的全面发展与分化阶段,数量在缓慢且循环增长。核心文献量发展趋势相对来说一直趋于平稳态势。根据中国中文社会科学引文索引(CSSCI)来源期刊目录(2021-2022)可知,专门刊登语言学的核心期刊共计25本⁶⁾,其中能刊登朝鲜语研究论文的期刊数量相对更少。鉴于以上分析可知,朝鲜语文献研究在质量和数量上的力度都有待加强。

(2) 期刊分析

各种期刊的情报价值有大有小,在情报信息交流中所发挥的作用各不相同。这种情报价值交流作用的大小往往取决于相关论文在期刊中的分布情况⁷⁾。通过Excel软件统计可知,2838条学术论文分布于500多种期刊中,涉及领域非常广泛,包括科技信息类、学报类、教育与研究类、外语类等。本文归纳整理出载文量 ≥ 50 篇的期刊如下所示(见表1)。

6) 中国中文社会科学引文索引(CSSCI)来源期刊目录(2021-2022):当代修辞学(复旦大学)、当代语言学(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方言(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汉语学报(华中师范大学)、汉语学习(延边大学)、民族语文(中国社会科学院民族学与人类学研究所)、上海翻译(上海市科技翻译学会)、世界汉语教学(北京语言大学)、外国语(上海外国语大学)、外语电化教学(上海外国语大学)、外语教学(西安外国语大学)、外语教学理论与实践(华东师范大学)、外语教学与研究(北京外国语大学)、外语教育研究前沿(北京外国语大学)、外语界(上海外国语大学)、外语与外语教学(大连外国语大学)、现代外语(广东外语外贸大学)、语文研究(山西省社会科学院)、语言教学与研究(北京语言大学)、语言科学(江苏师范大学语言研究所)、语言文字与应用(教育部语言文字应用研究所)、语言研究(华中科技大学中国语言研究所)、中国翻译(当代中国与世界研究院、中国翻译协会)、中国外语(高等教育出版社)、中国语文(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

7) 邱均平,『信息计量学』,北京:科学出版社,2019,p.316.

〈表1〉‘朝鲜语’文献期刊分布

No.	期刊名称	载文量	No.	期刊名称	载文量
1	韩国语教学与研究	180	6	汉语学习*8)	63
2	延边大学学报(社会科学版)	128	7	科教文汇	61
3	才智	102	8	解放军外国语学院学报*9)	56
4	民族语文*10)	88	9	中国朝鲜语文	54
5	东疆学刊*11)	71	10	科技信息	53

文献的分布遵循着一定的规律。以上朝鲜语文献的分布具有集中规律和离散规律。文献的刊登与期刊研究领域性质息息相关,每个期刊都有各自涉及的研究领域和学科方向特点。从表1可以看出,国内朝鲜语研究文献集中的期刊有『韩国语教学与研究』『延边大学学报(社会科学版)』『才智』『民族语文』『东疆学刊』『汉语学习』『科教文汇』『解放军外国语学院学报』『中国朝鲜语语文』等。其中,『中国朝鲜语文』(중국조선어문)期刊收录语种为朝鲜语,『韩国语教学与研究』(한국어 교수와 연구)期刊收录语种为朝鲜语或者汉语。这些期刊为中国朝鲜语的研究和发展搭建了良好的交流平台与学习论坛。

(3) 作者分析

从文献计量的角度探讨语言学家的著述规律及其所发表文献之间的数量关系,是文献计量学的重要研究内容之一。在文献计量学中,洛特卡定律揭示了科学生产率及作者与论文之间的数量关系。在洛特卡定律的基础上,普赖斯进一步研究了科学家人数与科学文献数量的关系,设最高产的那位科学家

8) 『汉语学习』为中国北京大学『中文核心期刊要目总览』以及CSSCI中文社会科学引文索引(2021-2022)来源期刊。

9) 『解放军外国语学院学报』为中国北京大学『中文核心期刊要目总览』以及CSSCI中文社会科学引文索引(2021-2022)来源期刊(扩展版)。

10) 『民族语文』为中国北京大学『中文核心期刊要目总览』以及CSSCI中文社会科学引文索引(2021-2022)来源期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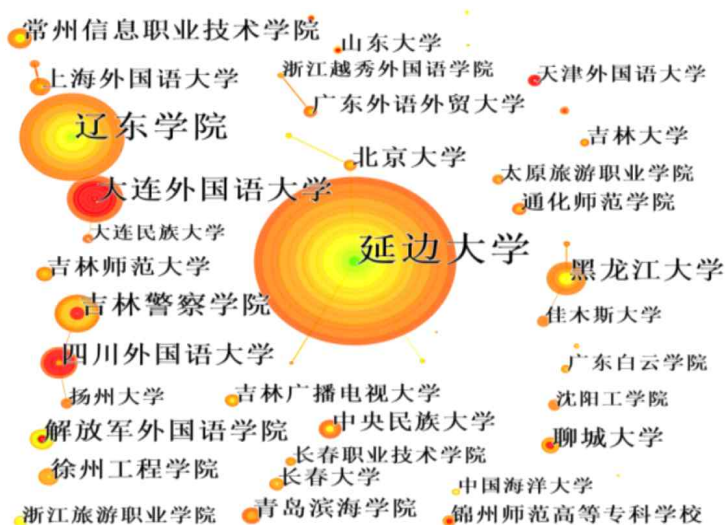
11) 『东疆学刊』为CSSCI中文社会科学引文索引(2021-2022)来源期刊(扩展版)。

所发表的论文数为 n_{\max} , 经过推导和计算得出 $m \approx 0.749(n_{\max})^{0.5}$ 公式, m 为普赖斯假定的这样一个数, 即发表了 $0.749(n_{\max})^{0.5}$ 篇以上论文的科学家所发表的论文总数等于全部论文总数的一半; 或者说, 杰出科学家中最低产的那位科学家所发表的论文数等于最高产科学家发表论文数的平方根的74.9%¹²⁾。借助CiteSpace软件对作者进行分析时, 将Nodes Type选择为Author运行可知, 最高产的语言学家为毕玉德, 发文量最高, 达到24篇。根据普赖斯定律可知, $m \approx 3.7$, m 值取临近的最大整数为4, 即发文量 ≥ 4 篇的作者为高产作者, 根据统计得出高产作者共115位。本文结合普赖斯定律, 利用CiteSpace软件绘制作者合作知识图谱, 得到' $N=268$ 、 $E=48$ 、 $Density=0.0013$ '的网络知识图谱(见图3)。从网络密度数值来看, 该高产作者合作强度一般。在作者合作网络的知识图谱中, 节点的大小代表作者发表论文的数量, 节点越大则发表的论文越多。其中, 发表论文篇数 ≥ 10 的高产作者有'毕玉德、李得春、姜春玉、金香花、金永寿、张旭、田美燕、姚巍、金文植、黄进财、李丹、郑杰、金基石、金光洙、张晓宇'等。节点之间的连线则表示合作关系, 其粗细表明合作的强度。作者合作一般可分为'学缘'和'地缘'关系, '学缘关系'指同处于一个科研机构中的导师与学生之间、同事之间和同学之间的关系, '地缘关系'指项目驱动下的跨区域和跨学校之间的合作关系¹³⁾。在该作者合作知识图谱中既有学缘关系又有地缘关系。例如, 李得春、金基石; 金文植、安秀兰; 金香花、金顺女; 毕玉德、刘洋、安帅飞、宋英华等。

12) 邱均平, 同上, pp.192-195.

13) 覃城, 方向明等, 「中国农村产业融合发展研究现状与展望-基于CiteSpace文献计量分析」, 『中国农业大学学报』第1期, 2021, pp.198-208.

构，始建于1949年，是中国共产党最早在少数民族地区建立的高校之一，于2005年成立了朝鲜-韩国语学院，其前身是1949年成立的朝鲜语言文学系和1972年成立了的朝鲜语系。于2017年将朝鲜-韩国语学院、汉语言文化学院、人文学院的汉语言文学专业合并成朝汉文学院。众所周知，延边大学是中国学习朝鲜语的圣地，拥有权威的师资阵容和强大的教学团队，延边大学对朝鲜语专业的发展功不可没。中国学界朝鲜语专业的开山祖师是延边大学，70余年来，筚路蓝缕，砥砺前行。作为国家培养朝鲜语人才的主要基地，20世纪50年代起，肩负着全国范围内的朝鲜语人才的培训任务，承担了早期北京大学和洛阳解放军外语学院等高校的朝鲜语专业学生的代培任务。作为中国成立最早的朝鲜语研究机构，延边大学朝鲜语专业的发展历程在一定程度上也反映了中国朝鲜语学科的发展历程。



〈图4〉“朝鲜语”研究机构合作知识图谱

2) 研究热点

在探究某领域的研究整体发展历程和热点趋势时, CiteSpace可视化软件不仅为人们呈现了一个全新的研究视角, 而且提供了一个有价值的科学研究工具。陈悦¹⁵⁾等在『引文空间分析原理与应用』一书中提到, “在基于‘改变看世界的方式’这一设计理念, CiteSpace就是把成千上万的文献数据转换成一目了然的可视化图谱, 以最直接的方式发现隐埋在大量数据中的规律和让人不易察觉的事情, 即绘制科学知识图谱。”所谓知识图谱是以知识域(knowledge domain)为对象, 显示科学知识的发展进行与结构关系的一种图形, 它具有‘图’和‘谱’的双重性质与特征, 既是可视化的知识图形, 又是序列化的知识谱系, 显示了知识单元或知识群之间的网络、结构、互动、交叉、演化或衍生等诸多隐含的复杂关系, 而这些复杂的知识关系正孕育着新的知识的产生¹⁶⁾。在朝鲜语研究领域分析中, 本文分别绘制词频共现知识图谱、聚类知识图谱, 一览无余地呈现朝鲜语研究领域及热点主题。

(1) 词频共现分析

词频是指所分析的文档中词语出现的次数, 词频分析法就是在文献信息中提取能够表达文献核心内容的关键词或主题词词频的高低分布, 来研究该领域发展动向和研究热点的方法¹⁷⁾。通过运行CiteSpace软件, 绘制高频关键词知识图谱(见图5)。知识图谱中节点代表分析的对象, 节点越大则表示该节点对应的词频越高, 节点之间的连线则表示共现关系¹⁸⁾。从图5可以清晰地看出, ‘朝鲜语、韩国语’是文献的主题检索词, 频次较高且在知识图谱中呈现最大的节点, 而且周围其他的节点与它们有共现关系。同时本文为了更加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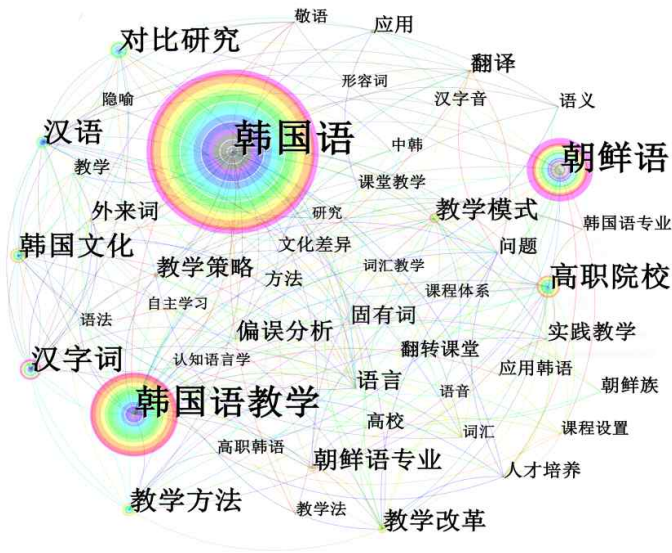
15) 陈悦, 陈超美等, 『引文空间分析原理与应用』, 北京: 科学出版社, 2014, p.16.

16) 陈悦, 陈超美等, 「CiteSpace知识图谱的方法论功能」, 『科学学研究』第2期, 2015, p.242.

17) 李杰, 陈超美, 『CiteSpace: 科技文本挖掘及可视化』, 北京: 首都经济贸易大学出版社, 2016, p.194.

18) 陈悦, 陈超美等, 同上, pp.86-89.

晰地了解这些高频关键词具有怎样的中介能力，将频次 ≥ 19 的关键词以降序的方式整理成了表2。在表2中，Count表示频次，Centrality表示中介中心度，中介中心度 ≥ 0.1 的关键词具有很好的中介中心性¹⁹⁾。中介中心性可以反映出一个关键词作为中介的能力，即连接其他两个节点最短路径的能力。关键词中介中心性值越高，则越多的节点要通过它进行联系，而由它控制的关键词之间的信息流也就越多²⁰⁾。这些高中介中心度的关键词反映了朝鲜语研究的关注领域和研究热点。



〈图5〉“朝鲜语”研究词频共现图谱

19) 上文, p.82.

20) 宋凯歌, 朱安博, 「基于CiteSpace的我国『哈姆雷特』研究可视化分析」, 『天津外国语大学学报』第5期, 2019, p.120.

〈表2〉“朝鲜语”研究词频&中介中心性 (频次≥19)

No.	Count	Centrality	Keyword	No.	Count	Centrality	Keyword
1	611	0.46	韩国语	12	49	0.04	教学改革
2	319	0.19	韩国语教学	13	41	0.02	偏误分析
3	283	0.65	朝鲜语	14	40	0.02	教学策略
4	122	0.12	汉字词	15	37	0.01	语言
5	115	0.09	对比研究	16	32	0.02	翻译
6	107	0.04	汉语	17	32	0.02	外来词
7	106	0.03	高职院校	18	29	0.03	固有词
8	82	0.03	韩国文化	19	27	0.01	实践教学
9	71	0.05	教学方法	20	22	0.03	应用
10	54	0.04	朝鲜语专业	21	19	0.01	翻转课堂
11	52	0.04	教学模式	22	19	0.01	问题

结合图5和表2可知,‘韩国语、朝鲜语、韩语教学’的频次最高,且中介中心性相对也比较高;‘朝鲜语’的中介中心性最高,数值达到0.65;同时,‘韩国语’的中介中心性相对也比较高,数值达到0.46。这些相对具有高中介中心性的关键词是在朝鲜语研究领域占据着重要位置的词,扮演了重要的角色,即它们在连接其他节点或者几个不同的聚类上像交通枢纽一样,起到了桥梁的作用。这些高中心性的词对应的文献可以看作是朝鲜语研究领域具有里程碑意义的研究成果。

(2) 聚类分析

鉴于在词频共现图谱所展示的研究热点分析的基础上,深入地挖掘关键词的研究领域及主题分布,根据CiteSpace提供的可视化方式,本文选取系统默认的聚类视图(cluster)。聚类视图侧重于体现聚类间的结构特征,突出关键节点及重要连接²¹⁾。CiteSpace根据网络结构和聚类的清晰度,提供了模块值(简称Q值)和平均轮廓值(Silhouette,简称S值)两个指标,Q值一般

21) 陈悦,陈超美等,同上, p.248.

在区间[0,1) ²²⁾内, 当Q值>0.3时, 聚类结构就是显著的; 当S值达到0.7时, 聚类是令人信服的²³⁾。采用对数似然率算法(LLR)将图5节点信息生成关键词聚类知识图谱, 从生成的聚类知识图谱中可知, Q值=0.8953, S值=0.9813, 根据CiteSpace提供的网络结构和聚类的清晰度参数值可知, 该聚类图谱的聚类结构十分显著, 且结果是令人信服的。从知识图谱中提取标签词, 分析朝鲜语研究热点主题。各聚类按照数值从小到大所截文献量依次递减, 本文将聚类值设置为18, 从而得到从0#到17#共18个聚类。本文将各聚类代表性关键词归纳如下所示(见表3)。表中TopTerms(log-likelihood ratio, p-level)栏中的第一个关键词是该类聚的名称, 因为代表性最强, 通过这些关键词可以有助于定位朝鲜语研究的核心内容情况。

〈表3〉“朝鲜语”研究关键词聚类汇总

ClusterID	Size	Silhouette	TopTerms(log-likelihoodratio, p-level)
0#	55	1	朝鲜韩语(160.38, 1.0E-4); 汉语成语(26.93, 1.0E-4); 韩国语(21.1, 1.0E-4);
1#	45	0.997	固有词(105.22, 1.0E-4); 汉字词(98.4, 1.0E-4); 语言接触(22.64, 1.0E-4);
2#	32	0.986	高职院校(94.46, 1.0E-4); 韩语教学(87.74, 1.0E-4); 韩语专业(46.01, 1.0E-4);
3#	29	0.995	对比研究(26.15, 1.0E-4); 语音对比(26.15, 1.0E-4); 汉韩对比(19.58, 1.0E-4);
4#	28	0.989	对应形式(21.34, 1.0E-4); 动态动词(15.31, 1.0E-4); 语料库(15.31, 1.0E-4);
5#	28	0.981	中国朝鲜韩语(22.15, 1.0E-4); 朝鲜韩语语法(20.27, 1.0E-4); 中韩建交(14.78, 0.001);
6#	27	0.994	韩国语(215.08, 1.0E-4); 汉语(25.27, 1.0E-4); 朝鲜韩语(25.25, 1.0E-4);
7#	24	0.897	高职高专(38.28, 1.0E-4); 应用韩语(35.36, 1.0E-4); 听力教学(26.53, 1.0E-4);
8#	23	0.986	朝鲜族(41.8, 1.0E-4); 负迁移(20.75, 1.0E-4); 双语教育(19.23, 1.0E-4);
9#	22	1	中韩翻译(31.22, 1.0E-4); 高职韩语(23.02, 1.0E-4); 实

22) [0,1) 表示‘0和1之间的所有可表示数字, 但不包括1’。

23) 陈悦, 陈超美等, 同上, p.24.

			践教学(20.03,1.0E-4):
10#	21	0.974	教学方法(65.97,1.0E-4);教学模式(62.85,1.0E-4);智慧课堂(21.7,1.0E-4);
11#	21	0.937	韩国语教学(75.99,1.0E-4);翻转课堂(34.19,1.0E-4);文化教育(34.03,1.0E-4);
12#	20	0.983	『训民正音』(23.64,1.0E-4);元音音素(17.19,1.0E-4);汉字音(16.42,1.0E-4);
13#	20	0.943	韩国语教育(31.04,1.0E-4);旅游韩语(24.8,1.0E-4);自主学习(15.51,1.0E-4)
14#	18	0.979	朝鲜语专业(39.32,1.0E-4);文化导入(33.29,1.0E-4);校企合作(29.91,1.0E-4);
15#	16	0.996	教育方案(42.38,1.0E-4);外来语(28.15,1.0E-4);韩国语学习者(13.98,0.001)
16#	13	1	教学改革(47.63,1.0E-4);大学韩语(31.07,1.0E-4);语法教学(23.25,1.0E-4);
17#	10	0.997	听力训练(30.69,1.0E-4);听说训练(20.33,1.0E-4);外语教学(20.33,1.0E-4);

结合表2和表3中的关键词可知,可将核心研究圈对朝鲜语研究划分为以下几个领域:

①朝鲜语与教学模式(双语教育、实践教学、培养模式、复合型人才培养、智慧课堂、教学改革、教育方案、文化导入、负迁移、听说训练等);

②朝鲜语与高职院校(应用韩语、旅游韩语、韩语/朝鲜语专业、高职韩语等);

③朝鲜语与词汇(汉字词、固有词、外来词、形容词、动词等);

④朝鲜语与语音(单元音、双元音、元音音素、汉字音、训民正音等);

⑤朝鲜语与语法(话语标记、惯用语、歇后语、固定词组、构词法、元音和谐等);

⑥朝鲜语与对比研究(对应形式、汉韩对比、语料库等)。

3) 研究趋势

CiteSpace提供了3种可视化分析方式,默认的是聚类视图(cluster),

其中, 时区视图 (timezone) 是另一种侧重于从时间维度上来表示知识演进的视图, 它可以清晰地展示出文献的更新和相互影响。将知识图谱类型选择时区视图 (timezone) 按钮后, CiteSpace将所有节点定位在一个横轴为时间的微坐标中。根据首次出现的时间, 节点被设置在不同的时区中, 因而一个从左到右、自下而上的知识演进图就直观地展示出来了, 通过各时间段之间的连线关系, 可以看出各时间段之间的传承关系²⁴⁾。该默认图谱清晰地呈现出了朝鲜语研究形成的知识聚类、聚类之间的联系及随时间的历史演变过程, 如下所示 (见图6)。该图可以清晰地了解朝鲜语研究的主题演化整个历程和发展趋势。这些关键词按照它们首次出现的时间被排列在对应的时区当中, 该时区视图展示了朝鲜语领域文献的增长, 随着时间横轴的变化, 可将研究主题划分为三个阶段, 萌芽期 (1980-1990), 出现较大的节点有‘朝鲜语、固有词、汉字词’等。朝鲜语词汇存在着两个体系, 一是以固有词为基本的词汇体系, 另一个是由外来要素, 特别是汉字词所构成的体系。在萌芽阶段, 大量学者以‘固有词、汉字词’为切入点来研究朝鲜语, 在二语习得研究中, 词汇对学习者来说可能是最重要的语言组成部分; 奠定期 (1991-2010), 1992年8月24日, 中·韩两国外交关系的正式建立。从1992年中·韩建交开始, ‘韩国语/韩语’一词逐渐地出现在大众视野, 随着两国的文化交流与发展, 社会对韩国语人才的需求逐年增加。为适应形势发展的需要, 朝鲜语教育学校和朝鲜语研究机构逐渐扩大, 各高校纷纷开设朝鲜语专业。新的研究观点不断出现, 研究领域不断扩张、研究成果日益增多, 进一步丰富了朝鲜语研究的内涵, 深化了中·韩学术界的人文交流。全面发展与分化期 (2010-2020), 随着社会的发展, 科学技术在不断的发展与更新, 中国学界朝鲜语研究出现了前所未有的兴旺局面, 出现了‘智慧课程、翻转课堂、人才培养’等一些新的关键词术语, 节点较小说明这一时间段中发表的成果较少, 并且这些关键词所代表的主题从时间上来看是新兴的主题。中国学界高校需要继续开发和完善多样化的人才培养模式, 满足社会对创新型、复合型、应用型、国际化朝鲜语

24) 陈悦, 陈超美等, 同上, pp.76-77.

人才的需求。

结合本文研究趋势图,通过检索2021—2022年期间的朝鲜语文献可知,全面推进高等学校课程思政建设,将课程思政有效融入到‘朝鲜语’教学中,是当下高校教育面临的新课题。朝鲜语教学不仅需要培养学生具备过硬的语言基本技能,还要培养学生拥有家国情怀、人文底蕴、国际视野和正确的价值观、人生观、世界观等,构建全方位育人大格局。在2021—2022年期间,有关‘朝鲜语’课程思政的热点话题涌现出来。这也再一次验证了本论文数据的准确性和可信度。于美灵(2022)以『新经典韩国语精读教程』1、2为例,探究新时代韩国语初级精读教材如何在传授韩国语专业基础知识的同时,将中华优秀传统文化、跨文化思辨意识等课程思政元素有机融入教材之中,是高校韩国语专业课程思政建设亟需探索的重要课题之一。易超等(2022)以韩语阅读课为示例,旨在探讨项目教学法在外语课程思政中的应用,构建项目教学法在外语课程思政中应用的教学模式。吕翌炫(2022)以专业核心课程‘基础韩国语’中的一个单元为例,重点分析了课程思政教学改革的具体过程和实践路径,希望对如何提炼外语实践类课程的思政元素、如何有机融入红色育人目标提供重要启示。张来霞(2022)基于‘大思政’理念,将思政教育贯穿中级韩国语课程的全过程,深度挖掘提炼知识体系中蕴含的思政元素,找到专业知识与思政之间的融入点,开展‘课程思政’教学改革创新,打造韩国语专业‘金课’,实现知识传授和价值引领的有机统一,让专业课成为铸魂育人的生动课堂。周杨(2022)以韩语词汇中的四字成语为研究对象,结合课程思政目标,从价值观引领、历史典故与传统文化、民族精神与家国情怀叁个方面提出了韩语四字成语的教学内容,并通过实际案例探索出行之有效的融合之道。金红月等(2022)在高级韩国语听力课程中探索‘课程思政’教学设计与应用,充分挖掘韩国语听力课程中的思政元素,利用腾讯会议与超星学习通等平台,实现了融合自主学习法、主题讨论法、任务驱动法、小组讨论法、教学发表法等方式的教学模式。

在疫情背景下,为了适应新的教育大环境,教学模式发生了巨大的转变。全国高校纷纷努力推进疫情期间线上教学工作的实施。周磊等(2022)

基于‘MOOC+SPOC’平台下韩国文学翻转课堂的教学实践，验证了该模式在外国文学教学中对学生外语运用、文学赏析、跨文化交流等综合能力培养的可行性与高效性，最终阐明了疫情防控常态下韩国文学课程坚持实施翻转课堂的价值与意义，希望对外国文学教学改革有所裨益。陈秋实（2021）以朝鲜语专业精读课程『高级朝鲜语』为例，对基于SPOC的大学英语网络教学设计进行探讨。黎悦等（2021）基于教育技术和疫情的网课经验，提出线上线下相结合的混合式教学方式，并设计其在韩国语教学中的应用模型。朱琳（2021）结合『韩国语基础教程』一书，分析翻转课堂教学模式在高校韩语教学中的运用价值，探索翻转课堂教学模式在高校韩语教学中的实践应用，并指出在智慧教育环境下，通过发挥翻转课堂教学模式的应用优势重塑高校韩语教学体系具有重要意义。



〈图6〉“朝鲜语”研究时区视图

4. 究存在的问题及建议

任何事物都是由‘量’和‘质’构成的，而任何事物的发展规律又都在这两个方面表现出来²⁵⁾。朝鲜语研究的形成与发展，大体经历了‘萌芽、奠定、全面发展’三个阶段，其硕果累累，但从量和质的辩证统一关系来看，朝鲜语研究仍然存在一些不足，亟需解决。本文拟列出在研究过程中发现的问题，并结合具体问题给出相应建议。

首先，中国学界朝鲜语研究存在研究体系不均衡的局面。从研究热点分析结果可知，核心研究圈对于朝鲜语的研究多集中在词汇、语法、语言教育教学等方面，语音的研究相对来说比较薄弱，语言是音义结合的符合系统，对于任何一种语言来说，语音和语义好比硬币的正反面，两者相辅相成。从作者和机构分析可知，学者之间的合作比较匮乏，尚未形成稳定的研究团队，核心机构大部分集中在朝鲜族学者居多的院校，机构间彼此缺少合作，应当构建合作网络，加强学者们的学术交流沟通，为今后朝鲜语相关的研究奠定良好的发展平台。这种不均衡现象还体现在语种方面。中国学界朝鲜语的研究多为朝·汉语对比，在朝·英、朝·日等语种的研究比较匮乏。同时，研究方法也比较单一，对相关术语的使用缺乏规范性。应该积极开展学术交流会，吸收优秀学者们的先进研究思想，深化朝鲜语体系的研究，构建多语种文献资料库，努力探索朝鲜语教育研究以及双语教育教学的研究，加强教育教学改革，制定相应的朝鲜语规范原则，全面推进整体优化均衡发展。

其次，中国学界朝鲜语研存在重微观轻宏观的现象。语言与文化相互依存，密不可分。语言是传承文化的载体，是传递信息的工具，它与一个民族的历史文化有着千丝万缕的关系，透过语言可以研究一个民族文化的现在、过去和未来。邢福义（2011）指出，“语言具有民族文化风格，一个民族语言在语音、词汇、语法等方面区别于其他民族语言的特点，必然在语言表达上体现出来。”中国学界关于朝鲜语的研究，在某种程度上过度重视对语音、词汇、

25) 邱均平，同上，p.202.

语法等方面的研究,忽略了隐藏在微观层面的宏观文化现象,缺乏对语言背后的意识形态和民族差异性知识的挖掘。应该将微观层面与宏观视角相结合,进行多维度的综合研究是朝鲜语学科发展的一大趋势,极大地促进该学科领域的全面发展。

最后,中国朝鲜语研究在跨学科和理论发展方面仍有不足。通过分析可知,中国朝鲜语研究更加侧重于语言的本体论研究、方言研究、规范化研究等方面,主要集中在对比语言学领域,缺乏社会语言学、语用学、元语言学、结构主义语言学等学科知识的融入。鉴于此,中国朝鲜语研究在立足本体论研究的基础上,应该广泛借鉴西方的相关语言理论来研究朝鲜语的特点,从边缘学科视角出发,剖析语言之间的内在区别与联系,努力构建多元化的研究模式和理论体系。

5. 结论

众所周知,任何一门学科都有自己发生和发展的历史。2022年中·韩建交步入而立之年,作为一门学科来研究的朝鲜语逐渐发展并走向成熟。本文在研究的过程中,有效利用先进的科学技术研究工具,为作者提供了事半功倍的效果。本文系统地展示了CiteSpace如何帮助我们了解朝鲜语学科的领域。CiteSpace可以提供给我们‘图表’式的模式化信息。通过这些信息,全面地呈现了朝鲜语研究的过去、现在和未来的历史演化进程。回顾与展望中国朝鲜语研究现状,挖掘其研究热点,展望其研究趋势,对于进一步掌握朝鲜语学科的性质和任务,明确今后的研究方向,踔厉奋发不断推进朝鲜语研究的发展,无疑具有重大的理论意义和现实意义。

本文以中国知网(CNKI)数据库中关于朝鲜语研究的2838条有效文献作为数据源,基于文献计量学相关理论与方法,运用CiteSpace可视化分析软件,探讨近40年来中国学界朝鲜语研究主要热点话题、期刊分布、高产作者、研究机构以及未来趋势等。研究结果表明,中国学界朝鲜语研究文献数量经历了缓慢增长与快速增长的变化趋势,可呈现稳定-增长-循环叁个阶段,

其中核心期刊量趋于平稳且数量相对较少；学科核心带头人有毕玉德、李得春、姜春玉、金香花、金永寿、金光洙等学者；核心研究圈集中在延边大学、辽东学院、大连外国语学院、上海外国语学院、四川外国语学院、中央民族大学、解放军外国语学院等机构；期刊集中分布于『韩国语教学与研究』『延边大学学报』『民族语文』『东疆学刊』『汉语学习』『中国朝鲜语文』等期刊；研究热点有‘朝鲜语与教学模式、朝鲜语与高职院校、朝鲜语与词汇、朝鲜语与语音、朝鲜语与语法、朝鲜语与对比研究’等。当然，本文的研究也存在一定的局限性，在数据检索时，有相对一部分文献研究内容是有关朝鲜语的，但通过主题检索方式未能筛选出来，使分析结果会存在相对较小的误差。

CiteSpace的魔力在于‘一图胜万言’，用数据说话，用图和表相结合的分析方法，使得研究的结果更具有说服力和可靠性。在对朝鲜语研究领域和热点分析中，发现中国学界朝鲜语研究存在重视语言的结构、意义、功能等微观层面的探讨，忽视从宏观视角挖掘隐藏在文化背后的关系，同时存在研究体系不均衡、跨学科发展匮乏等问题。因此，从系统化、多元化以及科学化等多维角度对朝鲜语研究的需求变得日趋迫切。今后，在研究中以全新的视野、本着学术严谨的态度，开拓新的研究领域是研究者们要面临的重要课题。

◆ 参考文献

1. 单行本

- 陈悦, 陈超美等, 『引文空间分析原理与应用』, 北京: 科学出版社, 2014.
李杰, 陈超美, 『CiteSpace: 科技文本挖掘及可视化』, 北京: 首都经济贸易大学出版社, 2016.
邱均平, 『信息计量学』, 武汉: 武汉大学出版社, 2007.
邱均平, 『文献计量学』, 北京: 科学出版社, 2019.
邢福义, 『现代汉语(第二版)』, 武汉: 华中师范大学出版社, 2011.

2. 论文

- 陈秋实·李晓, 「基于SPOC的大学外语网络教学设计与探讨——以『高级朝鲜语』课程为

- 例], 『中国新通』第12期, 2021, pp.195-196.
- 陈悦·陈超美等, 「CiteSpace知识图谱的方法论功能」, 『科学学研究』第2期, 2015, pp.242-253.
- 金红月·于梦衍, 「高级韩国语听力课程中“课程思政”教学设计与应用探索」, 『中国朝鲜语文』第2期, 2021, pp.33-43.
- 黎悦·胡馨予, 「基于混合式教学中翻转课堂的韩国语教学模型研究」, 『韩国语教学与研究』第3期, 2021, pp.93-101.
- 吕翌炫, 青岛红色文化资源融入高校课程思政中的探索与实践」, 『韩国语教学与研究』第1期, 2022, pp.89-94.
- 宋凯歌·朱安博, 「基于CiteSpace的我国『哈姆雷特』研究可视化分析」, 『天津外国语大学学报』第5期, 2019, pp.113-125+161.
- 覃城·方向明等: 「中国农村产业融合发展研究现状与展望—基于CiteSpace文献计量分析」, 『中国农业大学学报』第1期, 2021, pp.198-208.
- 易超·汤嘉美、全永根, 「项目教学法在外语课程思政中的应用」, 『韩国语教学与研究』第2期, 2022, pp.62-69.
- 于美灵, 「韩国语教材中的课程思政元素探究——以『新经典韩国语精读教程』1、2为例」, 『东北亚外语研究』第3期, 2022, pp.38-49.
- 张来霞, 「基于线上线下混合式教学的高校中级韩国语课程思政教学改革探索」, 『中国多媒体与网络教学学报(上旬刊)』第8期, 2021, pp.194-196.
- 周磊·范淑杰, 「“MOOC+SPOC”环境下的韩国文学翻转课堂教学探索与实践——以朝鲜近现代文学作品选读为例」, 『大学教育』第9期, 2022, pp.147-150.
- 周杨, 「课程思政视角下韩语四字成语教学研究」, 『江西电力职业技术学院学报』第7期, 2021, pp.35-36.
- 朱琳, 「翻转课堂教学模式在高校韩语教学中的运用与实践——评『韩国语基础教程』」, 『热带作物学报』第6期, 2021, p.1884.

3. 其他

- 陈建龙等主编, 『中文核心期刊要目总览(2022)』, 北京: 北京大学出版社, 2021.
- 南京大学中国社会科学研究评价中心, 中文社会科学引文索引(CSSCI)来源期刊目录(2021-2022).

논문접수일	2023년 05월 10일
심사완료일	2023년 05월 27일
게재확정일	2023년 06월 08일

Abstract

Research status of Korean Language Research in China
 -Bibliometrics Analysis Based on CiteSpace-

Jin, Zhejun · Zhao, Guangfan

In this paper, the bibliometrics method and CiteSpace tool are used to draw the knowledge map, and the literature related to Korean research collected in CNKI database from 1980 to 2020 is analyzed quantitatively and visually. By investigating the time distribution of documents, periodicals, authors and scientific research institutions, The author tries to analyze the research status, research hotspots and research trends in this field, and draw a scientific knowledge map to intuitively present the metrological characteristics of Korean language research, aiming at excavating and exploring the evolution of Korean language research from a multi-dimensional perspective and combing the knowledge structure in this field. The results show that the total literature volume of Korean language research in China presents three stages: stability-growth-cycle, in which the number of core journals tends to be stable and the number is relatively small; The core leaders of the discipline include Bi Yude, Li Dechun, Jiang Chunyu, Jin Xianghua, Jin Yongshou, Jin Guangzhu and other scholars; The core research circle is concentrated in Yanbian University, Liaodong University, Dalian Foreign Studies University, Shanghai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Sichuan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Central University for Nationalities, PLA Foreign Languages Institute and other institutions. Journals are concentrated in 『Korean Teaching and Research』 『Journal of Yanbian University』 『Minority Languages of China』 『Dongjiang Journal』 『Chinese Language Learning』 『Korean Language in China』 and other journals. Research hotspots include "Korean language and teaching mode, Korean language and higher vocational colleges, Korean language and vocabulary, Korean language and pronunciation, Korean language and grammar, Korean language and comparative study" and other topics. Finally, it summarizes the existing problems and suggestions of Korean language research in China at present. I hope this research results can provide some reference value for Korean scholars.

Keyword

CiteSpace: Korean: Visualized analysis: Bibliometrics: Knowledge
Graph

社会进化论视角下韩国开化期报纸『独立新闻』 中的清、日形象比较

吴玉娇* · 韩梅**

국문요약

19세기 말, 서세동점의 흐름에 따라 사회진화론이 한국에 전입되어 개화파를 비롯한 한국 근대 지식인들에 의해 적극 수용되었다. 주로 독립협회 임원들에 의해 운영된 『독립신문』의 논설에서 청국, 일본을 각각 생존경쟁에서의 실패자와 우승자, 변혁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는 나라와 변혁을 통해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선 나라로 묘사하였다. 그 배후에 사회진화론의 ‘우승열패(優勝劣敗)’와 ‘적자생존(適者生存)’ 논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독립신문』에서는 사회진화론 중의 종족주의를 변용한 ‘동아동종론(東亞同種論)’을 내세워 청국, 일본을 한국과 상호 의존하는 형제라고 역설하였다. 한민족의 입장에서 서양의 백인 우월주의를 변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면에 전통적 유교 사상을 이용해 청국, 일본과의 단합을 강화함으로써 본국 이익의 최대화를 실현하려는 실용적인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독립신문』에서의 청국·일본 형상은 당시 개화파 지식인들이 나라의 개화와 독립을 위해 서양의 사상을 적극 수용하면서 본 민족의 입장에서 사회진화론에 대한 변용을 한 것이 잘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개화기는 한국이 동아시아 중요 인국인 청국과 일본을 새로 인식하는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사회진화론 시각에서 한국 개화기 민족지 『독립신문』 중의 청국과 일본 형상을 비교하여 그 배후의 사상적 논리와 현실적 원인을 규명한다. 본 연구를 통해 근대 전환기 한국의 세계 인식과 동아시아 지역 인식을 이해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주제어 『독립신문』, 청국·일본 형상, 사회진화론, 수용, 변용

* 北京外国语大学亚洲学院韩语系博士后, 第一作者

** 北京外国语大学亚洲学院韩语系教授, 通讯作者

〈目録〉

1. 序论
2. 『独立新闻』与社会进化论
 - 1) 主笔对社会进化论的接受
 - 2) 社论对社会进化论的传播
3. 社会进化论影响下的『独立新闻』中清、日形象
 - 1) 劣败国和优胜国
 - 2) 变革的探索者与成功者
 - 3) 辅车相依的同种兄弟
4. 结论：社会进化论影响『独立新闻』中清、日形象之含义

1. 序论

19世纪末, 伴随西势东渐, 韩国正式打开国门, 进入开化期。¹⁾开化派知识分子创办近代报纸, 利用报纸公开讨论国事、天下事, 大力宣传开化和独立两大主题。『独立新闻』(1896-1899) 是韩国结束与清国宗藩关系、进入国际条约体系以后最早创办的民族报纸, 也是韩国最早的纯韩文报纸, 受众广泛, 意义深远。从内容来看, 『独立新闻』一方面关注国家内部的独立、开化, 另一方面密切关注同属东亚地区的清、日两邻国, 刊登了大量有关清国和日本的社论。笔者关注到文章中塑造了具有鲜明特点的清、日形象, 而导致这种清、日形象形成的深层逻辑主要是19世纪下半叶从西方兴起并流行的社会进化论。

与『独立新闻』中的清国和日本形象相关的现有研究, 根据主要内容可以分为三大类: 第一, 『独立新闻』对清、日两国态度的比较研究。채백(1998)从『独立新闻』每月的社论中抽取3篇左右, 通过分析短语、句子或段落, 指出报

1) 韩国近代开化期, 指1876年韩国与日本签订『江华岛条约』正式开港, 到1910年『日韩合并条约』生效, 韩国彻底沦为日本殖民地之前的时期。韩国学界认为开化思想的形成始于开港。朴明熙, 「韩国的开化思想和开民智运动-以中国言论给韩国爱国启蒙运动的影响为中心」, 『历史教学问题』第2期, 2010, p.70.

纸对日本的态度是正面的,对清国的态度是负面的。²⁾但这种抽样调查的方法导致所用资料必然有所遗漏,而且仅分析短语、句子或段落,不对全文做全面的分析,也难以把握整篇文章的主题,容易以偏概全,产生误读。박희성 (2013)指出,『独立新闻』对朝鲜与清国的宗藩关系持负面态度,认为日本帮助朝鲜实现了独立,并据此判定『独立新闻』具有“反清”“亲日”倾向。³⁾但是具体分析『独立新闻』中的涉清、涉日社论,可以发现该报对清国和日本的情感是复杂的,而且有所变化,不能简单地归结为“反清”“亲日”。第二,只针对『独立新闻』对清认识的研究。白永瑞(1997)指出“低贱”是『独立新闻』中清王朝的主要形象,但是并非一成不变。⁴⁾金成镐·李岩(2013)指出『独立新闻』存在刻意“贬华”、“丑华”的言论,具有“排华”倾向。⁵⁾刘牧琳(2019)则认为,以戊戌变法⁶⁾为转折,『独立新闻』从“蔑中”变为“慕中”,开化派知识分子对中国的认识由浮躁走向理性。⁷⁾这些研究有助于理解『独立新闻』的对清认识,但对清国形象的总体特点及形成原因未作全面、清晰的阐述。第三,只针对『独立新闻』对日认识的研究。Vladimir Tikhonov (2010)指出,『独立新闻』中的日本形象具有两面性,一方面是对韩国造成威胁和伤害的负面形象,另一方面又是韩国经济发展的合作伙伴、政治改革的范本。⁸⁾该研究证实了日本形象的复杂性,对更为全面地研究『独立新闻』中的清、日形象有所启发。

2) 채백, 「주요 국가에 대한 『독립신문』의 정치적 입장-논설의 보도태도를 중심으로」, 『한국言论学报』 제43-1호, 1998, pp.254-276.

3) 박희성, 「『독립신문』에 나타난 대외인식 연구」, 『융합보안논문지』 제13권 제5호, 2013, pp.89-95.

4) 白永瑞, 「大韩帝国期 韩国言论의 中国 认识」, 『역사학보』 제153집, 1997, pp.105-139.

5) 金成镐·李岩, 「19世纪末朝鲜独立协会运动与“中华观”的嬗变」, 『朝鲜·韩国历史研究』第十五辑, 2013, pp.312-337.

6) 戊戌变法是1898年以康有为、梁启超等为代表的清国维新派知识分子进行的倡导学习西方的资产阶级改良运动。

7) 刘牧琳, 「甲午战后朝鲜对中国认识的变化-以『独立新闻』为中心」, 『当代韩国』第3期, 2019, pp.118-128.

8) Vladimir Tikhonov, *Social Darwinism and Nationalism in Korea: the beginnings (1880s-1910s) "Survival" as an Ideology of Korean Modernity*, Nederlanden: Brill, 2010, pp.66-78.

综上所述, 现有研究对『独立新闻』的对清、对日态度或单独的清、日形象进行了整理和分析, 有助于我们认识开化期韩国开化派知识分子的对清、对日认识。但是, 现有研究尚未对『独立新闻』中的清、日形象进行全面的梳理和比较, 尚未深入揭示报纸中清、日形象的形成原因。因此, 本文拟通过分析『独立新闻』中的涉清、涉日社论全文,⁹⁾比较『独立新闻』所塑造的清、日形象, 分析近代转型期韩国对清、对日认识的特点, 并从社会进化论影响的角度阐释『独立新闻』中清、日形象形成的思想逻辑, 揭示社会进化论在韩国早期的传播及影响。

2. 『独立新闻』与社会进化论

社会进化论来源于达尔文的生物进化论, 1859年, 随着达尔文的『物种起源』出版, 进化论被人们广泛接受。生物进化论的核心观点认为生物界物种从低级向高级进化, 生存竞争是生物的本能行为, “优胜劣败”、“适者生存”是生物界的普遍原则。达尔文的生物进化论促进了社会进化论的形成。社会进化论是将进化思想应用于人类社会, 认为人类社会与生物一样从低级向高级进步, 进步的动力是“优胜劣败”、“适者生存”的生存竞争。社会进化论还包括种族主义思想, 如同生物界的物种有高、低之分, 人种之间也存在优、劣, 以肤色为标准将各人种进行等级分类。¹⁰⁾19世纪后半叶, 为发动侵略战争和帝国主义扩张, 西方列强鼓吹社会进化论中国家、种族间的生存竞争和白人优越的种族主义思想。而开港之后, 韩国知识分子开始面对包括欧美在内的整个世界, 社会进化思想随之传入。

9) 『独立新闻』是韩国最早具有完整社论体系的报纸, 知识分子利用社论传播思想、抒发情感。本文从『独立新闻』800余篇韩文社论中, 发现提及清、日的社论约有261篇之多, 表现出对清、日两国的关注。除韩文社论之外, 『独立新闻』还有英文版『The Dependence』, 英文社论有时与韩文社论类似, 有时是对韩文社论的补充。韩文社论面向韩国内部, 服务于报纸启蒙国民的目的, 对清、日形象的塑造影响了近代韩国人的清、日认识, 本文以『独立新闻』韩文社论中的清、日形象为研究对象。

10) 彼得·狄肯斯, 『社会达尔文主义——将进化思想和社会理论联系起来』, 涂骏译, 吉林: 吉林人民出版社, 2005, pp.1-31.

1) 主笔对社会进化论的接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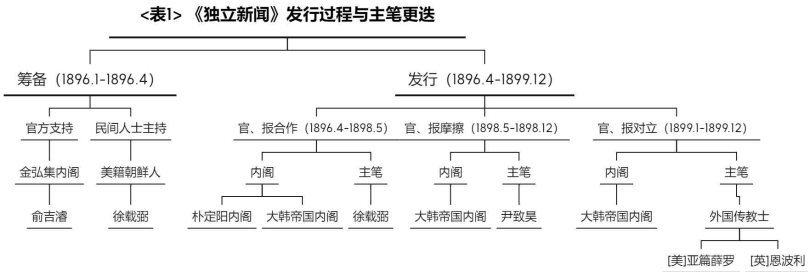
『独立新闻』虽然是民办报纸，但在初期接受朝鲜政府的全额资助，具有官、民合办的性质，这让『独立新闻』的发展之路历尽曲折，发行期间数次更换主笔等负责人，这些人都曾受到社会进化论的熏陶。

1894年7月，甲午更张¹¹⁾以后，朝鲜政府赦免了因参与甲申政变¹²⁾流亡海外的激进开化派知识分子，其中包括先后赴日、赴美并加入了美国国籍的徐载弼。1895年底，徐载弼回到朝鲜，策划创办『独立新闻』，朝鲜政府金弘集内阁¹³⁾(1894.7-1896.2)同意全额资助，内阁成员俞吉浚¹⁴⁾与徐载弼共同参与了『独立新闻』的筹备工作。1896年2月，发生俄馆播迁事件，¹⁵⁾金弘集内阁下台，朴定阳内阁¹⁶⁾(1896.2-1897.10)掌权，致使俞吉浚未能继续参与报纸的下一步发行。新内阁同样支持朝鲜创办自己的报纸，兑现了前内阁对『独立新闻』的支持，1896年4月，『独立新闻』正式创刊。但报纸代表的激进开化派与政府稳健开化派政见不同，¹⁷⁾双方不断发生矛盾，最终在1899年12月，『独立新闻』被政府强制停刊。

在『独立新闻』与政府的斗争过程中，报纸主笔发生更迭，先后经历了徐载弼时期(1896.4-1898.5)、尹致昊时期(1898.5-1898.12)和外国传教士

-
- 11) 甲午更张，又称甲午改革，是朝鲜王朝在日本的控制下进行的一系列近代改革。
 - 12) 甲申政变，指1884年12月4日朝鲜激进开化派在日本的协助下发动的一次以脱离清国和改革内政为目的的流血政变，6日，以“三日天下”失败。
 - 13) 金弘集内阁由朝鲜政府稳健开化派组成，在日本的介入下建立，某种程度上具有“亲日”倾向，或者说受日本影响。姜万吉，『韩国近代史』，北京：东方出版社，1993，p.200。
 - 14) 早在20世纪80年代初，俞吉浚就向日本学习办报经验，参与了韩国最早的近代报纸『汉城旬报』的创刊过程，深知报纸的重要性。
 - 15) 俄馆播迁指高宗和王世子因受日本人身威胁，离开王宫避难于俄公馆的事件。
 - 16) 朴定阳内阁在俄国的介入下建立，具有“亲俄”性质。亲俄内阁上台，日本也就无法通过向朝鲜政府施压的方式反对朝鲜办报，为『独立新闻』的创刊扫清了障碍。
 - 17) 激进开化派对中国全盘否定，从传统的“亲中”转而“亲西欧”；稳健开化派主张效仿中国的“洋务运动”，提出“东道西器”，坚持传统的中华主义。吴玉娇·韩梅，『日本操弄下的朝鲜半岛近代中、日形象建构—以朝鲜半岛首份近代报纸『汉城旬报』为中心』，『东疆学刊』第40卷 第2期，2023，p.32。

亚篇薛罗、恩波利时期 (1899.1-1899.12) ,¹⁸⁾具体情况如<表1>所示。



如上所述,在『独立新闻』创刊过程中,俞吉浚和徐载弼发挥了重要作用,此后,徐载弼、尹致昊、美国传教士亚篇薛罗和英国传教士恩波利先后担任了『独立新闻』的主笔。

俞吉浚 (1856-1914) 是韩国的社会进化论先驱之一,在日本和美国留学期间接受了社会进化论。1881年,俞吉浚随朝鲜政府派出的朝土视察团赴日本访问,进入庆应义塾、同人社学习。在日期间,俞吉浚师从当时在东京大学任教的美国生物学家爱德华·莫尔斯 (Edward Morse, 1838-1925)。莫尔斯是19世纪70年代美国生物进化论先驱之一,莫尔斯将进化思想应用于考古和历史,认为历史是“适者”对“不适者”的暴力征服。在日本时,俞吉浚还向日本的社会进化论先驱福泽谕吉 (1835-1901) 学习,福泽谕吉在『文明论概略』中按照文明等级将世界各国从低级到高级划分为“野蛮国”、“半开化国”和“文明国”。¹⁹⁾1882年,因朝鲜爆发壬午军乱,²⁰⁾俞吉浚结束留学生活,1883年回到朝鲜。从日本回国后,俞吉浚创作「竞争论」,论述了万事皆因竞争而进步的观点,²¹⁾反映出对社会进化论的认可。1883年秋,俞吉浚作为报聘使闵泳翊

18) 李光麟,「徐载弼의 『独立新闻』 간행에 대하여」,『震檀学报』 제39집, 1975, pp.98-103.

19) 福泽谕吉,『文明论概略』,北京编译社译,北京:商务印书馆,1959, pp.9-11.

20) 壬午军乱,又称壬午兵变,是朝鲜1882年发生的武装暴动,起义士兵和市民焚毁日本使馆,杀死数名朝鲜官员和日本人。

(1860-1914)的随员赴美后在美留学, 1884年底, 又因朝鲜爆发甲申政变结束了留学生活。俞吉浚在美期间, 莫尔斯也已回国, 俞吉浚继续向莫尔斯学习社会进化论。²²⁾在1892年的著作『西游见闻』中, 俞吉浚提出人类文明“未开化-半开化-开化”三段式的进步观点, ²³⁾认为竞争是人类社会从低级社会向高级社会进步的动力, 表明他受到了社会进化论的影响。

徐载弼(1864-1951)的社会进化论接受路径也是日本和美国。作为『独立新闻』的创办者和第一任主笔, 报纸中的相关报道可以印证徐载弼对社会进化论的接受, 直接证据是1898年徐载弼从『独立新闻』卸任赴美以后, 在写给『独立新闻』的书信中提到, “不管在开化国还是野蛮国, 人民权利高于官吏的权利是世界共识。”²⁴⁾“开化国”、“野蛮国”恰是社会进化论对国家发展等级的分类方式。

『独立新闻』第二任主笔尹致昊(1866-1945)对社会进化论的接受可以从其日记中找到证据。尹致昊的日本留学经历和俞吉浚相似, 在日期间(1881-1883)也与莫尔斯有所接触。1883年, 尹致昊从日本回国后担任总理机务衙门主事, 后来因为朝鲜政府对甲申政变参与人员的清算, 于1885年前往中国上海, 进入中西书院学习, 期间皈依基督教。1888年, 尹致昊从中国赴美, 成为彻底的社会进化论信奉者。²⁵⁾尹致昊在日记中提到, “适者生存”原则存在于不同的国家和种族之间, 软弱是犯罪, 强权即真理, ²⁶⁾该观点说明尹

21) 천자현·고희탁, 「근대 한국의 사회진화론 도입·변용에 보이는 정치적 인식구조-국가적 독립과 문명개화의 사이에서」, 『대한정치학회보』 제18집 제3호, 2011, pp.32-34.

22) Vladimir Tikhonov, 同上, pp.21-24.

23) 성주현, 「한말 사회진화론의 수용과 자강론의 형성」, 『시민인문학』 제39호, 경희대학교 인문연구소, 2020, pp.135-136.

24) 「제손씨편지」, 『独立新闻』, 1898.11.16. 『独立新闻』是纯韩文报纸, 本研究中有关『独立新闻』社论的中文引文系笔者翻译, 特此注明。

25) Vladimir Tikhonov, 同上, pp.35-45.

26) “The doctrine of the survival of fittest can never hold true among the individuals of the same race or nation, but certainly it is true among different races or nations. For a nation no crime is greater than weakness; and among nations might is right. Justice and peace will never be established on earth until either

致昊本质上认同社会进化论“弱肉强食”的生存逻辑。

后期先后担任『独立新闻』主笔的外国传教士亚篇薛罗和恩波利，分别是美国人和英国人，自然认同在西方早已流行的社会进化论。而且亚篇薛罗和恩波利担任『独立新闻』主笔期间，仍然主要由徐载弼组建的独立协会会员等韩国人负责『独立新闻』社论的撰写，刊载了很多体现和介绍社会进化论思想的文章。

综上所述，俞吉浚、徐载弼、尹致昊等开化派知识分子具有丰富的日本、美国等海外经历，对在欧美国家和日本率先流行的社会进化论思想或耳濡目染，或主动学习，思想意识发生转变，接受了社会进化论。因此，在他们的带领下，『独立新闻』登载的文章自然也多受到社会进化论的影响。

2) 社论对社会进化论的传播

『独立新闻』的社论内容也证实了其对社会进化论的接受和传播。

『独立新闻』社论中用“开化”和“野蛮”定位国家发展水平，专门介绍了世界各国按照文明程度从低级到高级划分为“野蛮国”、“未开化国”、“半开化国”和“开化国”，并且详细解释了处于不同发展阶段的国家各自具备的特点，²⁷⁾这种分类方式源于社会进化论的历史进步观点。在『独立新闻』中，推动一个国家从低级社会向高级社会进步的动力是生存竞争，遵循“优胜劣败”、“适者生存”的竞争准则和“弱肉强食”的选择机制。近代时期国家之间竞争的主要形式是战争，一个国家通过变革成为“适者”不仅意味着从低级社会向高级社会的进步，而且意味着能够在“优胜劣败”的国际战争中胜出，直接关乎存亡问题。『独立新闻』表现出对生存竞争规则的认同，接受“弱肉强食”的帝国主义逻辑，向往成为列强的一员。例如，在社论中指出，“如果朝鲜人从梦中苏醒，就算以水充饥也要致力于进步，学习公平、正直、方便和富国强兵的学问和风俗，那么

the stronger races and nations shall have destroyed all the weaker ones or the latter shall have gained strength enough to protect themselves.”尹致昊：『尹致昊日记』，1891.11.27, Vladimir Tikhonov, 同上, p.42, 再引用。

27) 「人种和国家的划分」，『独立新闻』，1899.9.11.

朝鲜人也将不输英国人或者美国人。朝鲜也将攻打清国，占领辽东和满洲，获得赔款八亿万元。希望朝鲜人下定大的决心，十年后占领辽东、满洲，找回日本对马岛。”²⁸⁾另一方面，『独立新闻』警惕自身成为被列强瓜分的对象，以“（列强）分食非洲”²⁹⁾为例，批判政府的守旧和腐败，呼吁变革。

另外，『独立新闻』还刊载了社会进化论中种族主义思想的相关社论。例如，在社论中从生物学的角度讨论人类的样貌，指出人类是与猴子相似的动物，并且介绍了“世界上有各色人种，包括黑种人、黄种人、红种人和白种人”，各色人种形貌不同，“在所有人种中，白种人最灵敏、最勤劳、最勇敢，因此白种人遍布天下各国，逐渐战胜低等人种，占领土地和草木。下等人种中，与白种人交集但不能学习白种人的学问和风俗，以及不能和白种人一样实现文明、进步的人种，逐渐灭种”。³⁰⁾社论对不同肤色的人种等级排序，白种人最优越，其次是黄种人、红种人和黑种人。可以看出，这种排序不单以肤色为标准，而且与文明程度有关，此外，在社论「人种和国家的划分」中也提到，“有的人种学识高明、才德兼备，去往全世界任何国家都会被招待，有的人种孤陋寡闻、无才无能，去到任何地方都会被歧视。”³¹⁾不同肤色、不同文明程度的人种之间存在“弱肉强食”的竞争关系，以美国白种人驱逐红色皮肤的土著人为例，³²⁾『独立新闻』对这种人种竞争机制表现出了认同。需要注意的是，『独立新闻』并没有照搬西方的种族排序，而是认为黄种人是不输白种人的人种，“日本向世界万国证明了黄种人的知识和能力”，³³⁾从“东亚同种论”视角呼吁韩国与清国和日本联合起来共同抵御西方白种人势力。

以上内容证明『独立新闻』接受了社会进化论思想，并从社会进化论的视角认识世界，因此，该报涉清、涉日社论对清、日形象的塑造自然受到了社会进化论的影

28) 「社论」，『独立新闻』，1896.8.4.

29) 「社论」，『独立新闻』，1896.6.17.

30) 「社论」，『独立新闻』，1897.6.24.

31) 「人种和国家的划分」，『独立新闻』，1899.9.11.

32) 「社论」，『独立新闻』，1897.6.24.

33) 「社论」，『独立新闻』，1899.11.9.

响。

3. 社会进化论影响下的『独立新闻』中清、日形象

社会进化论为当时韩国开化派知识分子提供了认识世界与自我、倡导开化与独立的理论依据。面对西势东渐和甲午战后东亚局势的剧变，以徐载弼、尹致昊等为代表的知识分子利用『独立新闻』发表社论，根据社会进化论中“优胜劣败”、“适者生存”的生存竞争思想和改造后的种族主义思想重新认识清、日两大邻国，塑造出近代韩国人心目中的清、日形象。

1) 劣败国和优胜国

根据人类社会从低级向高级进步的观点，『独立新闻』中清国是“半野蛮国”，³⁴⁾日本是“开化国”，³⁵⁾代表清国国力衰弱、日本国力强盛，也代表清国处于低级社会，日本已经进步到高级社会。因此，在“弱肉强食”的国际竞争中，“西洋各国如分肉块般瓜分清国”，³⁶⁾『独立新闻』将清国描述为竞争中失败的落后国家，将日本描述为竞争中胜利的先进国家，

在『独立新闻』的社论中，清国是“最衰弱的国家”，³⁷⁾清国人“软弱、低贱、愚蠢、肮脏、毫无爱国之心、麻木不仁”，³⁸⁾作为“半野蛮国”，“不尚学问，制度不定，在潮湿之地建筑土室，住所简陋，衣服破烂，不讲卫生，凡事无序”，³⁹⁾也就是说，清国文化落后，生活贫困，制度不备，国力衰弱。因此，在以战争为主要形式的国际竞争中清国屡战屡败，与英国交战，失败后割地赔款，与法国交战，失败后失去属国，与日本交战，同样惨败。屡屡战败导

34) 「社论」, 『独立新闻』, 1897.1.14.

35) 「社论」, 『独立新闻』, 1897.1.14.

36) 「社论」, 『独立新闻』, 1899.11.25.

37) 「社论」, 『独立新闻』, 1897.1.14.

38) 「社论」, 『独立新闻』, 1896.4.25.

39) 关于“半野蛮国”和“文明开化国”的定义，参考社论「人种和国家的划分」, 『独立新闻』, 1899.9.11.

致清国国际地位急转直下，『独立新闻』提出清国是“世界上最受歧视的国家”、“世界的笑柄”，清国人“不管去到哪个国家都被看不起”。⁴⁰⁾

『独立新闻』对日本和日本人评价颇高，日本是“开化国”，“人民知识发达，擅长百工技艺，扩张商贸，财政丰厚，追求优秀的学问，日臻进步，与外国人交往，有信仰，忠心爱国”，⁴¹⁾也就是说，日本的国民好学、忠诚，日本贸易发达，已经属于文明国家。在国际竞争中，日本“以区区小国打败清国军队，踏入清国内地、港口”，迫使清国割地赔款，⁴²⁾而且凭借强大的国家实力，日本修改了过去与西方国家签订的不平等条约，⁴³⁾跻身于列强之列。

如上所述，『独立新闻』论述清国是衰弱、落后的国家，是战争中的失败者，面临被西方列强和日本瓜分的境地，日本则实力强大，不仅称雄东亚，而且能够与西方列强平起平坐，是国际竞争中的优胜者。『独立新闻』分别将清、日描述为“劣败国”、“优胜国”，是基于清、日的国家实力和国际地位，但根本逻辑是社会进化中的“生存竞争”、“优胜劣败”思想。以激进开化派为主的『独立新闻』社论作者们力主以清国为反面教材、以日本为开化榜样进行改革，因而写作时掺杂着贬清、褒日的主观意识，导致该报中清国的形象更加负面，日本的形象相对正面，形成了鲜明对比。

2) 变革的探索者与成功者

『独立新闻』认为成为竞争中的“劣败国”和“优胜国”，关键在于是否通过变革成为拥有生存能力的“适者”。『独立新闻』将清国描绘成守旧落后被迫摸索变革的老大帝，将日本描绘成完成变革的新兴强国，当清国是变革的探索者，日本已经是变革的成功者。

『独立新闻』认为，在过去几千年间，“清国不论土地、人口还是过去的开化程度都应是世界第一”，⁴⁴⁾但也正因如此，清国自认“几千年来都是世界上最

40) 「社论」, 『独立新闻』, 1896.8.4.

41) 「人种和国家的划分」, 『独立新闻』, 1899.9.11.

42) 「社论」, 『独立新闻』, 1896.4.25.

43) 「社论」, 『独立新闻』, 1897.1.14.

富强的大国”，⁴⁵⁾开始固步自封，因循守旧，终致在国际竞争中落后、失败。被英国叩开国门后，清国依然“不改旧习，视文明国国民为夷狄，贵族们讨厌去外国，并且歧视学习新学问的人”，⁴⁶⁾固守传统，拒绝学习西方的新文化，导致清国经济落后，国力衰弱，最终落到处处挨打、危机四伏的境地。

不过，清国的形象在『独立新闻』中并非一成不变，1898年戊戌变法发生后，尽管很快失败，却引起了『独立新闻』对清认识的变化。报纸中报道该事件的一篇题为「是否有实效」的社论，指出“清国皇帝致力开化，广开言路，对清国百姓来说是值得高兴的事”，⁴⁷⁾虽然变法效果如何还是问号，但又有文章断言，如果能够变法成功，“几十年内，清国不仅会成为亚洲强国，而且会是全天下独一无二的国家”，对清国变法表现出极大的信心，甚至表示，“即便现在，只要清国迅速从沉睡中苏醒，破旧习，建学校，派遣留学生，训练海陆军”，就能迅速发展壮大，在生存竞争中成为胜者。⁴⁸⁾

『独立新闻』通过戊戌变法看到了清国变革的愿望，并预测变革会带来光明的未来。这说明当时的韩国开化派知识分子坚信变革可以成为“适者”，“适者”能够更好地生存，尽管当时的清国是生存竞争中的“劣败国”，但依然可以通过变革成为“优胜国”，戊戌变法让『独立新闻』的对清认识有所改观。

『独立新闻』认为，日本之所以能够跻身列强之列，是因为率先进行了明治维新，从而率先享受到了变革的成果。“三十年前”日本“第一次与外国通商以后，为了启蒙百姓，岩仓具视、西乡隆盛、太久保利通、福泽谕吉”等先驱者主动学习外国新学问，发展教育，改革内政，修订法律，使日本较之以往多文明开化之事，⁴⁹⁾变革使日本从文化、经济、军事制度等方面成功复制了西方文明，短时间内便实现了富国强兵，⁵⁰⁾日本是率先变革成功成为“适者”的典

44) 「清国情形」, 『独立新闻』, 1898.9.29.

45) 「社论」, 『独立新闻』, 1896.8.4.

46) 「社论」, 『独立新闻』, 1896.8.4.

47) 「是否有实效」, 『独立新闻』, 1898.9.7.

48) 「清国情形」, 『独立新闻』, 1898.9.29.

49) 「社论」, 『独立新闻』, 1896.4.18.

50) 「社论」, 『独立新闻』, 1897.1.14.

范。

19世纪中后期，西方列强进入东亚地区，面对挑战，清国和日本做出了不同的反应，清国先是兴起洋务运动，主张“中体西用”，但最终失败，经受了一系列打击，到戊戌变法开始全面学习西方的思想、文化和制度。『独立新闻』中的清国形象大致反映了这一过程。日本从一开始就选择学习西方的先进技术和先进思想，迅速提升了国力，并获得一系列胜利，『独立新闻』中的日本形象也反映出近代日本的发展轨迹。而『独立新闻』在塑造清、日形象时以是否变革为核心，认为变革才能成为“适者”，才能够生存下去，显然受到了社会进化论“适者生存”思想的影响。

3) 辅车相依的同种兄弟

种族主义是社会进化论的重要组成部分，西方的种族主义观点认为西方白种人是最优越的人种，不同人种之间存在“弱肉强食”的竞争关系，前面提到了『独立新闻』对此有所介绍。按照西方的种族主义观点，韩国人所属的黄种人是比白种人低等的人种，应该甘心臣服于白种人的统治，这自然不符合韩国本民族的利益。因此，『独立新闻』对白人优越主义做了调整，宣扬韩国人优越、黄色人种优越，主要观点是倡导黄色人种团结起来共同对抗西方白种人，清国与日本的形象随之变成了与韩国辅车相依的兄弟。

『独立新闻』早期的报道中曾经提到韩国人是与白种人同样优越的人种，认为韩国人与白种人最相似，属于“韩国人优越论”的观点，⁵¹⁾但关于人种问题，『独立新闻』的主要观点是“东亚同种论”，强调韩国人和清国人、日本人都是黄种人，而且地理相近，文化相通，“同文同种”、“同祖同源”，⁵²⁾通过论述东亚三国的密切关系强调清、日、韩三国应该携手共进。“东亚同种论”最早由日本提出，将西方种族竞争学说和儒家思想结合起来，为同为黄种人、共处东亚的清、日、韩三国联合提供理论依据。日本主张“东亚同种论”本身具有帝国

51) 「社论」，『独立新闻』，1896.12.3.

52) 「社论」，『独立新闻』，1897.4.6. 「社论」，『独立新闻』，1898.11.2.

主义性质，既是日本在“弱肉强食”的世界竞争中需要援手时的托辞，也是日本亚洲扩张政策的“糖衣”。韩国开化派知识分子在『独立新闻』中鼓吹“东亚同种论”，一方面受到日本的启发，另一方面与韩国面临的国内外局势有关。19世纪末，日、俄对朝鲜半岛虎视眈眈，韩国凭借一己之力无法抵御列强，亟需联合外部力量。相对而言，历史文化渊源让清、日更显亲近，而且当时日本也在制造“东亚同种论”的舆论。在这种情境下，『独立新闻』也开始倡导“东洋同种”，“当今世界是黄种人与白种人相互较量的时代”，⁵³⁾清国和日本是韩国“辅车相依”、“唇亡齿寒”的黄种人兄弟，⁵⁴⁾东亚是一个休戚与共的整体。⁵⁵⁾

『独立新闻』认为日本这个兄弟之国是通过变革成功成为强国的榜样，但也是觊觎韩国的威胁，“多次提出在大韩设立殖民地”，⁵⁶⁾“深度干涉大韩内政”，⁵⁷⁾令韩国不无警惕，但『独立新闻』强调“大韩与日本人种相同，处境最为相似，几百年交邻之义亲密”，提出“先觉帮助后觉乃古今正理，人之常情”，⁵⁸⁾呼吁日本作为“先觉者”帮助同种兄弟，负起守护东亚的责任。

而对于疲弱的清国，『独立新闻』将其视为东亚的一个重要成员，西方各国分裂清国便是“东洋最大的问题”，“清国被分裂对日本和大韩有利还是有害？”答案无疑是“有害”，这是因为“日本作为东洋最先开化的国家，虽非不能自保，但若清国不能保全，日本自然也会有孤立无援之忧，不能说对日本有利。而对大韩来说，诸位高明的君子早有定论”，⁵⁹⁾只有相同人种相互联合才能维持东亚大局之和平。⁶⁰⁾可以看出，『独立新闻』宣扬清、日、韩三国一损俱损，三国携手合作共同对抗白种人才能确保东亚安全之道。

53) 「社论」, 『独立新闻』, 1899.11.8.

54) “观天下大势和地理界线，大韩和清国就像人的唇齿、车的两轮，如果没了唇牙就会冷，如果车轮损坏了车就会倒。”参考社论「西风定级」, 『独立新闻』, 1899.5.11.

55) 「社论」, 『独立新闻』, 1897.4.6. 「社论」, 『独立新闻』, 1898.11.2.

56) 「社论」, 『独立新闻』, 1899.11.16.

57) 「社论」, 『独立新闻』, 1898.4.2.

58) 「社论」, 『独立新闻』, 1899.11.16.

59) 「社论」, 『独立新闻』, 1899.11.25.

60) 「社论」, 『独立新闻』, 1899.11.9.

如上所述,『独立新闻』将日本和清国塑造为了与韩国辅车相依的黄种人兄弟,基于“东亚同种论”,主张以三国平等为基础的“亚细亚连带”,目的是通过东亚三国的联合谋求国家和民族的独立,这种强调人种的思想来源于社会进化论的种族主义逻辑。

4. 结论:社会进化论影响『独立新闻』中清、日形象之含义

19世纪末,韩国开化派知识分子认识到报纸对启发民智的重要作用,积极创办近代报纸。『独立新闻』是朝鲜王朝结束与清国宗藩关系后最早创办的民族报纸,表现出近代转型期韩国知识分子对国族命运与清、日关系的重新思考与探索。从社论内容看,『独立新闻』积极宣扬西方文明,积极评价率先学习西方的日本,从传统的儒家思想转变为对西方文化的倾倒,开始在意识形态上逐渐向西方靠拢,这是韩国思想史上的一个转折。

密切参与『独立新闻』准备和发行工作的俞吉浚、徐载弼、尹致昊等开化派知识分子是韩国最早的社会进化论者,他们在日本、美国等海外留学和生活过程中,积极学习西方文化,接受了社会进化论,并将其引入韩国,影响了『独立新闻』的报道倾向。『独立新闻』刊载的文章以社会进化论为价值导向认识世界,其中包括清国与日本。『独立新闻』中的清国和日本分别是劣败国和优胜国、变革的探索者与成功者,体现了社会进化论“优胜劣败”、“适者生存”的生存竞争思想,从“东亚同种论”的角度认为清国和日本都是与韩国辅车相依的同种兄弟,主张清、日、韩三国以平等的地位联合对抗白种人,并要求保证韩国独立国家的地位,作为社会进化论种族主义的变体,体现出强烈的民族意识。

当然,从根本上说,『独立新闻』的对清、对日认识取决于清国和日本的基本国情和国际地位,也深受本国现实的影响,社会进化论则让清、日形象更加逻辑化,从而使之具有了更大的说服力,为清、日形象在朝鲜半岛的传播发挥了重要作用。

近代报纸是韩国开化派知识分子开展独立、开化运动重要的舆论平台和

政治工具。『独立新闻』的对清、对日认识变得更为复杂, 正面形象与负面形象交织, 反映出韩国近代知识分子看待世界的多元视角。作为近代早期刊行时间最长、影响力最大的第一份纯韩文报纸, 『独立新闻』中的清、日形象在 『皇城新闻』 『帝国新闻』 『大韩每日申报』等其他开化期重要报纸中得到继承与发展。

◆ 参考文献

1. 资料

『独立新闻』(1896.4.7.-1899.12.4.)

2. 单行本

彼得·狄肯斯, 『社会达尔文主义—将进化思想和社会理论联系起来』, 涂骏译, 吉林: 吉林人民出版社, 2005.

福泽谕吉, 『文明论概略』, 北京编译社译, 北京: 商务印书馆, 1959.

姜万吉, 『韩国近代史』, 北京: 东方出版社, 1993.

Vladimir Tikhonov, *Social Darwinism and Nationalism in Korea: the beginnings (1880s-1910s): "Survival" as an Ideology of Korean Modernity*, Nederlanden: Brill, 2010.

3. 论文

박희성, 「『독립신문』에 나타난 대외인식 연구」, 『융합보안논문지』 제13권 제5호, 2013, pp.89-95.

白永瑞, 「大韩帝国期 韩国言论의 中国 认识」, 『역사학보』 제153집, 1997, pp.105-139.

성주현, 「한말 사회진화론의 수용과 자강론의 형성」, 『시민인문학』 제39호, 경희대학교 인문연구소, 2020, pp.131-163.

李光麟, 「徐載弼의 『独立新闻』 간행에 대하여」, 『震檀学报』 제39집, 1975, pp.69-104.

천자현·고희탁, 「근대 한국의 사회진화론 도입·변용에 보이는 정치적 인식구조-국가적 독립과 문명개화의 사이에서」, 『대한정치학회보』, 제18집 제3호, 2011, pp.27-47.

- 채백, 「주요 국가에 대한 『독립신문』의 정치적 입장-논설의 보도태도를 중심으로」, 『韩国言论学报』 제43-1호, 1998, pp.254-276.
- 金成镐·李岩, 「19世纪末朝鲜独立协会运动与“中华观”的嬗变」, 『朝鲜·韩国历史研究』第十五辑, 2013, pp.312-337.
- 刘牧琳, 「甲午战后朝鲜对中国认识的变化—以『独立新闻』为中心」, 『当代韩国』第3期, 2019, pp.118-128.
- 朴明熙, 「韩国的开化思想和开民智运动—以中国言论给韩国爱国启蒙运动的影响为中心」, 『历史教学问题』第2期, 2010, pp.70-79.
- 吴玉娇·韩梅, 「日本操弄下的朝鲜半岛近代中、日形象建构—以朝鲜半岛首份近代报纸『汉城旬报』为中心」, 『东疆学刊』第40卷 第2期, 2023, pp.31-37.

논문 접수 일	2023년 05월 10일
심사 완료 일	2023년 05월 27일
게재 확정 일	2023년 06월 08일

Abstract

The Image Comparison between Qing and Japan in the Korean Modern Enlightenment Period's Newspaper 『TONGNIP SINMUN』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Evolutionism

Wu, Yujiao · Han, Mei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Social Evolutionism introduced into Korea with the eastern penetration of western powers and was actively accepted by Korean enlightened intellectuals. In the editorials of 『TONGNIP SINMUN』 run mainly by the members of Independence Club, the Qing and Japan were described as the inferior loser and superior winner in the survival competition, a country that seeks to overcome the crisis through reform and a country that has entered the ranks of the civilized countries through transformation. Behind this, the ideological logic is the 'superiors win and inferiors lose' and 'survival of the fittest'. At the same time, 『TONGNIP SINMUN』 put forward the 'East Asian Racial Homogeneity Theory' which was a variation of the racism, and argued that the Qing and Japan were brothers who interdependent with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the Korean people, it seems to have transformed white supremacy in the West. It is speculated that behind this lies a practical intention to maximize the interests of the home country by using traditional Confucian ideology to inspire unity with Qing and Japan. The image of Qing and Japan in the 『TONGNIP SINMUN』 shows that enlightenment intellectuals actively accepted western ideas for the enlightenment and independence of the country and transformed the theory of social evolutionism from the perspective of this nation. The Enlightenment period can be described as a time when Korea began to perceive the significant neighboring countries of Qing and Japan in East Asia in a new way. This study examines the ideological logic and practical causes behind the portrayal of Qing and Japan in the Korean Enlightenment nationalist newspaper 『TONGNIP SINMUN』 from a perspective of social evolution. Through this study, it is believed to contribute to the understanding of Korea's global perception and its perception of the East Asian region during the modern transition period.

Keyword

『TONGNIP SINMUN』, Image of Qing and Japan, Social Evolutionism, Accept, Transform

한중인문학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한중인문학회(한문표기 : 中韓人文學會, 이하 “학회”라 함)’라 한다.

제2조(목적) 학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국내 한국학의 진흥 및 그 성과의 해외 소개
2. 재외 한국학 연구자들과의 교류를 통한 해외 한국학의 활성화
3. 동아시아, 특히 중국과의 학술문화사상적 교류 및 관계 탐구
4. 기타 한국학의 국제적 위상 및 정체성 제고를 위한 제반 활동

제3조(사업) 학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연구발표회 개최
2. 학회지 『한중인문학연구』 간행
3. 한중인문학 관련 도서 간행
4. 국내외 학술단체와의 학술교류

제4조(연구 윤리)

1. 학회의 제반 활동은 학술연구에 관한 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바탕으로 한다.
2. 회원들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별도의 <윤리 규정>을 제정, 시행한다.

제2장 회원

제5조(자격) 학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한중인문학 관련 언어, 문학, 역사, 철학, 문화, 언어교육 분야 등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2. 기타 한중문화 교류에 관여하는 전문가 및 기관

제6조(가입) 학회의 가입은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제7조(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학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8조(의무) 회원은 회칙 및 결의사항을 이행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징계)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회장이 이사회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조직) 학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약간명(전공별, 지역별)
3. 분과이사 약간명
4. 감사 2인

제11조(선출)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과 분과이사 및 간사는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2조(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사무 전반을 총괄한다.
2. 행정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학회의 사업을 기획·조정한다.
3. 분과이사는 학회의 주요 업무와 의결사항을 집행한다.
4. 감사는 학회의 재무사항 일체를 감사하며 매년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3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4장 회 의

제14조(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연1회 개최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 ① 사업 계획의 심의
 - ② 예산 및 결산의 심의
 - ③ 임원 선출 및 인준
 - ④ 회칙 개정
 - ⑤ 기타 중요사항
3. 임시총회는 학회 운영상 특별히 의결이 필요할 때 회원 3분의 1 이상이나 이사회의 요청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제15조(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전공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① 총회 의결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 ②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예비심의에 관한 사항
 - ③ 업무 집행 및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④ 기타 중요사항

제16조(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와 기타 출판물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2. 편집위원회는 1인의 편집위원장과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3. 편집위원회의 제반 사항은 <편집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제17조(연구윤리위원회)

1.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의 제반 활동 및 회원의 연구 활동을 대상으로 하여 학술 연구 윤리 규범을 홍보하고 <윤리 규정>의 준수 여부를 관리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의 제반 사항은 <윤리 규정>을 따른다.

제18조(의결) 회의안건은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5장 재 정

제19조(재정내역)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기금, 입회비, 연회비,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20조(회계연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제21조(예결산) 예산 및 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6장 기 타

제22조(내규) 이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다.

부 칙

- 이 회칙은 199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회칙은 2002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이 회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회칙은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회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회칙은 201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한중인문학연구』編輯委員會 規定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학술지 『한중인문학연구』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발행) 본 위원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한중인문학연구』는 다음 지침에 따라 발행된다.

1. 연4회 발간하되, 3월 30일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에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학술지 게재 심사 대상은 투고된 학술대회 발표문과 수시로 접수한 논문으로 한다.

제3조(연구 윤리)

1. 본 위원회의 활동은 학술연구자로서의 도덕적 의무와 사회적 책무 이행에 바탕을 둔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의 활동은 본 학회의 〈윤리 규정〉에 의한 제반 규약을 준수한다.
2. 이와 관련한 사안은 연구윤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처리한다.

제2장 구성

제4조(구성) 편집위원회는 1인의 편집위원장과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1. 편집위원은 이사회에서 추천, 회장이 위촉한다.
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편집위원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이 위촉한다.

제5조(인원) 편집위원은 아래의 분야에 따라 위촉한다.

1. 한국 인문학 : 문학, 어학, 고전, 역사, 문화, 교육 등 6개 분야
2. 한중 비교학 및 중국학 : 중국 문학, 중국 어학, 중국 사상, 비교 문학 등 4개 분야
3. 위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자로서 연구업적과 활동 지역을 고려하여 선정, 임명한다.

제6조(편집위원 선정 기준) 편집위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학술연구 실적이 뛰어난 자
2. 중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한 인문학 분야를 전공으로 하는 자

제7조(임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자문위원) 편집활동의 제고를 위해 약간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3장 심사

제9조(투고 자격) 투고자는 원칙적으로 본 학회 회원이면서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하며, 투고된 모든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가 결정된다.

제10조(논문의 범위) 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발표되지 않은 새로운 원고로 한정한다.(기취득한 학위논문을 요약 및 발췌한 내용이나 이미 발표된 논문과의 접근 방식에서 확연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1. 한국학의 내적 특성을 심화시키거나 외연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내용
2.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인문학 분야 및 한국학의 정체성 탐구와 관련 있는 내용

제11조(심사위원)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전공분야에 연구업적이 있는 자로 논문 한 편 당 3인을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제12조(심사 기준)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논문을 평가항목에 근거하여 심사하여 판정 소견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항목 \ 점수	5	4	3	2	1
논문의 창의성					
방법의 적절성					
논리의 타당성					
체제의 적합성					
학문적 기여도					
총점					

제4장 심사 절차 및 심사 규정

제13조(접수) 논문 투고는 온라인 투고시스템(<http://submission.kochih.kr/Login>)을 통해 수시로 받는다.

제14조(예심)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세부 분야별로 분류하여 예심을 한다.

제15조(심사 의뢰) 편집위원장은 예심을 거친 논문을 해당분야의 심사위원 3인에게 ‘심사의뢰서’와 함께 보내 심사를 요청한다.

제16조(심사 절차) 심사위원은 심사의뢰서에 근거하여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하고 심사 평가란에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가운데 택일하여 기록한 후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1.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원고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서로 이름을 알지 못하도록 한다.
2.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서 직접 심사하고 그 결과를 입력할 수 있다.

제17조(심사 규정) 편집위원회는 수합된 심사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최종평가를

통해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1. 각 심사위원의 평가 결과에서 3인 이상이 게재에 동의할 경우 반드시 게재한다.
2. 최종평가에서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수정해야 할 사항을 명기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1주일 이내에 수정 보완하여 수정확인서와 함께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4. 편집위원회는 수정·권고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된 논문에 한하여 논문의 게재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
5. 최종평가에서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한다.
6. 논문 수정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게재를 다음 호로 미룰 수 있다.
7. 심사결과 2인 이상 ‘게재 불가’ 판정이 있을 경우 무조건 반려한다. 단 1인 이하의 심사위원이 ‘게재 불가’ 판정을 한 경우는, 이 판정은 ‘수정 후 게재’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8. 심사 결과 ‘게재 불가’의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제시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편집위원회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른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① 투고자는 ‘게재 불가’의 판정을 통보 받은 후 7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내용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②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접수되면 편집위원회에서는 그 타당성과 구체성 여부를 1차 검토한 후 이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때 심사위원을 전원 교체하여 ‘게재 가’와 ‘게재 불가’의 한 가지 중에서 판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는 다수의 판정 결과를 참조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판정한다.
 - ③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는 한 차례에 한한다.
 - ④ 재심사에 들어갈 경우 이의 신청자는 재심 논문 심사비 등을 포함하여

내규에 따른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재심은 심사비 납부 이후에 진행된다.

9. 투고자에게는 논문의 게재여부와 구체적인 심사 내용을 명시한 ‘논문심사 결과서’를 보낸다.
10. ‘수정 후 게재’ 논문의 경우 만약 심사자의 의견에 대한 수정보완이나 구체적 의견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게재를 제한한다.
11. 발행 면수 제한 때문에 논문 편수를 더 줄여야 하는 경우에는 심사기준표에 따라 최하위 논문을 다음 호에 게재할 수 있다.
12. 외국어 논문을 학회지에 일정 비율 수록하도록 한다. 수록 비율은 편집회의에서 결정한다.
13. (재투고 금지) 재투고는 1회에 한하며, 이전의 심사결과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아 반려된 논문과 동일한 내용으로 재투고할 수 없다. 재투고된 논문은 1차 심사절차와 동일하게 심사를 진행한다.

제5장 투고 규정

제18조(투고) 투고는 홈페이지의 논문투고 메뉴를 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투고시 학회에서 요구하는 ‘논문투고신청서’ 양식과 논문표절 방지를 위한 <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서>를 첨부해야 한다. 단 공동저자인 경우 저자와 관련된 정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모든 저자가 ‘논문투고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9조(접수 마감) 접수 마감은 1월 30일, 4월 30일, 7월 30일, 10월 30일로 한다.

제20조(원고 작성) 논문 작성 요령은 제26조의 논문 작성 양식을 따른다.

제21조(투고 제한) 단독 저자 및 공동 저자의 투고 시, 연속 2회 투고 및 게재불가를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회가 특별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한 표절 등 연구 윤리 위반으로 판정된 논문을 재투고할 수 없

다.

제22조(원고의 제출) 논문의 내용 상 그래프나 표 등이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1 부를 출력하여 그 부분을 붉은색으로 표기, 겉표지와 논문을 철하여 아래의 학회사무실로 제출하고 인수증을 받는다. 우편 제출 시 논문 겉표지에 『한중인문학연구』 제 00호 투고 논문'이라 쓰고 보내는 사람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e-mail 주소를 쓴다.

학회사무실 주소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관악캠퍼스 1동 314호
한중인문학회 김유중
E-mail : kochih@hanmail.net

제23조(심사비) 논문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에 소정의 심사비를 학회 통장으로 입금해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심사서 접수 후 심사위원들에게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한다.

제24조(게재료) 심사 후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된 논문은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게재료는 일반 논문과 연구비 수혜 논문으로 구분하여 납부하며, 금액은 편집위원회의 내규로 정한다.

제25조(영문초록) 편집위원회는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 학술논문 영문교정 전문기관에 영문 초록 교정을 의뢰한다. 영문 초록 교정에 드는 비용은 논문 저자가 부담하여, 게재료에 반영한다. 단 저자가 별도 교정을 원할 경우, 저자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서 영문 초록 교정을 받았음을 증빙할 수 있는 '영문 초록 교정 확인증'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6조(연구 윤리) 연구 윤리를 심의 감독할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회장이 임명한 1인이 위원장을 맡도록 한다.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은 별도로 제정하

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27조(이해상충 및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 부정행위 방지) 논문 투고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이나 가족의 사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해상충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논문 투고자는 투고 논문과 관련하여 이해상충 관련 보고를 요구받았을 때, 즉시 학회 측에 이해상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 게재 후라도 이해상충 관련 연구부정이 확정되면 연구윤리위원회의 징계 절차에 따라야 한다.
2.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의 이해상충 및 특수관계인 공동저자가 의심되는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연구윤리위원회는 즉시 이에 대한 심사 및 판정에 돌입한다.

제28조(논문 작성 양식) 논문 작성 요령은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1. 논문은 “한글(2010 이상)”으로 작성할 것을 기본으로 한다.
2.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 120매(편집 후 총면수 24쪽 이내) 내외로 하고, 150매 이상(편집면수 30쪽 이상)은 투고를 제한한다.(출판 편집 후 24쪽을 초과할 경우에는 1쪽 당 2만원의 추가 조판비를 부담한다.)
3. 논문의 체계는 제목, 성명, 국문개요, 국문 주제어, 목차, 본문, 참고문헌, 영문제목, 영문 성명, 영문초록, 영문 주제어의 순으로 한다.
4.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저자의 소속 및 직위 등은 논문 첫 페이지에 각주로 표시하고, 공동 저자가 있을 경우 주저자(또는 제1저자)와 교신저자(또는 제2저자) 등을 빠짐없이 구분하여 정확하게 표기한다.

대상		표시할 사항
대학 소속	대학 소속 교수 및 강사	성명/대학명/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의전담교수, 겸임교수, 초빙교수, 강사 등
	대학 및 대학원 소속 학생	성명/대학명/학부과정, 석사과정, 석사수료, 박사과정, 박사과정수료
	대학 소속 박사 후 연구원	성명/대학명/박사 후 연구원
초중등 학교 소속	유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성명/학교명/교사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성명/학교명/학년
연구기관	연구원	성명/기관명/직위
기타	소속/직위가 없는 성인	성명/전)소속명/종별 학위, 전)직위, (또는) 성명/연구자
	소속/직위가 없는 미성년자	성명/최종소속명/학생, 졸업, 재학연도

5. 모든 논문은 국문개요와 영문초록을 첨부하고 국문 주제어와 영문 주제어를 각각 5개 이상 표기한다.
6. 편집용지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용지 종류	용지 여백		용지 방향
사용자 정의 폭 : 153mm 길이 : 225mm	위쪽	19,0mm	중계
	아래쪽	27,0mm	
	왼쪽	22,0mm	
	오른쪽	22,0mm	
	머리말	13,0mm	
	꼬리말	0	
	제본	0	

7. 논문에서 사용되는 기호는 다음에 의거한다.
- ① 본문의 항목구분은 1, 1), (1) ①의 순서로 한다.
- ② 표 및 그림은 <표1> 제목, <그림1> 제목의 순서로 한다. 중국어논문은

〈表1〉 제목, 〈圖1〉 제목의 순서로 한다.

③ 〈 〉 작품, 『 』 작품집, 「 」 논문, 『 』 신문 · 잡지 · 저서,
 ‘ ’ 강조 및 간접인용, “ ” 직접 인용으로 한다.

8. 논문의 스타일 모양은 다음과 같다.

① 한국어논문일 경우

스타일 이름	글자모양				문단모양				
	크기	장평	자간	글꼴	왼쪽 여백	오른 여백	들여 쓰기	줄 간격	정렬 방식
바탕글	10	90	-6	휴먼명조	0	0	10	170	양쪽
국문요약	8.5	95	-9	휴먼명조	0	0	10	160	
논문제목	14.5	95	-9	신명태명조	0	0	0	160	중앙
1	12	90	-6	신명태명조	10	0	0	170	양쪽
1)	10.6	90	-7	신명중고딕	10	0	0	170	양쪽
(1)	10	95	-8	신명중명조	10	0	0	150	양쪽
①	10	95	-9	휴먼명조	10	0	0	170	양쪽
인용문	9	95	-9	휴먼명조	10	0	10	150	양쪽
각주	8.6	95	-9	휴먼명조	0	0	내어쓰기 14	138	양쪽
참고문헌	8.9	95	-9	휴먼명조	0	0	내어쓰기 30	145	양쪽
영문초록	9	90	-7	신명신명조	10	0	0	150	양쪽
표제목	8.5	95	-7	중고딕	0	0	0	170	중앙
머리말(홀수) (논문 제목 기입)	8.7	90	-5	신명신명조	0	0	0	170	오른
머리말(짝수) (학회지명, 호수 기입)	8.7	90	-5	신명신명조	0	0	0	170	양쪽

* 이상 여기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모두 기본값으로 둔다.

② 중국어논문일 경우

스타일 이름	글자모양				문단모양				
	크기	장평	자간	글꼴	왼쪽 여백	오른 여백	들여 쓰기	줄 간격	정렬 방식
논문제목	14.5	95	-9	신명조 간자	0	0	0	160	중앙
국문요약	8.5	95	-9	휴먼명조	0	0	10	160	
바탕글	10	90	-6	신명조 간자	0	0	10	170	양쪽

1	12	90	-6	신명조 간자	20	0	0	250	양쪽
1)	10.6	90	-7	신명조 간자	10	0	0	210	양쪽
(1)	10	95	-8	신명조 간자	10	0	0	200	양쪽
①	10	95	-9	신명조 간자	10	0	0	170	양쪽
인용문	9	95	-9	신명조 간자	10	0	10	150	양쪽
각주	8.6	95	-9	신명조 간자	0	0	내어쓰기 14	138	양쪽
참고문헌	8.9	95	-9	신명조 간자	0	0	내어쓰기 30	145	양쪽
영문초록	9	90	-7	신명조 간자	10	0	0	150	양쪽
표제목	8.5	95	-7	신명조 간자	0	0	0	170	중앙
머리말(홀수) (논문 제목 기입)	8.7	90	-5	신명조 간자	0	0	0	170	오른
머리말(짝수) (학회지명, 호수 기입)	8.7	90	-5	신명조 간자	0	0	0	170	양쪽

* 이상 여기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모두 기본값으로 둔다.

※ 중국어 투고 논문은 간체자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글자 모양은 신명조 간자를 사용한다.(다만, 변체자 사용 지역에서 투고하는 경우나 중국의 고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변체자를 사용할 수 있다.)

9. 논문에서 사용되는 주는 각주로 작성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수정 2016. 01. 13)

① 저자, 「논문명」, 『저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쪽수.
(인용쪽수는 p 또는 pp로 표기한다.)

② 영문 각주일 때 논문은 “ ”로, 저서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10. 참고문헌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① 참고문헌은 단행본과 논문으로 나누어 완전한 서지정보를 표기한다.

② 학술지에 실려 있는 논문일 경우에는 해당 논문의 게재 면수(해당 논문의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를 반드시 표기한다.

③ 국내문헌을 먼저 표기하고 다음에 일본어, 중국어, 기타 동양권 문헌 다음에 영어, 불어, 스페인어, 기타 서양권 문헌의 순서로 배열한다.

④ 국내문헌은 저자의姓을 가나다 순서로, 동양권 문헌은 저자 독음을 가나다순으로, 그리고 서양권 문헌은 저자姓의 알파벳 순서로 배열한다.

- ⑤ 외국 논문의 경우 자국 언어의 문헌을 국내문헌으로 간주한다.

제6장 논문의 학회 이용권

제29조(학회의 저작권) 학술지 『한중인문학연구』에 게재된 논문은 저작권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학회의 이용권을 자동 허락한다.

제30조(논문의 이용)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게시된 논문은 회원에 한하여 무료 온라인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1조(논문 공개) 한국연구재단(KCI) 홈페이지에 탑재된 학술지의 모든 논문은 원문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2조(상업 이용 금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상업적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하면 저자와 학회 간에 별도 협약을 맺는다.

부 칙

제33조(내규)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통례를 따른다.

제34조(개정) 본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2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6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7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8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9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1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2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한중인문학회 윤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 제반 활동의 윤리 및 진실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약) 본 학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윤리 규정 준수를 서약해야 한다. 본 윤리 규정의 발효 시 기존 회원은 본 윤리 규정 준수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의무) 본 학회의 모든 구성원은 연구자로서의 규범을 준수하고, 학술 연구를 통하여 학문과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며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1. 회원은 학술 연구 수행 및 연구 논문 발표 시 본 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학회의 윤리 조사가 있을 때에는 협조해야 한다.
2. 회장은 회원의 연구 수행과 주관사업 진행 시 준수해야 할 연구 윤리 규범을 알리기 위해 홍보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 인력, 체계를 지원해야 한다.

제4조(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본회 회원의 규범 준수와 성실 의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5조(대상과 범위) 이 규정은 본 학회의 회원 및 본 학회가 주관하는 사업 및 사업관련자에 적용된다.

제6조(윤리규정 위반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에게 윤리 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 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7조(규정의 수정) 윤리 규정의 수정 절차는 학회의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 규정이 수정될 경우, 수정 전의 규정에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장 일반적 윤리

제8조(사회책 책임)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가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자각하고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제9조(학문의 자유) 연구자는 사상, 종교, 나이, 성별 및 사회적 계층과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에 대하여 편견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가로서의 자세) 연구자는 자신의 학술적인 능력과 전문성을 유지 혹은 향상시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연구의 진실성) 연구자들은 모든 연구 활동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며 타인의 연구 활동을 존중한다. 연구자들은 오직 학문적 근거에 의하여 판단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본인의 전문적 영역을 넘어서는 판단을 삼간다.

제3장 연구 관련 윤리

제12조(저자의 의무)

1. 표절 금지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결과 출처를 명시함과 더불어 여러 차례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2. 출판 업적

- ①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 ②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연구나 저술(번역)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회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3.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인용 및 참고 표시

- ① 공개된 학술 자료(인터넷 및 SNS 등등 게시 자료 포함)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 ②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디까지가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디서부터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주장이나 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

능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6. 공동저자 연구 부정행위 금지

저자는 논문의 이해상충 및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관련 연구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논문 게재 후라도 연구 부정이 의심되는 경우 '편집위원회 규정' 제27조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가 소집된다.

제13조(편집위원의 의무)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 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의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4.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14조(심사위원의 의무)

1.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

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3.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4.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4장 연구윤리위원회

제15조(구성과 임기)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회원 중 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16조(임무와 권한)

1. 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다.
2.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며, 이때 적절한 제재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7조(심사 절차) 위원회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1. 위원회의 심사 개시는 위원회, 또는 회장의 심사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심사 요청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2. 위원회는 제기된 안건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자체 내의 심사 또는 외부 심사위원의 참여 여부 등 해당 안건의 심사 절차를 결정하되, 심사의 진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원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3. 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필요시 해당 연구자, 제보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 조사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의 처리를 결정하며, 해당 연구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그 결과에 대한 본인의 소명 기회 부여를 검토한다.
5. 본인의 소명은 심사위원회의 비공개 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에게 심사 경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통보한다.
6. 심사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의 소명 이후 심사위원회 결정의 번복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번복 여부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7. 심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분이나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8조(심사 결과의 보고)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즉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심사의 위촉 내용
2. 심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심사위원의 명단 및 심사 절차
4.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5. 심사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제19조(징계) 위원회는 심사 및 면담 조사를 종료한 후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제명
2. 논문의 직권 취소 및 인용 금지
3. 학회에서의 공개 사과
4. 회원으로서의 자격 정지

제20조(후속 조치) 이사회는 심사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회장은 이사회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시행한다.
2. 심사결과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이사회는 심사위원회에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사회회의 요구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한 서류로서만 이루어진다.

부칙

제21조(내규)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22조(시행) 본 규정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7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1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彙報

- 2023.05.16. 한중인문학연구 79집 1차 편집위원회 및 윤리위원회 개최
 2023.05.31. 한중인문학연구 79집 2차 편집위원회 및 윤리위원회 개최
 2023.06.07. 한중인문학연구 79집 3차 편집위원회 및 윤리위원회 개최
 2023.06.26. 한중인문학연구 79집 4차 편집위원회
 2023.06.30. 한중인문학연구 79집 발간

2023年度 事業計劃

- 1) 한중인문학연구 78집 투고 마감(2023년 02월 10일)
- 2) 한중인문학연구 78집 발행(2023년 03월 30일)
- 3) 한중인문학연구 79집 투고 마감(2023년 05월 10일)
- 4) 한중인문학연구 79집 발행(2023년 06월 30일)
- 5) 제 51회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2023년 05월 13일, 서울대학교)
 - 주제: 한중 우호, 상생과 연대의 기억
- 6) 한중인문학연구 80집 투고 마감(2023년 07월 30일)
- 7) 한중인문학연구 80집 발행(2023년 09월 30일)
- 8) 한중인문학연구 81집 투고 마감(2023년 10월 30일)
- 9) 제52회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2023년 11월 18일, 장소 미정)
 - 주제: 한중 국교 수립 이전의 상호 교류
- 10) 한중인문학연구 81집 발행(2023년 12월 30일)

〈알림〉

1. 『한중인문학연구』 중간 안내

2014년부터 학회지 발간을 4회로 증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투고 마감일 : 01월 30일, 04월 30일, 07월 30일, 10월 30일
- 발행일 : 03월 30일, 06월 30일, 09월 30일, 12월 30일

2. 『한중인문학연구』 80집 원고 모집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실 회원은 원고 마감 기한을 지켜 학회로 원고를 보내주시시오. 원고 분량은 편집면 기준 30쪽 이내로 제한합니다. 기타 사항은 학회 홈페이지 투고 규정 및 연구윤리 규정을 잘 참고하시어 투고하시기 바랍니다.(학회의 논문 작성 양식에 맞추어 작성한 논문만 투고하실 수 있습니다.)

- 논문 투고 : 온라인 투고시스템(<http://submission.kochih.kr/Login>)
- 투고 마감 : 2023년 7월 30일
- 발행 예정 : 2023년 9월 30일

3. 심사료 및 게재료 기준 안내

76집부터 심사료 및 게재료 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학술대회 발표 논문 및 외국학자 논문도 동일 적용)

- 심사료 : 7만원(재투고 논문일 경우에도 동일 적용)
단, 이의제기로 인한 재심사 논문의 경우에는 재심 신청과 동시에 별도의 심사료 7만원과 회의비 4만원(합계 11만원)을 추가 부담한다.
- 게재료 : 기본 10만원(편집면 24쪽 이내)
추가분량 편집면 1쪽당 2만원씩 추가(편집면 최대 30쪽까지 가능)
연구비 수혜논문의 경우 교내지원 20만원, 교외지원 30만원 추가
단, 두 곳 이상의 지원을 받는 연구비 수혜논문은 항목별로 금액을 다음과 같이 추가 납부한다.(게재료는 연구비 지원이 높은 곳

을 기준으로 청구비는 가장 높은 금액 100%와 나머지는 각각 50%를 합하여 계산한다.)

- 편집면 24쪽 이내 게재료의 예:

교외지원(100%)+교내지원(50%)=40만원

교외지원(100%)+교외지원(50%)+교내지원(50%)=55만원

4. 회비 납부 안내

학회 가입비, 연회비 및 심사료는 다음과 같으며, 논문 심사는 연회비 및 심사료의 납부를 확인한 후에 진행됩니다.

가입비 : 30,000원

연회비 : 30,000원

투고 논문 심사료 : 70,000원

학술지 해외 배송료 : 20,000원 (중국의 경우, 기타 해외지역은 별도문의)

학회통장 : 신한은행 100-029-987203 한중인문학회

* 연회비를 장기미납하신 회원의 경우 아래의 가, 나, 다 방식 중 선택하여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국내, 국외 회원 동일하게 적용)

가. 1년 연회비 3만원과 재입회비 3만원, 총 6만원 납부

나. 3년 연회비 9만원 납부

다. 5년내 연회비를 납부실적 있을 경우 재입회비 면제, 연회비 3만원 납부

* 회원 주소록을 정비하오니 소속, 연락처, 주소 등이 변경된 회원께서는 학회 메일로 직접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학회 홈페이지 회원 가입 안내

한중인문학회 신규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중인문학회 도메인 주소 : <http://kochih.kr/>

신규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ID 생성 시 영문 또는 숫자만 허용합니다. 이에 기존 가입자 중 특수기호나 스페이스가 들어간 ID는 교체를 권장해드립니다.

6. 학회지 PDF 발송

2018 가을 학회 총회 의결에 따라 제62집부터 기관 회원 등을 제외한 모든 회원님께 PDF 파일로 된 학회지를 발송합니다.

한중인문학회 제13기 임원진 및 위원진

(2022.1.1~2023.12.31)

명 예 회 장 :	김상대(아주대명예) 최병우(강릉원주대명예) 임경순(한국외대)	한계전(서울대명예) 박윤우(서경대) 유성선(강원대)	송현호(아주대명예) 한용수(동국대)
고 문 :	김공환(아주대명예) 김현숙(이화여대명예) 박경현(경찰대명예) 박인기(경인교대명예) 송하춘(고려대명예) 윤석달(항공대명예) 전인영(이화여대명예) 최유찬(연세대명예)	김종철(서울대명예) 류종렬(부산외대명예) 박순애(호남대) 박일룡(홍익대명예) 우한용(서울대명예) 윤여탁(서울대명예) 정병현(숙명여대명예) 최학출(울산대명예)	김호웅(연변대명예) 민현식(서울대명예) 박옥걸(아주대명예) 서준섭(강원대명예) 유인순(강원대명예) 이정숙(한성대명예) 조창환(아주대명예)
회 장 :	김유중(서울대)		
전공 부회장 :	이지영(어학:서강대) 김 호(역사:서울대) 민병곤(교육:서울대)	구재진(문학:세명대) 임치균(사상:한중연) 이은희(여성:한성대)	김원중(고전:단국대) 임대근(문화:한국외대) 이해영(중국어:중국해양대)
지역 부회장 :	이병찬(서울:덕성여대) 윤의섭(충청:대전대) 송현정(제주:제주대)	이태숙(경기:단국대) 김성진(경상:대구대)	김풍기(강원:강원대) 김혜영(전라:조선대)
행정 부회장 :	정래필(영남대)		
분 과 이 사 :	<u>[총무]</u> 광명숙(아주대) 박진(국민대)	<u>김형규(아주대)</u> 정진석(강원대) 최미숙(상명대) 황영미(숙명여대)	임대근(한국외대) 조명숙(경희대) 윤선자(전남대) 남연(북경대)
	<u>[기획]</u> 김정우(이화여대) 박진호(서울대)	<u>최미숙(상명대)</u> 황영미(숙명여대)	여호규(한국외대)
	<u>[연구]</u> 김진규(가천대) 송윤미(강원대)	<u>김근호(전남대)</u> 이미옥(서울대)	김원중(단국대) 김명숙(중앙민족대)
	<u>[편집]</u> 최호영(강원대) 조현일(원광대)	<u>우신영(인천대)</u> 신정수(한중연)	송재연(서원대) 최유학(중앙민족대)
	<u>[국제]</u> 진공(국민대) 신영덕(인하국립대)	<u>이영남(광서사범대)</u> 박춘란(사천외대)	지수용(화중사범대) 윤경애(대림민족대)
	<u>[섭외]</u> 조원일(전남대) 이정란(한중연)	<u>김환기(동국대)</u> 홍순애(동덕여대)	박강(부산외대) 유전진(운남사범대)
	<u>[홍보]</u> 박성일(한국체대) 최재선(산업대)	<u>김상일(동국대)</u> 선저이쿠마르(코리아헤럴드)	김현주(한국외대) 이영호(제주대)
	<u>[교육]</u> 류수열(한양대) 김호정(서울대)	<u>권순희(이화여대)</u> 한창훈(전북대)	김미순(한국외대) 전영근(광동외대)
			민재원(전북대) 김은성(이화여대) 이명아(국민대) 엄홍화(회해공대) 천춘화(숭실대) 여수일(중곡국립대) 김영주(대전대)

[정보] <u>송지언(홍익대)</u>	강남욱(경인교대)	이승준(항공대)	이희정(경북대)
장은영(조선대)	최인자(가톨릭대)	노금숙(호남사대)	
[출판] <u>조하연(아주대)</u>	황혜진(건국대)	오영미(교통대)	권유리아(부산외대)
정혜영(대구대)	유정은(강원대)	김경선(북경외대)	

감 사(2) : 류순태(서울시립대), 차희정(명지대)

간 사(3) : 행정학술-전세진(서울대), 편집정보-신문봉(서울대) 백지운(경희대)

* 밑줄은 실무담당 상임이사입니다.

〈편집위원회〉

편집자문위원 : 권용욱(남서울대 명예)	김석희(인하대 명예)	류종렬(부산외대 명예)
민현식(서울대 명예)	박인기(경인교대 명예)	서준섭(강원대 명예)
손희하(전남대 명예)	윤여탁(서울대 명예)	윤정룡(한남대 명예)
이영춘(한중문화연구소)	전인영(이화여대 명예)	정병현(숙명여대 명예)
최유찬(연세대 명예)	우한용(서울대 명예)	김호웅(연변대 석좌)
심정창(북경대 명예)	윤윤진(길림대)	김기석(상해외대)
허세립(길림대 주해)	김종철(서울대 명예)	김하림(조선대)
박인용(홍익대)	정호웅(홍익대)	유문선(한신대)
이후일(선문대)	공종구(균산대)	박경수(부산외대)
차성만(서경대)	문철영(단국대)	박현규(경북대 명예)

편집위원장 : 이선이(경희대)

편집위원(13) : 이정란(어학(한), 수도권:한국학중앙연구원)	김원중(문학(중), 수도권:단국대)
이명아(어학(중), 수도권:국민대)	오영미(문화, 충청:한국교통대)
송현정(언어교육(한), 제주:제주대)	김 호(역사, 수도권:서울대)
박성일(언어교육(한·중), 수도권:한국체대)	유정은(철학, 강원:강원대)
민재원(문학교육, 전라:전북대)	신경수(한국학, 수도권:한국학중앙연구원)
최호영(현대문학(한), 강원:강원대)	이혜영(중국학, 해외:중국해양대)
정우탁(고전문학(한), 경상:경북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 : 유성선(강원대)

위원(14) : <u>김유중(서울대)</u>	<u>이선이(경희대)</u>	<u>정래필(영남대)</u>	<u>곽명숙(아주대)</u>
<u>김형규(아주대)</u>	<u>최호영(강원대)</u>	<u>김진규(가천대)</u>	김정우(이화여대)
박성일(한국체대)	서혁(이화여대)	이은희(한성대)	임치균(한국학중앙연구원)
전공(국민대)	조원일(전남대)		

*밑줄 당면직: 학회장, 편집위원장, 행정부회장, 총무이사, 연구이사, 편집이사

한중인문학연구 제79집

2023年 6月 27日 印刷

2023年 6月 30日 刊行

發行人 : 김 유 중

事務室 :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관악캠퍼스 1동 314호

한중인문학회 김유중

T. 02-880-6050 F. 02-878-1246

<http://kochih.kr/>

E-mail : kochih@hanmail.net

製作處 : 한유북스 E-mail : hanyubooks@naver.com

값 15,000원